2021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CONTENTS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제1장 조사개요 ····· 1

제2장 주요결과 요약 ····· 5

제3장 조사결과 분석 ····· 23

Ⅰ.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23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 23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 25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 27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29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31
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 33
7.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 ····· 35
8.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 37
8-1. 안보적 측면 ····· 37
8-2. 경제적 측면 ····· 39
9.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41
9-1. 미국 ····· 41
9-2. 일본 ····· 43
9-3. 중국 ····· 45
9-4. 러시아 ····· 47
1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49
10-1. 미국 ····· 49
10-2. 일본 ····· 51
10-3. 중국 ····· 53
10-4. 러시아 ····· 55
11.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57
11-1. 미국 ····· 57
11-2. 일본 ····· 59
11-3. 중국 ····· 61
11-4. 러시아 ····· 63
1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 65
13.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 67
14. 한 · 미 · 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 69

CONTENTS

Ⅱ.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 71
1. 한·미 동맹관계 ····· 71
2.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 73
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75
3-1. 군사동맹 강화 ····· 75
3-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 77
3-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 79
3-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 81
4.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 83
5. 주한미군 주둔 이유 ····· 85
6. 주한미군 주둔시기 ····· 87
7.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 89
8. 한·미동맹 관련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 91
9.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 93
10.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 95
11.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 97
12.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 99
1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 101

Ⅲ. 북한 관련 사항 ····· 103
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 103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 105
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 107
4.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 109
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 111
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 113
7.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 ····· 115
8.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 117
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 119
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 121
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 123
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 125
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 127
14.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 129
15.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 131
16. 한반도 통일 전망 ····· 133
17. 한반도 통일 방식 ····· 135

CONTENTS

Ⅳ.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 ····· 141
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 141
2. 현재 병무 부조리 ····· 143
3.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 145
3-1.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 147

Ⅴ.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149
1. 우리 군의 각종 발표 신뢰도 ····· 149
1-1. 우리 군의 각종 발표 신뢰하지 않는 이유 ····· 151
2. 군에 대한 신뢰도 ····· 153
2-1.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 155
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 157
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 159
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 161
6.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 163
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 165
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 167
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 169
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 171
11. 위험 지역 파병 ····· 173
12.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 175
13.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177
13-1. 테러 ····· 177
13-2. 해적, 마약, 조직범죄 ····· 179
13-3. 자연재해 ····· 181
13-4. 사이버테러 ····· 183
13-5. 감염병 ····· 185
14.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 187
15.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 189
16.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 191
17.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 193
18.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195
18-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 195
18-2. 국방백서 ····· 197
18-3. 국방일보 ····· 199
18-4. 국방FM(라디오) ····· 201
18-5. 국방TV(텔레비전) ····· 203
18-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 205

제4장 시계열 GAP분석 ····· 209

부록 설문지 ····· 233

제 1 장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조사 개요

제1장 조사개요

Ⅰ. 조사목적

본 조사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에 관한 조사로서, 안보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조사방법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국방·안보 전문가
표본수	1,200명	60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웹조사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 추출 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2.76%p(일반국민)	
조사기간	2021년 8월 12일 ~ 9월 17일	

Ⅲ.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분석됨.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Ⅳ.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1,260	10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5.2
	전문가	60	4.8
[일반국민]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0.3
	중	479	39.9
	하	118	9.8
성별	남성	720	60.0
	여성	480	40.0
연령별	20대 이하	235	19.6
	30대	198	16.5
	40대	247	20.6
	50대	252	21.0
	60대 이상	268	22.3
지역별	서울	226	18.8
	경기/인천	384	32.0
	부산/울산/경남	184	15.3
	대구/경북	117	9.8
	광주/전라	112	9.3
	대전/충청/세종	129	10.8
	강원/제주	48	4.0
지역크기	대도시	537	44.8
	중·소도시	601	50.1
	읍/면	62	5.2
직업별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14	1.2
	자영업자	85	7.1
	판매/서비스직	85	7.1
	기능/숙련공	42	3.5
	일반 노무직	49	4.1
	사무/기술직	460	38.3
	경영/관리직	66	5.5
	전문/자유직	72	6.0
	전업주부	136	11.3
	학생	62	5.2
	무직	122	10.2
	기타	7	0.6
학력별	중졸이하	6	0.5
	고등학교	185	15.4
	전문대	162	13.5
	4년제 대학교	723	60.3
	대학원 이상	124	10.3
생활수준별	상	133	11.1
	중	538	44.8
	하	529	44.1

제 2 장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주요결과 요약

제2장 주요결과 요약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국가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8.6%로 '안정적'(34.7%)보다 3.9%p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도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인식은 1.6%p 감소하였음.(2020년 36.3%)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2.8%로 '낮다'(31.8%) 보다 1.0%p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도에 비해 '높다'라는 응답이 8.0%p 감소하였음.(2020년 40.8%)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북한의 군사력 위협'(7.5%p), '북한의 체제불안'(1.0%p)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한미 동맹관계 악화'(0.5%p)라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국내 정치의 불안'(2.6%p)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국내 경제 불안'이라는 응답은 18.1%p 감소하였음.

◎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이 36.3%로 높게 나타났고, 2020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3.1%p), '한·미동맹 체제 강화'(10.5%p)라는 응답은 증가하였고, '남북교류 협력확대'(8.9%p)라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9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0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7.9%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7.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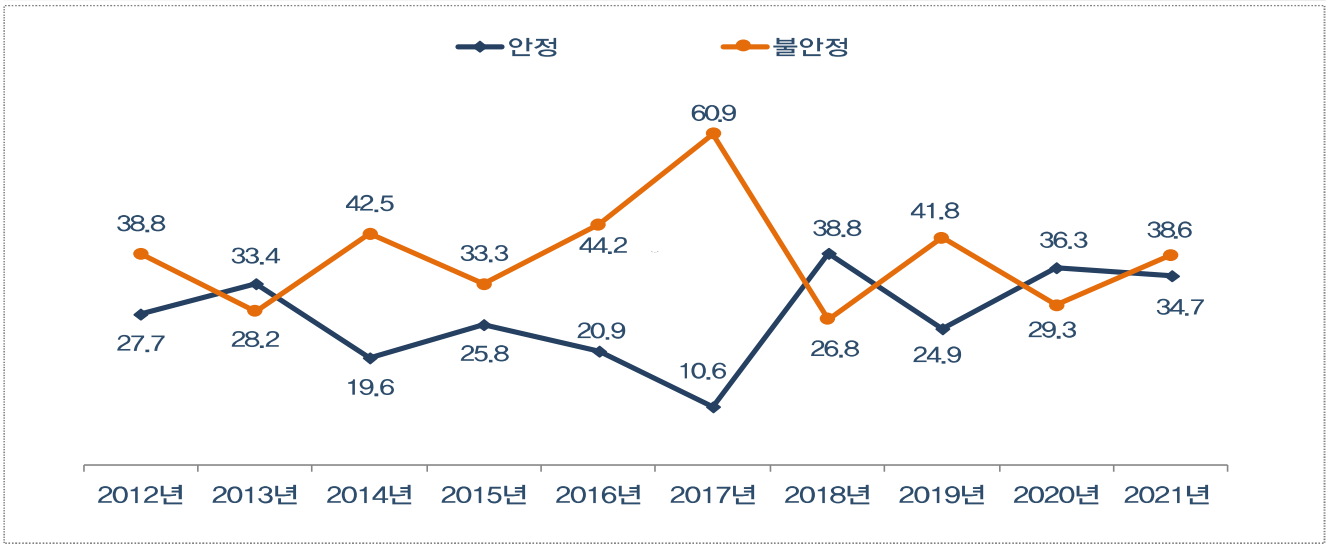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7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0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24.7%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이 18.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8.6%로 '안정적'(34.7%)이라는 응답보다 3.9%p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추세비교 결과 2020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4.7%로 1.6%p 감소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8.6%로 9.3%p 증가함.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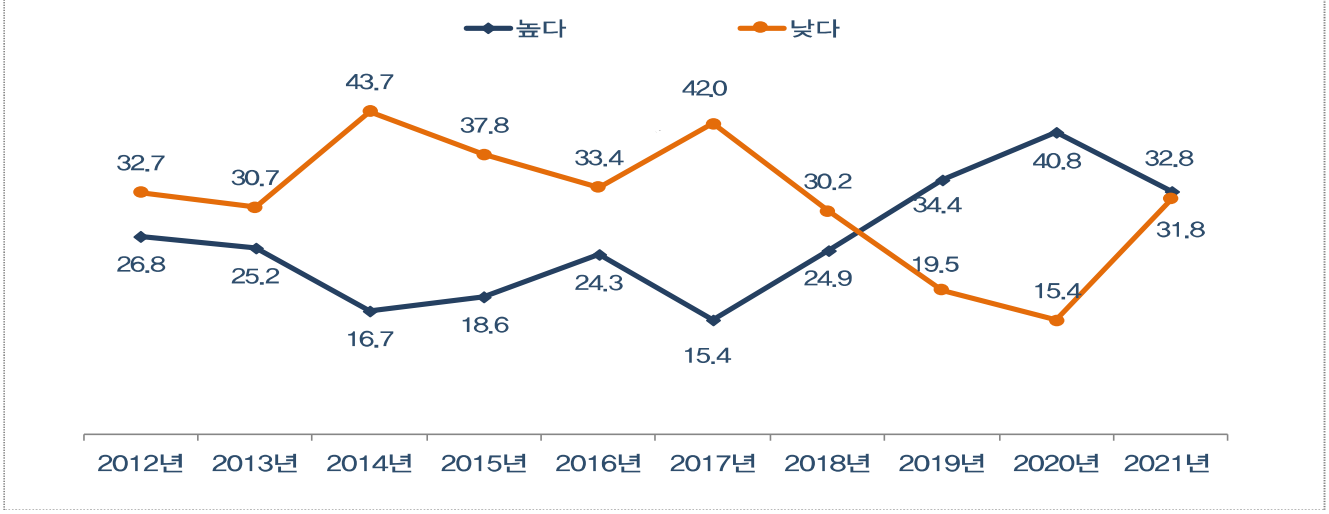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2.8%로 '낮다'(31.8%) 보다 1.0%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8.0%p 감소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16.4%p 증가함.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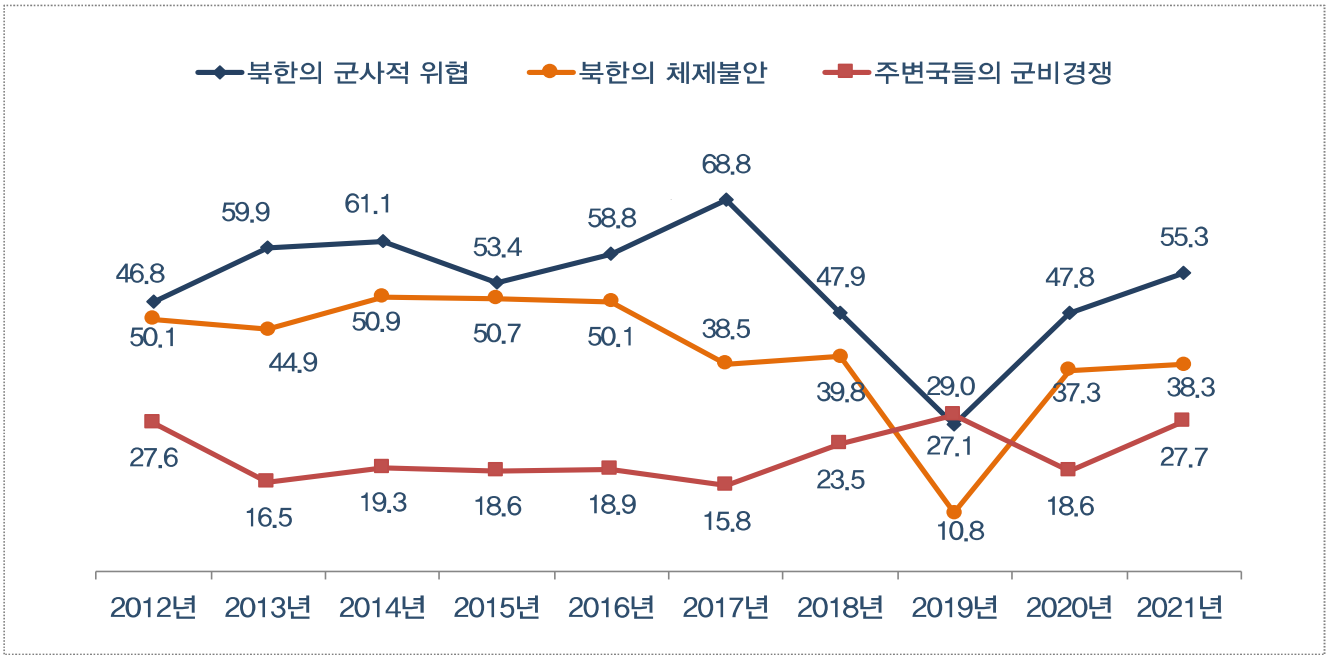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불안'(38.3%),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2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7.5%p, '북한의 체제불안'이라는 응답은 1.0%p 증가함.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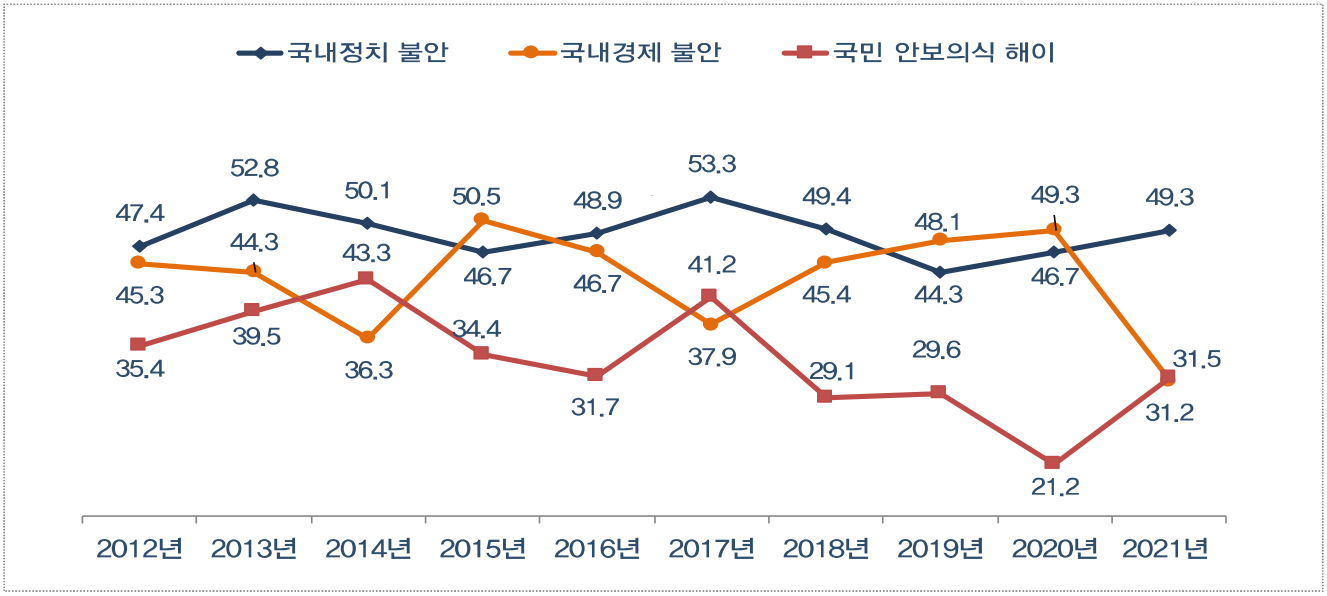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념갈등'(32.3%), '국내 안보의식 해이'(3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2.6%p 증가하였고, '국내 경제 불안'이라는 응답은 18.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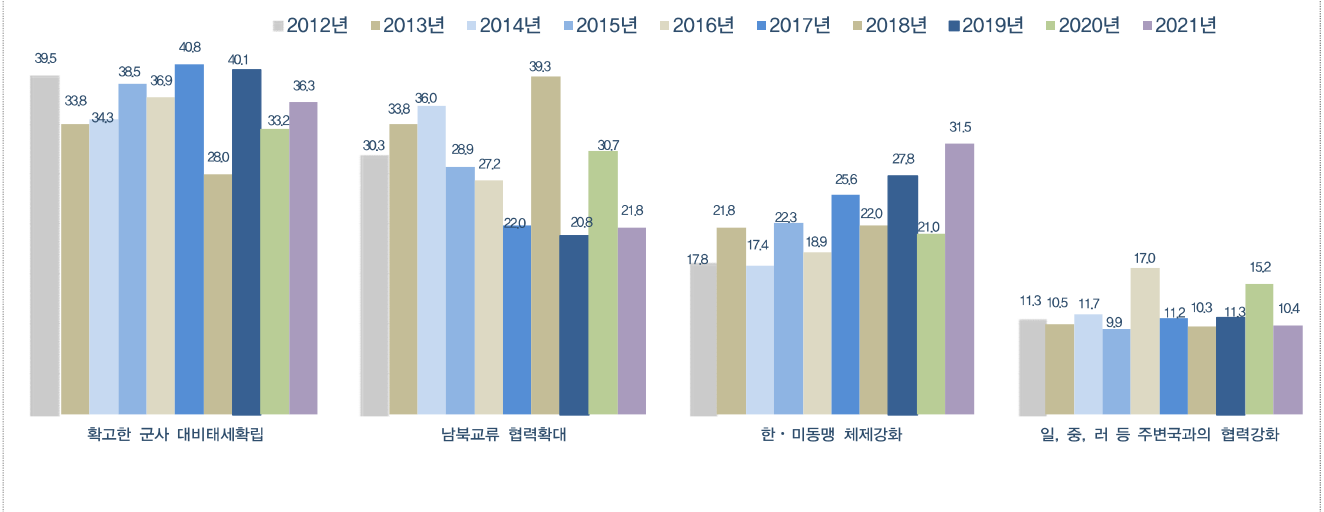


●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체제 강화'(31.5%), '남북 교류협력 확대'(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응답은 3.1%p 증가하였고,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응답은 8.9%p 감소하였음.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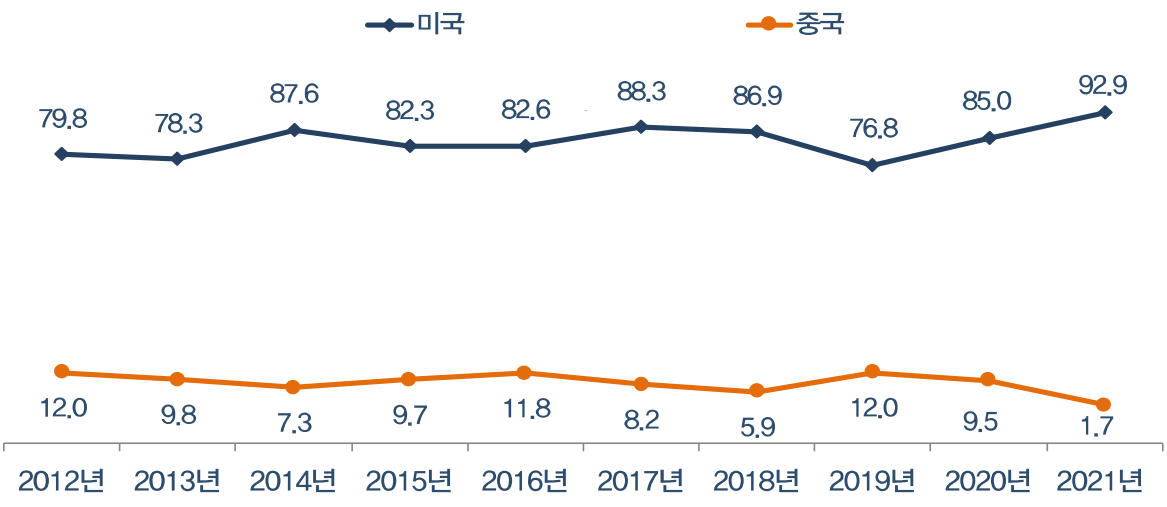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9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7%), '러시아'(1.3%), '일본'(1.1%) 순으로 나타남. (기타 3.1%)

● 2020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7.9%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7.8%p 감소함.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귀하는 안보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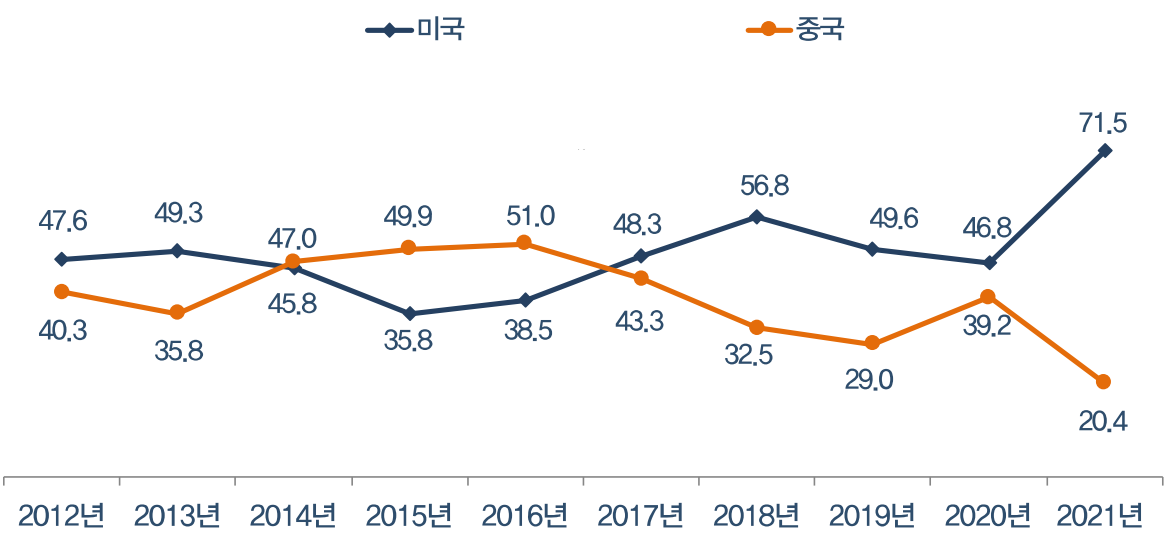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7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20.4%), '일본'(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24.7%p로 크게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18.8%p 감소함.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귀하는 경제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저해요인**으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42.8%),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2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4.0%p 증가함. (2020년 74.8%)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우리나라가 우위'라는 응답이 52.3%로 '북한우위'(26.0%)라는 응답보다 26.3%p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우리나라 우위'라는 응답은 12.3%p 증가함.(2020년 40.0%)

◎ **주한미군 주둔 시기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이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5%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8.8%p 증가함. (2020년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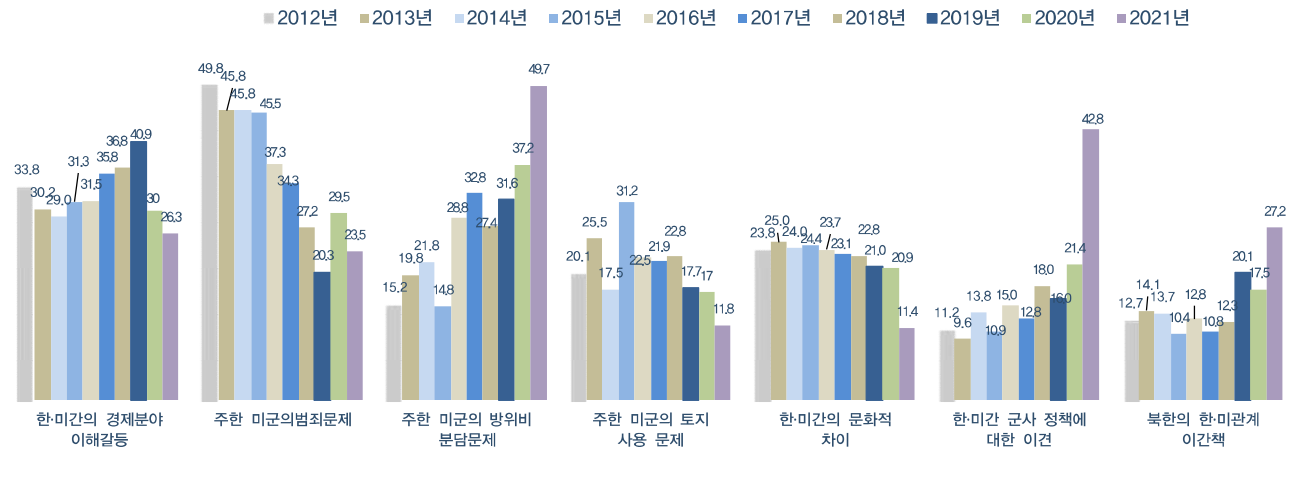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7.1%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11.0%p 증가함.(2020년 46.1%)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 동맹**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25.3%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5.4%p 증가함.(2020년 19.9%)

●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4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42.8%),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2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 · 미 동맹관계 유지의 저해요인

한 · 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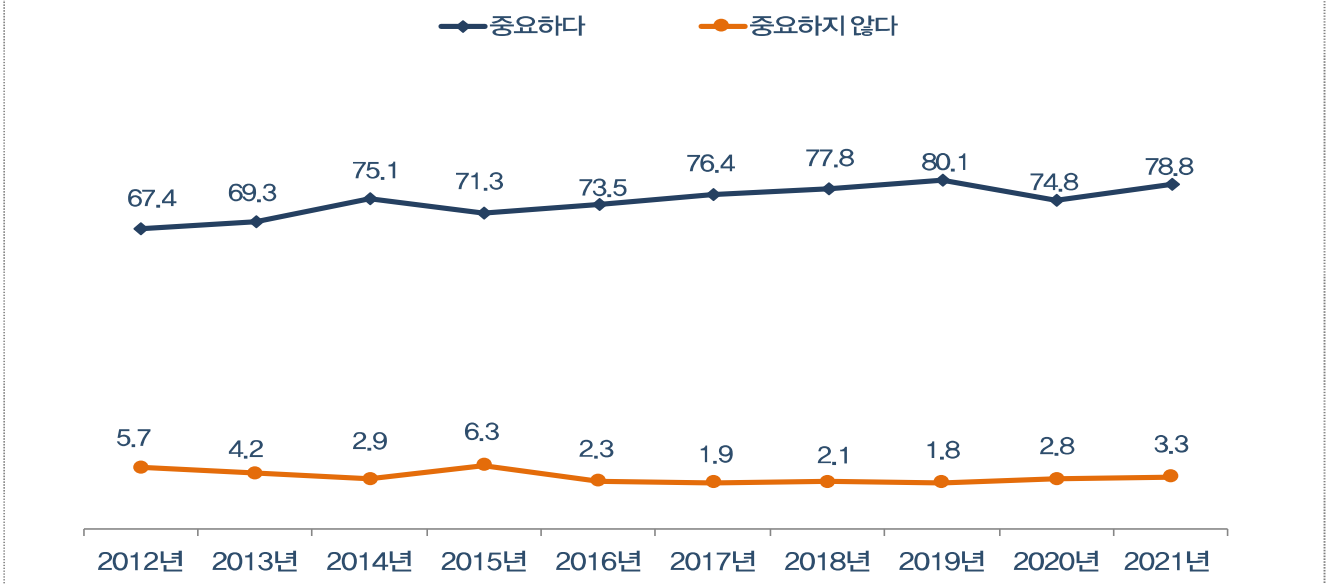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8.8%로, '중요하지 않다'(3.3%)보다 75.5%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4.0%p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있음.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5%p 증가함.

주한미군의 중요성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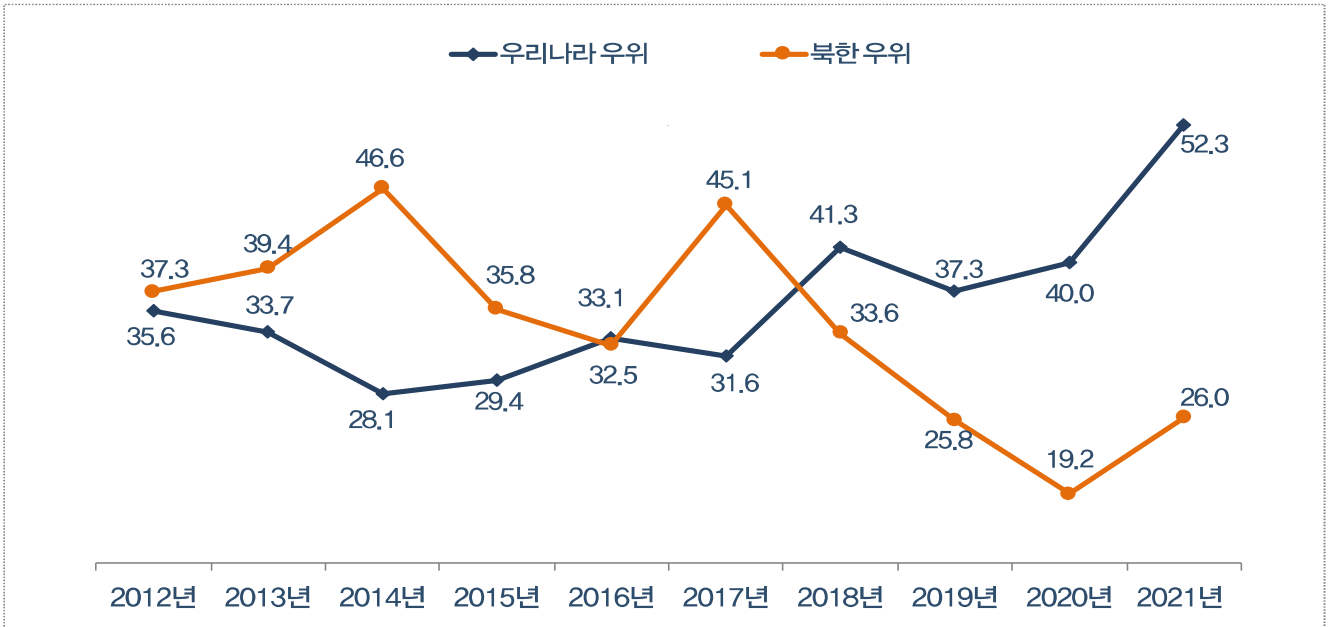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라는 응답이 52.3%로, '북한이 우위'(26.0%)라는 응답보다 26.3%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우리나라 우위'라는 응답은 12.3%p,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6.8%p 증가함.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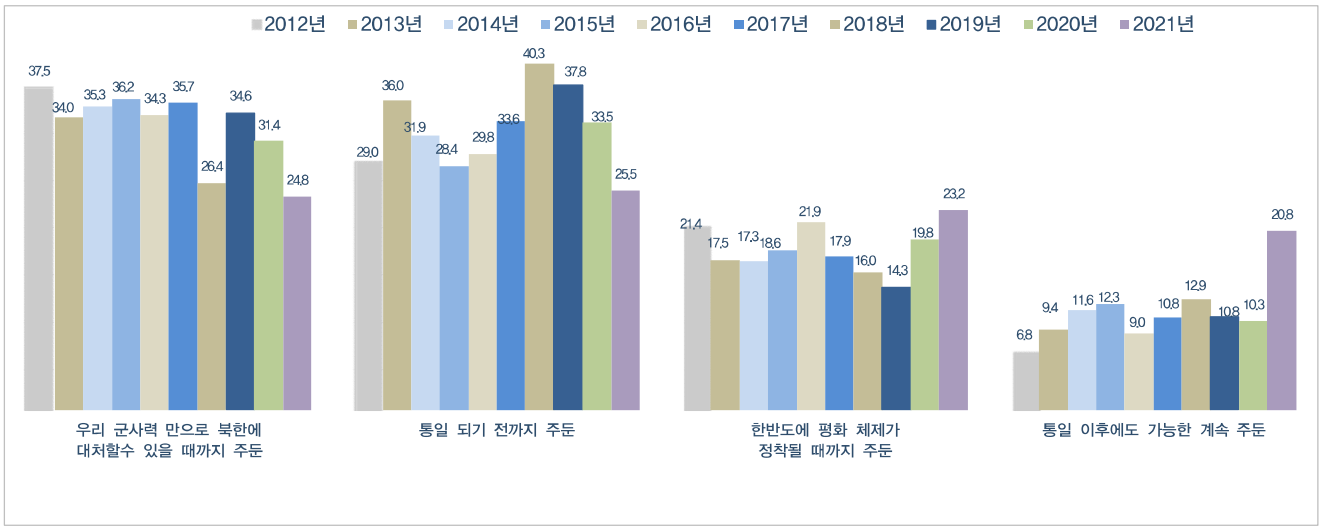


●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8.0%p 감소함.

주한미군 주둔 시기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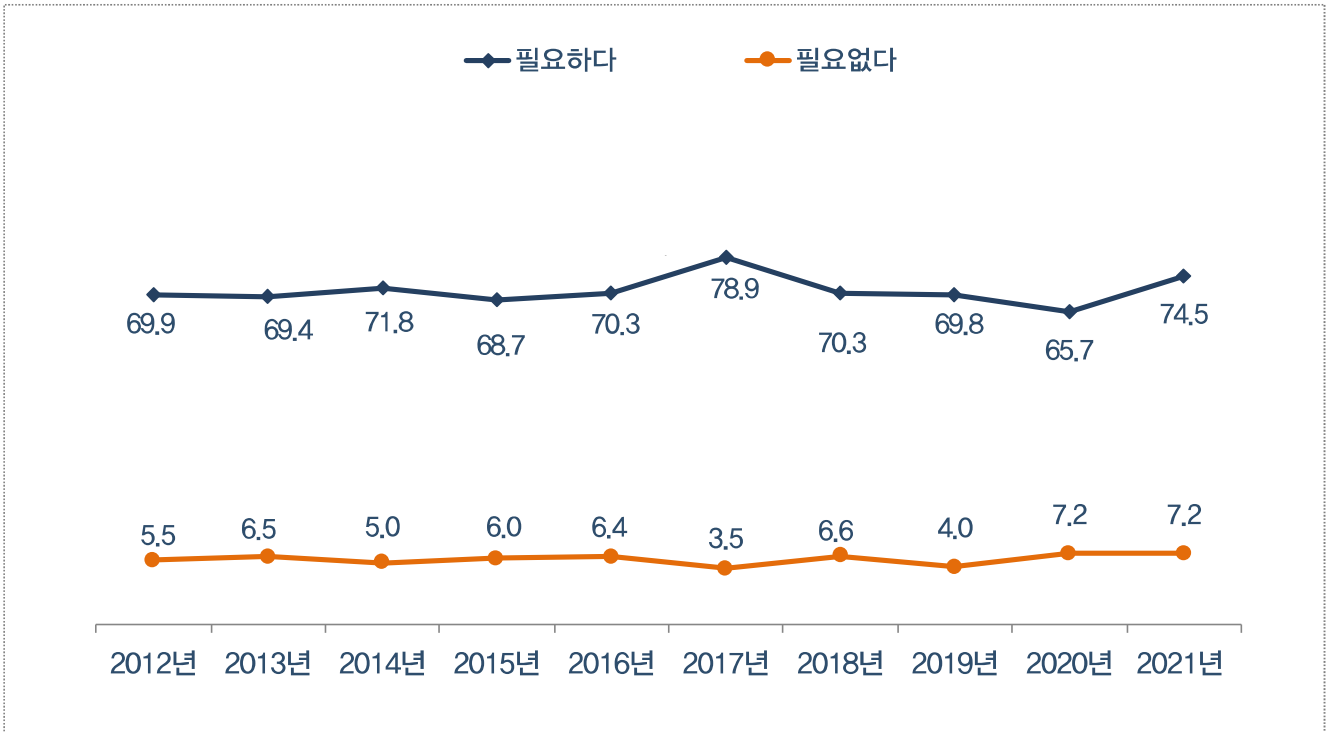


●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5%로, '필요없다'(7.2%)보다 67.3%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필요하다'는 응답은 8.8%p 증가함.

한 · 미 연합 군사훈련 필요성

우리 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한 • 미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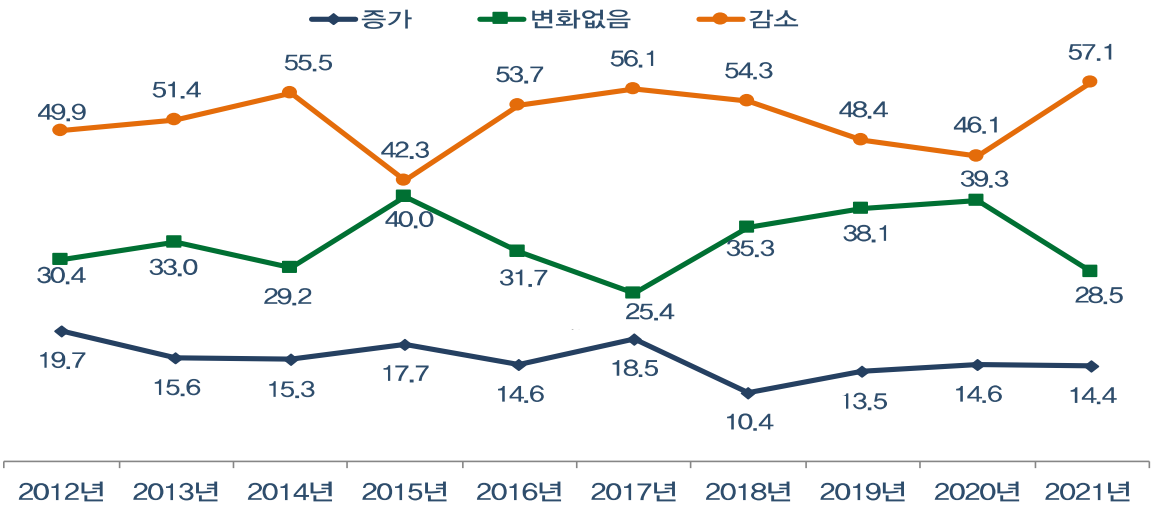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57.1%로, '증가할 것이다'(14.4%)는 응답보다 42.7%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은 11.0%p 증가함.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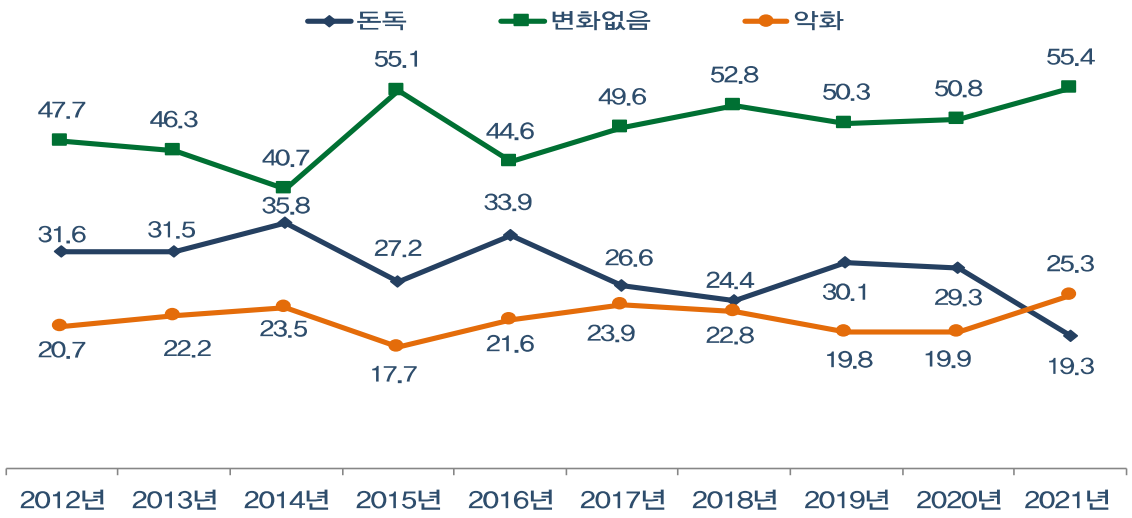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25.3%로, '돈독해질 것이다'(19.3%)보다 6.0%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은 5.4%p 증가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 • 미동맹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 • 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Ⅲ. 북한 관련 사항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45.7%로 높게 나타남.

◎ **북한의 도발 가능성(향후 2~3년 이내)**에 대해 '높다'는 응답이 35.2%로, '낮다'(35.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2020년 대비 '높다'라는 응답은(2020년 30.3%) 4.7%p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2020년 33.8%)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4.6%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32.4%)보다 12.2%p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2%p(2020년 47.8%) 감소하였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3.1%p(2020년 19.3%) 증가함.

◎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6.9%로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5.2%p 증가함. (2020년 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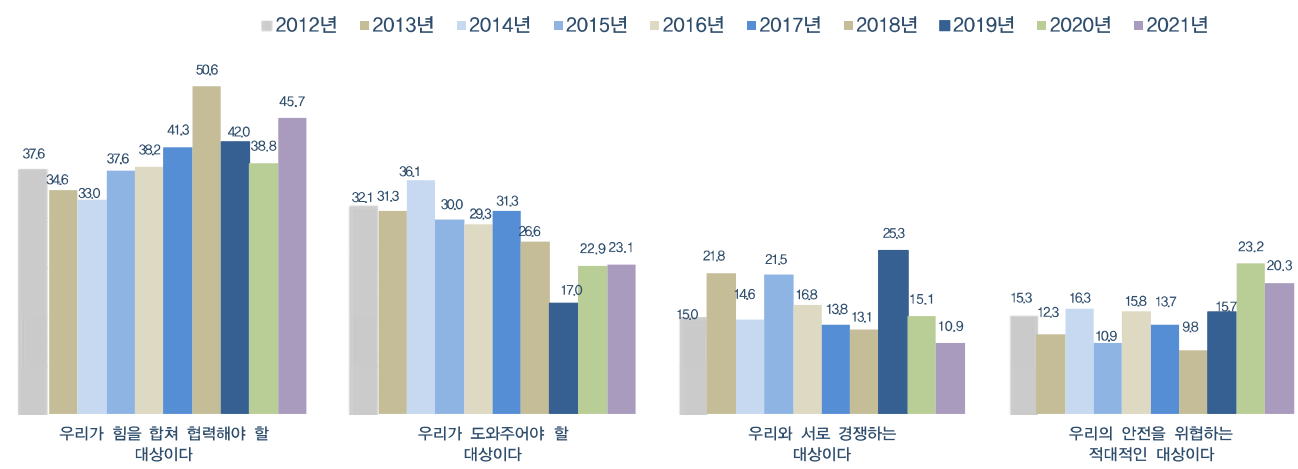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18.5%),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2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은 6.9%p 증가함.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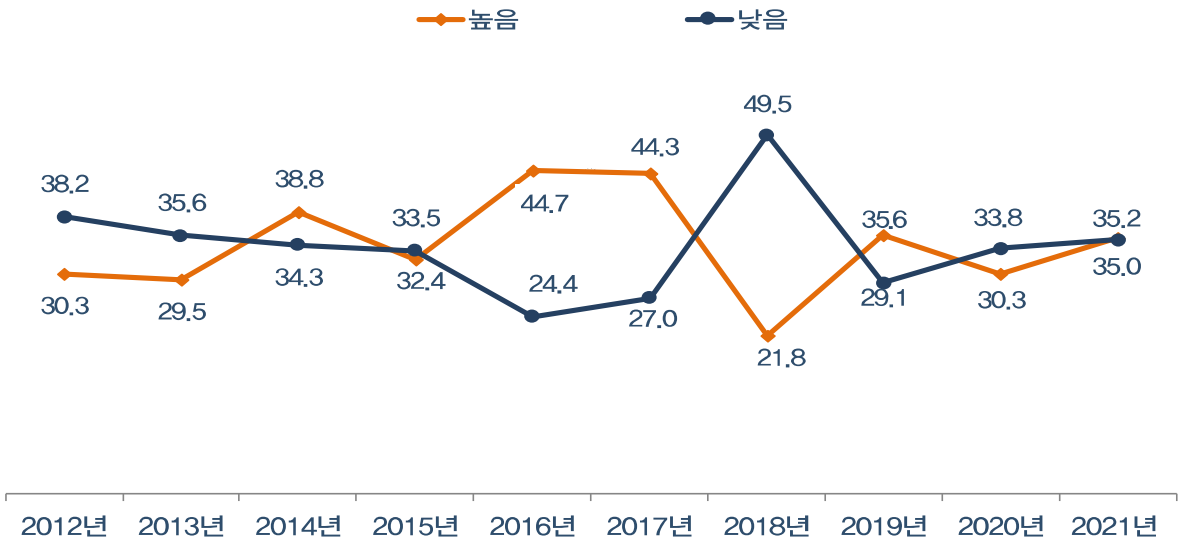


●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이내)이 '높다'는 응답이 35.2%로, '낮다'(35.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이내)이 '높다'는 응답은 4.7%p 증가함.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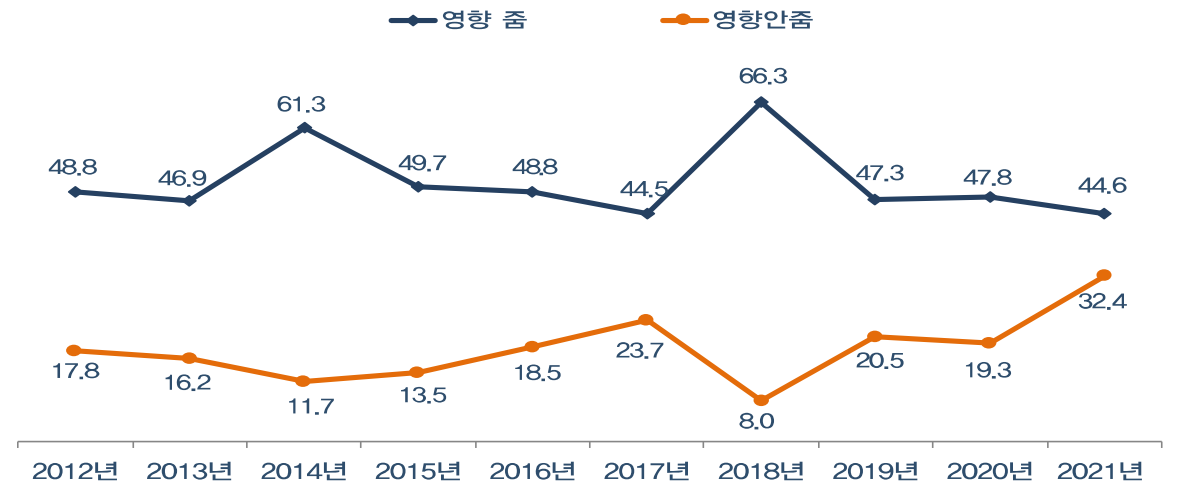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4.6%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32.4%)보다 12.2%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2%p로 다소 감소함.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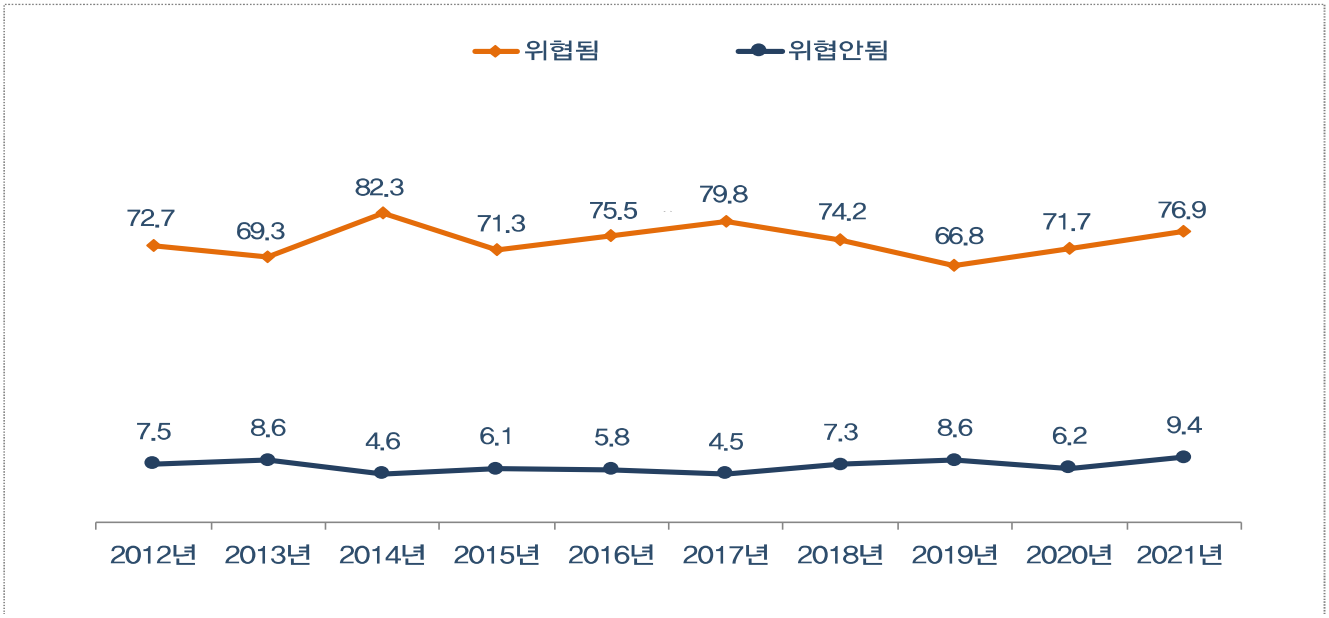


●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6.9%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9.4%)보다 67.5%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5.2%p 증가함으로써 여전히 북한 핵무기 보유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나라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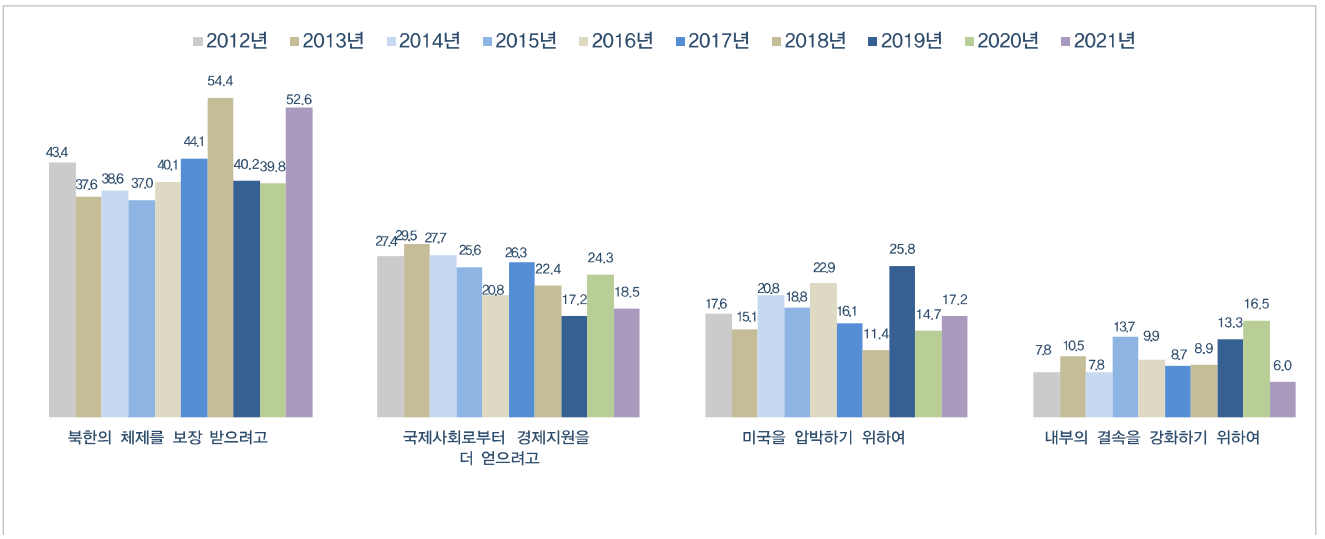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은 12.8%p 증가함.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Ⅳ.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국방부 각종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3%로, '신뢰한다'(23.3%)보다 48.0%p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9%p 증가하였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33.8%p 감소함.

-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7.8%로, '신뢰하지 않는다'(35.1%)보다 22.7%p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6%p 감소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6%p 증가하였음.

-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부들의 도덕성'(48.4%), '군의 폐쇄성'(3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8.6%로, '공정하다'(17.7%)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77.4%로, '효율적이다'(13.7%)보다 63.7%p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은 28.7%p 증가하였고,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30.5%p 감소함.

◎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8%로, '줄여야 한다'(16.3%) 보다 24.5%p 높게 나타남. 2020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2%p,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첨단무기 체계확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고,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27.3%),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66.6%로, '반대한다'(6.5%)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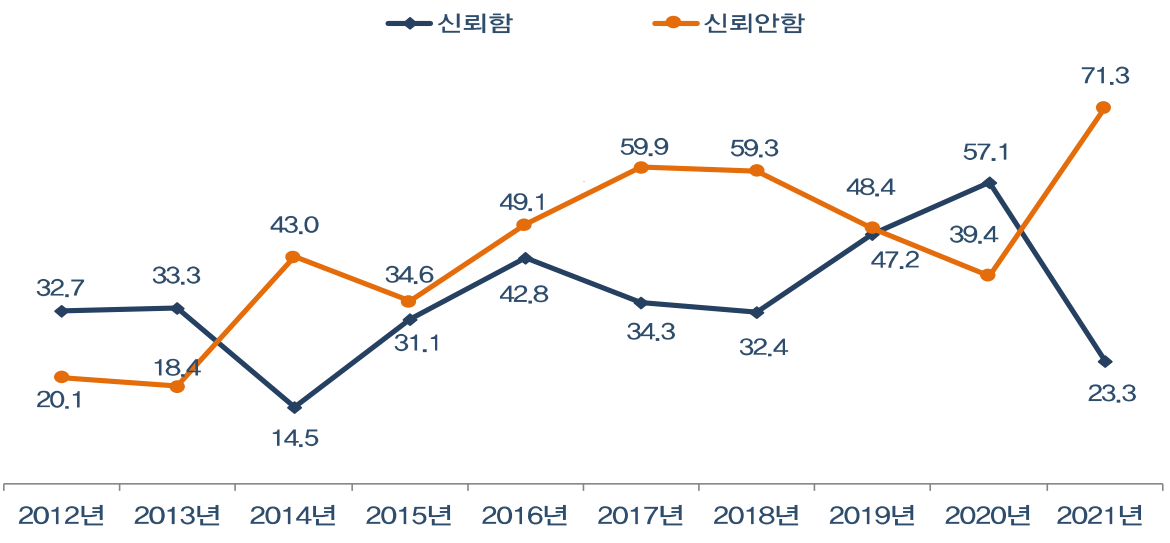
● 국방부의 각종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3%로, '신뢰한다'(23.3%)보다 48.0%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9%p 증가함.

● 2020년에 비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역전되었음.

국방부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성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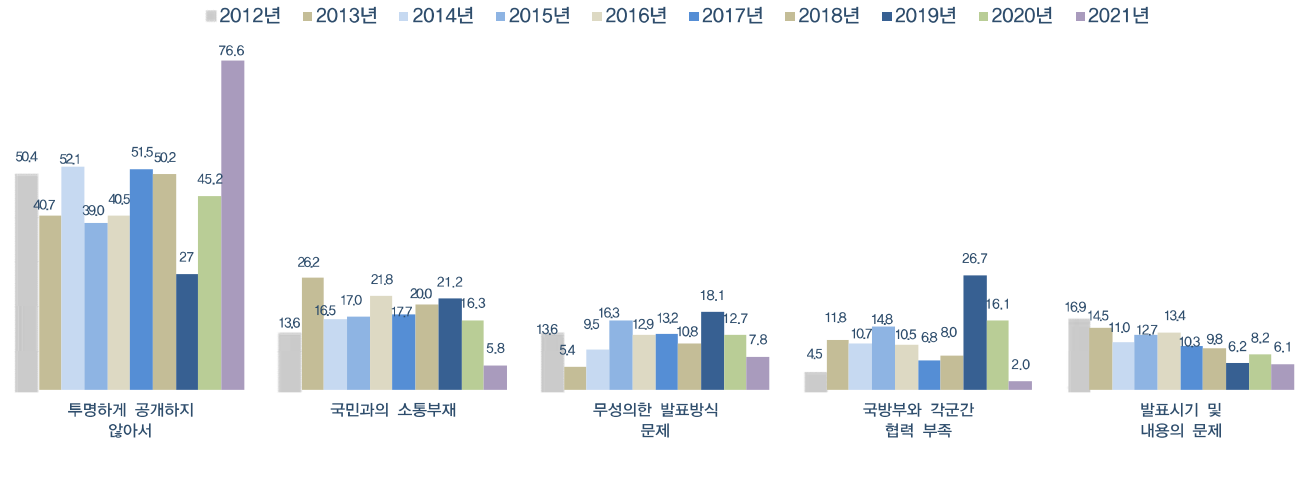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7.8%), '국민과의 소통부재'(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31.4%p 증가함.

국방부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귀하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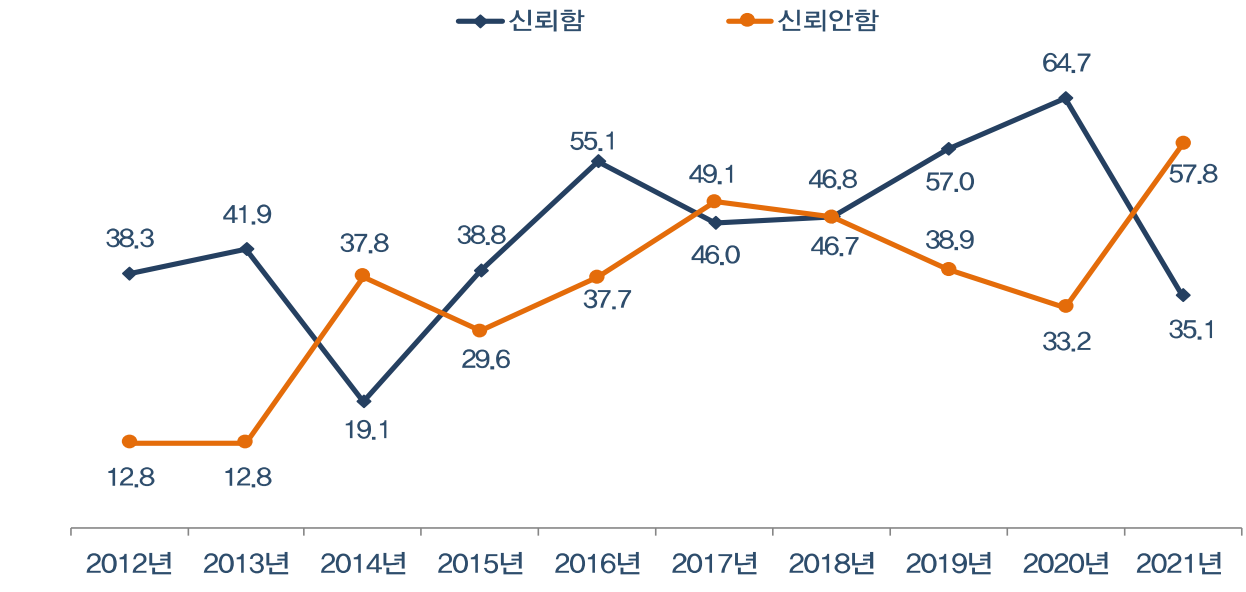


● 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57.8%)는 응답이 '신뢰한다'(35.1%)보다 22.7%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4.6%p 증가함.

군에 대한 신뢰도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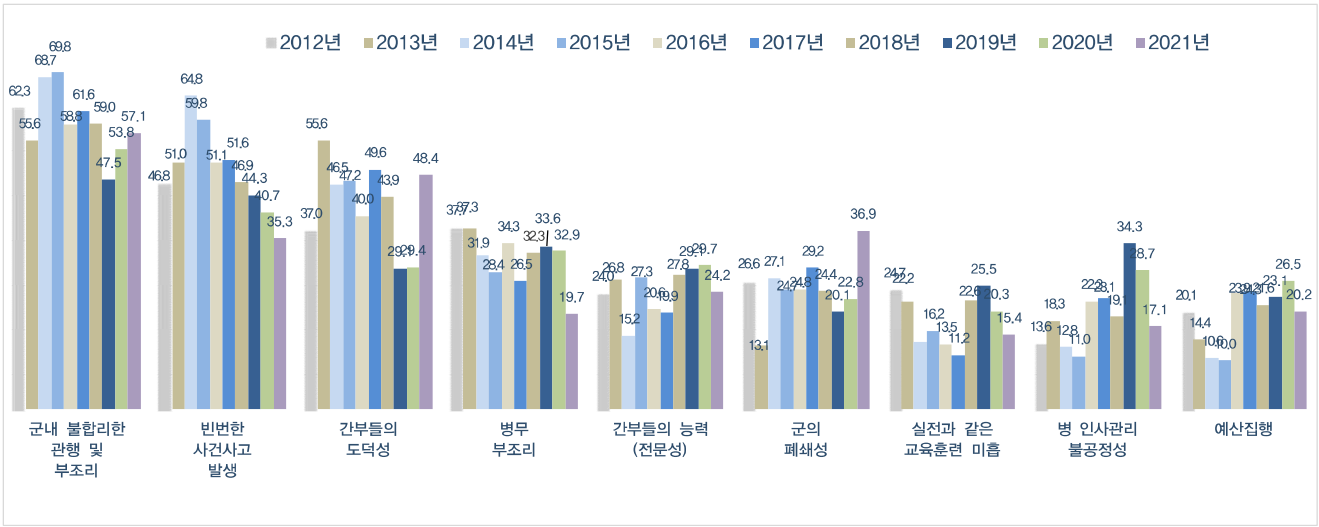


●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부들의 도덕성'(48.4%), '군의 폐쇄성'(3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은 3.3%p 증가함.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귀하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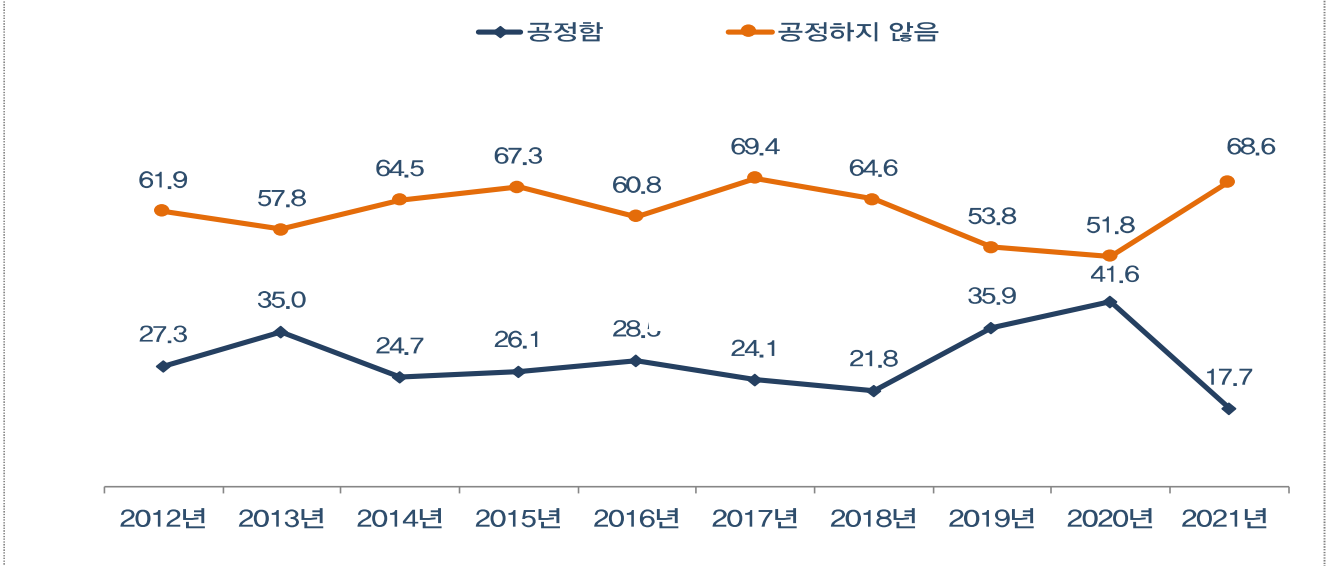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8.6%로, '공정하다'(17.7%)보다 50.9%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6.8%p 증가함.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 추진시 무기선정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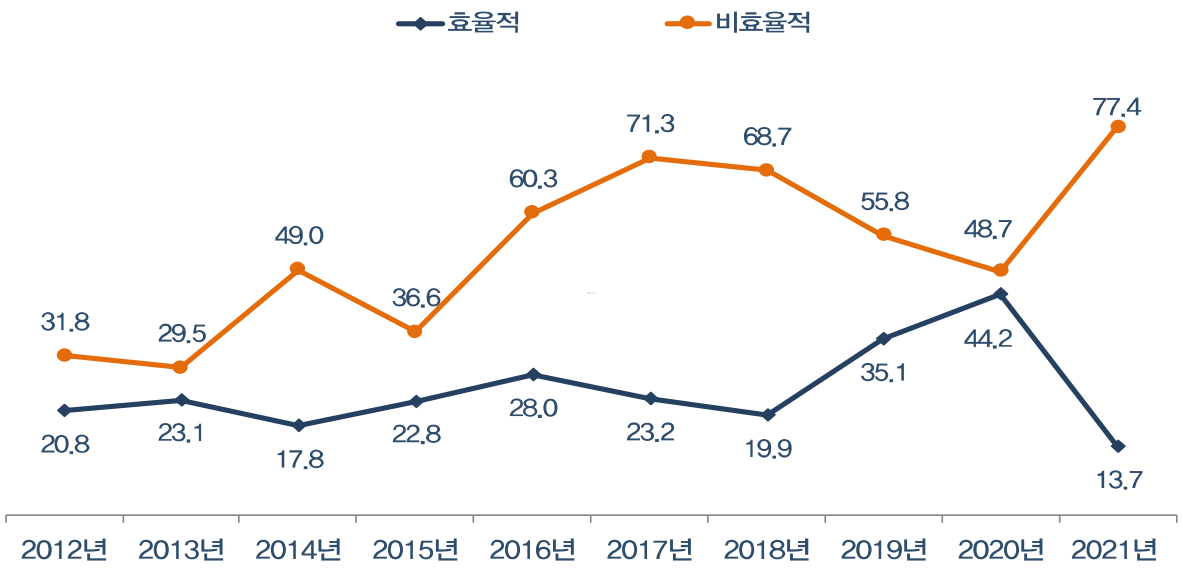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77.4%로, '효율적이다'(13.7%)보다 63.7%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28.7%p 증가함.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국방부는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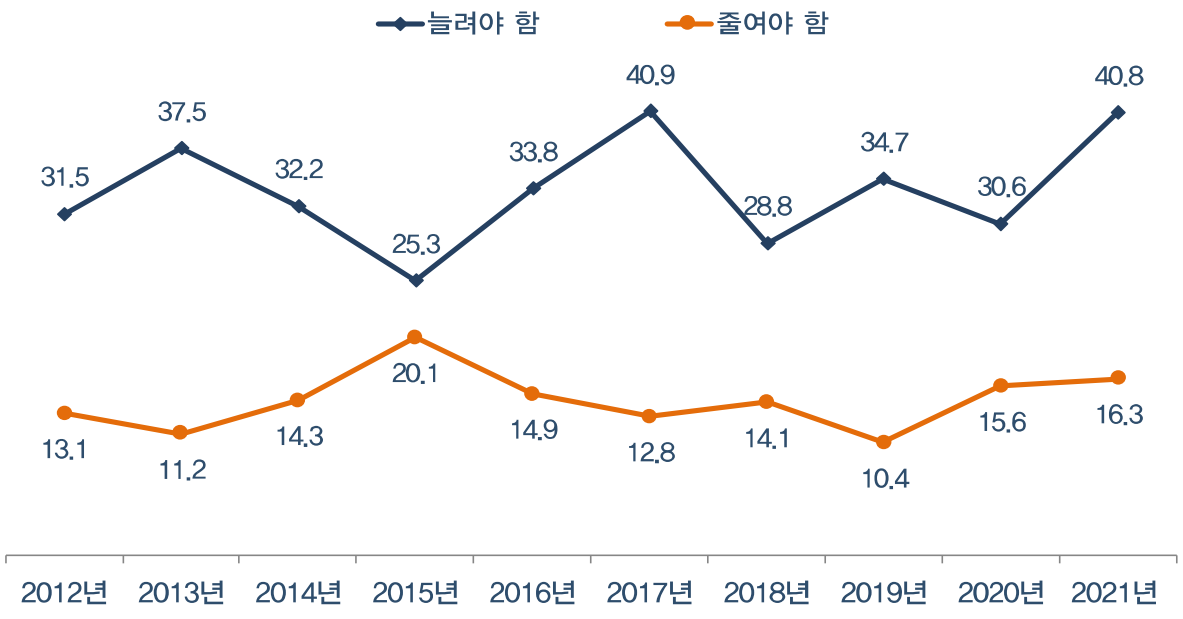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8%로, '줄여야 한다'(16.3%)보다 24.5%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2%p 증가함.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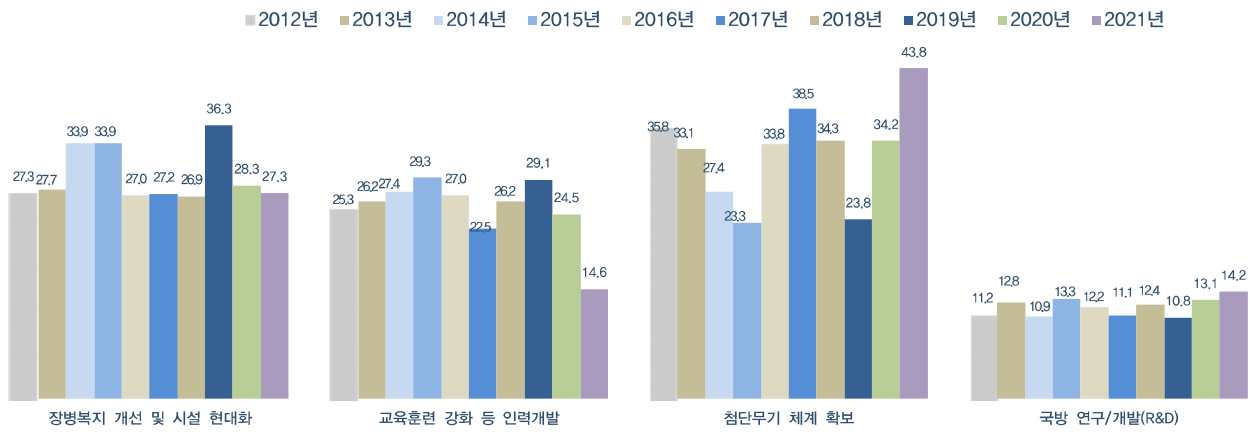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7.3%),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9.6%p 증가함.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은 국방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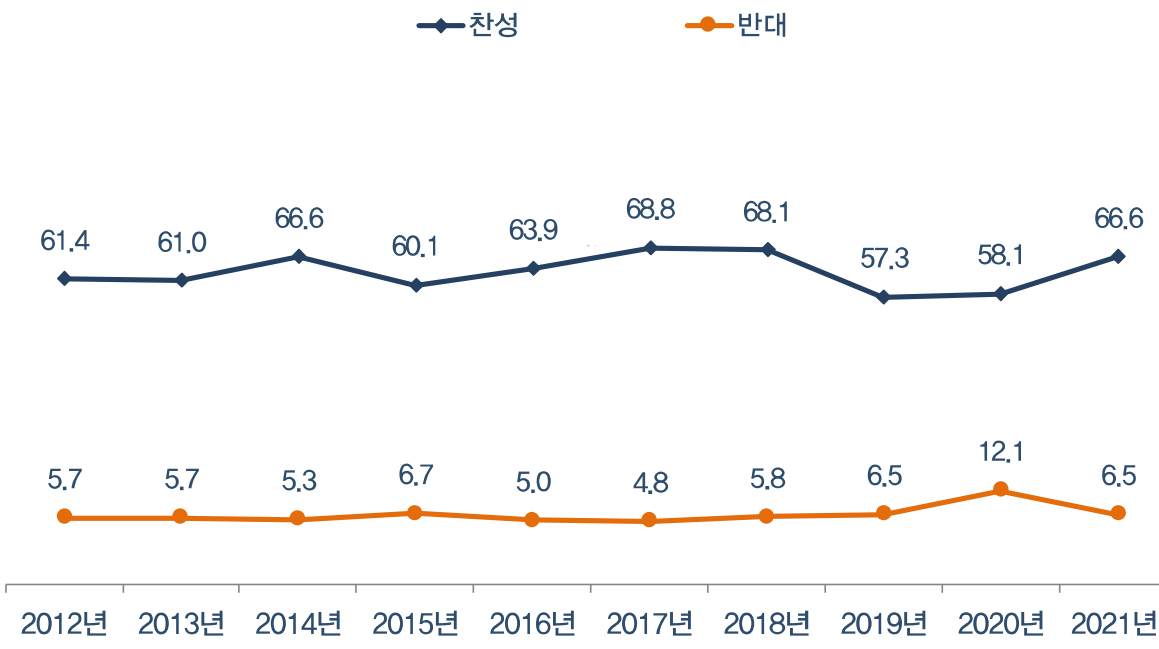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6.6%로, '반대한다'(6.5%)보다 60.1%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8.5%p 증가함.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3 장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조사결과 분석

제3장 조사결과 분석

Ⅰ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34.7%, 전문가 2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8.6%로 '안정적'(34.7%)보다 3.9%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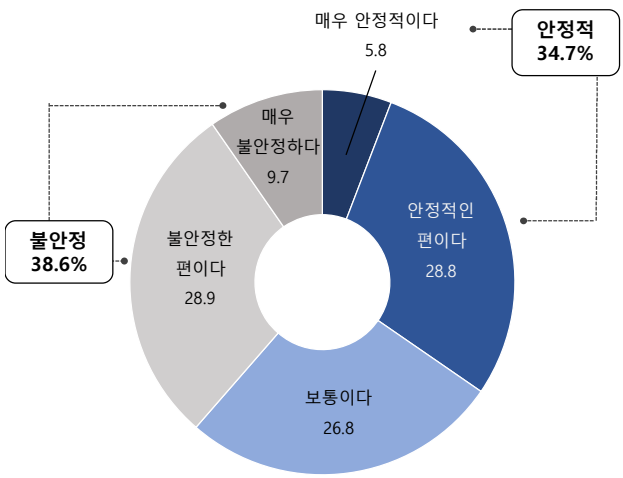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4.7%로 1.6%p(2020년 36.3%) 감소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8.6%로 9.3%p(2020년 29.3%) 증가함.

● **[전문가]**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이 40.0%로 '안정적'(26.7%)이라는 응답보다 13.3%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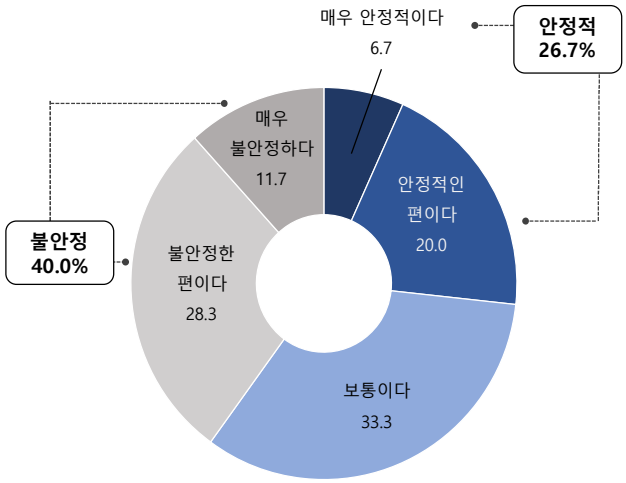
○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라고 인식함.

〈그림 1-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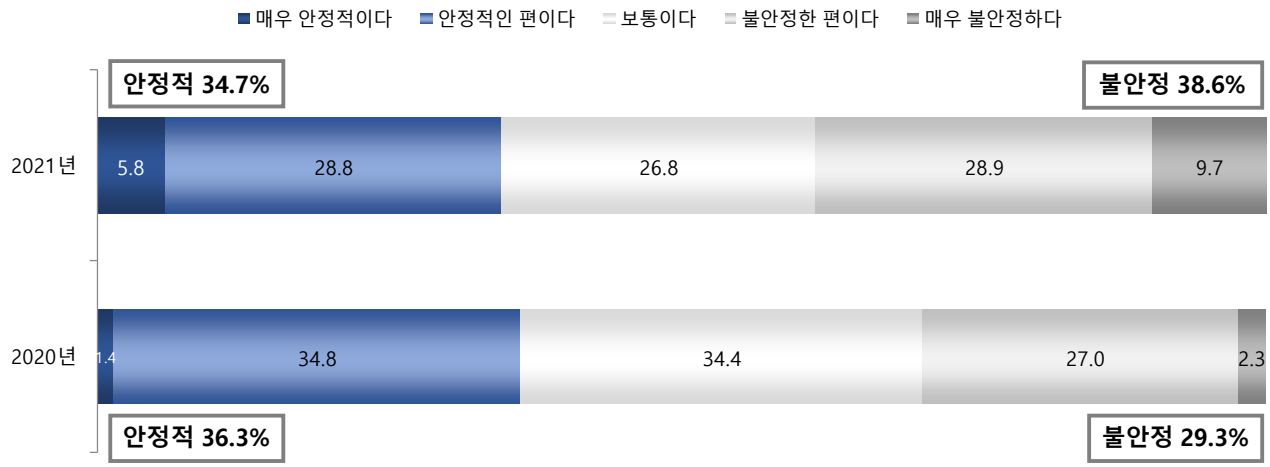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본인의 안보수준의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단위[%]		사례수(명)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종합		
								안정	보통	불안정
전체		1,260	5.9	28.4	27.1	28.9	9.8	34.3	27.1	38.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8	28.8	26.8	28.9	9.7	34.7	26.8	38.6
	전문가	60	6.7	20.0	33.3	28.3	11.7	26.7	33.3	4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9.3	34.2	18.4	26.0	12.1	43.4	18.4	38.1
	중	479	2.7	26.9	35.9	28.0	6.5	29.6	35.9	34.4
	하	118	0.8	9.3	32.2	47.5	10.2	10.2	32.2	57.6
성별	남성	720	6.8	30.1	24.9	26.5	11.7	36.9	24.9	38.2
	여성	480	4.4	26.9	29.6	32.5	6.7	31.3	29.6	39.2
연령별	20대 이하	235	8.1	21.3	33.2	29.8	7.7	29.4	33.2	37.4
	30대	198	6.1	32.3	24.2	29.3	8.1	38.4	24.2	37.4
	40대	247	6.5	38.5	26.3	24.3	4.5	44.9	26.3	28.7
	50대	252	5.2	33.7	28.2	25.0	7.9	38.9	28.2	32.9
	60대 이상	268	3.7	19.4	22.0	35.8	19.0	23.1	22.0	54.9
지역별	서울	226	8.4	27.4	24.8	28.8	10.6	35.8	24.8	39.4
	경기/인천	384	6.3	32.6	25.5	26.8	8.9	38.8	25.5	35.7
	부산/울산/경남	184	3.3	22.8	25.5	34.2	14.1	26.1	25.5	48.4
	대구/경북	117	3.4	26.5	30.8	25.6	13.7	29.9	30.8	39.3
	광주/전라	112	4.5	40.2	27.7	21.4	6.3	44.6	27.7	27.7
	대전/충청/세종	129	7.0	24.8	28.7	34.1	5.4	31.8	28.7	39.5
	강원/제주	48	6.3	18.8	33.3	37.5	4.2	25.0	33.3	41.7
지역크기	대도시	537	6.5	25.3	26.4	31.5	10.2	31.8	26.4	41.7
	중소도시	601	5.3	32.4	25.8	27.1	9.3	37.8	25.8	36.4
	읍/면	62	4.8	24.2	38.7	24.2	8.1	29.0	38.7	32.3
직업별	농/어/임업	14	7.1	21.4	7.1	35.7	28.6	28.6	7.1	64.3
	자영업자	85	5.9	35.3	17.6	27.1	14.1	41.2	17.6	41.2
	판매/서비스직	85	9.4	20.0	30.6	24.7	15.3	29.4	30.6	40.0
	기능/숙련공	42	7.1	28.6	28.6	26.2	9.5	35.7	28.6	35.7
	일반 노무직	49	2.0	20.4	36.7	24.5	16.3	22.4	36.7	40.8
	사무/기술직	460	5.4	31.3	26.1	29.3	7.8	36.7	26.1	37.2
	경영/관리직	66	6.1	43.9	16.7	24.2	9.1	50.0	16.7	33.3
	전문/자유직	72	6.9	30.6	20.8	29.2	12.5	37.5	20.8	41.7
	전업주부	136	2.9	23.5	36.8	29.4	7.4	26.5	36.8	36.8
	학생	62	9.7	25.8	33.9	25.8	4.8	35.5	33.9	30.6
	무직	122	5.7	25.4	24.6	35.2	9.0	31.1	24.6	44.3
	기타	7	14.3	0.0	28.6	57.1	0.0	14.3	28.6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0.0	83.3	16.7	0.0	0.0	83.3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5.9	26.5	32.4	23.8	11.4	32.4	32.4	35.1
	전문대(중퇴/졸업)	162	5.6	26.5	29.6	30.9	7.4	32.1	29.6	38.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6.1	29.9	25.2	29.2	9.7	36.0	25.2	38.9
	대학원 이상	124	4.8	30.6	21.0	33.1	10.5	35.5	21.0	43.5
생활수준별	상	133	9.0	33.1	23.3	23.3	11.3	42.1	23.3	34.6
	중	538	6.1	32.5	26.6	27.3	7.4	38.7	26.6	34.8
	하	529	4.7	24.0	27.8	31.9	11.5	28.7	27.8	43.5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2.8%, 전문가 3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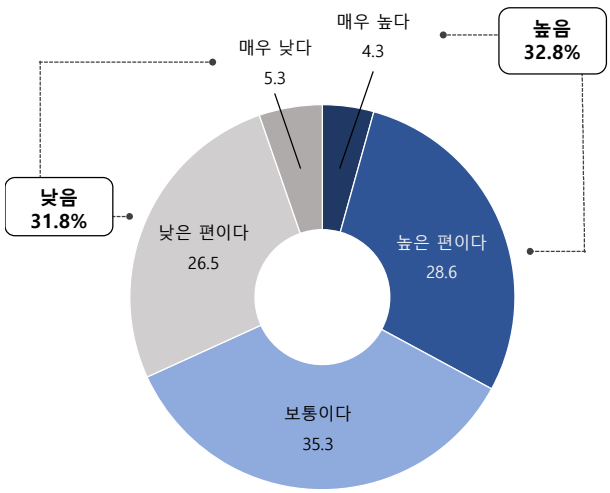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2.8%로 '낮다'(31.8%)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8.0%p(2020년 40.8%) 감소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31.8%로 16.4%p(2020년 15.4%)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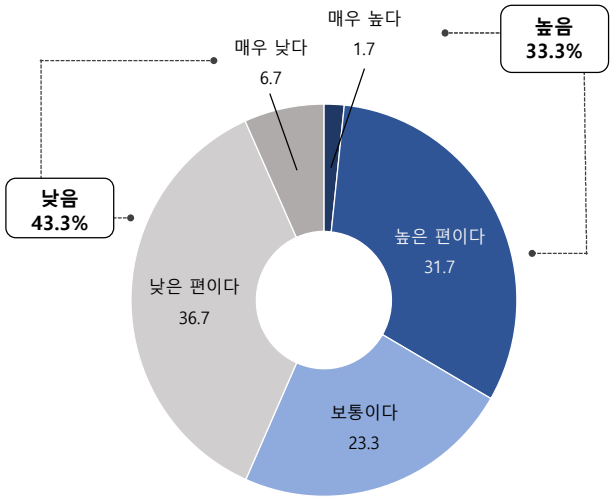
● **[전문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43.3%로, '높다'(33.3%)는 응답보다 10.0%p 높게 나타남.

〈그림 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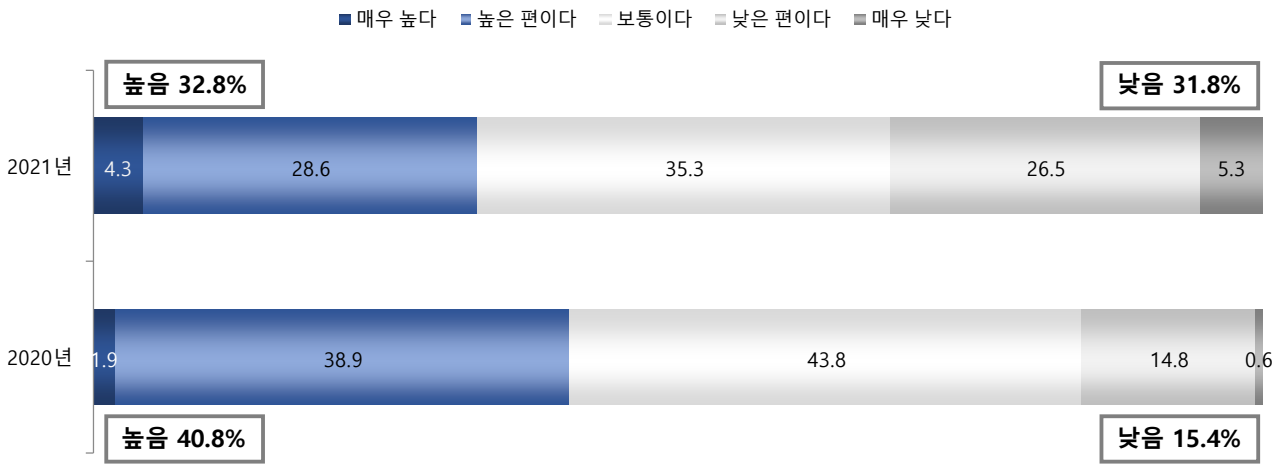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0	4.1	28.7	34.8	27.0	5.4	32.9	34.8	32.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	28.6	35.3	26.5	5.3	32.8	35.3	31.8
	전문가	60	1.7	31.7	23.3	36.7	6.7	33.3	23.3	4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8.5	45.8	21.1	18.4	6.3	54.2	21.1	24.7
	중	479	0.0	13.6	55.3	28.8	2.3	13.6	55.3	31.1
	하	118	0.0	1.7	27.1	58.5	12.7	1.7	27.1	71.2
성별	남성	720	5.4	30.0	32.8	25.3	6.5	35.4	32.8	31.8
	여성	480	2.5	26.5	39.2	28.3	3.5	29.0	39.2	31.9
연령별	20대 이하	235	3.0	18.7	41.7	30.2	6.4	21.7	41.7	36.6
	30대	198	3.5	22.7	40.4	28.3	5.1	26.3	40.4	33.3
	40대	247	4.0	32.0	40.1	21.5	2.4	36.0	40.1	23.9
	50대	252	5.2	32.9	34.5	24.6	2.8	38.1	34.5	27.4
	60대 이상	268	5.2	34.3	22.4	28.4	9.7	39.6	22.4	38.1
지역별	서울	226	3.1	27.4	36.7	26.5	6.2	30.5	36.7	32.7
	경기/인천	384	3.6	29.9	36.5	26.0	3.9	33.6	36.5	29.9
	부산/울산/경남	184	6.0	27.7	30.4	28.8	7.1	33.7	30.4	35.9
	대구/경북	117	3.4	26.5	37.6	22.2	10.3	29.9	37.6	32.5
	광주/전라	112	5.4	30.4	36.6	23.2	4.5	35.7	36.6	27.7
	대전/충청/세종	129	6.2	27.9	29.5	32.6	3.9	34.1	29.5	36.4
	강원/제주	48	2.1	29.2	45.8	22.9	0.0	31.3	45.8	22.9
지역크기	대도시	537	3.2	25.0	37.8	28.1	6.0	28.1	37.8	34.1
	중소도시	601	4.8	32.6	32.9	25.0	4.7	37.4	32.9	29.6
	읍/면	62	8.1	21.0	37.1	27.4	6.5	29.0	37.1	33.9
직업별	농/어/임업	14	14.3	14.3	14.3	28.6	28.6	28.6	14.3	57.1
	자영업자	85	4.7	38.8	23.5	29.4	3.5	43.5	23.5	32.9
	판매/서비스직	85	2.4	29.4	36.5	28.2	3.5	31.8	36.5	31.8
	기능/숙련공	42	4.8	28.6	33.3	31.0	2.4	33.3	33.3	33.3
	일반 노무직	49	4.1	26.5	28.6	28.6	12.2	30.6	28.6	40.8
	사무/기술직	460	4.6	26.7	38.3	25.4	5.0	31.3	38.3	30.4
	경영/관리직	66	7.6	43.9	27.3	16.7	4.5	51.5	27.3	21.2
	전문/자유직	72	6.9	26.4	43.1	20.8	2.8	33.3	43.1	23.6
	전업주부	136	0.7	27.9	35.3	30.9	5.1	28.7	35.3	36.0
	학생	62	1.6	21.0	45.2	27.4	4.8	22.6	45.2	32.3
	무직	122	4.9	28.7	32.0	27.0	7.4	33.6	32.0	34.4
	기타	7	0.0	14.3	42.9	42.9	0.0	14.3	42.9	42.9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0.0	66.7	33.3	0.0	0.0	66.7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9	31.4	33.5	24.3	5.9	36.2	33.5	30.3
	전문대(중퇴/졸업)	162	4.3	25.3	33.3	34.0	3.1	29.6	33.3	37.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7	29.0	36.2	25.2	5.8	32.8	36.2	31.0
	대학원 이상	124	6.5	27.4	33.9	27.4	4.8	33.9	33.9	32.3
생활수준별	상	133	5.3	30.8	34.6	23.3	6.0	36.1	34.6	29.3
	중	538	4.5	30.1	35.3	26.4	3.7	34.6	35.3	30.1
	하	529	3.8	26.5	35.5	27.4	6.8	30.2	35.5	34.2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0.3%, 전문가 9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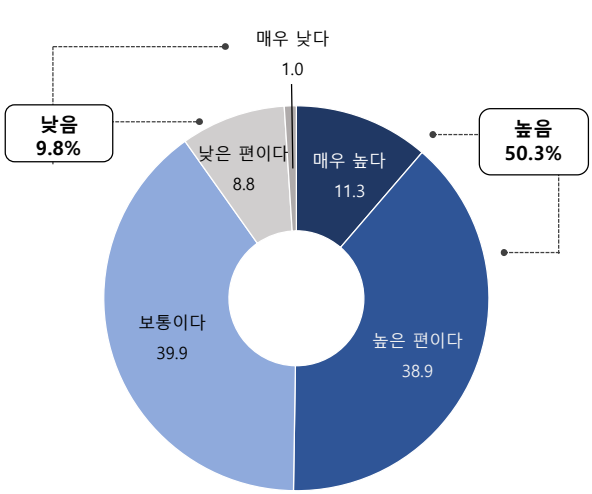
● **[일반국민]**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50.3%로 '낮다'(9.8%)라는 응답 보다 40.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3.0%p(2020년 47.3%)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1.5%p(2020년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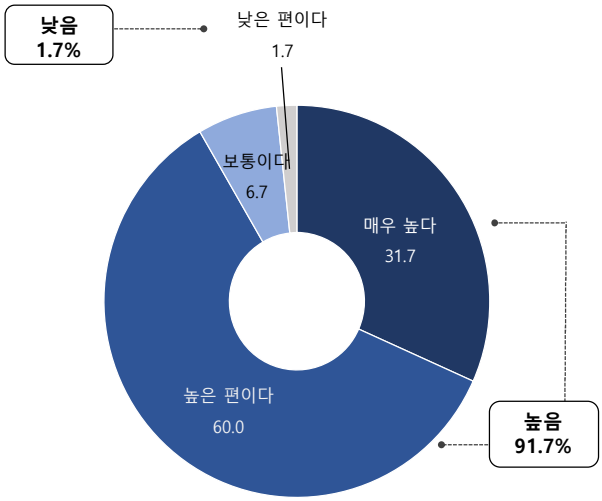
● **[전문가]**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높다'는 응답이 91.7%, '낮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남.

〈그림 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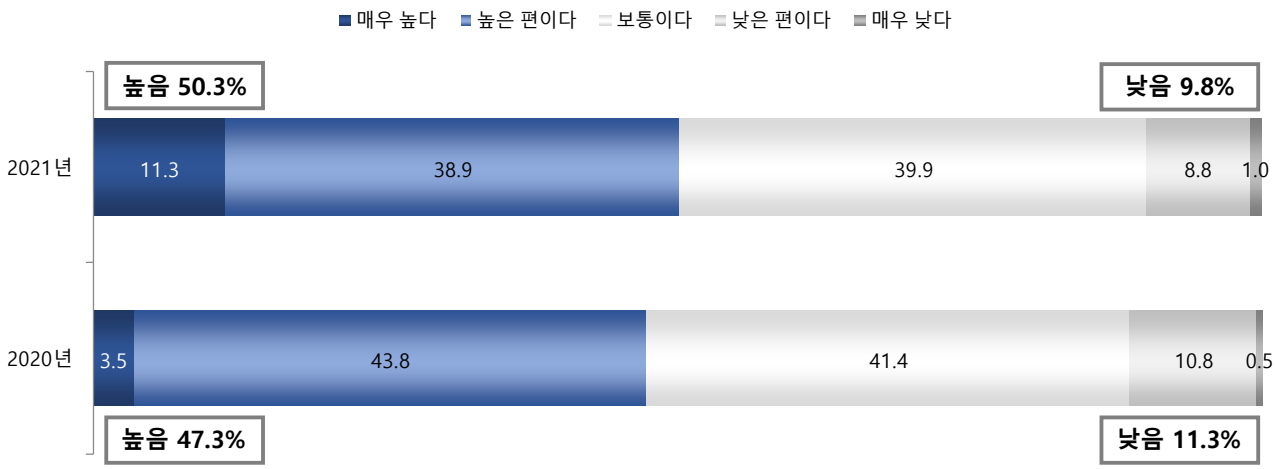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전체		1,260	12.3	39.9	38.3	8.5	1.0	52.2	38.3	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3	38.9	39.9	8.8	1.0	50.3	39.9	9.8
	전문가	60	31.7	60.0	6.7	1.7	0.0	91.7	6.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2.6	77.4	0.0	0.0	0.0	100.0	0.0	0.0
	중	479	0.0	0.0	100.0	0.0	0.0	0.0	100.0	0.0
	하	118	0.0	0.0	0.0	89.8	10.2	0.0	0.0	100.0
성별	남성	720	15.3	44.2	34.6	5.0	1.0	59.4	34.6	6.0
	여성	480	5.4	31.0	47.9	14.6	1.0	36.5	47.9	15.6
연령별	20대 이하	235	7.7	31.9	50.2	9.4	0.9	39.6	50.2	10.2
	30대	198	8.6	25.3	47.5	17.2	1.5	33.8	47.5	18.7
	40대	247	7.3	35.6	48.2	7.7	1.2	42.9	48.2	8.9
	50대	252	10.7	46.0	33.7	7.9	1.6	56.7	33.7	9.5
	60대 이상	268	20.9	51.5	23.5	4.1	0.0	72.4	23.5	4.1
지역별	서울	226	12.4	36.3	43.4	4.9	3.1	48.7	43.4	8.0
	경기/인천	384	10.7	37.0	41.9	10.2	0.3	47.7	41.9	10.4
	부산/울산/경남	184	10.9	41.3	36.4	10.9	0.5	52.2	36.4	11.4
	대구/경북	117	11.1	37.6	38.5	12.8	0.0	48.7	38.5	12.8
	광주/전라	112	12.5	43.8	35.7	7.1	0.9	56.3	35.7	8.0
	대전/충청/세종	129	13.2	42.6	35.7	7.0	1.6	55.8	35.7	8.5
	강원/제주	48	6.3	39.6	45.8	8.3	0.0	45.8	45.8	8.3
지역크기	대도시	537	11.0	39.1	41.0	7.4	1.5	50.1	41.0	8.9
	중소도시	601	11.5	39.3	38.3	10.6	0.3	50.7	38.3	11.0
	읍/면	62	12.9	33.9	46.8	3.2	3.2	46.8	46.8	6.5
직업별	농/어/임업	14	35.7	42.9	21.4	0.0	0.0	78.6	21.4	0.0
	자영업자	85	10.6	54.1	30.6	4.7	0.0	64.7	30.6	4.7
	판매/서비스직	85	10.6	36.5	38.8	12.9	1.2	47.1	38.8	14.1
	기능/숙련공	42	16.7	33.3	40.5	9.5	0.0	50.0	40.5	9.5
	일반 노무직	49	8.2	30.6	46.9	10.2	4.1	38.8	46.9	14.3
	사무/기술직	460	9.6	37.2	43.0	9.1	1.1	46.7	43.0	10.2
	경영/관리직	66	24.2	54.5	18.2	1.5	1.5	78.8	18.2	3.0
	전문/자유직	72	20.8	40.3	31.9	5.6	1.4	61.1	31.9	6.9
	전업주부	136	5.9	36.8	44.1	13.2	0.0	42.6	44.1	13.2
	학생	62	6.5	33.9	48.4	9.7	1.6	40.3	48.4	11.3
	무직	122	12.3	36.1	41.8	9.0	0.8	48.4	41.8	9.8
	기타	7	0.0	57.1	42.9	0.0	0.0	57.1	42.9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50.0	16.7	0.0	33.3	50.0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9.7	35.7	43.2	10.3	1.1	45.4	43.2	11.4
	전문대(중퇴/졸업)	162	7.4	34.6	46.3	11.7	0.0	42.0	46.3	11.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1.8	40.7	38.7	7.6	1.2	52.4	38.7	8.9
	대학원 이상	124	16.9	39.5	33.1	9.7	0.8	56.5	33.1	10.5
생활수준별	상	133	18.0	43.6	29.3	6.8	2.3	61.7	29.3	9.0
	중	538	9.9	40.7	41.4	7.6	0.4	50.6	41.4	8.0
	하	529	11.2	35.9	41.0	10.6	1.3	47.1	41.0	11.9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1+2순위)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일반국민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55.3%), 전문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56.7%)을 가장 높게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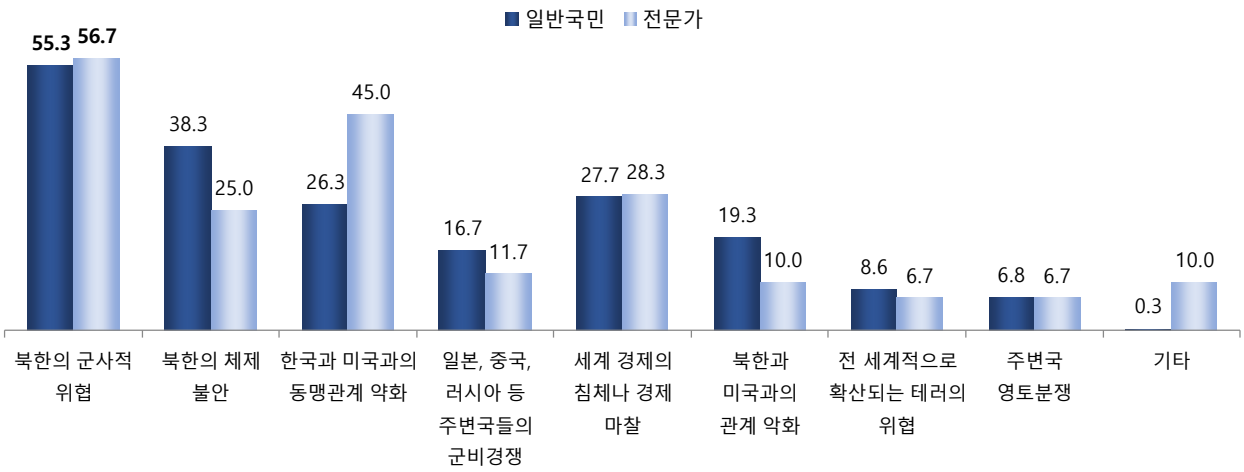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불안'(38.3%),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27.7%) 등의 순으로 인식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7.5%p(2020년 47.8%), '북한의 체제불안'이라는 응답은 1.0%p(2020년 37.3%)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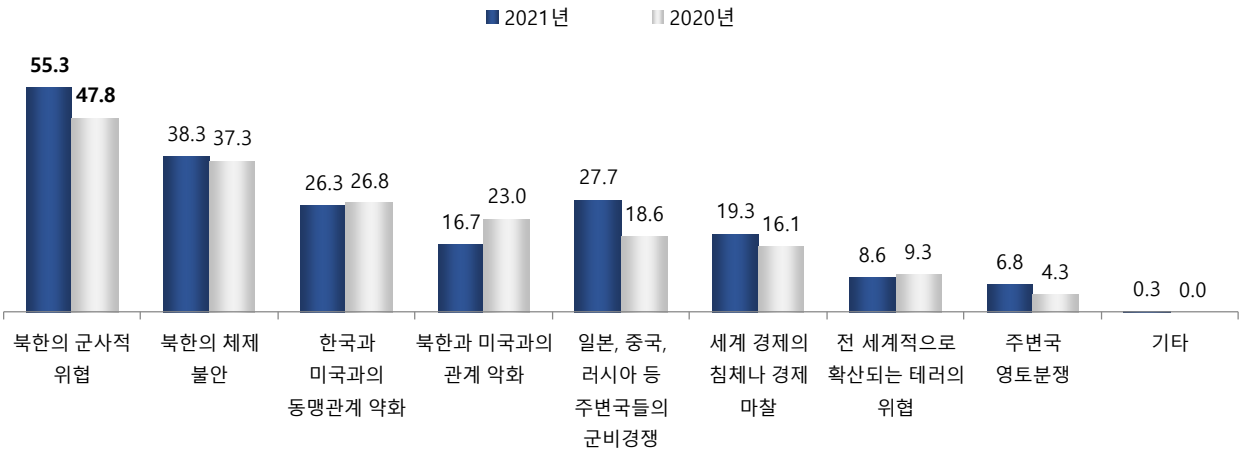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45.0%),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28.3%) 등의 순으로 인식함.

〈그림 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 '중', 연령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단위[%]		사례수(명)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체제 불안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주변국 영토분쟁	기타
전체		1260	55.4	37.7	27.1	16.4	27.7	18.9	8.5	6.8	0.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5.3	38.3	26.3	16.7	27.7	19.3	8.6	6.8	0.3
	전문가	60	56.7	25.0	45.0	11.7	28.3	10.0	6.7	6.7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5.2	38.0	26.2	14.9	31.0	17.9	6.6	9.3	0.2
	중	479	56.8	40.3	26.3	18.0	24.6	20.5	8.8	3.5	0.4
	하	118	50.0	32.2	26.3	20.3	22.9	22.0	17.8	7.6	0.0
성별	남성	720	56.5	38.8	25.4	16.0	31.9	15.8	6.3	8.2	0.4
	여성	480	53.5	37.7	27.5	17.7	21.3	24.6	12.1	4.8	0.0
연령별	20대 이하	235	61.3	34.9	28.5	13.2	21.3	26.0	7.7	4.7	0.9
	30대	198	62.1	35.9	26.8	14.1	23.7	19.2	9.6	7.6	0.5
	40대	247	45.7	44.5	19.0	22.3	32.4	19.8	9.3	5.7	0.0
	50대	252	48.4	41.7	20.2	18.7	30.2	19.4	11.9	9.5	0.0
	60대 이상	268	60.4	34.3	36.2	14.6	29.5	13.1	4.9	6.7	0.0
지역별	서울	226	52.7	39.8	28.3	16.4	25.2	19.9	9.7	8.0	0.0
	경기/인천	384	55.5	38.8	25.0	17.2	28.1	18.0	10.9	5.5	0.3
	부산/울산/경남	184	62.5	33.2	26.1	14.1	31.0	20.1	3.8	8.7	0.0
	대구/경북	117	51.3	40.2	33.3	21.4	23.1	14.5	6.8	6.8	0.0
	광주/전라	112	50.9	43.8	15.2	18.8	33.0	22.3	8.0	7.1	0.0
	대전/충청/세종	129	55.8	34.1	30.2	13.2	27.9	20.2	10.1	6.2	1.6
	강원/제주	48	58.3	41.7	25.0	16.7	20.8	27.1	4.2	6.3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57.0	40.4	26.6	16.2	27.6	18.1	7.1	6.7	0.2
	중소도시	601	54.6	36.9	25.6	17.5	26.6	20.6	10.3	6.3	0.3
	읍/면	62	48.4	33.9	29.0	12.9	38.7	17.7	4.8	12.9	0.0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21.4	42.9	14.3	35.7	7.1	0.0	7.1	0.0
	자영업자	85	56.5	37.6	21.2	16.5	32.9	17.6	4.7	12.9	0.0
	판매/서비스직	85	55.3	34.1	29.4	17.6	28.2	23.5	5.9	5.9	0.0
	기능/숙련공	42	54.8	38.1	19.0	23.8	33.3	11.9	4.8	9.5	0.0
	일반 노무직	49	53.1	30.6	28.6	12.2	40.8	20.4	6.1	8.2	0.0
	사무/기술직	460	54.8	41.1	24.6	18.0	25.4	21.3	8.7	4.8	0.4
	경영/관리직	66	47.0	45.5	21.2	13.6	37.9	12.1	10.6	12.1	0.0
	전문/자유직	72	56.9	31.9	29.2	20.8	26.4	13.9	6.9	12.5	0.0
	전업주부	136	56.6	44.1	25.0	16.2	19.9	17.6	17.6	2.9	0.0
	학생	62	61.3	38.7	25.8	8.1	21.0	25.8	8.1	8.1	1.6
	무직	122	54.9	31.1	36.1	15.6	30.3	18.9	6.6	5.7	0.0
	기타	7	57.1	14.3	28.6	0.0	42.9	28.6	0.0	28.6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66.7	16.7	33.3	16.7	66.7	0.0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50.3	35.7	29.2	18.9	28.1	21.6	9.2	5.9	0.0
	전문대(중퇴/졸업)	162	58.0	43.8	24.7	16.0	22.8	17.3	8.0	8.0	0.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57.1	37.3	26.0	15.9	27.7	19.6	8.4	6.9	0.3
	대학원 이상	124	48.4	41.9	25.0	18.5	31.5	17.7	9.7	6.5	0.0
생활수준별	상	133	60.9	42.1	30.8	16.5	22.6	18.0	6.8	1.5	0.0
	중	538	53.0	40.7	25.7	17.8	27.1	19.0	8.7	6.5	0.6
	하	529	56.3	35.0	25.7	15.5	29.5	20.0	8.9	8.5	0.0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일반국민은 '국내 정치의 불안'(49.3%), 전문가는 '불충분한 국방비'(48.3%)가 가장 높게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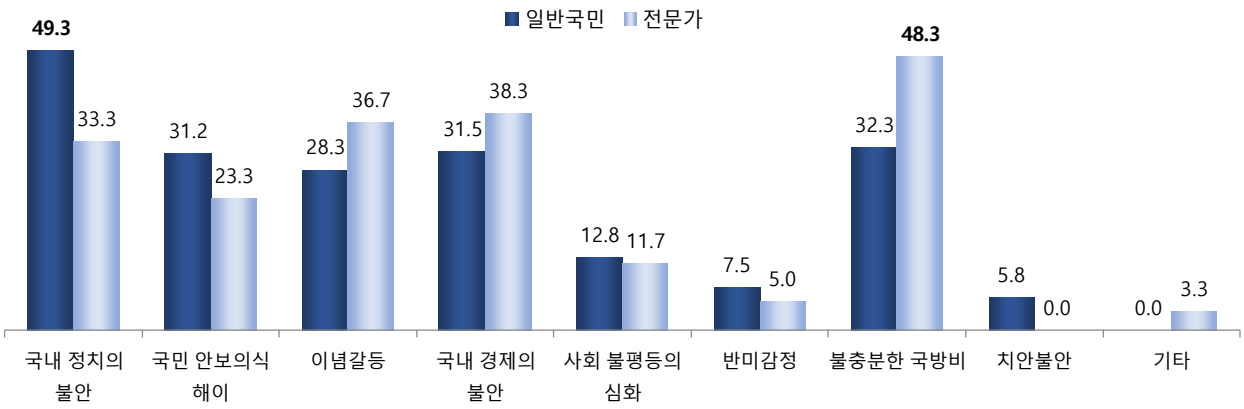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충분한 국방비'(32.3%), '국내 경제의 불안'(31.5%) 등의 순으로 인식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2.6%p(2020년 46.7%) 증가하였고, '불충분한 국방비'라는 응답은 22.2%p(2020년 10.1%)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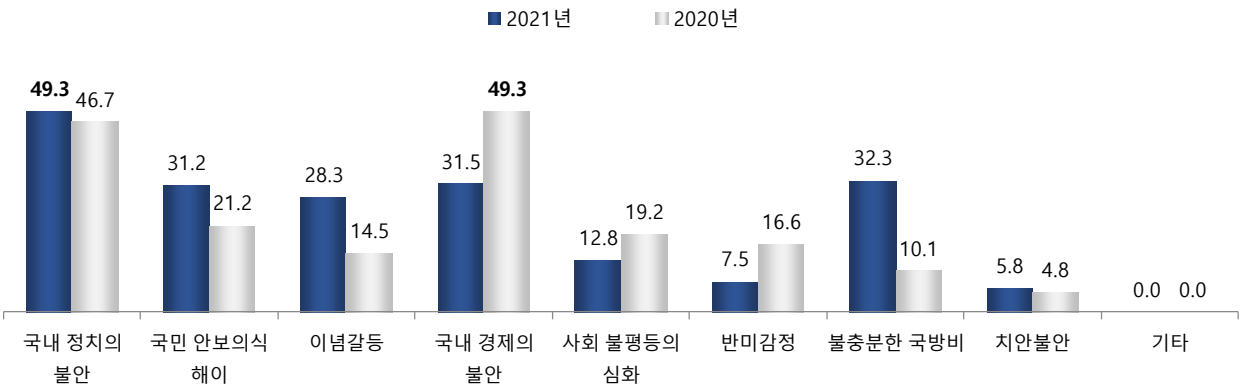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불충분한 국방비'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38.3%), '이념갈등'(36.7%) 등의 순으로 인식함.

〈그림 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단위[%]		사례수(명)	국내 정치의 불안	국민 안보의식 해이	이념갈등	국내 경제의 불안	사회 불평등의 심화	반미감정	불충분한 국방비	치안불안	기타
전체		1260	48.5	30.8	28.7	31.8	12.7	7.4	33.1	5.6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3	31.2	28.3	31.5	12.8	7.5	32.3	5.8	0.0
	전문가	60	33.3	23.3	36.7	38.3	11.7	5.0	48.3	0.0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48.8	24.4	28.2	35.2	13.6	5.3	39.8	3.3	0.0
	중	479	51.1	38.8	28.4	25.7	11.9	9.8	24.4	8.6	0.0
	하	118	44.1	34.7	28.8	36.4	11.9	9.3	26.3	7.6	0.0
성별	남성	720	48.2	27.5	28.6	35.7	13.6	6.3	35.3	3.3	0.0
	여성	480	50.8	36.7	27.9	25.2	11.5	9.4	27.9	9.6	0.0
연령별	20대 이하	235	46.4	43.0	33.6	23.8	16.2	8.1	22.1	4.3	0.0
	30대	198	51.0	35.4	29.3	27.3	11.6	13.1	24.2	7.1	0.0
	40대	247	42.9	32.4	36.8	26.7	9.7	9.3	33.6	6.9	0.0
	50대	252	55.2	28.2	25.0	31.7	9.1	5.2	38.5	6.7	0.0
	60대 이상	268	50.7	19.4	18.3	45.5	16.8	3.4	40.3	4.5	0.0
지역별	서울	226	42.9	31.4	31.0	31.0	12.8	8.4	34.5	6.6	0.0
	경기/인천	384	49.2	33.6	30.2	27.9	11.2	9.4	31.8	5.5	0.0
	부산/울산/경남	184	54.3	32.6	25.5	35.9	10.9	3.8	31.5	3.8	0.0
	대구/경북	117	55.6	24.8	26.5	29.1	18.8	8.5	30.8	6.0	0.0
	광주/전라	112	48.2	27.7	28.6	33.0	16.1	6.3	35.7	2.7	0.0
	대전/충청/세종	129	48.1	30.2	26.4	37.2	13.2	5.4	28.7	9.3	0.0
	강원/제주	48	50.0	31.3	20.8	33.3	8.3	8.3	35.4	10.4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47.7	32.6	28.5	31.7	13.6	7.1	31.7	6.1	0.0
	중소도시	601	50.2	30.9	28.1	32.1	11.6	7.7	32.6	5.3	0.0
	읍/면	62	53.2	21.0	29.0	24.2	16.1	9.7	35.5	8.1	0.0
직업별	농/어/임업	14	50.0	7.1	35.7	42.9	21.4	0.0	42.9	0.0	0.0
	자영업자	85	49.4	25.9	28.2	31.8	17.6	4.7	37.6	4.7	0.0
	판매/서비스직	85	51.8	40.0	31.8	31.8	8.2	5.9	27.1	2.4	0.0
	기능/숙련공	42	54.8	28.6	26.2	38.1	7.1	7.1	28.6	2.4	0.0
	일반 노무직	49	53.1	38.8	22.4	32.7	30.6	4.1	12.2	4.1	0.0
	사무/기술직	460	50.0	33.9	30.4	30.0	10.2	7.6	30.0	6.5	0.0
	경영/관리직	66	54.5	22.7	25.8	34.8	13.6	3.0	40.9	4.5	0.0
	전문/자유직	72	45.8	18.1	25.0	23.6	15.3	12.5	55.6	4.2	0.0
	전업주부	136	50.0	30.9	19.9	35.3	11.0	11.0	32.4	8.8	0.0
	학생	62	38.7	43.5	32.3	22.6	16.1	8.1	24.2	9.7	0.0
	무직	122	43.4	25.4	31.1	36.1	13.9	8.2	36.1	5.7	0.0
	기타	7	71.4	28.6	28.6	28.6	14.3	0.0	14.3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66.7	83.3	16.7	16.7	16.7	0.0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50.3	36.8	26.5	34.1	14.6	7.0	21.6	7.6	0.0
	전문대(중퇴/졸업)	162	48.1	34.0	23.5	29.6	12.3	10.5	33.3	7.4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9.0	29.7	29.9	31.7	12.6	7.1	33.9	4.8	0.0
	대학원 이상	124	50.0	25.0	29.0	29.8	11.3	7.3	39.5	7.3	0.0
생활수준별	상	133	39.8	32.3	39.8	31.6	14.3	11.3	30.1	0.8	0.0
	중	538	50.4	31.8	26.8	28.8	13.6	7.1	34.0	5.8	0.0
	하	529	50.5	30.2	27.0	34.2	11.5	7.0	31.2	7.2	0.0

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36.3%), 전문가는 '한·미 동맹체제 강화'(38.3%)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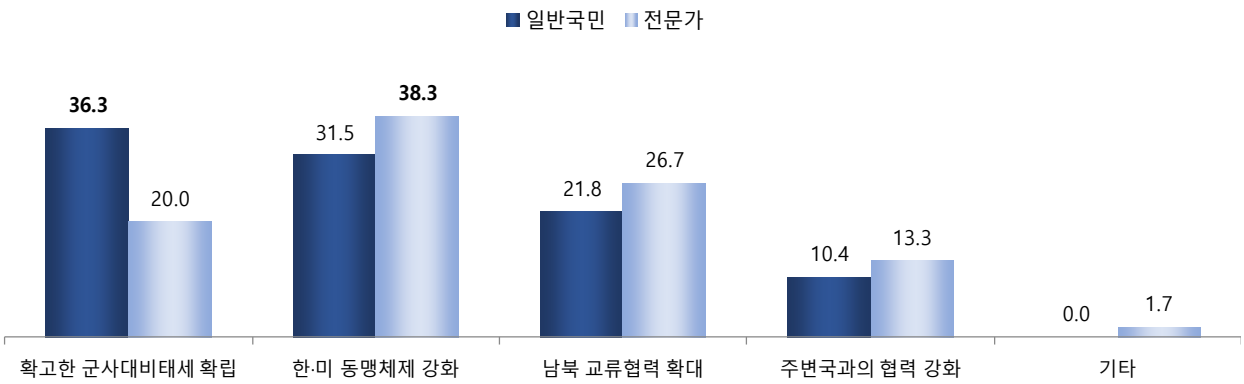
● **[일반국민]**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체제 강화'(31.5%), '남북 교류협력 확대'(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은 3.1%p(2020년 33.2%), '한·미 동맹체제 강화'라는 응답은 10.5%p(2020년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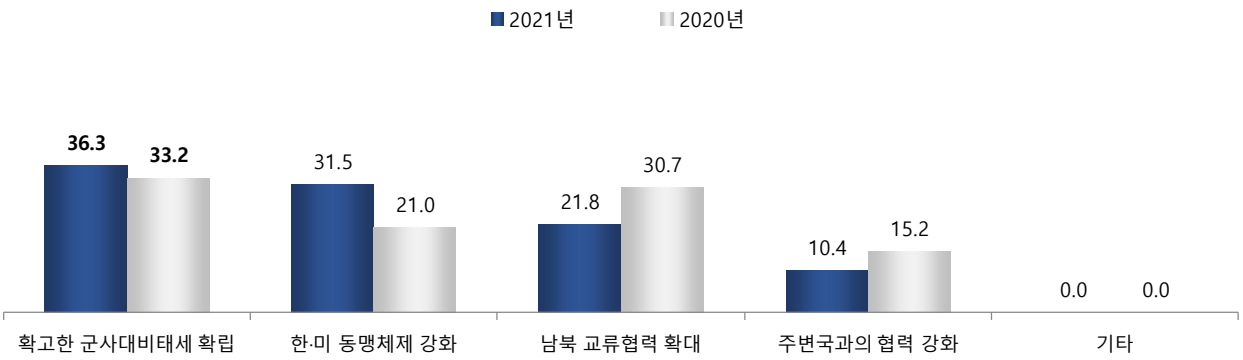
● **[전문가]**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 동맹체제 강화'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26.7%),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0.0%) 등의 순으로 인식함.

〈그림 1-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 '강원/제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6〉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단위[%]		사례수 (명)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 동맹체제 강화	남북 교류협력 확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기타
전체		1,260	35.6	31.8	22.0	10.6	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6.3	31.5	21.8	10.4	0.0
	전문가	60	20.0	38.3	26.7	1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6.3	32.2	23.1	8.5	0.0
	중	479	36.3	29.6	21.9	12.1	0.0
	하	118	36.4	35.6	14.4	13.6	0.0
성별	남성	720	37.9	33.3	20.6	8.2	0.0
	여성	480	34.0	28.8	23.5	13.8	0.0
연령별	20대 이하	235	36.2	41.7	11.5	10.6	0.0
	30대	198	38.4	32.8	18.7	10.1	0.0
	40대	247	33.2	24.7	28.3	13.8	0.0
	50대	252	34.1	25.0	28.6	12.3	0.0
	60대 이상	268	39.9	34.0	20.5	5.6	0.0
지역별	서울	226	35.0	31.9	20.8	12.4	0.0
	경기/인천	384	36.7	31.3	21.6	10.4	0.0
	부산/울산/경남	184	39.7	31.5	18.5	10.3	0.0
	대구/경북	117	33.3	41.0	18.8	6.8	0.0
	광주/전라	112	37.5	24.1	30.4	8.0	0.0
	대전/충청/세종	129	32.6	34.1	20.9	12.4	0.0
	강원/제주	48	41.7	18.8	29.2	10.4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36.3	33.1	19.6	11.0	0.0
	중소도시	601	36.8	29.6	23.5	10.1	0.0
	읍/면	62	32.3	35.5	24.2	8.1	0.0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57.1	14.3	0.0	0.0
	자영업자	85	31.8	36.5	24.7	7.1	0.0
	판매/서비스직	85	40.0	34.1	16.5	9.4	0.0
	기능/숙련공	42	35.7	28.6	26.2	9.5	0.0
	일반 노무직	49	28.6	46.9	20.4	4.1	0.0
	사무/기술직	460	36.3	28.5	21.3	13.9	0.0
	경영/관리직	66	33.3	27.3	31.8	7.6	0.0
	전문/자유직	72	41.7	27.8	25.0	5.6	0.0
	전업주부	136	38.2	25.7	24.3	11.8	0.0
	학생	62	37.1	38.7	12.9	11.3	0.0
	무직	122	36.9	37.7	19.7	5.7	0.0
	기타	7	42.9	14.3	14.3	28.6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50.0	16.7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6.2	30.8	22.2	10.8	0.0
	전문대(중퇴/졸업)	162	34.0	28.4	25.3	12.3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6.2	33.5	19.8	10.5	0.0
	대학원 이상	124	40.3	24.2	28.2	7.3	0.0
생활수준별	상	133	32.3	38.3	18.0	11.3	0.0
	중	538	35.5	29.9	22.9	11.7	0.0
	하	529	38.2	31.4	21.6	8.9	0.0

7.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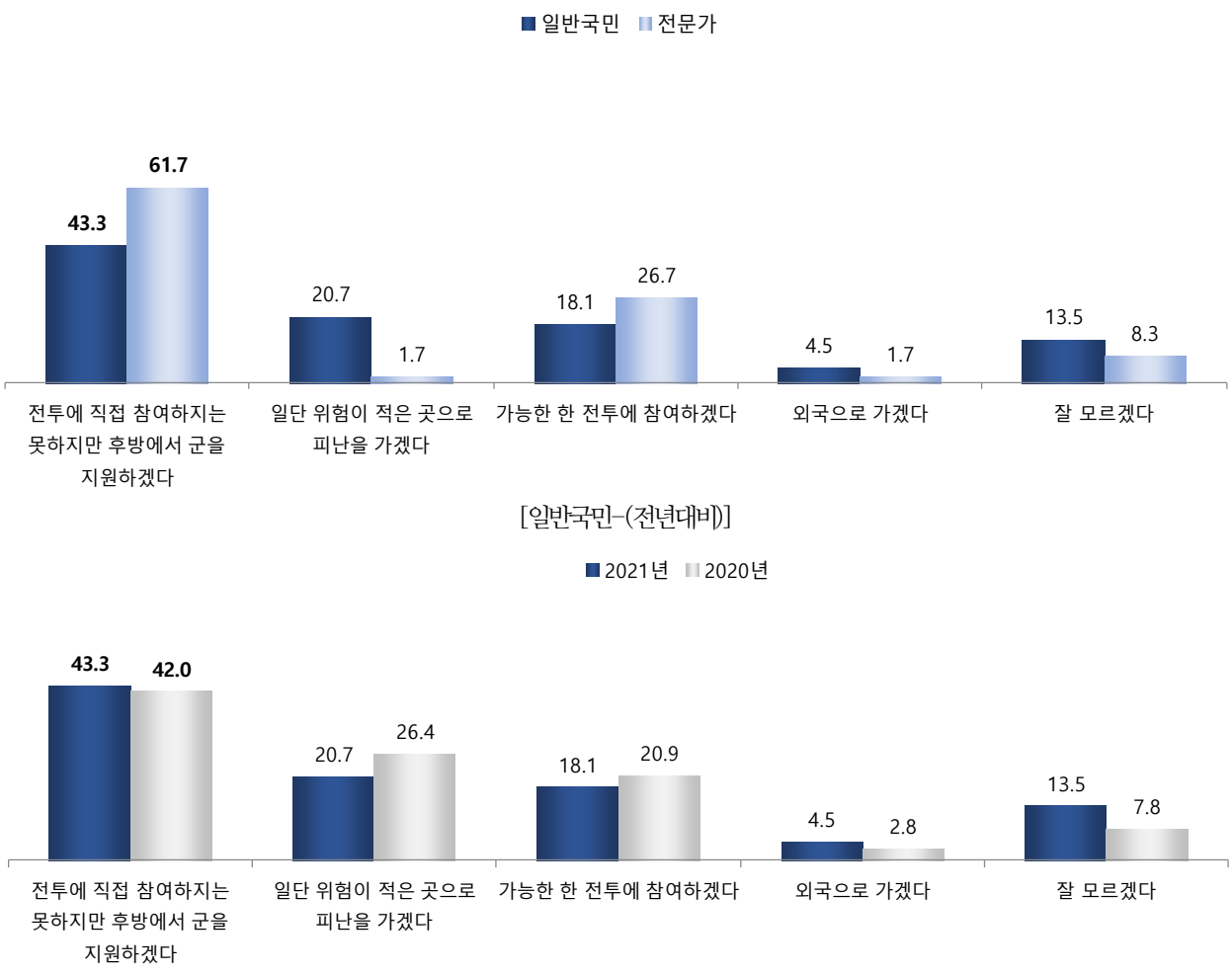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3.3%, 전문가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20.7%),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1.3%p(2020년 42.0%) 증가하였고,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응답은 5.7%p(2020년 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7〉 전쟁 발생시 대처방법



[특성별 분석]

◉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남.

〈표 1-7〉 전쟁 발생시 대처방법

단위[%]		사례수 (명)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외국으로 가겠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44.1	19.8	18.5	4.4	13.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3	20.7	18.1	4.5	13.5
	전문가	60	61.7	1.7	26.7	1.7	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2.7	14.1	23.5	3.0	6.6
	중	479	34.7	26.5	13.4	4.8	20.7
	하	118	29.7	30.5	9.3	11.0	19.5
성별	남성	720	47.8	13.6	27.4	3.8	7.5
	여성	480	36.5	31.3	4.2	5.6	22.5
연령별	20대 이하	235	23.4	26.4	22.1	11.1	17.0
	30대	198	38.9	23.7	19.2	6.1	12.1
	40대	247	39.3	26.3	17.4	4.5	12.6
	50대	252	50.4	15.9	19.4	1.6	12.7
	60대 이상	268	60.8	12.7	13.1	0.4	13.1
지역별	서울	226	41.2	19.9	17.7	6.2	15.0
	경기/인천	384	45.6	21.6	15.6	5.2	12.0
	부산/울산/경남	184	45.1	14.1	24.5	2.7	13.6
	대구/경북	117	41.9	23.9	14.5	3.4	16.2
	광주/전라	112	38.4	21.4	22.3	4.5	13.4
	대전/충청/세종	129	41.1	24.0	17.8	3.9	13.2
	강원/제주	48	47.9	22.9	14.6	2.1	12.5
지역크기	대도시	537	45.1	19.7	16.9	5.0	13.2
	중소도시	601	41.9	21.5	18.6	4.3	13.6
	읍/면	62	40.3	21.0	22.6	1.6	14.5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7.1	14.3	7.1	0.0
	자영업자	85	57.6	12.9	23.5	1.2	4.7
	판매/서비스직	85	37.6	29.4	11.8	4.7	16.5
	기능/숙련공	42	33.3	11.9	40.5	0.0	14.3
	일반 노무직	49	42.9	26.5	22.4	2.0	6.1
	사무/기술직	460	42.4	20.9	19.3	6.3	11.1
	경영/관리직	66	56.1	7.6	33.3	0.0	3.0
	전문/자유직	72	44.4	22.2	18.1	2.8	12.5
	전업주부	136	40.4	24.3	2.9	4.4	27.9
	학생	62	27.4	32.3	11.3	11.3	17.7
	무직	122	43.4	18.9	18.0	2.5	17.2
	기타	7	57.1	0.0	0.0	0.0	42.9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50.0	0.0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5.4	20.5	15.1	1.1	17.8
	전문대(중퇴/졸업)	162	40.7	24.1	18.5	1.9	14.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2.6	20.3	18.5	5.7	12.9
	대학원 이상	124	49.2	17.7	17.7	6.5	8.9
생활수준별	상	133	51.1	23.3	13.5	6.0	6.0
	중	538	44.4	22.1	17.1	4.5	11.9
	하	529	40.1	18.5	20.2	4.2	17.0

8.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8-1. 안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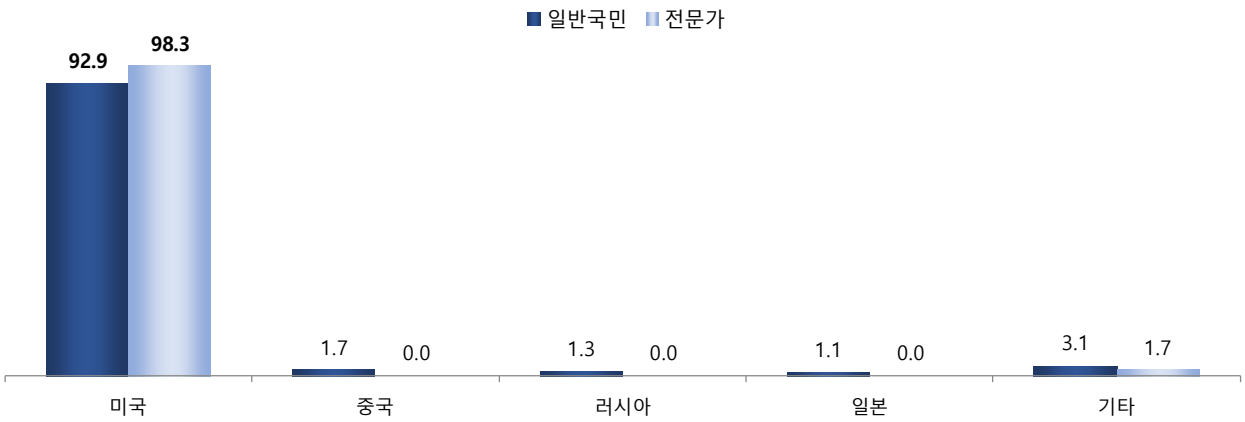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92.9%, 전문가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9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중국' (1.7%), '러시아'(1.3%), '일본'(1.1%) 순으로 나타남. (기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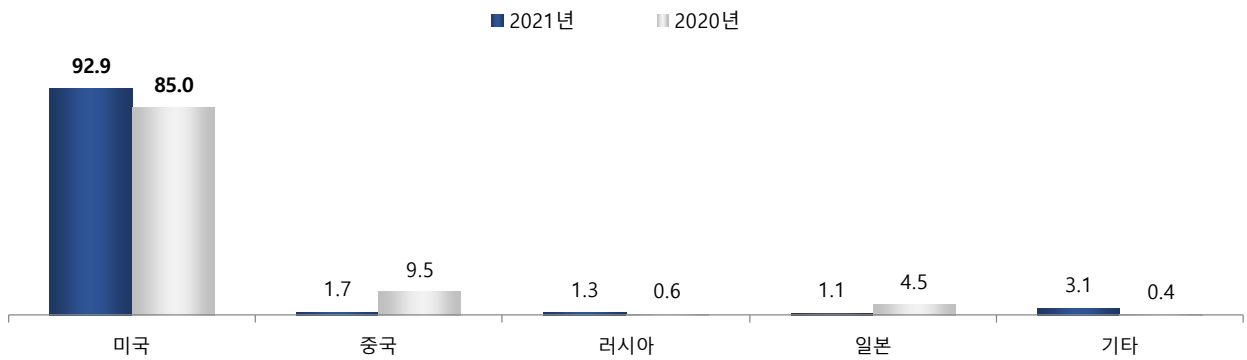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응답은 7.9%p (2020년 85.0%)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7.8%p(2020년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98.3%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8-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미국'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국'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별로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8-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단위[%]		사례수 (명)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기타
전체		1,260	93.2	1.6	1.2	1.0	3.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2.9	1.7	1.3	1.1	3.1
	전문가	60	98.3	0.0	0.0	0.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94.4	1.3	1.3	0.5	2.5
	중	479	92.7	1.9	0.8	1.5	3.1
	하	118	86.4	2.5	2.5	2.5	5.9
성별	남성	720	94.4	0.8	1.4	1.1	2.2
	여성	480	90.6	2.9	1.0	1.0	4.4
연령별	20대 이하	235	90.6	2.1	1.7	1.3	4.3
	30대	198	90.4	3.0	1.5	2.5	2.5
	40대	247	96.0	0.0	0.8	0.8	2.4
	50대	252	90.5	2.0	1.6	0.8	5.2
	60대 이상	268	96.3	1.5	0.7	0.4	1.1
지역별	서울	226	95.1	1.8	1.3	0.0	1.8
	경기/인천	384	93.2	2.3	0.8	1.6	2.1
	부산/울산/경남	184	95.7	0.5	1.1	0.0	2.7
	대구/경북	117	89.7	0.9	2.6	1.7	5.1
	광주/전라	112	88.4	2.7	2.7	1.8	4.5
	대전/충청/세종	129	93.0	1.6	0.8	1.6	3.1
	강원/제주	48	87.5	0.0	0.0	2.1	10.4
지역크기	대도시	537	91.8	1.9	1.5	0.9	3.9
	중소도시	601	93.8	1.7	0.8	1.2	2.5
	읍/면	62	93.5	0.0	3.2	1.6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100.0	0.0	0.0	0.0	0.0
	자영업자	85	100.0	0.0	0.0	0.0	0.0
	판매/서비스직	85	85.9	0.0	1.2	3.5	9.4
	기능/숙련공	42	88.1	0.0	2.4	7.1	2.4
	일반 노무직	49	85.7	2.0	4.1	4.1	4.1
	사무/기술직	460	93.5	2.2	1.3	0.7	2.4
	경영/관리직	66	95.5	0.0	0.0	0.0	4.5
	전문/자유직	72	94.4	1.4	1.4	1.4	1.4
	전업주부	136	92.6	2.9	1.5	0.0	2.9
	학생	62	88.7	1.6	1.6	1.6	6.5
	무직	122	94.3	2.5	0.8	0.0	2.5
	기타	7	100.0	0.0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00.0	0.0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89.2	2.7	1.1	2.2	4.9
	전문대(중퇴/졸업)	162	89.5	1.9	3.1	1.2	4.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93.8	1.7	1.1	0.8	2.6
	대학원 이상	124	97.6	0.0	0.0	0.8	1.6
생활수준별	상	133	93.2	0.8	3.8	2.3	0.0
	중	538	94.2	1.3	1.3	0.9	2.2
	하	529	91.5	2.3	0.6	0.9	4.7

8-2. 경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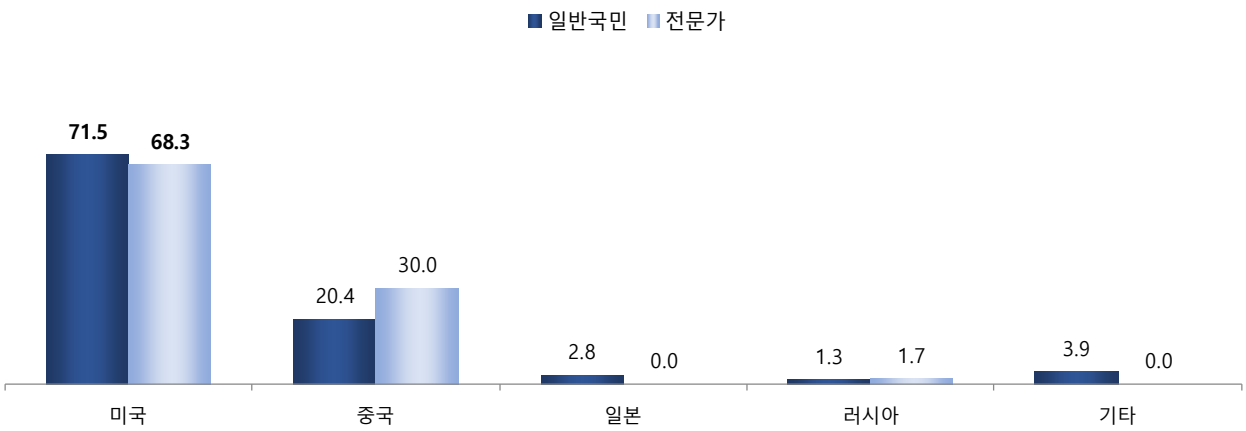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일반국민은 '미국'(71.5%), 전문가는 '미국'(68.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7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0.4%), '일본'(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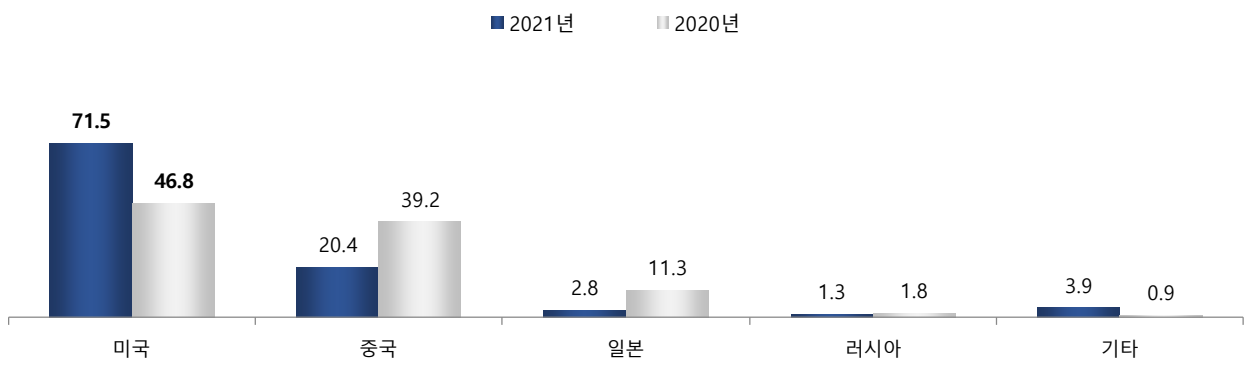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응답은 24.7%p(2020년 46.8%)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18.8%p(2020년 3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6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3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8-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미국'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1-8-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단위[%]		사례수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전체		1,260	71.3	20.9	2.7	1.3	3.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1.5	20.4	2.8	1.3	3.9
	전문가	60	68.3	30.0	0.0	1.7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72.0	22.6	1.3	1.3	2.8
	중	479	71.2	18.8	4.2	0.8	5.0
	하	118	70.3	16.1	5.1	3.4	5.1
성별	남성	720	70.3	23.1	2.6	1.0	3.1
	여성	480	73.3	16.5	3.1	1.9	5.2
연령별	20대 이하	235	76.2	10.2	4.7	3.0	6.0
	30대	198	79.3	13.1	4.0	0.5	3.0
	40대	247	72.5	21.9	1.2	0.0	4.5
	50대	252	60.3	33.3	2.8	1.6	2.0
	60대 이상	268	71.3	21.3	1.9	1.5	4.1
지역별	서울	226	77.9	16.8	3.1	0.4	1.8
	경기/인천	384	71.4	20.6	2.9	2.1	3.1
	부산/울산/경남	184	73.9	20.1	1.6	0.5	3.8
	대구/경북	117	66.7	26.5	1.7	0.0	5.1
	광주/전라	112	58.0	26.8	5.4	3.6	6.3
	대전/충청/세종	129	78.3	14.0	2.3	0.8	4.7
	강원/제주	48	58.3	25.0	4.2	2.1	10.4
지역크기	대도시	537	73.9	17.3	3.0	0.9	4.8
	중소도시	601	70.2	22.5	2.5	1.7	3.2
	읍/면	62	62.9	27.4	4.8	1.6	3.2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21.4	0.0	0.0	7.1
	자영업자	85	74.1	21.2	1.2	0.0	3.5
	판매/서비스직	85	69.4	20.0	2.4	1.2	7.1
	기능/숙련공	42	66.7	23.8	9.5	0.0	0.0
	일반 노무직	49	55.1	32.7	6.1	2.0	4.1
	사무/기술직	460	75.0	19.1	2.2	1.1	2.6
	경영/관리직	66	65.2	28.8	0.0	1.5	4.5
	전문/자유직	72	73.6	20.8	4.2	0.0	1.4
	전업주부	136	70.6	22.8	2.9	1.5	2.2
	학생	62	69.4	8.1	8.1	4.8	9.7
	무직	122	71.3	18.9	0.8	2.5	6.6
	기타	7	57.1	0.0	14.3	0.0	28.6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50.0	33.3	16.7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68.1	24.9	3.2	0.5	3.2
	전문대(중퇴/졸업)	162	62.3	25.9	3.7	3.1	4.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74.0	17.8	2.8	1.2	4.1
	대학원 이상	124	75.0	21.0	0.8	0.8	2.4
생활수준별	상	133	73.7	21.8	3.0	1.5	0.0
	중	538	74.2	18.8	2.4	1.1	3.5
	하	529	68.2	21.7	3.2	1.5	5.3

9.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9-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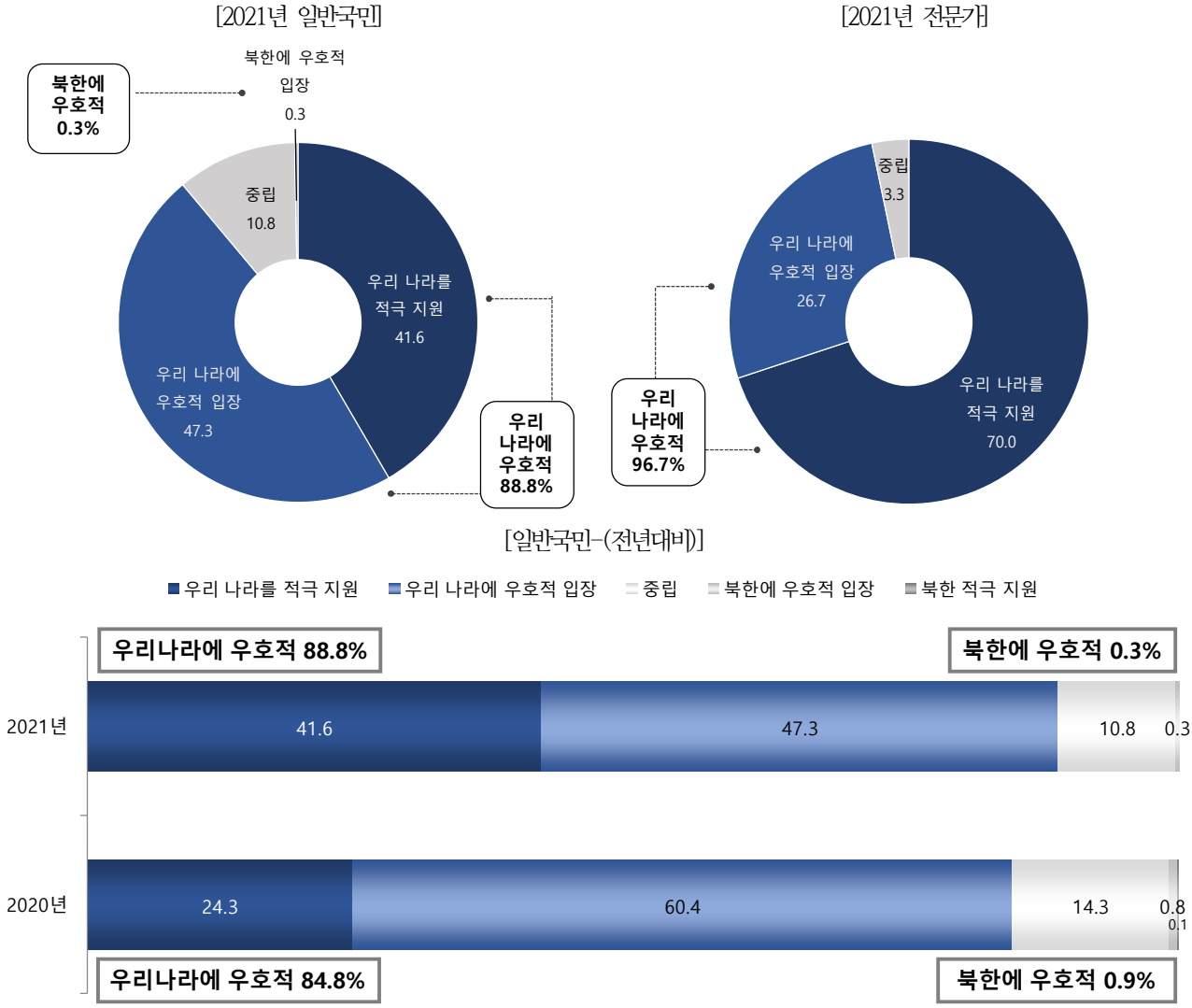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88.8%, 전문가 9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8.8%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0.3%)이라는 응답 보다 88.5%p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4.0%p(2020년 84.8%) 증가하였고,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0.6%p(2020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96.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9-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특성별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1-9-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단위[%]		사례수 (명)	우리 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 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260	42.9	46.3	10.5	0.3	89.2	10.5	0.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1.6	47.3	10.8	0.3	88.8	10.8	0.3
	전문가	60	70.0	26.7	3.3	0.0	96.7	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2.9	42.0	5.1	0.0	94.9	5.1	0.0
	중	479	30.1	55.3	14.2	0.4	85.4	14.2	0.4
	하	118	30.5	41.5	26.3	1.7	72.0	26.3	1.7
성별	남성	720	52.5	40.6	6.8	0.1	93.1	6.8	0.1
	여성	480	25.2	57.3	16.9	0.6	82.5	16.9	0.6
연령별	20대 이하	235	40.0	44.3	15.3	0.4	84.3	15.3	0.4
	30대	198	29.8	52.5	17.2	0.5	82.3	17.2	0.5
	40대	247	36.8	52.6	10.1	0.4	89.5	10.1	0.4
	50대	252	41.7	48.0	10.3	0.0	89.7	10.3	0.0
	60대 이상	268	56.0	40.3	3.4	0.4	96.3	3.4	0.4
지역별	서울	226	37.6	51.3	11.1	0.0	88.9	11.1	0.0
	경기/인천	384	44.3	45.6	9.9	0.3	89.8	9.9	0.3
	부산/울산/경남	184	46.2	41.3	12.5	0.0	87.5	12.5	0.0
	대구/경북	117	36.8	51.3	12.0	0.0	88.0	12.0	0.0
	광주/전라	112	38.4	50.0	8.9	2.7	88.4	8.9	2.7
	대전/충청/세종	129	42.6	46.5	10.9	0.0	89.1	10.9	0.0
	강원/제주	48	37.5	50.0	12.5	0.0	87.5	12.5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38.4	49.0	12.5	0.2	87.3	12.5	0.2
	중소도시	601	44.3	46.3	9.0	0.5	90.5	9.0	0.5
	읍/면	62	43.5	41.9	14.5	0.0	85.5	14.5	0.0
직업별	농/어/임업	14	64.3	28.6	7.1	0.0	92.9	7.1	0.0
	자영업자	85	58.8	38.8	2.4	0.0	97.6	2.4	0.0
	판매/서비스직	85	40.0	41.2	17.6	1.2	81.2	17.6	1.2
	기능/숙련공	42	31.0	57.1	9.5	2.4	88.1	9.5	2.4
	일반 노무직	49	49.0	34.7	16.3	0.0	83.7	16.3	0.0
	사무/기술직	460	37.6	52.6	9.3	0.4	90.2	9.3	0.4
	경영/관리직	66	56.1	42.4	1.5	0.0	98.5	1.5	0.0
	전문/자유직	72	48.6	43.1	8.3	0.0	91.7	8.3	0.0
	전업주부	136	32.4	47.8	19.9	0.0	80.1	19.9	0.0
	학생	62	37.1	48.4	14.5	0.0	85.5	14.5	0.0
	무직	122	44.3	44.3	11.5	0.0	88.5	11.5	0.0
	기타	7	42.9	57.1	0.0	0.0	10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50.0	33.3	16.7	0.0	83.3	1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4.3	40.5	14.6	0.5	84.9	14.6	0.5
	전문대(중퇴/졸업)	162	36.4	47.5	15.4	0.6	84.0	15.4	0.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1.5	48.0	10.2	0.3	89.5	10.2	0.3
	대학원 이상	124	44.4	53.2	2.4	0.0	97.6	2.4	0.0
생활수준별	상	133	48.9	40.6	9.8	0.8	89.5	9.8	0.8
	중	538	39.6	50.9	9.1	0.4	90.5	9.1	0.4
	하	529	41.8	45.2	12.9	0.2	87.0	12.9	0.2

9-2. 일본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25.8%, 전문가 6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25.8%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8.6%)보다 17.2%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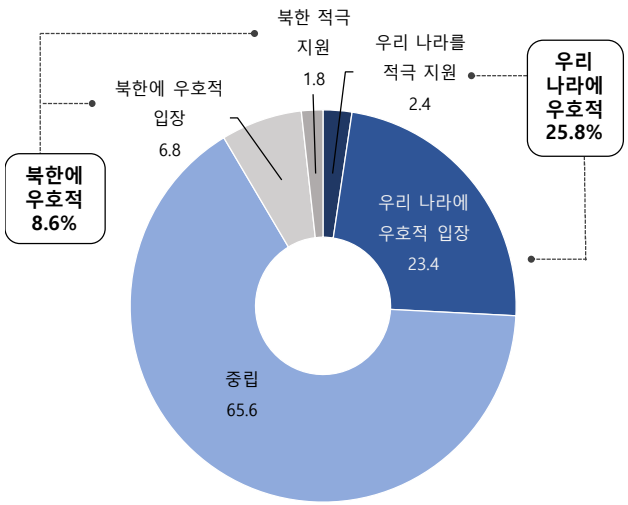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2%p(2020년 22.6%) 증가하였고,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4%p(2020년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0.0%,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40.0%로 나타남. (북한에 우호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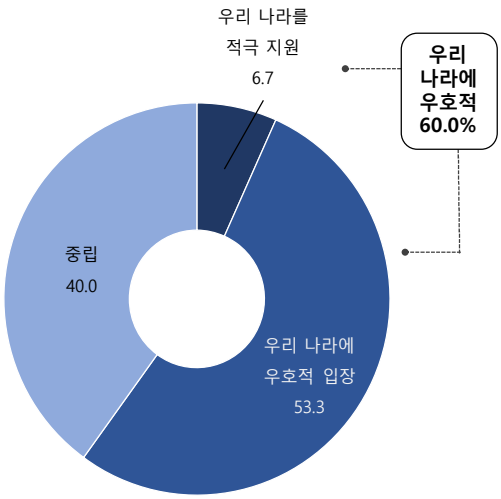
○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으나,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두 배 이상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1-9-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1-9-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단위[%]		사례수 (명)	우리 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 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260	2.6	24.8	64.4	6.5	1.7	27.5	64.4	8.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4	23.4	65.6	6.8	1.8	25.8	65.6	8.6
	전문가	60	6.7	53.3	40.0	0.0	0.0	60.0	4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5	28.5	62.7	4.1	1.2	32.0	62.7	5.3
	중	479	1.0	18.4	70.1	9.0	1.5	19.4	70.1	10.4
	하	118	2.5	17.8	61.9	11.9	5.9	20.3	61.9	17.8
성별	남성	720	2.9	28.9	63.2	3.9	1.1	31.8	63.2	5.0
	여성	480	1.7	15.2	69.2	11.3	2.7	16.9	69.2	14.0
연령별	20대 이하	235	4.3	24.3	62.1	7.2	2.1	28.5	62.1	9.4
	30대	198	1.0	19.7	70.2	7.6	1.5	20.7	70.2	9.1
	40대	247	2.4	17.4	69.6	6.9	3.6	19.8	69.6	10.5
	50대	252	2.4	26.6	62.3	7.9	0.8	29.0	62.3	8.7
	60대 이상	268	1.9	28.0	64.6	4.9	0.7	29.9	64.6	5.6
지역별	서울	226	0.9	19.5	68.6	8.0	3.1	20.4	68.6	11.1
	경기/인천	384	2.6	25.3	62.8	8.1	1.3	27.9	62.8	9.4
	부산/울산/경남	184	3.8	28.8	60.3	4.9	2.2	32.6	60.3	7.1
	대구/경북	117	2.6	28.2	63.2	4.3	1.7	30.8	63.2	6.0
	광주/전라	112	4.5	14.3	69.6	9.8	1.8	18.8	69.6	11.6
	대전/충청/세종	129	1.6	21.7	70.5	5.4	0.8	23.3	70.5	6.2
	강원/제주	48	0.0	20.8	77.1	2.1	0.0	20.8	77.1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1.9	21.4	66.5	7.4	2.8	23.3	66.5	10.2
	중소도시	601	3.0	25.0	64.9	6.2	1.0	28.0	64.9	7.2
	읍/면	62	1.6	25.8	64.5	8.1	0.0	27.4	64.5	8.1
직업별	농/어/임업	14	7.1	28.6	64.3	0.0	0.0	35.7	64.3	0.0
	자영업자	85	3.5	34.1	58.8	1.2	2.4	37.6	58.8	3.5
	판매/서비스직	85	3.5	20.0	61.2	9.4	5.9	23.5	61.2	15.3
	가능/숙련공	42	4.8	4.8	85.7	4.8	0.0	9.5	85.7	4.8
	일반 노무직	49	4.1	28.6	57.1	8.2	2.0	32.7	57.1	10.2
	사무/기술직	460	2.6	19.8	68.3	8.0	1.3	22.4	68.3	9.3
	경영/관리직	66	4.5	28.8	65.2	1.5	0.0	33.3	65.2	1.5
	전문/자유직	72	0.0	29.2	63.9	5.6	1.4	29.2	63.9	6.9
	전업주부	136	0.7	16.9	69.1	11.0	2.2	17.6	69.1	13.2
	학생	62	1.6	37.1	56.5	1.6	3.2	38.7	56.5	4.8
	무직	122	0.8	28.7	62.3	7.4	0.8	29.5	62.3	8.2
	기타	7	0.0	42.9	57.1	0.0	0.0	42.9	57.1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33.3	33.3	0.0	0.0	66.7	33.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2	17.8	70.8	6.5	1.6	21.1	70.8	8.1
	전문대(중퇴/졸업)	162	1.2	21.0	64.2	10.5	3.1	22.2	64.2	13.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2	25.3	64.7	6.2	1.5	27.5	64.7	7.7
	대학원 이상	124	2.4	23.4	66.1	6.5	1.6	25.8	66.1	8.1
생활수준별	상	133	3.8	29.3	57.1	6.8	3.0	33.1	57.1	9.8
	중	538	1.1	23.2	69.0	5.6	1.1	24.3	69.0	6.7
	하	529	3.4	22.1	64.3	8.1	2.1	25.5	64.3	10.2

9-3. 중국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80.3%, 전문가 8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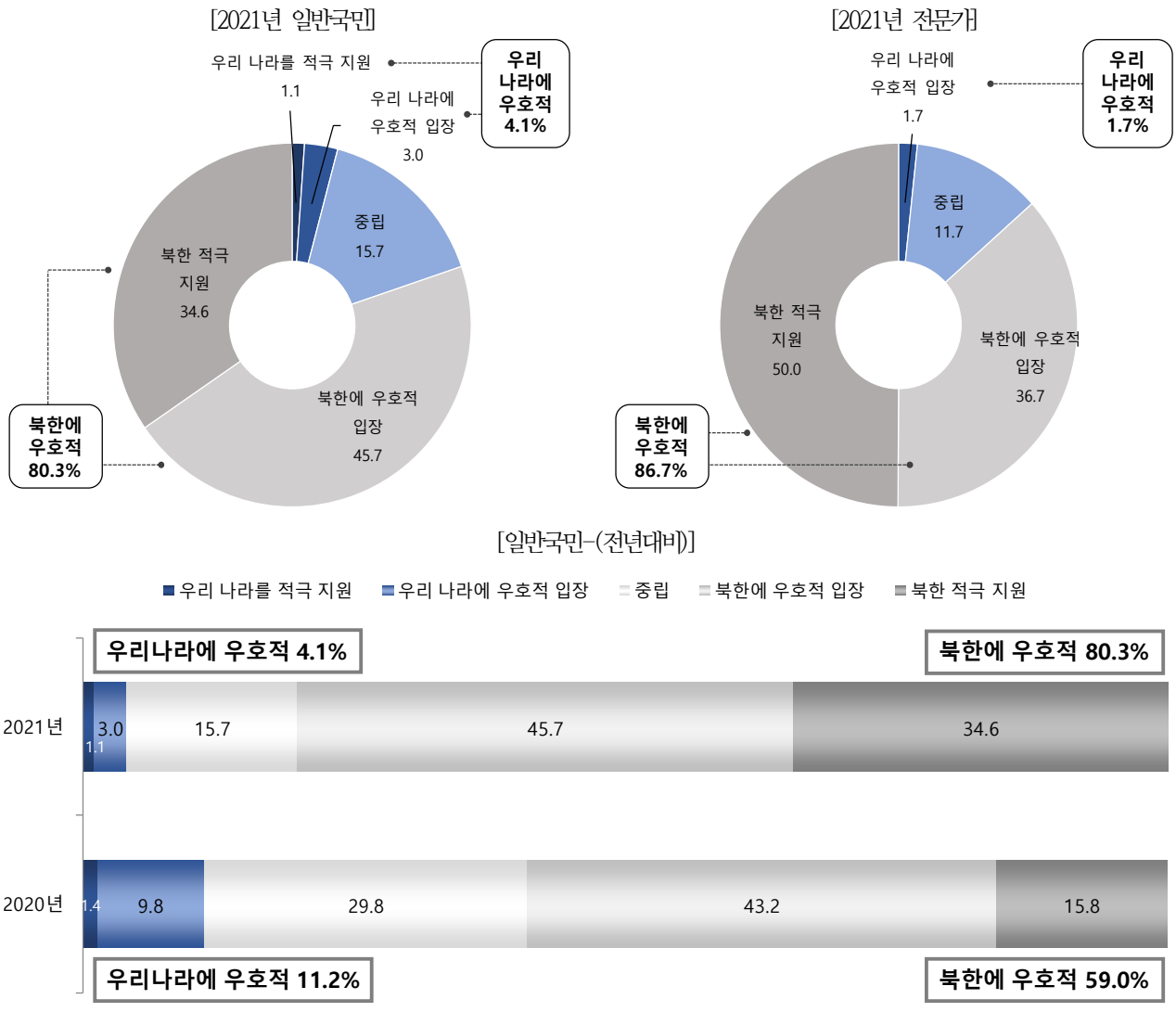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0.3%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4.1%)보다 76.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1.3%p(2020년 59.0%)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7.1%p(2020년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6.7%,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11.7%로 나타남.(우리나라에 우호적 : 1.7%)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1-9-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특성별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직업별로 '기능/숙련공'(n=42), 학력별로 중졸이하(n=6)에서는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9-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단위[%]		사례수 (명)	우리 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 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260	1.0	2.9	15.5	45.2	35.3	4.0	15.5	80.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	3.0	15.7	45.7	34.6	4.1	15.7	80.3
	전문가	60	0.0	1.7	11.7	36.7	50.0	1.7	11.7	8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7	2.8	11.3	43.8	40.5	4.5	11.3	84.2
	중	479	0.4	2.7	20.9	47.6	28.4	3.1	20.9	76.0
	하	118	0.8	5.1	16.9	47.5	29.7	5.9	16.9	77.1
성별	남성	720	1.1	2.6	13.1	42.8	40.4	3.8	13.1	83.2
	여성	480	1.0	3.5	19.6	50.0	25.8	4.6	19.6	75.8
연령별	20대 이하	235	1.3	4.3	15.3	44.7	34.5	5.5	15.3	79.1
	30대	198	2.0	3.5	21.2	46.5	26.8	5.6	21.2	73.2
	40대	247	1.6	0.8	19.4	45.3	32.8	2.4	19.4	78.1
	50대	252	0.8	5.6	13.5	47.6	32.5	6.3	13.5	80.2
	60대 이상	268	0.0	1.1	10.4	44.4	44.0	1.1	10.4	88.4
지역별	서울	226	0.9	2.2	16.4	46.5	34.1	3.1	16.4	80.5
	경기/인천	384	1.3	2.9	18.0	42.7	35.2	4.2	18.0	77.9
	부산/울산/경남	184	2.2	5.4	8.7	43.5	40.2	7.6	8.7	83.7
	대구/경북	117	0.0	2.6	14.5	49.6	33.3	2.6	14.5	82.9
	광주/전라	112	0.9	1.8	17.9	47.3	32.1	2.7	17.9	79.5
	대전/충청/세종	129	0.8	3.9	17.1	49.6	28.7	4.7	17.1	78.3
	강원/제주	48	0.0	0.0	14.6	50.0	35.4	0.0	14.6	85.4
지역크기	대도시	537	1.1	2.2	13.4	47.1	36.1	3.4	13.4	83.2
	중소도시	601	1.2	3.5	17.5	44.4	33.4	4.7	17.5	77.9
	읍/면	62	0.0	4.8	17.7	45.2	32.3	4.8	17.7	77.4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0.0	7.1	42.9	50.0	0.0	7.1	92.9
	자영업자	85	2.4	2.4	12.9	37.6	44.7	4.7	12.9	82.4
	판매/서비스직	85	0.0	1.2	22.4	42.4	34.1	1.2	22.4	76.5
	기능/숙련공	42	4.8	9.5	23.8	38.1	23.8	14.3	23.8	61.9
	일반 노무직	49	2.0	6.1	22.4	44.9	24.5	8.2	22.4	69.4
	사무/기술직	460	1.7	3.5	13.5	46.7	34.6	5.2	13.5	81.3
	경영/관리직	66	0.0	1.5	9.1	48.5	40.9	1.5	9.1	89.4
	전문/자유직	72	0.0	5.6	9.7	48.6	36.1	5.6	9.7	84.7
	전업주부	136	0.0	2.2	20.6	52.9	24.3	2.2	20.6	77.2
	학생	62	0.0	1.6	17.7	43.5	37.1	1.6	17.7	80.6
	무직	122	0.0	0.8	18.0	41.8	39.3	0.8	18.0	81.1
	기타	7	0.0	0.0	0.0	57.1	42.9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0.0	50.0	16.7	33.3	0.0	6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6	4.3	22.7	41.6	29.7	5.9	22.7	71.4
	전문대(중퇴/졸업)	162	1.9	2.5	16.7	47.5	31.5	4.3	16.7	79.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0	2.6	14.9	46.5	35.0	3.6	14.9	81.5
	대학원 이상	124	0.0	2.4	8.9	44.4	44.4	2.4	8.9	88.7
생활수준별	상	133	3.0	4.5	17.3	40.6	34.6	7.5	17.3	75.2
	중	538	0.9	2.4	16.2	48.3	32.2	3.3	16.2	80.5
	하	529	0.8	3.2	14.7	44.2	37.1	4.0	14.7	81.3

9-4. 러시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61.2%, 전문가 6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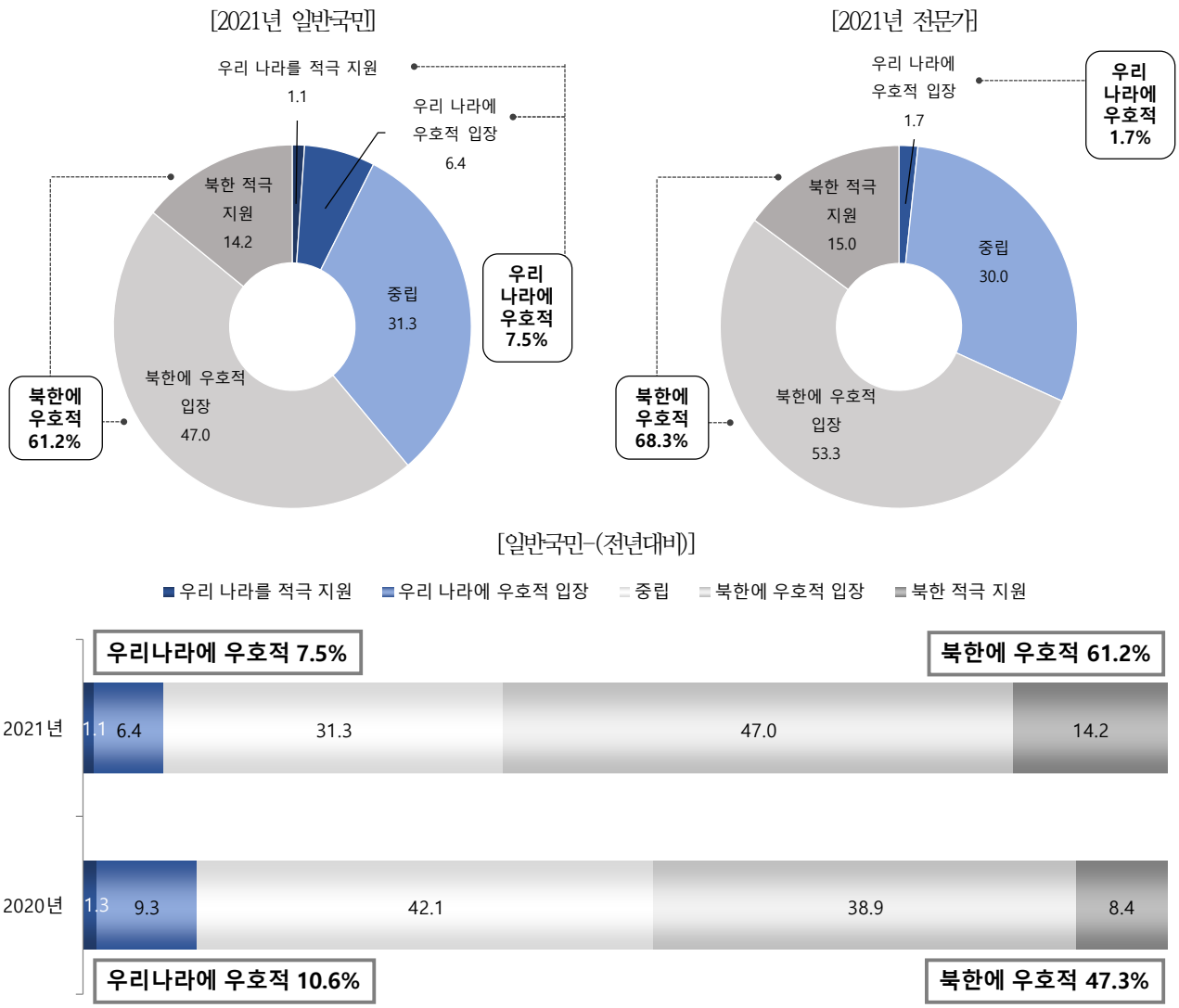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1.2%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 7.5% 보다 53.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13.9%p(2020년 47.3%)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1%p(2020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8.3%,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0.0%로 나타남. (우리나라에 우호적 : 1.7%)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

〈그림 1-9-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특성별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1-9-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단위[%]		사례수(명)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260	1.0	6.2	31.3	47.3	14.2	7.2	31.3	61.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	6.4	31.3	47.0	14.2	7.5	31.3	61.2
	전문가	60	0.0	1.7	30.0	53.3	15.0	1.7	30.0	6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0	6.6	24.2	49.4	18.7	7.6	24.2	68.2
	중	479	0.8	6.1	39.5	43.8	9.8	6.9	39.5	53.7
	하	118	2.5	6.8	34.7	47.5	8.5	9.3	34.7	55.9
성별	남성	720	1.1	5.1	29.6	47.9	16.3	6.3	29.6	64.2
	여성	480	1.0	8.3	34.0	45.6	11.0	9.4	34.0	56.7
연령별	20대 이하	235	1.7	7.2	36.2	42.6	12.3	8.9	36.2	54.9
	30대	198	2.0	7.1	38.4	45.5	7.1	9.1	38.4	52.5
	40대	247	0.4	6.1	36.4	45.7	11.3	6.5	36.4	57.1
	50대	252	1.6	6.7	27.8	48.4	15.5	8.3	27.8	63.9
	60대 이상	268	0.0	5.2	20.5	51.9	22.4	5.2	20.5	74.3
지역별	서울	226	1.3	8.0	30.1	44.2	16.4	9.3	30.1	60.6
	경기/인천	384	0.8	4.9	34.4	46.9	13.0	5.7	34.4	59.9
	부산/울산/경남	184	2.7	7.1	18.5	54.3	17.4	9.8	18.5	71.7
	대구/경북	117	0.9	9.4	29.9	44.4	15.4	10.3	29.9	59.8
	광주/전라	112	0.9	7.1	32.1	46.4	13.4	8.0	32.1	59.8
	대전/충청/세종	129	0.0	4.7	43.4	44.2	7.8	4.7	43.4	51.9
	강원/제주	48	0.0	4.2	31.3	47.9	16.7	4.2	31.3	64.6
지역크기	대도시	537	0.9	6.3	28.3	47.9	16.6	7.3	28.3	64.4
	중소도시	601	1.3	6.8	33.4	46.1	12.3	8.2	33.4	58.4
	읍/면	62	0.0	3.2	37.1	48.4	11.3	3.2	37.1	59.7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0.0	14.3	42.9	42.9	0.0	14.3	85.7
	자영업자	85	2.4	4.7	25.9	42.4	24.7	7.1	25.9	67.1
	판매/서비스직	85	1.2	7.1	29.4	50.6	11.8	8.2	29.4	62.4
	기능/숙련공	42	2.4	19.0	33.3	33.3	11.9	21.4	33.3	45.2
	일반 노무직	49	0.0	12.2	32.7	42.9	12.2	12.2	32.7	55.1
	사무/기술직	460	1.5	5.4	29.1	50.0	13.9	7.0	29.1	63.9
	경영/관리직	66	0.0	6.1	16.7	65.2	12.1	6.1	16.7	77.3
	전문/자유직	72	0.0	4.2	31.9	50.0	13.9	4.2	31.9	63.9
	전업주부	136	0.0	6.6	40.4	41.9	11.0	6.6	40.4	52.9
	학생	62	0.0	9.7	38.7	38.7	12.9	9.7	38.7	51.6
	무직	122	1.6	4.9	40.2	40.2	13.1	6.6	40.2	53.3
	기타	7	0.0	0.0	14.3	71.4	14.3	0.0	14.3	85.7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0.0	50.0	33.3	16.7	0.0	50.0	5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2	8.1	34.1	41.1	14.6	10.3	34.1	55.7
	전문대(중퇴/졸업)	162	2.5	8.6	32.7	43.8	12.3	11.1	32.7	5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0.7	5.8	32.1	47.3	14.1	6.5	32.1	61.4
	대학원 이상	124	0.0	4.8	20.2	58.9	16.1	4.8	20.2	75.0
생활수준별	상	133	1.5	5.3	33.1	48.1	12.0	6.8	33.1	60.2
	중	538	0.9	7.2	30.3	47.8	13.8	8.2	30.3	61.5
	하	529	1.1	5.9	31.9	45.9	15.1	7.0	31.9	61.1

1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10-1. 미국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79.0%, 전문가 8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9.0%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9%)이라는 응답보다 73.1%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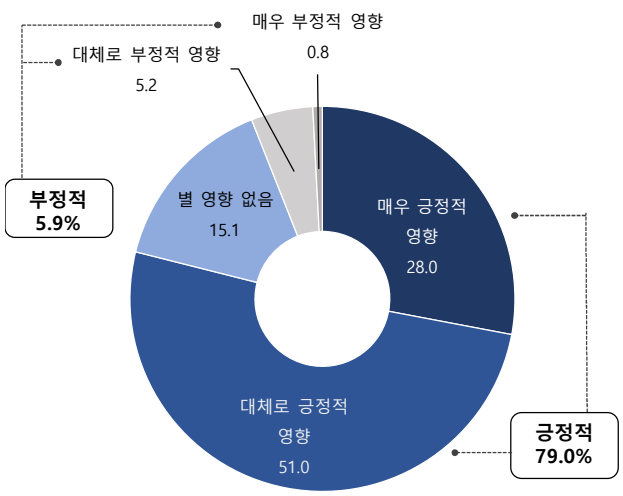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2%p(2020년 82.2%) 감소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2.5%p(2020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6.7%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0%)이라는 응답보다 81.7%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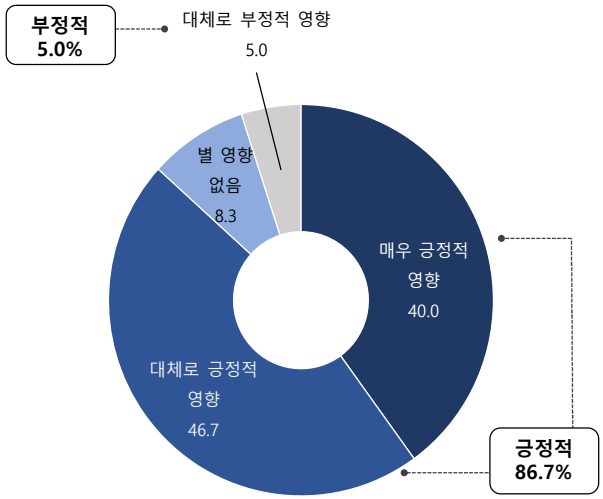
○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10-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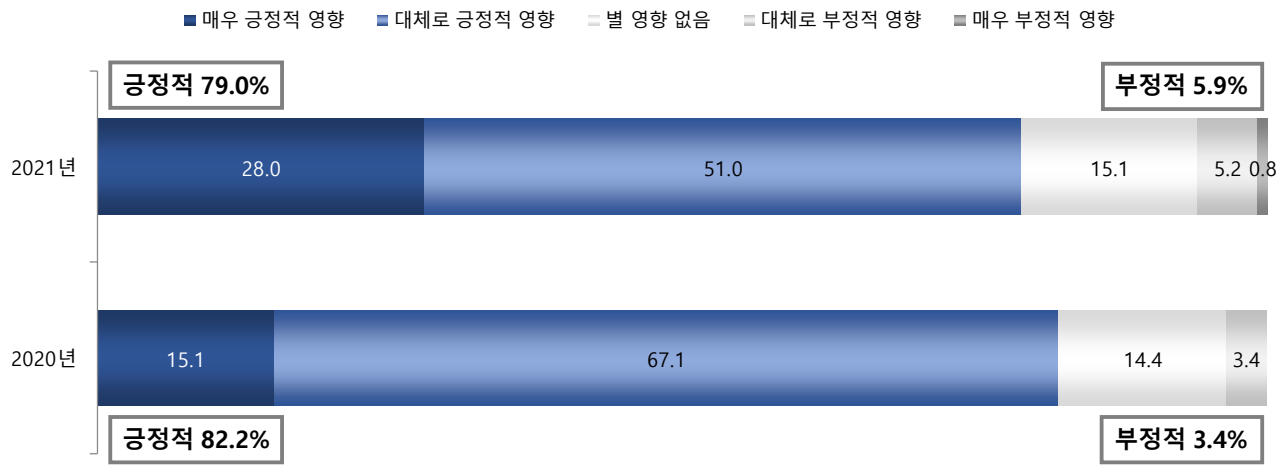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가운데, 지역별로 '강원/제주', 학력별로 '중졸이하(n=6)'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0-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중립	부정적
전체		1,260	28.6	50.8	14.8	5.2	0.7	79.4	14.8	5.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8.0	51.0	15.1	5.2	0.8	79.0	15.1	5.9
	전문가	60	40.0	46.7	8.3	5.0	0.0	86.7	8.3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5.8	47.9	12.4	3.8	0.0	83.7	12.4	3.8
	중	479	20.3	55.7	17.5	5.6	0.8	76.0	17.5	6.5
	하	118	19.5	47.5	18.6	10.2	4.2	66.9	18.6	14.4
성별	남성	720	34.6	48.3	13.3	3.3	0.4	82.9	13.3	3.8
	여성	480	18.1	55.0	17.7	7.9	1.3	73.1	17.7	9.2
연령별	20대 이하	235	34.0	45.1	14.0	5.1	1.7	79.1	14.0	6.8
	30대	198	27.8	50.0	16.2	6.1	0.0	77.8	16.2	6.1
	40대	247	23.1	54.7	16.2	4.5	1.6	77.7	16.2	6.1
	50대	252	17.9	55.2	17.9	9.1	0.0	73.0	17.9	9.1
	60대 이상	268	36.9	49.6	11.6	1.5	0.4	86.6	11.6	1.9
지역별	서울	226	29.6	47.3	18.6	3.1	1.3	77.0	18.6	4.4
	경기/인천	384	25.5	52.1	13.8	7.8	0.8	77.6	13.8	8.6
	부산/울산/경남	184	34.2	51.1	9.2	4.9	0.5	85.3	9.2	5.4
	대구/경북	117	31.6	45.3	19.7	3.4	0.0	76.9	19.7	3.4
	광주/전라	112	27.7	50.9	17.0	3.6	0.9	78.6	17.0	4.5
	대전/충청/세종	129	23.3	59.7	14.7	2.3	0.0	82.9	14.7	2.3
	강원/제주	48	20.8	50.0	16.7	10.4	2.1	70.8	16.7	12.5
지역크기	대도시	537	28.1	50.8	14.9	5.2	0.9	79.0	14.9	6.1
	중소도시	601	27.8	51.2	15.5	5.0	0.5	79.0	15.5	5.5
	읍/면	62	29.0	50.0	12.9	6.5	1.6	79.0	12.9	8.1
직업별	농/어/임업	14	35.7	57.1	7.1	0.0	0.0	92.9	7.1	0.0
	자영업자	85	34.1	55.3	7.1	3.5	0.0	89.4	7.1	3.5
	판매/서비스직	85	27.1	45.9	17.6	7.1	2.4	72.9	17.6	9.4
	기능/숙련공	42	16.7	54.8	21.4	4.8	2.4	71.4	21.4	7.1
	일반 노무직	49	32.7	42.9	18.4	6.1	0.0	75.5	18.4	6.1
	사무/기술직	460	27.6	50.4	16.3	5.2	0.4	78.0	16.3	5.7
	경영/관리직	66	25.8	54.5	13.6	6.1	0.0	80.3	13.6	6.1
	전문/자유직	72	25.0	58.3	11.1	4.2	1.4	83.3	11.1	5.6
	전업주부	136	19.9	54.4	19.1	6.6	0.0	74.3	19.1	6.6
	학생	62	35.5	48.4	9.7	1.6	4.8	83.9	9.7	6.5
	무직	122	36.1	45.9	13.1	4.9	0.0	82.0	13.1	4.9
	기타	7	14.3	57.1	14.3	14.3	0.0	71.4	14.3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50.0	16.7	0.0	16.7	16.7	66.7	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8.1	50.3	17.3	4.3	0.0	78.4	17.3	4.3
	전문대(중퇴/졸업)	162	27.8	46.3	17.9	6.8	1.2	74.1	17.9	8.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8.1	52.4	13.8	5.0	0.7	80.5	13.8	5.7
	대학원 이상	124	26.6	51.6	16.1	4.8	0.8	78.2	16.1	5.6
생활수준별	상	133	39.8	39.8	15.8	3.8	0.8	79.7	15.8	4.5
	중	538	25.5	56.1	13.2	4.8	0.4	81.6	13.2	5.2
	하	529	27.6	48.6	16.8	5.9	1.1	76.2	16.8	7.0

10-2. 일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5.9%, 전문가 65.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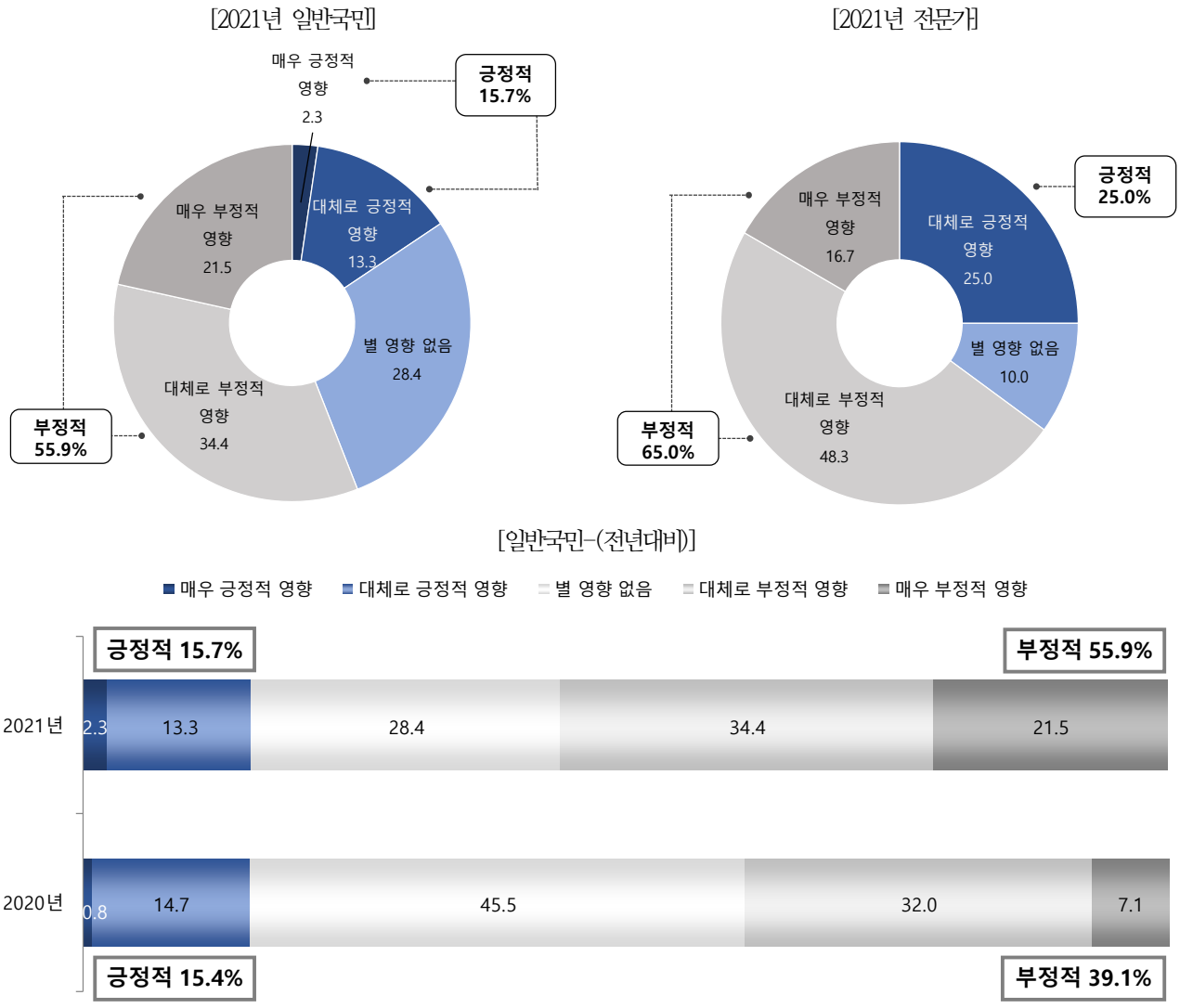
● **[일반국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5.9%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15.7%)이라는 응답보다 40.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0.3%p(2020년 15.4%),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6.8%p(2020년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5.0%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25.0%)이라는 응답보다 40.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10-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특성별 분석]

◉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크기별 '읍/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0-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중립	부정적
전체		1,260	2.2	13.9	27.5	35.1	21.3	16.1	27.5	56.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13.3	28.4	34.4	21.5	15.7	28.4	55.9
	전문가	60	0.0	25.0	10.0	48.3	16.7	25.0	10.0	6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2	15.1	24.0	32.0	25.7	18.2	24.0	57.7
	중	479	1.9	11.7	31.7	39.0	15.7	13.6	31.7	54.7
	하	118	0.0	11.0	37.3	28.0	23.7	11.0	37.3	51.7
성별	남성	720	2.8	14.0	25.4	34.7	23.1	16.8	25.4	57.8
	여성	480	1.7	12.3	32.9	34.0	19.2	14.0	32.9	53.1
연령별	20대 이하	235	4.3	15.7	37.9	28.5	13.6	20.0	37.9	42.1
	30대	198	2.5	15.7	27.8	33.3	20.7	18.2	27.8	54.0
	40대	247	1.2	9.7	29.1	35.2	24.7	10.9	29.1	59.9
	50대	252	0.8	11.1	23.0	37.3	27.8	11.9	23.0	65.1
	60대 이상	268	3.0	14.9	25.0	36.9	20.1	17.9	25.0	57.1
지역별	서울	226	2.7	14.2	29.2	33.6	20.4	16.8	29.2	54.0
	경기/인천	384	1.8	15.1	26.3	34.9	21.9	16.9	26.3	56.8
	부산/울산/경남	184	2.7	15.8	28.3	39.1	14.1	18.5	28.3	53.3
	대구/경북	117	2.6	8.5	32.5	31.6	24.8	11.1	32.5	56.4
	광주/전라	112	2.7	10.7	29.5	30.4	26.8	13.4	29.5	57.1
	대전/충청/세종	129	2.3	12.4	28.7	34.9	21.7	14.7	28.7	56.6
	강원/제주	48	2.1	6.3	29.2	31.3	31.3	8.3	29.2	62.5
지역크기	대도시	537	2.6	13.2	29.8	33.7	20.7	15.8	29.8	54.4
	중소도시	601	2.0	13.1	28.0	34.8	22.1	15.1	28.0	56.9
	읍/면	62	3.2	16.1	21.0	37.1	22.6	19.4	21.0	59.7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7.1	35.7	35.7	21.4	7.1	35.7	57.1
	자영업자	85	5.9	16.5	16.5	36.5	24.7	22.4	16.5	61.2
	판매/서비스직	85	2.4	12.9	29.4	30.6	24.7	15.3	29.4	55.3
	기능/숙련공	42	4.8	7.1	19.0	45.2	23.8	11.9	19.0	69.0
	일반 노무직	49	2.0	20.4	22.4	34.7	20.4	22.4	22.4	55.1
	사무/기술직	460	2.6	12.0	28.9	34.3	22.2	14.6	28.9	56.5
	경영/관리직	66	0.0	13.6	16.7	42.4	27.3	13.6	16.7	69.7
	전문/자유직	72	1.4	9.7	27.8	36.1	25.0	11.1	27.8	61.1
	전업주부	136	0.7	11.0	35.3	36.8	16.2	11.8	35.3	52.9
	학생	62	6.5	19.4	41.9	22.6	9.7	25.8	41.9	32.3
	무직	122	0.0	17.2	32.0	31.1	19.7	17.2	32.0	50.8
	기타	7	0.0	28.6	14.3	14.3	42.9	28.6	14.3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50.0	33.3	0.0	16.7	50.0	33.3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2	10.8	32.4	33.0	21.6	13.0	32.4	54.6
	전문대(중퇴/졸업)	162	1.9	11.7	33.3	34.0	19.1	13.6	33.3	53.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6	14.8	27.1	34.6	20.9	17.4	27.1	55.5
	대학원 이상	124	1.6	8.9	23.4	37.9	28.2	10.5	23.4	66.1
생활수준별	상	133	6.0	19.5	24.1	33.1	17.3	25.6	24.1	50.4
	중	538	2.0	13.0	32.2	32.7	20.1	15.1	32.2	52.8
	하	529	1.7	12.1	25.7	36.5	24.0	13.8	25.7	60.5

10-3. 중국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81.3%, 전문가 9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1.3%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4.9%)이라는 응답보다 76.4%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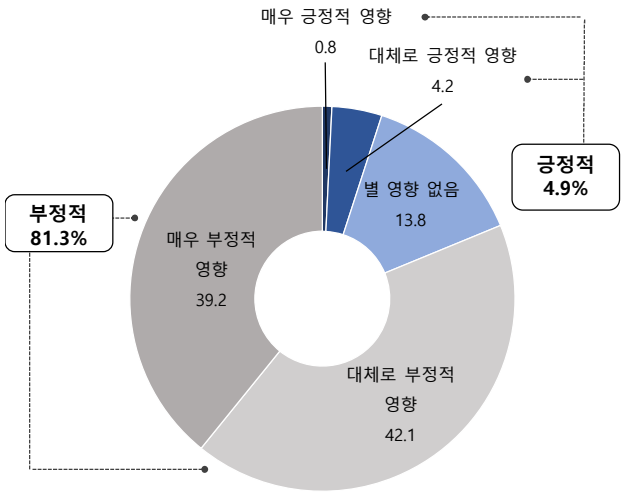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9.0%p(2020년 13.9%) 감소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6.1%p(2020년 5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96.7%로 나타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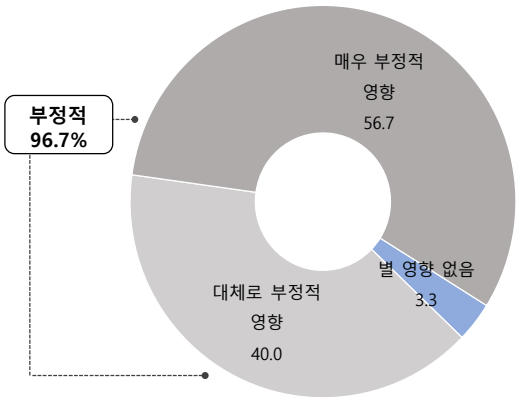
○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매우 높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1-10-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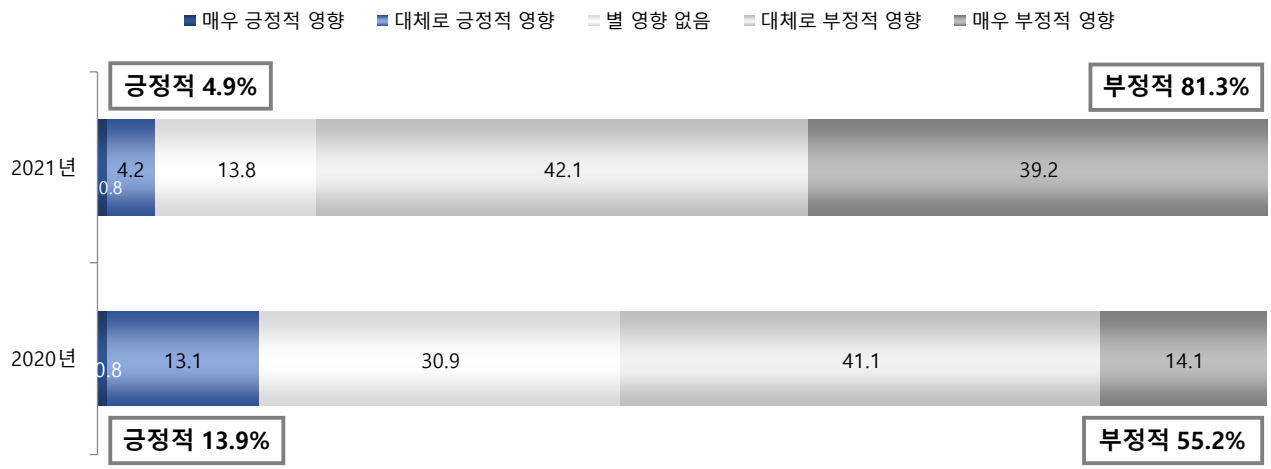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0-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중립	부정적
전체		1,260	0.7	4.0	13.3	42.0	40.0	4.7	13.3	82.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4.2	13.8	42.1	39.2	4.9	13.8	81.3
	전문가	60	0.0	0.0	3.3	40.0	56.7	0.0	3.3	9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0.7	3.8	9.3	39.3	46.9	4.5	9.3	86.2
	중	479	1.0	5.4	18.0	45.5	30.1	6.5	18.0	75.6
	하	118	0.0	0.8	20.3	42.4	36.4	0.8	20.3	78.8
성별	남성	720	0.7	3.3	10.4	39.6	46.0	4.0	10.4	85.6
	여성	480	0.8	5.4	19.0	45.8	29.0	6.3	19.0	74.8
연령별	20대 이하	235	1.3	5.5	18.3	37.4	37.4	6.8	18.3	74.9
	30대	198	1.0	6.1	16.7	42.9	33.3	7.1	16.7	76.3
	40대	247	0.8	5.7	11.7	45.7	36.0	6.5	11.7	81.8
	50대	252	0.4	2.8	12.7	44.8	39.3	3.2	12.7	84.1
	60대 이상	268	0.4	1.5	10.8	39.6	47.8	1.9	10.8	87.3
지역별	서울	226	0.9	2.7	10.2	46.5	39.8	3.5	10.2	86.3
	경기/인천	384	0.5	4.7	16.4	39.1	39.3	5.2	16.4	78.4
	부산/울산/경남	184	1.6	4.3	9.2	45.1	39.7	6.0	9.2	84.8
	대구/경북	117	0.0	2.6	18.8	36.8	41.9	2.6	18.8	78.6
	광주/전라	112	0.0	5.4	17.0	40.2	37.5	5.4	17.0	77.7
	대전/충청/세종	129	1.6	7.0	12.4	45.0	34.1	8.5	12.4	79.1
	강원/제주	48	0.0	0.0	12.5	43.8	43.8	0.0	12.5	87.5
지역크기	대도시	537	0.6	3.4	12.1	44.1	39.9	3.9	12.1	84.0
	중소도시	601	0.7	4.7	15.6	40.8	38.3	5.3	15.6	79.0
	읍/면	62	3.2	6.5	11.3	37.1	41.9	9.7	11.3	79.0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7.1	7.1	28.6	57.1	7.1	7.1	85.7
	자영업자	85	1.2	3.5	10.6	36.5	48.2	4.7	10.6	84.7
	판매/서비스직	85	1.2	5.9	21.2	32.9	38.8	7.1	21.2	71.8
	가능/숙련공	42	2.4	7.1	16.7	42.9	31.0	9.5	16.7	73.8
	일반 노무직	49	0.0	8.2	20.4	32.7	38.8	8.2	20.4	71.4
	사무/기술직	460	0.9	3.9	10.9	45.9	38.5	4.8	10.9	84.3
	경영/관리직	66	0.0	1.5	1.5	47.0	50.0	1.5	1.5	97.0
	전문/자유직	72	1.4	0.0	13.9	37.5	47.2	1.4	13.9	84.7
	전업주부	136	0.0	4.4	23.5	42.6	29.4	4.4	23.5	72.1
	학생	62	0.0	4.8	17.7	40.3	37.1	4.8	17.7	77.4
	무직	122	0.8	4.9	13.9	43.4	36.9	5.7	13.9	80.3
	기타	7	0.0	0.0	0.0	42.9	57.1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50.0	0.0	33.3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1	7.6	20.5	37.3	33.5	8.6	20.5	70.8
	전문대(중퇴/졸업)	162	1.2	4.9	17.9	39.5	36.4	6.2	17.9	75.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0.6	3.5	11.9	44.8	39.3	4.0	11.9	84.1
	대학원 이상	124	0.8	1.6	8.1	38.7	50.8	2.4	8.1	89.5
생활수준별	상	133	1.5	7.5	12.8	37.6	40.6	9.0	12.8	78.2
	중	538	0.7	3.3	14.7	45.2	36.1	4.1	14.7	81.2
	하	529	0.6	4.2	13.2	40.1	42.0	4.7	13.2	82.0

10-4. 러시아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64.1%, 전문가 7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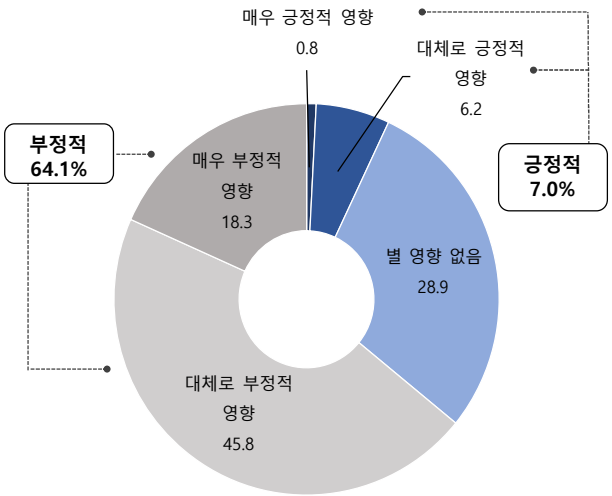
● **[일반국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4.1%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7.0%)이라는 응답보다 57.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3%p(2020년 10.3%) 감소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6.4%p(2020년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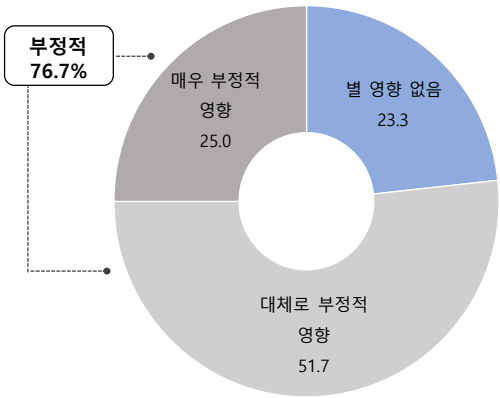
● **[전문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6.7%로 나타남.(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0.0%)

〈그림 1-10-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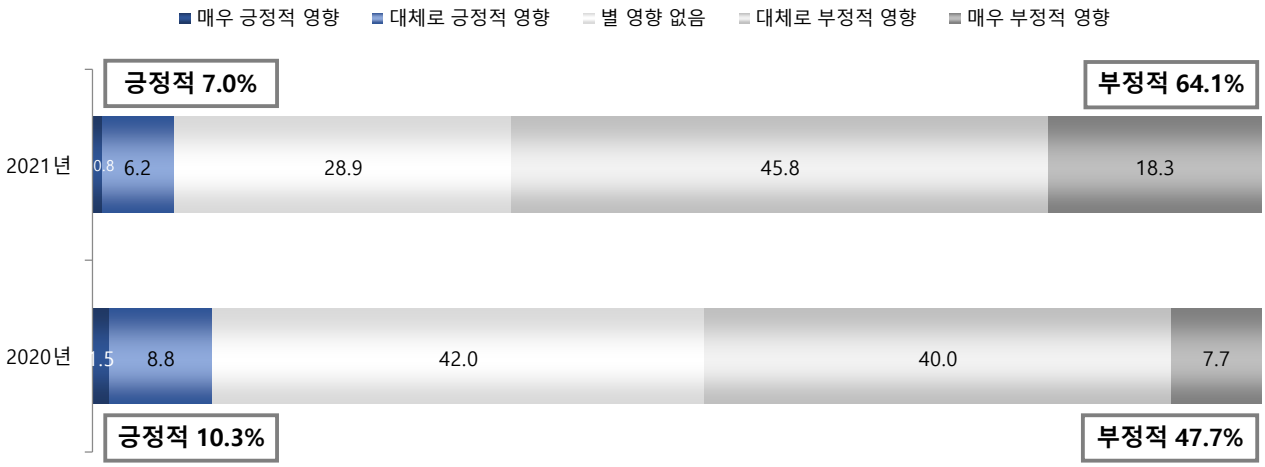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0-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중립	부정적
전체		1,260	0.8	5.9	28.7	46.0	18.7	6.7	28.7	64.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6.2	28.9	45.8	18.3	7.0	28.9	64.1
	전문가	60	0.0	0.0	23.3	51.7	25.0	0.0	23.3	7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0	4.8	22.2	47.6	24.4	5.8	22.2	72.0
	중	479	0.6	6.9	36.1	44.5	11.9	7.5	36.1	56.4
	하	118	0.8	10.2	33.9	41.5	13.6	11.0	33.9	55.1
성별	남성	720	0.8	4.0	26.9	46.3	21.9	4.9	26.9	68.2
	여성	480	0.8	9.4	31.9	45.0	12.9	10.2	31.9	57.9
연령별	20대 이하	235	1.7	7.7	39.1	38.3	13.2	9.4	39.1	51.5
	30대	198	0.5	10.1	34.3	42.9	12.1	10.6	34.3	55.1
	40대	247	1.6	6.1	30.8	45.3	16.2	7.7	30.8	61.5
	50대	252	0.4	4.0	23.8	51.6	20.2	4.4	23.8	71.8
	60대 이상	268	0.0	4.1	19.0	49.3	27.6	4.1	19.0	76.9
지역별	서울	226	0.4	7.1	32.3	40.3	19.9	7.5	32.3	60.2
	경기/인천	384	0.5	6.3	30.2	45.3	17.7	6.8	30.2	63.0
	부산/울산/경남	184	2.2	7.1	24.5	44.0	22.3	9.2	24.5	66.3
	대구/경북	117	0.9	6.0	26.5	50.4	16.2	6.8	26.5	66.7
	광주/전라	112	0.9	7.1	25.9	47.3	18.8	8.0	25.9	66.1
	대전/충청/세종	129	0.8	4.7	29.5	51.9	13.2	5.4	29.5	65.1
	강원/제주	48	0.0	0.0	31.3	50.0	18.8	0.0	31.3	68.8
지역크기	대도시	537	0.7	6.3	27.9	43.4	21.6	7.1	27.9	65.0
	중소도시	601	0.8	5.7	30.6	47.9	15.0	6.5	30.6	62.9
	읍/면	62	1.6	9.7	21.0	45.2	22.6	11.3	21.0	67.7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7.1	7.1	50.0	35.7	7.1	7.1	85.7
	자영업자	85	2.4	5.9	25.9	41.2	24.7	8.2	25.9	65.9
	판매/서비스직	85	1.2	10.6	28.2	40.0	20.0	11.8	28.2	60.0
	기능/숙련공	42	4.8	7.1	31.0	42.9	14.3	11.9	31.0	57.1
	일반 노무직	49	0.0	6.1	28.6	49.0	16.3	6.1	28.6	65.3
	사무/기술직	460	0.9	5.9	23.5	50.0	19.8	6.7	23.5	69.8
	경영/관리직	66	0.0	1.5	22.7	57.6	18.2	1.5	22.7	75.8
	전문/자유직	72	0.0	5.6	33.3	40.3	20.8	5.6	33.3	61.1
	전업주부	136	0.0	5.1	36.8	44.9	13.2	5.1	36.8	58.1
	학생	62	0.0	6.5	46.8	35.5	11.3	6.5	46.8	46.8
	무직	122	0.8	8.2	38.5	37.7	14.8	9.0	38.5	52.5
	기타	7	0.0	0.0	0.0	71.4	28.6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66.7	16.7	0.0	16.7	66.7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1	11.4	29.7	40.5	17.3	12.4	29.7	57.8
	전문대(중퇴/졸업)	162	1.2	8.0	32.1	42.0	16.7	9.3	32.1	58.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0.8	4.8	29.0	47.0	18.3	5.7	29.0	65.3
	대학원 이상	124	0.0	3.2	21.0	52.4	23.4	3.2	21.0	75.8
생활수준별	상	133	1.5	7.5	31.6	39.8	19.5	9.0	31.6	59.4
	중	538	0.7	5.9	28.3	48.7	16.4	6.7	28.3	65.1
	하	529	0.8	6.0	28.9	44.2	20.0	6.8	28.9	64.3

11.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11-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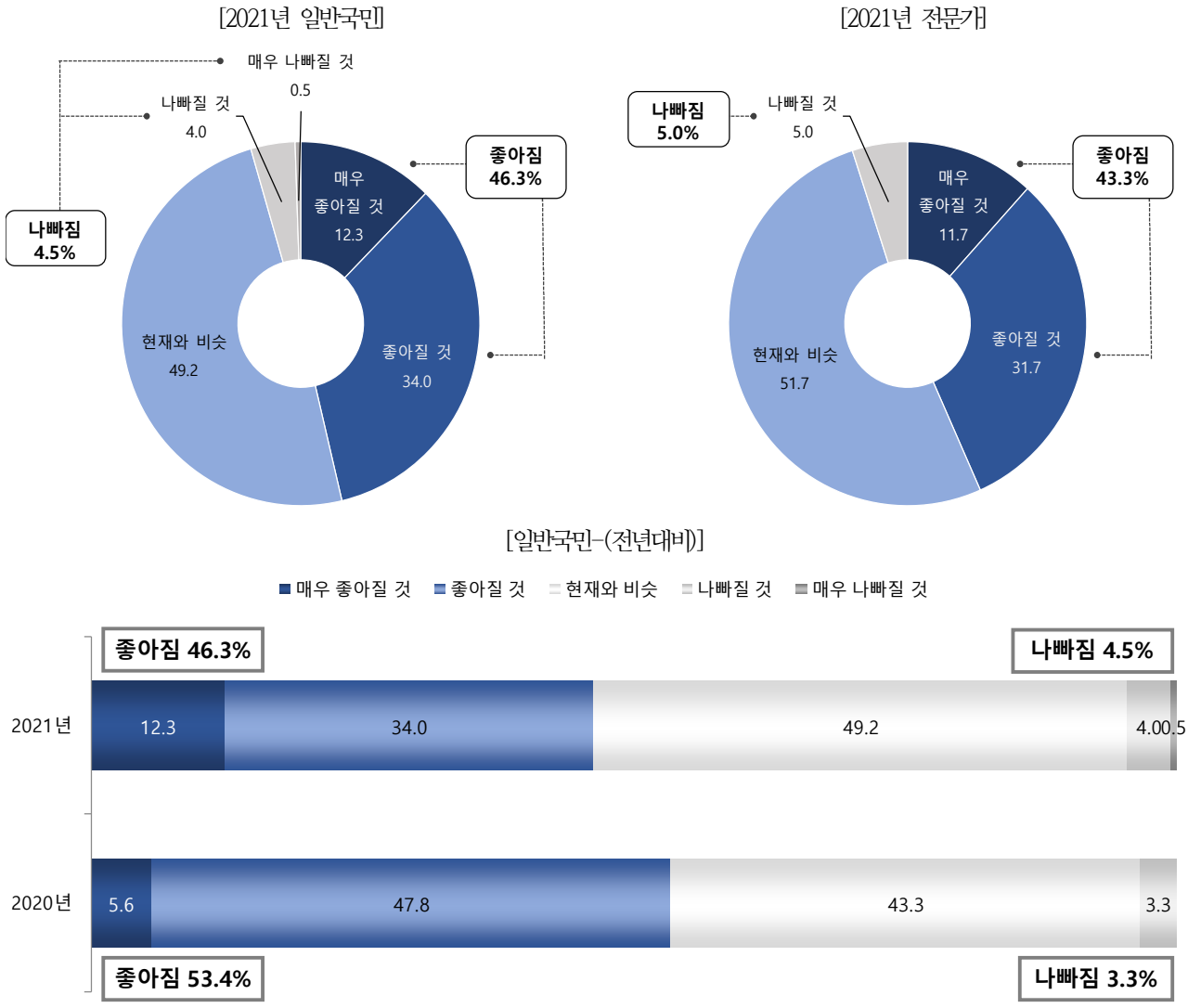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6.3%, 전문가 4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래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46.3%로,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 4.5% 보다 41.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7.1%p(2020년 53.4%) 감소하였고,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은 1.2%p(2020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래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43.3%로, '나빠질 것이다'(5.0%)는 응답보다 38.3%p 높게 나타남.

〈그림 1-11-1〉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미국



[특성별 분석]

◉ 미래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자영업자(n=85)'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1-1〉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미국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종합		
								좋아짐	현재와 비슷	나빠짐
전체		1,260	12.3	33.9	49.3	4.0	0.5	46.2	49.3	4.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3	34.0	49.2	4.0	0.5	46.3	49.2	4.5
	전문가	60	11.7	31.7	51.7	5.0	0.0	43.3	51.7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6.9	37.5	42.3	3.3	0.0	54.4	42.3	3.3
	중	479	7.9	30.9	55.7	4.8	0.6	38.8	55.7	5.4
	하	118	6.8	28.8	57.6	4.2	2.5	35.6	57.6	6.8
성별	남성	720	16.9	35.8	43.2	3.6	0.4	52.8	43.2	4.0
	여성	480	5.4	31.3	58.1	4.6	0.6	36.7	58.1	5.2
연령별	20대 이하	235	14.9	33.2	47.7	3.8	0.4	48.1	47.7	4.3
	30대	198	12.1	36.9	48.0	2.5	0.5	49.0	48.0	3.0
	40대	247	13.0	30.0	53.8	2.4	0.8	42.9	53.8	3.2
	50대	252	8.7	34.9	50.8	5.2	0.4	43.7	50.8	5.6
	60대 이상	268	13.1	35.4	45.5	5.6	0.4	48.5	45.5	6.0
지역별	서울	226	15.0	32.7	46.5	5.3	0.4	47.8	46.5	5.8
	경기/인천	384	11.2	33.3	51.0	3.6	0.8	44.5	51.0	4.4
	부산/울산/경남	184	14.7	39.1	41.3	4.9	0.0	53.8	41.3	4.9
	대구/경북	117	12.8	32.5	49.6	5.1	0.0	45.3	49.6	5.1
	광주/전라	112	11.6	33.9	52.7	0.9	0.9	45.5	52.7	1.8
	대전/충청/세종	129	10.1	31.8	54.3	3.9	0.0	41.9	54.3	3.9
	강원/제주	48	6.3	35.4	54.2	2.1	2.1	41.7	54.2	4.2
지역크기	대도시	537	13.2	32.6	48.0	5.6	0.6	45.8	48.0	6.1
	중소도시	601	11.1	36.1	49.6	2.7	0.5	47.3	49.6	3.2
	읍/면	62	16.1	25.8	54.8	3.2	0.0	41.9	54.8	3.2
직업별	농/어/임업	14	14.3	21.4	42.9	21.4	0.0	35.7	42.9	21.4
	자영업자	85	12.9	43.5	41.2	2.4	0.0	56.5	41.2	2.4
	판매/서비스직	85	16.5	23.5	51.8	5.9	2.4	40.0	51.8	8.2
	기능/숙련공	42	11.9	33.3	47.6	7.1	0.0	45.2	47.6	7.1
	일반 노무직	49	10.2	32.7	51.0	6.1	0.0	42.9	51.0	6.1
	사무/기술직	460	15.4	32.2	48.5	3.7	0.2	47.6	48.5	3.9
	경영/관리직	66	9.1	47.0	40.9	3.0	0.0	56.1	40.9	3.0
	전문/자유직	72	9.7	37.5	50.0	1.4	1.4	47.2	50.0	2.8
	전업주부	136	4.4	30.1	62.5	2.2	0.7	34.6	62.5	2.9
	학생	62	14.5	32.3	50.0	1.6	1.6	46.8	50.0	3.2
	무직	122	9.8	41.0	43.4	5.7	0.0	50.8	43.4	5.7
	기타	7	0.0	14.3	71.4	14.3	0.0	14.3	71.4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50.0	16.7	16.7	16.7	0.0	66.7	16.7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1.4	31.9	51.4	4.9	0.5	43.2	51.4	5.4
	전문대(중퇴/졸업)	162	11.1	37.7	46.9	3.7	0.6	48.8	46.9	4.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2.4	32.8	50.1	4.3	0.4	45.2	50.1	4.7
	대학원 이상	124	12.9	40.3	45.2	0.8	0.8	53.2	45.2	1.6
생활수준별	상	133	18.0	36.1	42.9	1.5	1.5	54.1	42.9	3.0
	중	538	10.8	36.1	48.7	4.1	0.4	46.8	48.7	4.5
	하	529	12.5	31.4	51.2	4.5	0.4	43.9	51.2	4.9

11-2. 일본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15.3%, 전문가 2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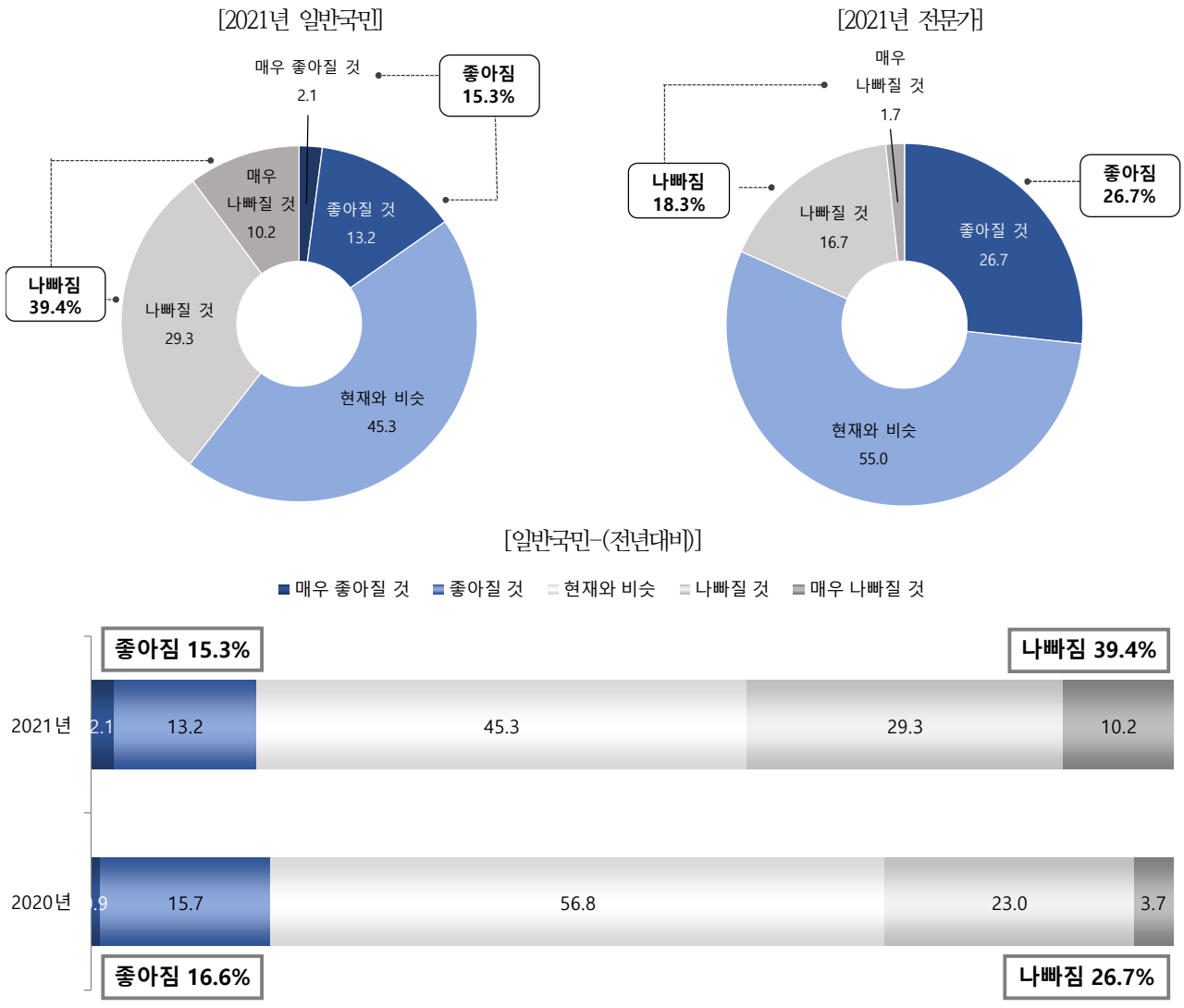
● **[일반국민]**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15.3%로, '나빠질 것이다'(39.4%)라는 응답보다 24.1%p 낮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1.3%p(2020년 16.6%) 감소하였고,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은 12.7%p(2020년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26.7%로, '나빠질 것이다'(18.3%)는 응답보다 8.4%p 높게 나타남.

○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11-2〉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일본



[특성별 분석]

◉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업별로 '자영업자(n=85)',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1-2〉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일본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종합		
								좋아짐	현재와 비슷	나빠짐
전체		1,260	2.0	13.8	45.8	28.7	9.8	15.8	45.8	38.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1	13.2	45.3	29.3	10.2	15.3	45.3	39.4
	전문가	60	0.0	26.7	55.0	16.7	1.7	26.7	55.0	1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7	14.9	43.4	29.0	10.0	17.6	43.4	39.0
	중	479	1.7	12.1	47.6	29.2	9.4	13.8	47.6	38.6
	하	118	0.8	8.5	45.8	30.5	14.4	9.3	45.8	44.9
성별	남성	720	2.5	14.9	43.5	28.8	10.4	17.4	43.5	39.2
	여성	480	1.5	10.6	48.1	30.0	9.8	12.1	48.1	39.8
연령별	20대 이하	235	3.4	11.5	54.9	20.9	9.4	14.9	54.9	30.2
	30대	198	3.5	13.1	41.4	31.3	10.6	16.7	41.4	41.9
	40대	247	1.6	7.3	42.5	34.8	13.8	8.9	42.5	48.6
	50대	252	1.6	15.1	43.7	29.0	10.7	16.7	43.7	39.7
	60대 이상	268	0.7	18.3	44.0	30.2	6.7	19.0	44.0	36.9
지역별	서울	226	3.1	12.8	44.7	28.8	10.6	15.9	44.7	39.4
	경기/인천	384	2.3	14.1	45.8	27.9	9.9	16.4	45.8	37.8
	부산/울산/경남	184	3.8	13.0	45.1	28.8	9.2	16.8	45.1	38.0
	대구/경북	117	0.0	12.0	48.7	27.4	12.0	12.0	48.7	39.3
	광주/전라	112	0.9	14.3	36.6	37.5	10.7	15.2	36.6	48.2
	대전/충청/세종	129	0.8	12.4	50.4	28.7	7.8	13.2	50.4	36.4
	강원/제주	48	0.0	10.4	43.8	31.3	14.6	10.4	43.8	45.8
지역크기	대도시	537	2.0	13.0	43.4	29.6	11.9	15.1	43.4	41.5
	중소도시	601	2.3	12.6	47.9	28.1	9.0	15.0	47.9	37.1
	읍/면	62	0.0	19.4	37.1	37.1	6.5	19.4	37.1	43.5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14.3	28.6	35.7	21.4	14.3	28.6	57.1
	자영업자	85	2.4	18.8	37.6	29.4	11.8	21.2	37.6	41.2
	판매/서비스직	85	4.7	7.1	43.5	37.6	7.1	11.8	43.5	44.7
	기능/숙련공	42	4.8	9.5	38.1	33.3	14.3	14.3	38.1	47.6
	일반 노무직	49	0.0	14.3	36.7	36.7	12.2	14.3	36.7	49.0
	사무/기술직	460	2.6	12.6	43.5	30.2	11.1	15.2	43.5	41.3
	경영/관리직	66	0.0	18.2	40.9	28.8	12.1	18.2	40.9	40.9
	전문/자유직	72	0.0	12.5	50.0	26.4	11.1	12.5	50.0	37.5
	전업주부	136	0.7	12.5	50.0	29.4	7.4	13.2	50.0	36.8
	학생	62	4.8	14.5	64.5	11.3	4.8	19.4	64.5	16.1
	무직	122	0.8	13.9	52.5	24.6	8.2	14.8	52.5	32.8
	기타	7	0.0	14.3	28.6	42.9	14.3	14.3	28.6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33.3	16.7	16.7	33.3	33.3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6	11.4	42.2	35.1	9.7	13.0	42.2	44.9
	전문대(중퇴/졸업)	162	1.2	14.8	43.8	30.9	9.3	16.0	43.8	40.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6	12.6	47.0	27.5	10.2	15.2	47.0	37.8
	대학원 이상	124	0.8	16.1	42.7	29.0	11.3	16.9	42.7	40.3
생활수준별	상	133	6.0	20.3	44.4	22.6	6.8	26.3	44.4	29.3
	중	538	1.9	12.8	48.0	27.9	9.5	14.7	48.0	37.4
	하	529	1.3	11.7	42.9	32.3	11.7	13.0	42.9	44.0

11-3.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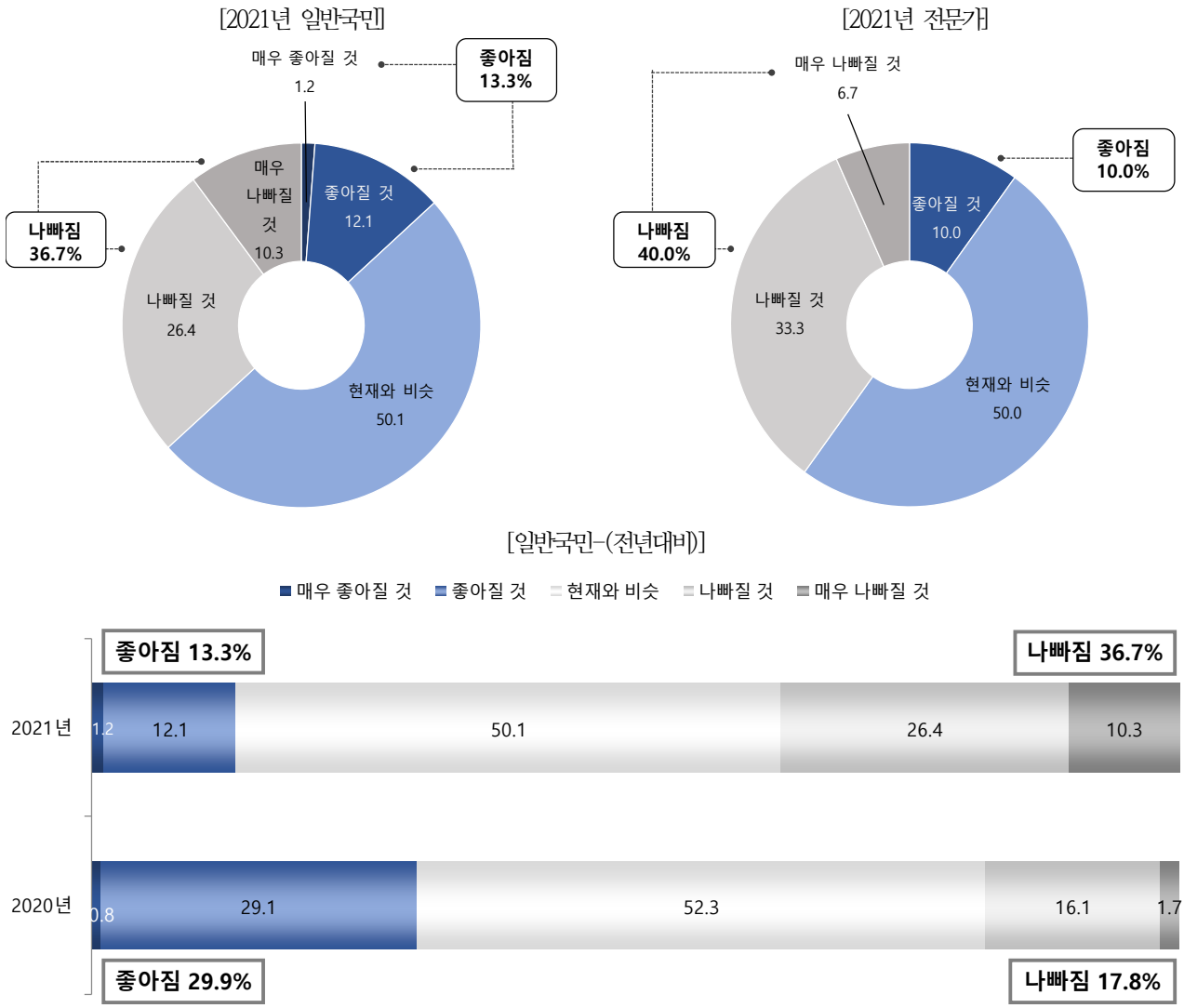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36.7%, 전문가 40.0%로 나타남.

● **[일반국민]** 미래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이 36.7%로, '좋아질 것이다'(13.3%)는 응답보다 23.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은 18.9%p(2020년 17.8%) 증가하였고,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16.6%p(2020년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미래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이 40.0%로 '좋아질 것이다'(10.0%)보다 30.0%p 높게 나타남.

〈그림 1-11-3〉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중국



[특성별 분석]

◉ 미래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1-3〉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중국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종합		
								좋아짐	현재와 비슷	나빠짐
전체		1,260	1.1	12.0	50.1	26.7	10.1	13.1	50.1	36.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	12.1	50.1	26.4	10.3	13.3	50.1	36.7
	전문가	60	0.0	10.0	50.0	33.3	6.7	10.0	50.0	4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5	12.6	50.4	24.7	10.8	14.1	50.4	35.5
	중	479	0.8	11.3	52.0	27.8	8.1	12.1	52.0	35.9
	하	118	0.8	12.7	40.7	29.7	16.1	13.6	40.7	45.8
성별	남성	720	1.7	11.4	47.4	27.1	12.5	13.1	47.4	39.6
	여성	480	0.4	13.1	54.2	25.4	6.9	13.5	54.2	32.3
연령별	20대 이하	235	1.7	7.2	41.7	30.2	19.1	8.9	41.7	49.4
	30대	198	3.0	9.6	42.9	32.8	11.6	12.6	42.9	44.4
	40대	247	0.4	11.3	54.3	27.9	6.1	11.7	54.3	34.0
	50대	252	1.2	18.7	53.6	20.6	6.0	19.8	53.6	26.6
	60대 이상	268	0.0	12.7	55.6	22.4	9.3	12.7	55.6	31.7
지역별	서울	226	2.2	11.5	48.2	25.2	12.8	13.7	48.2	38.1
	경기/인천	384	0.3	12.2	52.9	25.3	9.4	12.5	52.9	34.6
	부산/울산/경남	184	2.2	8.7	42.4	37.0	9.8	10.9	42.4	46.7
	대구/경북	117	1.7	13.7	46.2	29.9	8.5	15.4	46.2	38.5
	광주/전라	112	1.8	14.3	50.0	19.6	14.3	16.1	50.0	33.9
	대전/충청/세종	129	0.0	15.5	58.9	17.8	7.8	15.5	58.9	25.6
	강원/제주	48	0.0	8.3	52.1	31.3	8.3	8.3	52.1	39.6
지역크기	대도시	537	1.5	10.1	47.9	29.1	11.5	11.5	47.9	40.6
	중소도시	601	1.0	13.8	51.9	24.6	8.7	14.8	51.9	33.3
	읍/면	62	0.0	12.9	51.6	21.0	14.5	12.9	51.6	35.5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0.0	57.1	28.6	14.3	0.0	57.1	42.9
	자영업자	85	1.2	12.9	54.1	28.2	3.5	14.1	54.1	31.8
	판매/서비스직	85	2.4	16.5	42.4	30.6	8.2	18.8	42.4	38.8
	기능/숙련공	42	4.8	14.3	54.8	23.8	2.4	19.0	54.8	26.2
	일반 노무직	49	0.0	14.3	42.9	22.4	20.4	14.3	42.9	42.9
	사무/기술직	460	1.5	13.9	47.2	25.9	11.5	15.4	47.2	37.4
	경영/관리직	66	1.5	7.6	53.0	31.8	6.1	9.1	53.0	37.9
	전문/자유직	72	0.0	8.3	55.6	26.4	9.7	8.3	55.6	36.1
	전업주부	136	0.0	13.2	63.2	18.4	5.1	13.2	63.2	23.5
	학생	62	1.6	6.5	32.3	37.1	22.6	8.1	32.3	59.7
	무직	122	0.0	7.4	54.9	26.2	11.5	7.4	54.9	37.7
	기타	7	0.0	14.3	28.6	42.9	14.3	14.3	28.6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50.0	0.0	33.3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0.0	14.6	53.0	25.9	6.5	14.6	53.0	32.4
	전문대(중퇴/졸업)	162	1.2	12.3	54.3	24.7	7.4	13.6	54.3	32.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5	11.3	49.5	26.8	10.8	12.9	49.5	37.6
	대학원 이상	124	0.8	12.1	43.5	28.2	15.3	12.9	43.5	43.5
생활수준별	상	133	3.0	15.0	51.1	21.8	9.0	18.0	51.1	30.8
	중	538	0.9	13.2	50.6	25.5	9.9	14.1	50.6	35.3
	하	529	0.9	10.2	49.3	28.5	11.0	11.2	49.3	39.5

11-4. 러시아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18.9%, 전문가 2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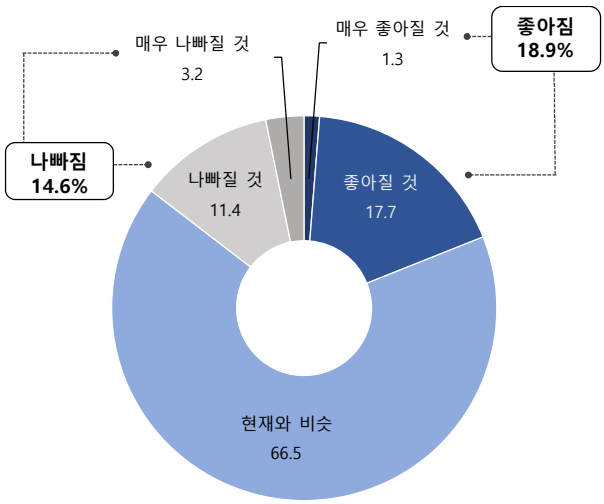
● **[일반국민]**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18.9%로, '나빠질 것이다'(14.6%) 보다 4.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2.0%p(2020년 20.9%) 감소하였고,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3.6%p(2020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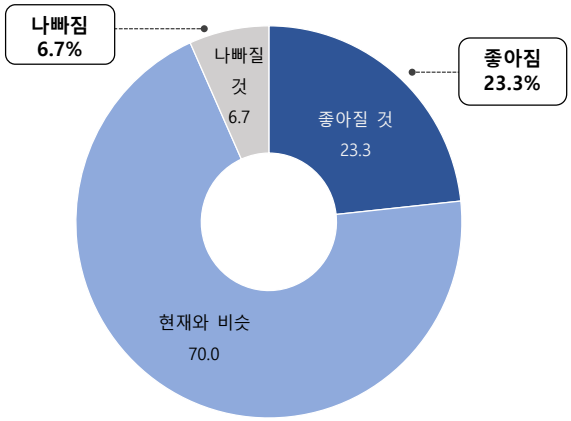
● **[전문가]**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23.3%로, '나빠질 것이다'(6.7%)보다 16.6%p 높게 나타남.

〈그림 1-11-4〉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러시아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기능/숙련공'(n=42)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1-4〉 미래(5년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전망 - 러시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종합		
								좋아짐	현재와 비슷	나빠짐
전체		1,260	1.2	17.9	66.7	11.2	3.0	19.1	66.7	1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17.7	66.5	11.4	3.2	18.9	66.5	14.6
	전문가	60	0.0	23.3	70.0	6.7	0.0	23.3	70.0	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7	17.4	64.2	12.9	3.8	19.1	64.2	16.7
	중	479	0.4	17.3	69.9	10.0	2.3	17.7	69.9	12.3
	하	118	2.5	20.3	64.4	9.3	3.4	22.9	64.4	12.7
성별	남성	720	1.8	18.3	64.0	12.1	3.8	20.1	64.0	15.8
	여성	480	0.4	16.7	70.2	10.4	2.3	17.1	70.2	12.7
연령별	20대 이하	235	1.7	13.6	69.4	10.2	5.1	15.3	69.4	15.3
	30대	198	1.0	18.7	66.2	12.6	1.5	19.7	66.2	14.1
	40대	247	1.2	17.0	68.0	11.3	2.4	18.2	68.0	13.8
	50대	252	2.0	20.6	64.7	9.1	3.6	22.6	64.7	12.7
	60대 이상	268	0.4	18.3	64.6	13.8	3.0	18.7	64.6	16.8
지역별	서울	226	1.8	19.5	61.9	11.9	4.9	21.2	61.9	16.8
	경기/인천	384	0.5	16.9	68.5	12.0	2.1	17.4	68.5	14.1
	부산/울산/경남	184	3.3	16.8	62.5	14.1	3.3	20.1	62.5	17.4
	대구/경북	117	1.7	15.4	64.1	15.4	3.4	17.1	64.1	18.8
	광주/전라	112	0.9	22.3	61.6	8.9	6.3	23.2	61.6	15.2
	대전/충청/세종	129	0.0	17.1	76.7	4.7	1.6	17.1	76.7	6.2
	강원/제주	48	0.0	14.6	77.1	8.3	0.0	14.6	77.1	8.3
지역크기	대도시	537	1.1	16.4	64.2	13.4	4.8	17.5	64.2	18.2
	중소도시	601	1.5	18.6	68.7	9.7	1.5	20.1	68.7	11.1
	읍/면	62	0.0	19.4	64.5	11.3	4.8	19.4	64.5	16.1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14.3	42.9	28.6	14.3	14.3	42.9	42.9
	자영업자	85	1.2	20.0	65.9	10.6	2.4	21.2	65.9	12.9
	판매/서비스직	85	1.2	18.8	62.4	14.1	3.5	20.0	62.4	17.6
	기능/숙련공	42	4.8	23.8	64.3	7.1	0.0	28.6	64.3	7.1
	일반 노무직	49	0.0	16.3	65.3	14.3	4.1	16.3	65.3	18.4
	사무/기술직	460	1.3	18.9	63.3	12.6	3.9	20.2	63.3	16.5
	경영/관리직	66	1.5	18.2	65.2	12.1	3.0	19.7	65.2	15.2
	전문/자유직	72	0.0	23.6	62.5	9.7	4.2	23.6	62.5	13.9
	전업주부	136	0.7	14.0	74.3	10.3	0.7	14.7	74.3	11.0
	학생	62	1.6	11.3	74.2	8.1	4.8	12.9	74.2	12.9
	무직	122	1.6	13.1	75.4	8.2	1.6	14.8	75.4	9.8
	기타	7	0.0	14.3	85.7	0.0	0.0	14.3	85.7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83.3	0.0	0.0	16.7	83.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6	20.0	64.9	12.4	1.1	21.6	64.9	13.5
	전문대(중퇴/졸업)	162	1.9	17.9	66.0	11.7	2.5	19.8	66.0	14.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0	17.4	66.1	11.6	3.9	18.4	66.1	15.5
	대학원 이상	124	1.6	15.3	71.0	8.9	3.2	16.9	71.0	12.1
생활수준별	상	133	0.8	15.0	68.4	12.8	3.0	15.8	68.4	15.8
	중	538	1.5	18.4	65.6	11.2	3.3	19.9	65.6	14.5
	하	529	1.1	17.6	66.9	11.3	3.0	18.7	66.9	14.4

1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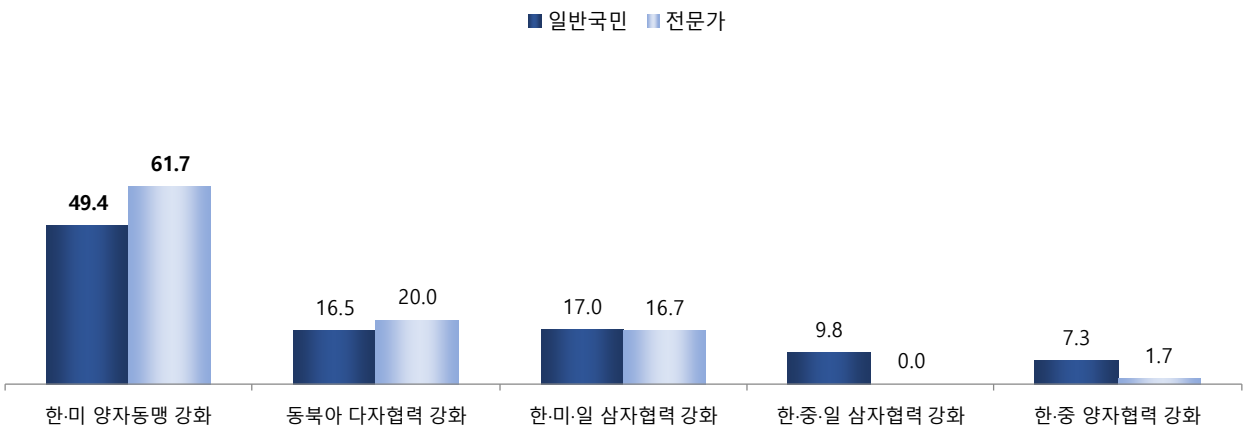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일반국민은 '한·미 양자동맹 강화'(49.4%), 전문가는 '한·미 양자동맹 강화'(6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4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마·일 삼자협력 강화'(17.0%),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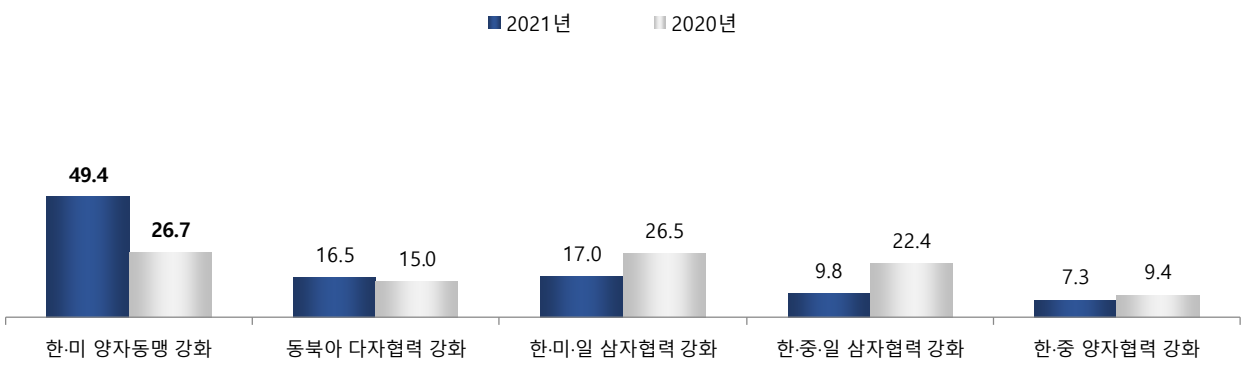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한·미· 양자동맹 강화'는 22.7%p(2020년 26.7%) 증가하였고, '한·마·일 삼자협력 강화'이라는 응답은 9.5%p(2020년 2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6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20.0%), '한·마·일 삼자협력 강화'(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미 양자동맹 강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단위[%]		사례수 (명)	한·미 양자동맹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한·중 양자협력 강화
전체		1,260	50.0	16.7	17.0	9.3	7.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4	16.5	17.0	9.8	7.3
	전문가	60	61.7	20.0	16.7	0.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1.9	15.8	17.4	8.0	7.0
	중	479	46.1	18.6	15.7	11.5	8.1
	하	118	50.0	11.9	20.3	11.9	5.9
성별	남성	720	52.6	17.5	16.9	6.7	6.3
	여성	480	44.6	15.0	17.1	14.4	9.0
연령별	20대 이하	235	57.9	12.8	20.0	7.2	2.1
	30대	198	56.1	10.1	15.7	13.6	4.5
	40대	247	42.9	21.1	15.8	10.5	9.7
	50대	252	40.9	22.2	18.3	9.9	8.7
	60대 이상	268	51.1	14.9	15.3	8.2	10.4
지역별	서울	226	45.1	16.8	19.5	11.1	7.5
	경기/인천	384	48.7	16.9	17.4	10.9	6.0
	부산/울산/경남	184	56.5	16.3	16.8	4.9	5.4
	대구/경북	117	52.1	12.0	18.8	9.4	7.7
	광주/전라	112	50.9	21.4	8.9	11.6	7.1
	대전/충청/세종	129	50.4	12.4	17.1	10.1	10.1
	강원/제주	48	35.4	22.9	16.7	8.3	16.7
지역크기	대도시	537	46.2	16.6	20.3	8.8	8.2
	중소도시	601	51.6	15.8	14.8	10.6	7.2
	읍/면	62	56.5	22.6	9.7	9.7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57.1	14.3	21.4	0.0	7.1
	자영업자	85	54.1	16.5	12.9	5.9	10.6
	판매/서비스직	85	50.6	14.1	20.0	8.2	7.1
	기능/숙련공	42	42.9	21.4	21.4	9.5	4.8
	일반 노무직	49	53.1	18.4	14.3	10.2	4.1
	사무/기술직	460	48.0	17.0	18.0	10.2	6.7
	경영/관리직	66	53.0	25.8	7.6	4.5	9.1
	전문/자유직	72	51.4	13.9	13.9	11.1	9.7
	전업주부	136	41.2	14.7	15.4	19.1	9.6
	학생	62	51.6	9.7	29.0	8.1	1.6
	무직	122	55.7	16.4	14.8	5.7	7.4
	기타	7	42.9	14.3	28.6	0.0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66.7	16.7	16.7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6.5	15.7	21.1	11.9	4.9
	전문대(중퇴/졸업)	162	49.4	9.3	14.8	14.8	11.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9.9	17.6	17.3	8.7	6.5
	대학원 이상	124	50.0	21.0	12.1	6.5	10.5
생활수준별	상	133	38.3	15.0	27.8	12.0	6.8
	중	538	50.2	14.9	16.5	10.2	8.2
	하	529	51.4	18.5	14.7	8.7	6.6

13.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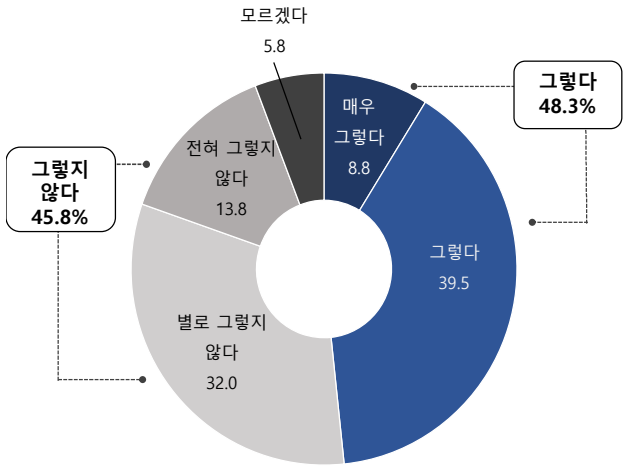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48.3%, 전문가 7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8.3%로 '그렇지 않다'(45.8%)보다 2.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1.7%로 '그렇지 않다'(26.7%)보다 45.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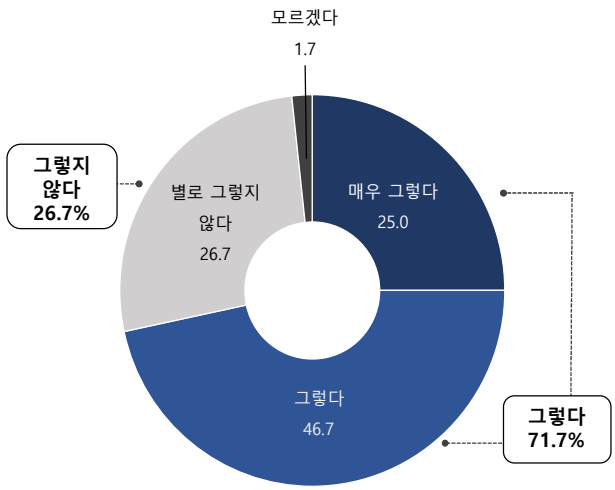
○ 일반국민 및 전문가 공히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안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13〉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3〉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1,260	9.6	39.8	31.7	13.2	5.6	49.4	44.9	5.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8	39.5	32.0	13.8	5.8	48.3	45.8	5.8
	전문가	60	25.0	46.7	26.7	0.0	1.7	71.7	26.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2.3	40.3	27.9	15.9	3.6	52.6	43.8	3.6
	중	479	4.8	40.5	35.9	10.2	8.6	45.3	46.1	8.6
	하	118	7.6	31.4	37.3	17.8	5.9	39.0	55.1	5.9
성별	남성	720	10.4	37.8	31.7	16.3	3.9	48.2	47.9	3.9
	여성	480	6.5	42.1	32.5	10.2	8.8	48.5	42.7	8.8
연령별	20대 이하	235	9.4	43.0	25.5	10.6	11.5	52.3	36.2	11.5
	30대	198	6.6	38.4	31.3	16.7	7.1	44.9	48.0	7.1
	40대	247	7.3	30.8	39.7	17.8	4.5	38.1	57.5	4.5
	50대	252	7.9	38.5	34.1	15.1	4.4	46.4	49.2	4.4
	60대 이상	268	12.3	46.3	29.1	9.7	2.6	58.6	38.8	2.6
지역별	서울	226	10.2	44.2	27.9	12.4	5.3	54.4	40.3	5.3
	경기/인천	384	10.2	39.8	31.3	12.0	6.8	50.0	43.2	6.8
	부산/울산/경남	184	8.7	39.1	29.9	16.8	5.4	47.8	46.7	5.4
	대구/경북	117	7.7	39.3	35.9	10.3	6.8	47.0	46.2	6.8
	광주/전라	112	7.1	27.7	41.1	18.8	5.4	34.8	59.8	5.4
	대전/충청/세종	129	7.0	41.1	31.8	14.7	5.4	48.1	46.5	5.4
	강원/제주	48	4.2	39.6	35.4	18.8	2.1	43.8	54.2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9.9	42.1	30.2	13.0	4.8	52.0	43.2	4.8
	중소도시	601	8.3	36.9	32.4	15.1	7.2	45.3	47.6	7.2
	읍/면	62	4.8	41.9	43.5	8.1	1.6	46.8	51.6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42.9	21.4	7.1	0.0	71.4	28.6	0.0
	자영업자	85	11.8	38.8	34.1	11.8	3.5	50.6	45.9	3.5
	판매/서비스직	85	4.7	42.4	36.5	10.6	5.9	47.1	47.1	5.9
	기능/숙련공	42	4.8	28.6	31.0	28.6	7.1	33.3	59.5	7.1
	일반 노무직	49	2.0	40.8	38.8	14.3	4.1	42.9	53.1	4.1
	사무/기술직	460	9.1	40.9	30.9	14.1	5.0	50.0	45.0	5.0
	경영/관리직	66	6.1	33.3	36.4	22.7	1.5	39.4	59.1	1.5
	전문/자유직	72	12.5	27.8	36.1	19.4	4.2	40.3	55.6	4.2
	전업주부	136	7.4	41.9	35.3	8.1	7.4	49.3	43.4	7.4
	학생	62	9.7	46.8	19.4	6.5	17.7	56.5	25.8	17.7
	무직	122	10.7	39.3	28.7	13.9	7.4	50.0	42.6	7.4
	기타	7	14.3	42.9	28.6	14.3	0.0	57.1	42.9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16.7	16.7	16.7	16.7	50.0	33.3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5.9	44.3	30.3	13.0	6.5	50.3	43.2	6.5
	전문대(중퇴/졸업)	162	8.0	38.3	34.6	12.3	6.8	46.3	46.9	6.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9.7	40.0	31.1	13.3	5.9	49.7	44.4	5.9
	대학원 이상	124	8.1	32.3	37.1	20.2	2.4	40.3	57.3	2.4
생활수준별	상	133	12.8	45.1	30.1	9.0	3.0	57.9	39.1	3.0
	중	538	8.0	41.6	33.1	12.5	4.8	49.6	45.5	4.8
	하	529	8.7	35.9	31.4	16.4	7.6	44.6	47.8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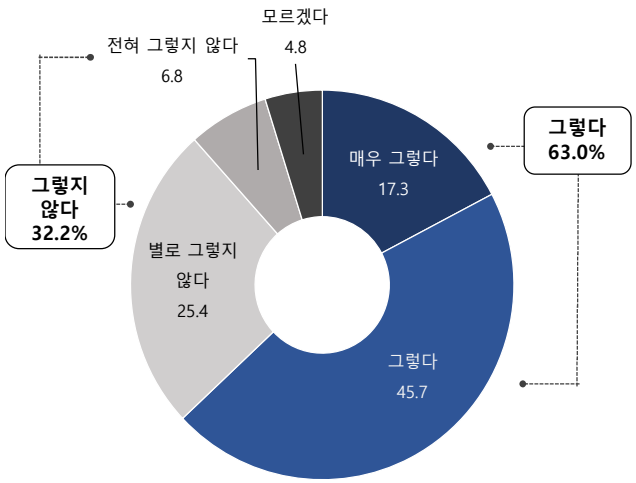
14. 한 · 미 · 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3.0%, 전문가 8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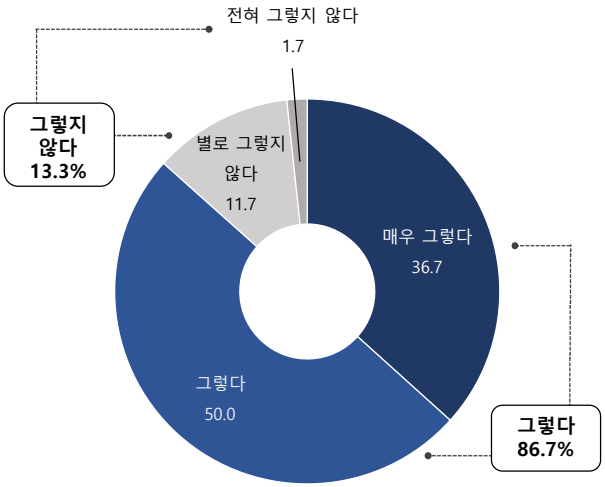
- **[일반국민]**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3.0%로, '그렇지 않다'(32.2%)보다 30.8%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6.7%로, '그렇지 않다'(13.3%)보다 73.4%p 높게 나타남.

〈그림 1-14〉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크기별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4〉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1,260	18.3	45.9	24.8	6.5	4.6	64.1	31.3	4.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3	45.7	25.4	6.8	4.8	63.0	32.2	4.8
	전문가	60	36.7	50.0	11.7	1.7	0.0	86.7	1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3.5	43.8	22.2	7.8	2.7	67.3	30.0	2.7
	중	479	10.4	47.8	29.9	4.6	7.3	58.2	34.4	7.3
	하	118	13.6	46.6	23.7	10.2	5.9	60.2	33.9	5.9
성별	남성	720	20.4	42.4	26.5	7.1	3.6	62.8	33.6	3.6
	여성	480	12.7	50.6	23.8	6.3	6.7	63.3	30.0	6.7
연령별	20대 이하	235	19.6	40.0	23.0	6.0	11.5	59.6	28.9	11.5
	30대	198	12.1	44.9	29.3	9.6	4.0	57.1	38.9	4.0
	40대	247	14.6	40.5	31.2	9.3	4.5	55.1	40.5	4.5
	50대	252	11.9	50.4	28.6	6.3	2.8	62.3	34.9	2.8
	60대 이상	268	26.9	51.5	16.4	3.4	1.9	78.4	19.8	1.9
지역별	서울	226	16.4	45.1	27.4	6.2	4.9	61.5	33.6	4.9
	경기/인천	384	19.0	42.7	27.9	5.2	5.2	61.7	33.1	5.2
	부산/울산/경남	184	18.5	48.9	18.5	9.8	4.3	67.4	28.3	4.3
	대구/경북	117	19.7	46.2	23.1	6.0	5.1	65.8	29.1	5.1
	광주/전라	112	14.3	45.5	25.0	10.7	4.5	59.8	35.7	4.5
	대전/충청/세종	129	14.7	51.2	24.8	5.4	3.9	65.9	30.2	3.9
	강원/제주	48	12.5	43.8	31.3	6.3	6.3	56.3	37.5	6.3
지역크기	대도시	537	16.8	46.7	25.5	6.9	4.1	63.5	32.4	4.1
	중소도시	601	18.3	43.3	26.0	7.0	5.5	61.6	32.9	5.5
	읍/면	62	12.9	59.7	19.4	3.2	4.8	72.6	22.6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42.9	42.9	7.1	7.1	0.0	85.7	14.3	0.0
	자영업자	85	20.0	52.9	22.4	2.4	2.4	72.9	24.7	2.4
	판매/서비스직	85	5.9	52.9	28.2	7.1	5.9	58.8	35.3	5.9
	기능/숙련공	42	7.1	45.2	35.7	9.5	2.4	52.4	45.2	2.4
	일반 노무직	49	14.3	46.9	22.4	6.1	10.2	61.2	28.6	10.2
	사무/기술직	460	18.3	43.0	27.2	8.7	2.8	61.3	35.9	2.8
	경영/관리직	66	13.6	47.0	33.3	1.5	4.5	60.6	34.8	4.5
	전문/자유직	72	15.3	47.2	26.4	9.7	1.4	62.5	36.1	1.4
	전업주부	136	14.7	52.9	21.3	5.1	5.9	67.6	26.5	5.9
	학생	62	25.8	35.5	16.1	4.8	17.7	61.3	21.0	17.7
	무직	122	23.0	41.0	23.8	5.7	6.6	63.9	29.5	6.6
	기타	7	28.6	42.9	14.3	0.0	14.3	71.4	14.3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16.7	33.3	0.0	16.7	50.0	33.3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5.1	50.3	23.8	5.9	4.9	65.4	29.7	4.9
	전문대(중퇴/졸업)	162	14.8	44.4	25.9	7.4	7.4	59.3	33.3	7.4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8.7	45.8	24.6	6.4	4.6	64.5	31.0	4.6
	대학원 이상	124	15.3	41.1	31.5	9.7	2.4	56.5	41.1	2.4
생활수준별	상	133	31.6	37.6	21.1	8.3	1.5	69.2	29.3	1.5
	중	538	16.4	46.7	25.8	5.6	5.6	63.0	31.4	5.6
	하	529	14.7	46.7	26.1	7.6	4.9	61.4	33.6	4.9

Ⅱ 한 · 미 동맹과 주한미군

1. 한·미 동맹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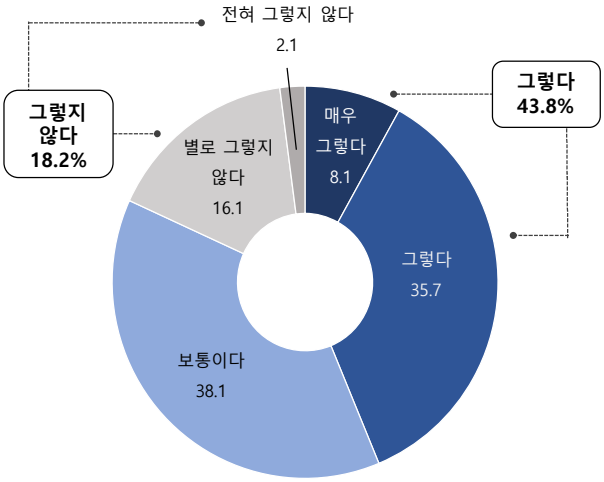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43.8%, 전문가 5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3.8%로, '그렇지 않다'(18.2%)보다 25.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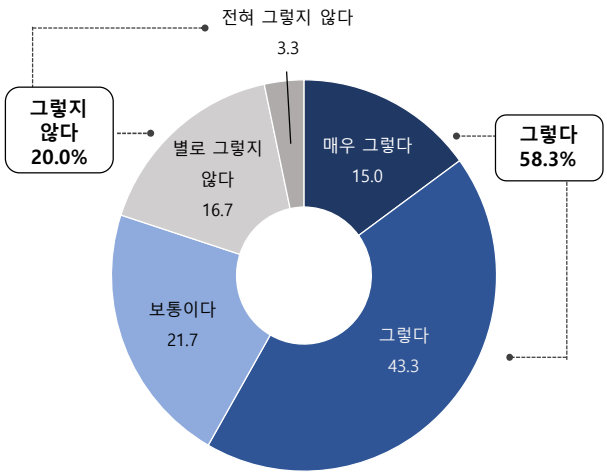
● **[전문가]**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8.3%로, '그렇지 않다'(20.0%)보다 38.3%p 높게 나타남.

〈그림 2-1〉 한·미 동맹관계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2-1〉 한·미 동맹관계

단위[%]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260	8.4	36.0	37.3	16.1	2.1	44.4	37.3	18.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1	35.7	38.1	16.1	2.1	43.8	38.1	18.2
	전문가	60	15.0	43.3	21.7	16.7	3.3	58.3	21.7	2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1.4	42.3	30.5	13.4	2.3	53.7	30.5	15.8
	중	479	3.5	31.1	45.9	17.5	1.9	34.7	45.9	19.4
	하	118	9.3	20.3	44.9	23.7	1.7	29.7	44.9	25.4
성별	남성	720	9.9	42.2	32.4	13.2	2.4	52.1	32.4	15.6
	여성	480	5.4	25.8	46.7	20.4	1.7	31.3	46.7	22.1
연령별	20대 이하	235	8.9	30.6	42.1	15.7	2.6	39.6	42.1	18.3
	30대	198	8.1	35.4	38.9	16.2	1.5	43.4	38.9	17.7
	40대	247	9.3	39.3	36.4	13.0	2.0	48.6	36.4	15.0
	50대	252	7.5	33.3	42.1	15.1	2.0	40.9	42.1	17.1
	60대 이상	268	6.7	39.2	31.7	20.1	2.2	45.9	31.7	22.4
지역별	서울	226	8.4	35.4	36.7	17.7	1.8	43.8	36.7	19.5
	경기/인천	384	9.4	34.1	39.6	13.5	3.4	43.5	39.6	16.9
	부산/울산/경남	184	7.6	33.2	39.7	17.9	1.6	40.8	39.7	19.6
	대구/경북	117	4.3	37.6	35.9	19.7	2.6	41.9	35.9	22.2
	광주/전라	112	8.9	38.4	35.7	17.0	0.0	47.3	35.7	17.0
	대전/충청/세종	129	8.5	40.3	36.4	14.0	0.8	48.8	36.4	14.7
	강원/제주	48	4.2	35.4	41.7	16.7	2.1	39.6	41.7	18.8
지역크기	대도시	537	6.5	35.0	38.5	17.7	2.2	41.5	38.5	19.9
	중소도시	601	8.8	36.9	37.9	14.3	2.0	45.8	37.9	16.3
	읍/면	62	14.5	29.0	35.5	19.4	1.6	43.5	35.5	21.0
직업별	농/어/임업	14	14.3	42.9	7.1	35.7	0.0	57.1	7.1	35.7
	자영업자	85	7.1	44.7	41.2	4.7	2.4	51.8	41.2	7.1
	판매/서비스직	85	8.2	31.8	34.1	20.0	5.9	40.0	34.1	25.9
	기능/숙련공	42	9.5	42.9	35.7	11.9	0.0	52.4	35.7	11.9
	일반 노무직	49	8.2	32.7	42.9	14.3	2.0	40.8	42.9	16.3
	사무/기술직	460	9.1	35.9	36.7	16.3	2.0	45.0	36.7	18.3
	경영/관리직	66	4.5	42.4	37.9	15.2	0.0	47.0	37.9	15.2
	전문/자유직	72	9.7	36.1	34.7	18.1	1.4	45.8	34.7	19.4
	전업주부	136	4.4	27.2	47.1	19.1	2.2	31.6	47.1	21.3
	학생	62	9.7	29.0	43.5	11.3	6.5	38.7	43.5	17.7
	무직	122	8.2	38.5	35.2	18.0	0.0	46.7	35.2	18.0
	기타	7	0.0	28.6	42.9	28.6	0.0	28.6	42.9	28.6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33.3	50.0	0.0	0.0	50.0	5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8.1	37.8	35.7	16.8	1.6	45.9	35.7	18.4
	전문대(중퇴/졸업)	162	9.3	34.6	41.4	11.7	3.1	43.8	41.4	14.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6.9	35.8	38.6	16.5	2.2	42.7	38.6	18.7
	대학원 이상	124	12.9	33.1	33.9	19.4	0.8	46.0	33.9	20.2
생활수준별	상	133	13.5	32.3	36.8	15.8	1.5	45.9	36.8	17.3
	중	538	6.7	37.0	40.0	15.1	1.3	43.7	40.0	16.4
	하	529	8.1	35.2	36.5	17.2	3.0	43.3	36.5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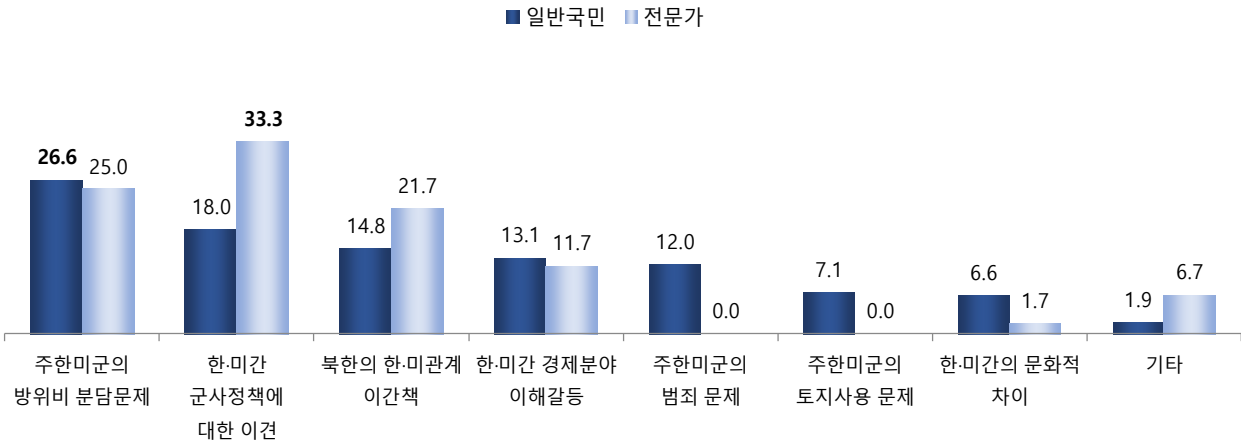
2.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일반국민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26.6%), 전문가는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33.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2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18.0%),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25.0%),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2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한·미동맹관계 유지의 저해 요인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기능/숙련공(n=42)'에서 높게 나타남.

〈표 2-2〉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단위[%]		사례수 (명)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기타
전체		1,260	26.5	18.7	15.1	13.0	11.4	6.7	6.3	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6.6	18.0	14.8	13.1	12.0	7.1	6.6	1.9
	전문가	60	25.0	33.3	21.7	11.7	0.0	0.0	1.7	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6.5	22.1	16.6	10.1	11.3	5.5	5.0	3.0
	중	479	26.9	14.6	12.9	15.9	12.1	7.7	9.0	0.8
	하	118	25.4	11.0	12.7	16.9	15.3	12.7	5.1	0.8
성별	남성	720	26.4	19.9	15.6	11.4	11.1	7.4	5.6	2.8
	여성	480	26.9	15.2	13.5	15.6	13.3	6.7	8.1	0.6
연령별	20대 이하	235	17.4	12.8	16.2	13.6	16.6	11.1	11.5	0.9
	30대	198	18.7	12.6	16.2	13.6	19.2	8.1	11.1	0.5
	40대	247	32.0	13.0	10.9	16.2	13.4	7.3	5.3	2.0
	50대	252	29.4	27.8	12.7	13.5	7.5	4.4	4.0	0.8
	60대 이상	268	32.8	22.0	17.9	9.0	5.6	5.2	2.6	4.9
지역별	서울	226	24.8	14.2	18.1	16.8	11.1	6.6	6.6	1.8
	경기/인천	384	23.4	18.0	15.4	12.8	11.7	6.8	8.6	3.4
	부산/울산/경남	184	27.2	19.6	17.4	12.0	11.4	8.2	3.3	1.1
	대구/경북	117	28.2	22.2	12.0	8.5	12.8	8.5	6.8	0.9
	광주/전라	112	29.5	19.6	7.1	14.3	16.1	6.3	7.1	0.0
	대전/충청/세종	129	28.7	18.6	12.4	11.6	12.4	8.5	5.4	2.3
	강원/제주	48	41.7	14.6	14.6	14.6	8.3	2.1	4.2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25.3	17.5	17.1	13.0	11.7	6.7	6.9	1.7
	중소도시	601	28.0	18.1	12.5	13.1	12.6	7.3	6.2	2.2
	읍/면	62	24.2	21.0	16.1	12.9	8.1	8.1	8.1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14.3	7.1	7.1	21.4	21.4	0.0	0.0
	자영업자	85	30.6	21.2	10.6	18.8	10.6	3.5	1.2	3.5
	판매/서비스직	85	24.7	10.6	16.5	12.9	15.3	8.2	10.6	1.2
	기능/숙련공	42	31.0	14.3	11.9	9.5	9.5	9.5	14.3	0.0
	일반 노무직	49	12.2	14.3	18.4	16.3	8.2	12.2	14.3	4.1
	사무/기술직	460	26.5	17.0	15.2	14.1	12.8	6.3	6.7	1.3
	경영/관리직	66	27.3	28.8	15.2	10.6	4.5	9.1	1.5	3.0
	전문/자유직	72	27.8	16.7	15.3	12.5	13.9	2.8	6.9	4.2
	전업주부	136	27.2	19.9	16.2	13.2	8.1	8.1	7.4	0.0
	학생	62	19.4	6.5	19.4	9.7	21.0	11.3	12.9	0.0
	무직	122	30.3	27.0	10.7	9.8	11.5	5.7	0.8	4.1
	기타	7	42.9	14.3	14.3	0.0	14.3	0.0	0.0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0.0	16.7	16.7	16.7	33.3	1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9.7	16.2	15.7	13.0	10.3	8.6	5.9	0.5
	전문대(중퇴/졸업)	162	25.9	12.3	18.5	8.0	14.8	8.6	10.5	1.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5.6	19.1	13.3	14.5	11.5	6.9	6.5	2.6
	대학원 이상	124	29.8	22.6	16.9	11.3	13.7	2.4	2.4	0.8
생활수준별	상	133	25.6	13.5	16.5	12.0	14.3	8.3	8.3	1.5
	중	538	27.1	18.8	14.1	13.6	10.8	6.9	6.9	1.9
	하	529	26.3	18.3	14.9	12.9	12.7	7.0	5.9	2.1

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3-1. 군사동맹 강화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2.8%, 전문가 8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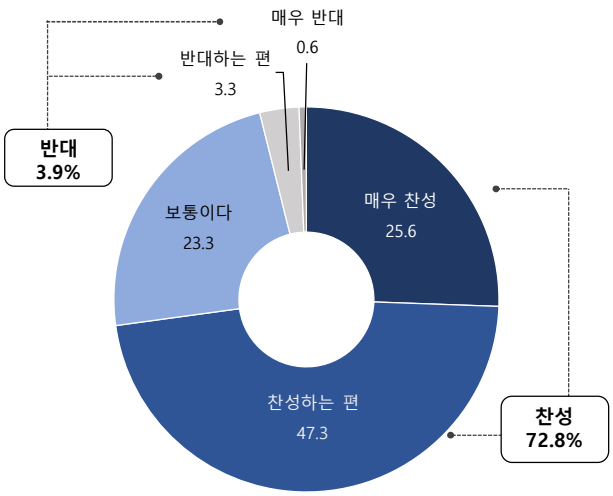
● **[일반국민]** '향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2.8%로, '반대한다'(3.9%)는 응답보다 68.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0.5%p(2020년 72.3%), '반대한다'는 0.7%p(2020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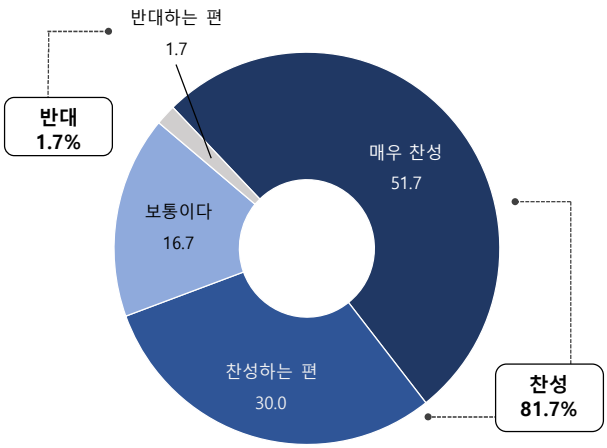
● **[전문가]** '향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1.7%로, '반대한다'(1.7%)보다 80.0%p 높게 나타남.

〈그림 2-3-1〉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군사 동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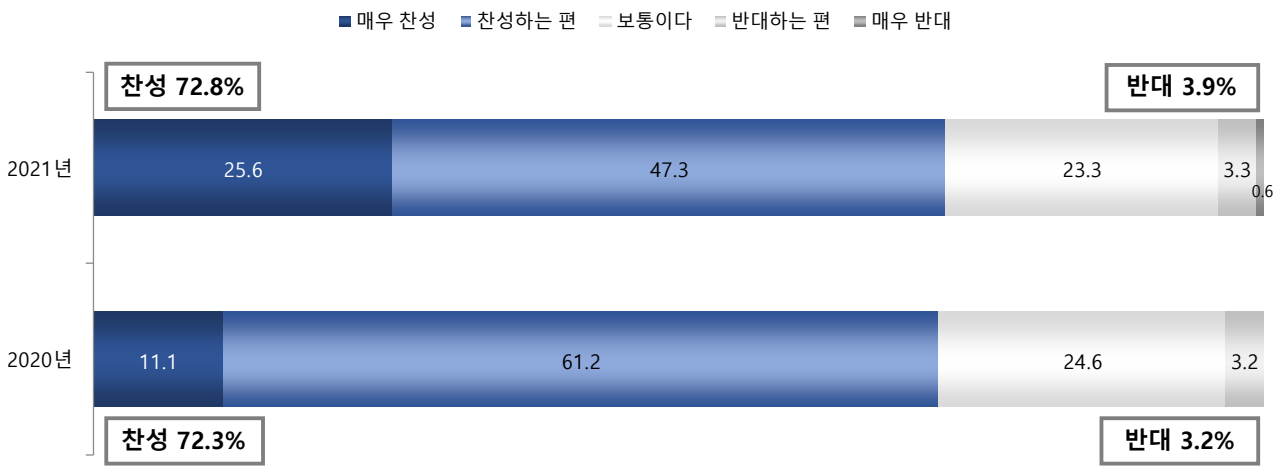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별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2-3-1〉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군사 동맹 강화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26.8	46.4	22.9	3.3	0.6	73.3	22.9	3.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5.6	47.3	23.3	3.3	0.6	72.8	23.3	3.9
	전문가	60	51.7	30.0	16.7	1.7	0.0	81.7	16.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5.5	46.6	13.9	3.2	0.8	82.1	13.9	4.0
	중	479	15.0	48.9	32.4	3.5	0.2	63.9	32.4	3.8
	하	118	17.8	44.1	33.9	3.4	0.8	61.9	33.9	4.2
성별	남성	720	31.9	45.3	19.4	2.6	0.7	77.2	19.4	3.3
	여성	480	16.0	50.2	29.0	4.4	0.4	66.3	29.0	4.8
연령별	20대 이하	235	19.6	43.4	31.9	4.3	0.9	63.0	31.9	5.1
	30대	198	20.7	43.9	31.3	3.5	0.5	64.6	31.3	4.0
	40대	247	19.4	51.4	24.7	4.0	0.4	70.9	24.7	4.5
	50대	252	23.8	53.2	18.3	4.8	0.0	77.0	18.3	4.8
	60대 이상	268	41.8	43.7	13.1	0.4	1.1	85.4	13.1	1.5
지역별	서울	226	21.7	49.6	23.9	3.5	1.3	71.2	23.9	4.9
	경기/인천	384	26.6	45.3	25.3	2.9	0.0	71.9	25.3	2.9
	부산/울산/경남	184	29.9	46.7	20.1	2.7	0.5	76.6	20.1	3.3
	대구/경북	117	29.9	47.0	19.7	1.7	1.7	76.9	19.7	3.4
	광주/전라	112	21.4	46.4	27.7	4.5	0.0	67.9	27.7	4.5
	대전/충청/세종	129	22.5	51.2	21.7	3.9	0.8	73.6	21.7	4.7
	강원/제주	48	27.1	45.8	18.8	8.3	0.0	72.9	18.8	8.3
지역크기	대도시	537	24.6	48.6	22.5	3.5	0.7	73.2	22.5	4.3
	중소도시	601	25.6	46.9	23.6	3.3	0.5	72.5	23.6	3.8
	읍/면	62	33.9	38.7	25.8	1.6	0.0	72.6	25.8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78.6	21.4	0.0	0.0	0.0	100.0	0.0	0.0
	자영업자	85	28.2	55.3	14.1	2.4	0.0	83.5	14.1	2.4
	판매/서비스직	85	23.5	48.2	25.9	2.4	0.0	71.8	25.9	2.4
	기능/숙련공	42	19.0	52.4	23.8	4.8	0.0	71.4	23.8	4.8
	일반 노무직	49	22.4	44.9	26.5	4.1	2.0	67.3	26.5	6.1
	사무/기술직	460	21.7	49.6	24.3	3.7	0.7	71.3	24.3	4.3
	경영/관리직	66	34.8	39.4	24.2	0.0	1.5	74.2	24.2	1.5
	전문/자유직	72	31.9	45.8	19.4	2.8	0.0	77.8	19.4	2.8
	전업주부	136	21.3	52.2	24.3	2.2	0.0	73.5	24.3	2.2
	학생	62	19.4	41.9	30.6	4.8	3.2	61.3	30.6	8.1
	무직	122	34.4	38.5	21.3	5.7	0.0	73.0	21.3	5.7
	기타	7	57.1	14.3	28.6	0.0	0.0	71.4	28.6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50.0	33.3	0.0	0.0	66.7	33.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7.0	44.9	24.3	3.2	0.5	71.9	24.3	3.8
	전문대(중퇴/졸업)	162	23.5	46.3	24.7	5.6	0.0	69.8	24.7	5.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5.4	48.1	22.5	3.0	0.8	73.6	22.5	3.9
	대학원 이상	124	27.4	46.8	23.4	2.4	0.0	74.2	23.4	2.4
생활수준별	상	133	33.8	37.6	26.3	1.5	0.8	71.4	26.3	2.3
	중	538	23.2	50.4	23.2	2.8	0.4	73.6	23.2	3.2
	하	529	25.9	46.5	22.5	4.3	0.8	72.4	22.5	5.1

3-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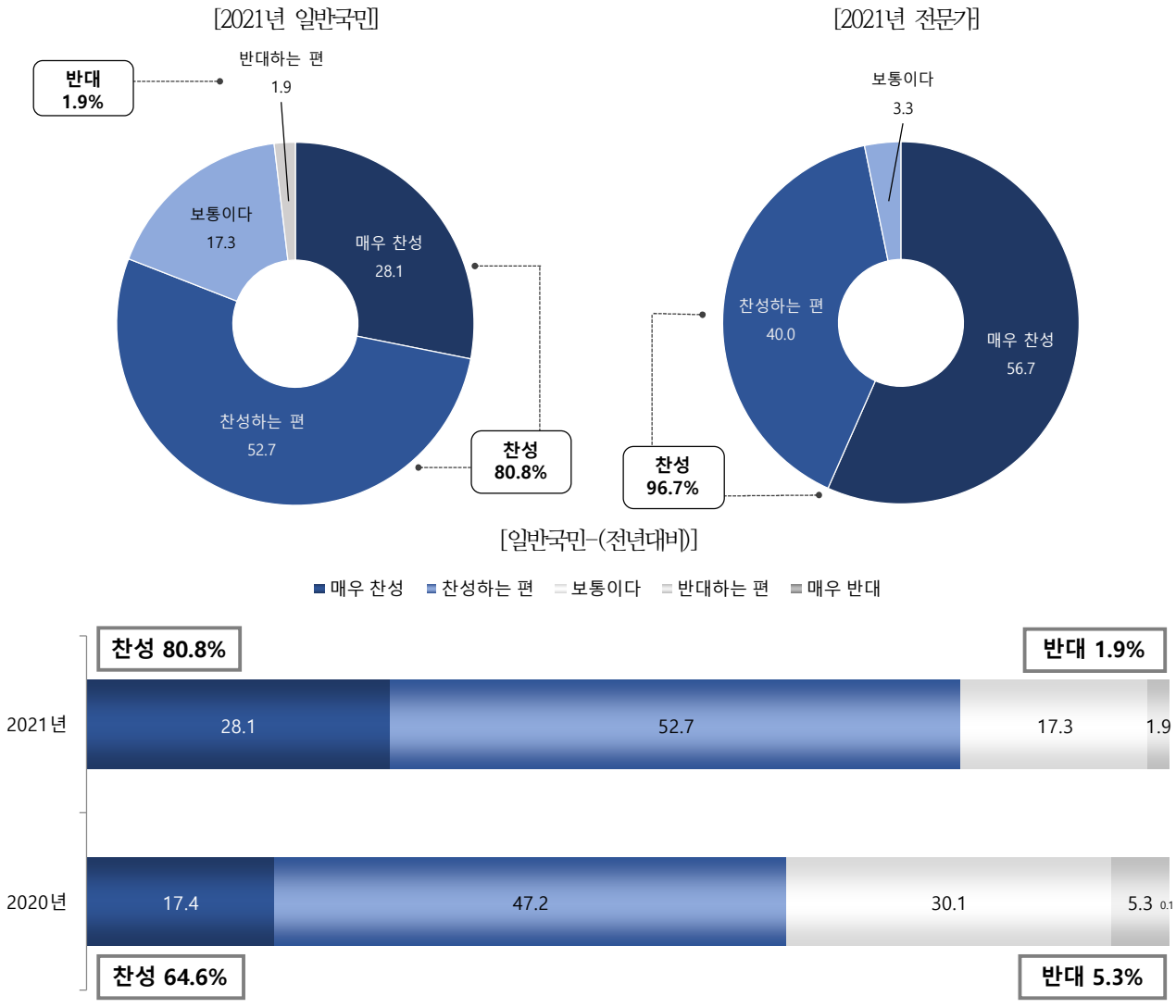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80.8%, 전문가 9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0.8%로, '반대한다'(1.9%)는 응답보다 78.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16.2%p(2020년 64.6%) 증가하였고, '반대한다'는 3.4%p(2020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향후 한·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6.7%로 높게 나타남. (반대 : 0.0%)

〈그림 2-3-2〉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특성별 분석]

◉ 한·미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2-3-2〉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29.4	52.1	16.7	1.8	81.5	16.7	1.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8.1	52.7	17.3	1.9	80.8	17.3	1.9
	전문가	60	56.7	40.0	3.3	0.0	96.7	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8.5	49.9	10.3	1.3	88.4	10.3	1.3
	중	479	17.3	56.4	24.2	2.1	73.7	24.2	2.1
	하	118	18.6	51.7	25.4	4.2	70.3	25.4	4.2
성별	남성	720	34.9	49.2	14.6	1.4	84.0	14.6	1.4
	여성	480	17.9	57.9	21.5	2.7	75.8	21.5	2.7
연령별	20대 이하	235	23.0	48.5	26.0	2.6	71.5	26.0	2.6
	30대	198	22.2	51.0	22.2	4.5	73.2	22.2	4.5
	40대	247	23.5	53.4	21.5	1.6	76.9	21.5	1.6
	50대	252	28.2	59.1	11.1	1.6	87.3	11.1	1.6
	60대 이상	268	41.0	50.7	8.2	0.0	91.8	8.2	0.0
지역별	서울	226	23.9	58.8	16.4	0.9	82.7	16.4	0.9
	경기/인천	384	30.5	51.6	16.4	1.6	82.0	16.4	1.6
	부산/울산/경남	184	29.3	52.7	16.3	1.6	82.1	16.3	1.6
	대구/경북	117	25.6	50.4	21.4	2.6	76.1	21.4	2.6
	광주/전라	112	31.3	48.2	17.9	2.7	79.5	17.9	2.7
	대전/충청/세종	129	26.4	51.9	17.8	3.9	78.3	17.8	3.9
	강원/제주	48	27.1	50.0	20.8	2.1	77.1	20.8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25.7	54.0	18.4	1.9	79.7	18.4	1.9
	중소도시	601	29.6	52.2	16.5	1.7	81.9	16.5	1.7
	읍/면	62	33.9	45.2	16.1	4.8	79.0	16.1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50.0	50.0	0.0	0.0	100.0	0.0	0.0
	자영업자	85	31.8	55.3	12.9	0.0	87.1	12.9	0.0
	판매/서비스직	85	20.0	57.6	16.5	5.9	77.6	16.5	5.9
	기능/숙련공	42	31.0	50.0	19.0	0.0	81.0	19.0	0.0
	일반 노무직	49	20.4	44.9	26.5	8.2	65.3	26.5	8.2
	사무/기술직	460	27.8	52.8	18.0	1.3	80.7	18.0	1.3
	경영/관리직	66	42.4	47.0	10.6	0.0	89.4	10.6	0.0
	전문/자유직	72	34.7	56.9	8.3	0.0	91.7	8.3	0.0
	전업주부	136	18.4	62.5	16.9	2.2	80.9	16.9	2.2
	학생	62	24.2	40.3	32.3	3.2	64.5	32.3	3.2
	무직	122	32.0	47.5	18.0	2.5	79.5	18.0	2.5
	기타	7	42.9	42.9	14.3	0.0	85.7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33.3	50.0	0.0	50.0	5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5.4	53.0	18.4	3.2	78.4	18.4	3.2
	전문대(중퇴/졸업)	162	17.9	54.3	24.7	3.1	72.2	24.7	3.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9.0	53.4	16.0	1.5	82.4	16.0	1.5
	대학원 이상	124	40.3	46.8	12.1	0.8	87.1	12.1	0.8
생활수준별	상	133	41.4	39.1	16.5	3.0	80.5	16.5	3.0
	중	538	25.1	56.7	16.9	1.3	81.8	16.9	1.3
	하	529	27.8	52.0	18.0	2.3	79.8	18.0	2.3

3-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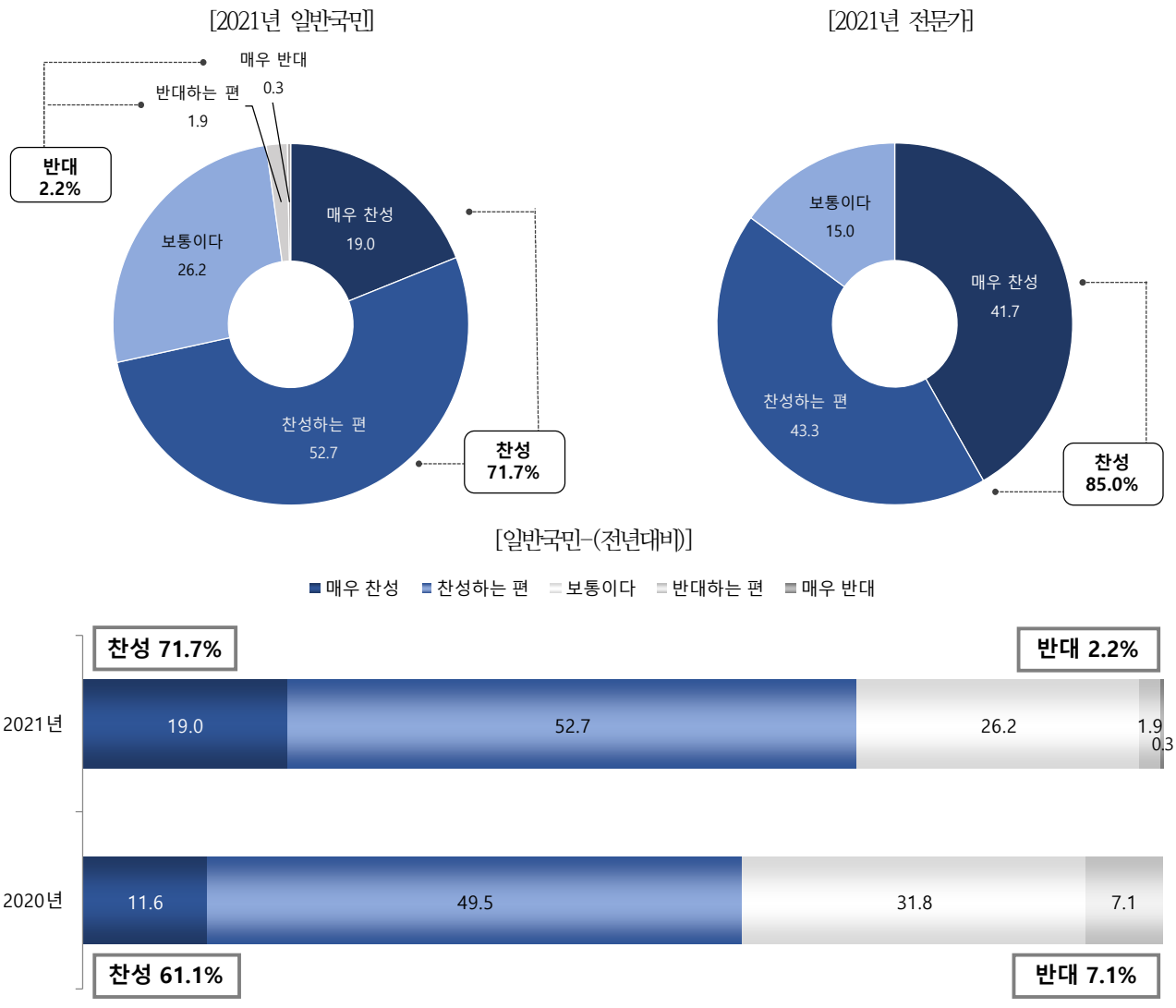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71.7%, 전문가 8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향후 한·미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1.7%로, '반대한다'(2.2%)는 응답보다 69.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10.6%p(2020년 61.1%) 증가하였고, '반대한다'는 4.9%p(2020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향후 한·미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5.0%로 높게 나타남. (반대 : 0.0%)

〈그림 2-3-3〉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특성별 분석]

◉ 한·미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반대'는 직업별로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3〉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20.1	52.2	25.6	1.8	0.2	72.3	25.6	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0	52.7	26.2	1.9	0.3	71.7	26.2	2.2
	전문가	60	41.7	43.3	15.0	0.0	0.0	85.0	15.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6.4	51.9	19.6	2.0	0.2	78.3	19.6	2.2
	중	479	11.5	52.8	33.8	1.7	0.2	64.3	33.8	1.9
	하	118	11.9	55.9	28.8	2.5	0.8	67.8	28.8	3.4
성별	남성	720	23.9	51.3	23.3	1.3	0.3	75.1	23.3	1.5
	여성	480	11.7	54.8	30.4	2.9	0.2	66.5	30.4	3.1
연령별	20대 이하	235	19.6	44.7	30.2	4.7	0.9	64.3	30.2	5.5
	30대	198	15.2	49.5	33.3	2.0	0.0	64.6	33.3	2.0
	40대	247	15.8	51.8	31.2	1.2	0.0	67.6	31.2	1.2
	50대	252	17.9	57.5	22.6	1.6	0.4	75.4	22.6	2.0
	60대 이상	268	25.4	58.2	16.0	0.4	0.0	83.6	16.0	0.4
지역별	서울	226	16.4	53.5	27.4	2.7	0.0	69.9	27.4	2.7
	경기/인천	384	19.5	52.9	25.3	2.1	0.3	72.4	25.3	2.3
	부산/울산/경남	184	22.8	54.3	22.3	0.0	0.5	77.2	22.3	0.5
	대구/경북	117	23.9	45.3	27.4	3.4	0.0	69.2	27.4	3.4
	광주/전라	112	17.9	52.7	25.9	2.7	0.9	70.5	25.9	3.6
	대전/충청/세종	129	16.3	52.7	29.5	1.6	0.0	69.0	29.5	1.6
	강원/제주	48	10.4	58.3	31.3	0.0	0.0	68.8	31.3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18.4	52.7	27.0	1.7	0.2	71.1	27.0	1.9
	중소도시	601	19.3	53.1	25.5	1.8	0.3	72.4	25.5	2.2
	읍/면	62	21.0	48.4	25.8	4.8	0.0	69.4	25.8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35.7	50.0	14.3	0.0	0.0	85.7	14.3	0.0
	자영업자	85	24.7	52.9	21.2	0.0	1.2	77.6	21.2	1.2
	판매/서비스직	85	14.1	48.2	35.3	2.4	0.0	62.4	35.3	2.4
	기능/숙련공	42	16.7	45.2	33.3	4.8	0.0	61.9	33.3	4.8
	일반 노무직	49	14.3	46.9	34.7	2.0	2.0	61.2	34.7	4.1
	사무/기술직	460	19.6	51.7	26.5	2.2	0.0	71.3	26.5	2.2
	경영/관리직	66	19.7	57.6	22.7	0.0	0.0	77.3	22.7	0.0
	전문/자유직	72	25.0	55.6	18.1	1.4	0.0	80.6	18.1	1.4
	전업주부	136	11.0	59.6	28.7	0.7	0.0	70.6	28.7	0.7
	학생	62	16.1	50.0	22.6	9.7	1.6	66.1	22.6	11.3
	무직	122	23.0	53.3	23.8	0.0	0.0	76.2	23.8	0.0
	기타	7	28.6	57.1	14.3	0.0	0.0	85.7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66.7	33.3	0.0	0.0	66.7	33.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7.3	51.9	28.6	2.2	0.0	69.2	28.6	2.2
	전문대(중퇴/졸업)	162	9.9	54.9	33.3	1.9	0.0	64.8	33.3	1.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0.6	51.9	24.9	2.2	0.4	72.5	24.9	2.6
	대학원 이상	124	25.0	54.8	20.2	0.0	0.0	79.8	20.2	0.0
생활수준별	상	133	28.6	46.6	21.8	3.0	0.0	75.2	21.8	3.0
	중	538	16.7	53.3	27.7	2.0	0.2	70.1	27.7	2.2
	하	529	18.9	53.5	25.7	1.5	0.4	72.4	25.7	1.9

3-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78.9%, 전문가 9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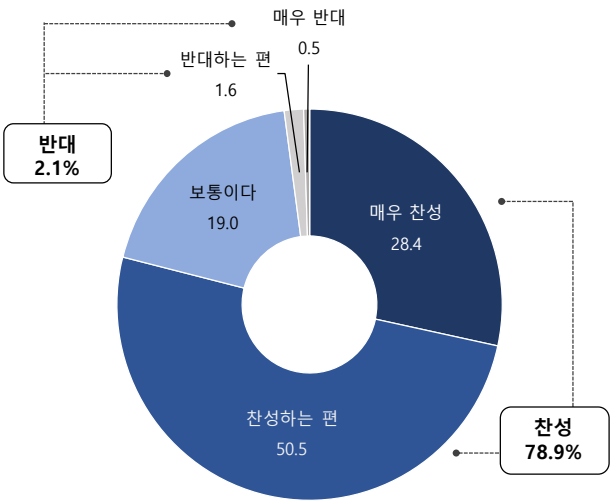
● **[일반국민]** '향후 한·미가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반대한다'(2.1%)는 응답보다 76.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12.9%p(2020년 66.0%) 증가하였고, '반대한다'는 2.9%p(2020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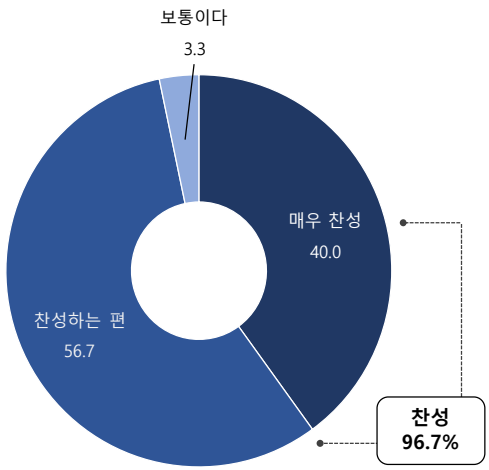
● **[전문가]** '향후 한·미가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6.7%로 높게 나타남.(반대 : 0.0%)

〈그림 2-3-4〉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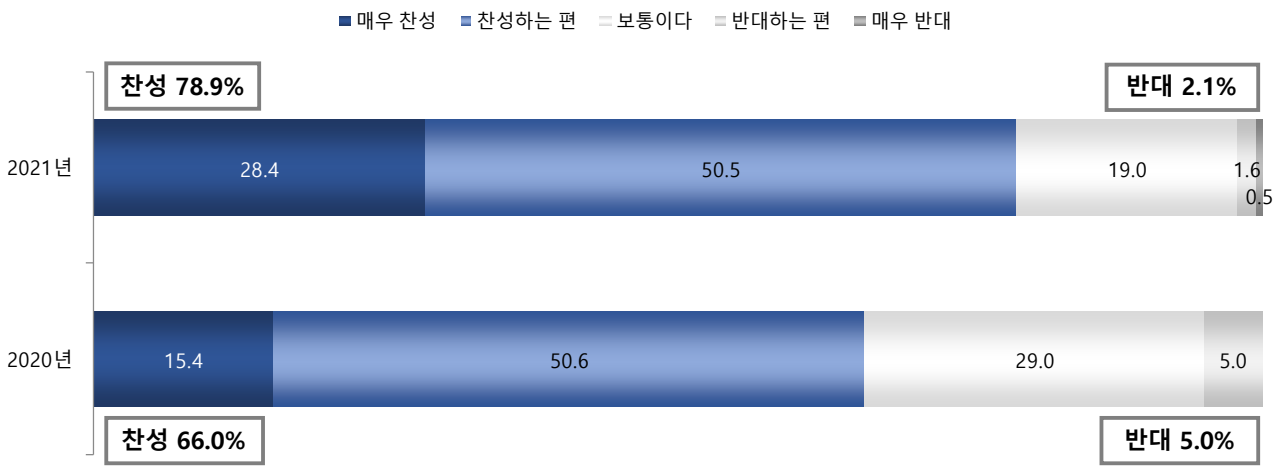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한·미가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하자는 의견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반대'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남.

〈표 2-5-4〉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29.0	50.8	18.3	1.5	0.5	79.8	18.3	2.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8.4	50.5	19.0	1.6	0.5	78.9	19.0	2.1
	전문가	60	40.0	56.7	3.3	0.0	0.0	96.7	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6.2	47.8	14.1	1.5	0.5	83.9	14.1	2.0
	중	479	19.8	53.7	24.6	1.5	0.4	73.5	24.6	1.9
	하	118	23.7	51.7	21.2	2.5	0.8	75.4	21.2	3.4
성별	남성	720	30.3	48.9	18.5	1.8	0.6	79.2	18.5	2.4
	여성	480	25.6	52.9	19.8	1.3	0.4	78.5	19.8	1.7
연령별	20대 이하	235	26.8	41.3	29.4	1.7	0.9	68.1	29.4	2.6
	30대	198	24.2	51.5	18.2	5.1	1.0	75.8	18.2	6.1
	40대	247	23.9	51.8	22.3	1.2	0.8	75.7	22.3	2.0
	50대	252	29.4	54.0	16.3	0.4	0.0	83.3	16.3	0.4
	60대 이상	268	36.2	53.4	10.1	0.4	0.0	89.6	10.1	0.4
지역별	서울	226	26.1	53.5	19.0	1.3	0.0	79.6	19.0	1.3
	경기/인천	384	28.9	50.0	18.8	1.6	0.8	78.9	18.8	2.3
	부산/울산/경남	184	35.3	44.6	18.5	1.1	0.5	79.9	18.5	1.6
	대구/경북	117	29.9	45.3	21.4	2.6	0.9	75.2	21.4	3.4
	광주/전라	112	25.9	55.4	15.2	2.7	0.9	81.3	15.2	3.6
	대전/충청/세종	129	23.3	54.3	20.9	1.6	0.0	77.5	20.9	1.6
	강원/제주	48	25.0	54.2	20.8	0.0	0.0	79.2	20.8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27.6	50.1	20.1	1.9	0.4	77.7	20.1	2.2
	중소도시	601	29.3	50.9	17.8	1.3	0.7	80.2	17.8	2.0
	읍/면	62	27.4	50.0	21.0	1.6	0.0	77.4	21.0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42.9	42.9	14.3	0.0	0.0	85.7	14.3	0.0
	자영업자	85	34.1	47.1	18.8	0.0	0.0	81.2	18.8	0.0
	판매/서비스직	85	21.2	52.9	18.8	4.7	2.4	74.1	18.8	7.1
	가능/숙련공	42	21.4	42.9	31.0	2.4	2.4	64.3	31.0	4.8
	일반 노무직	49	18.4	51.0	28.6	2.0	0.0	69.4	28.6	2.0
	사무/기술직	460	27.0	52.8	18.0	1.7	0.4	79.8	18.0	2.2
	경영/관리직	66	27.3	59.1	13.6	0.0	0.0	86.4	13.6	0.0
	전문/자유직	72	29.2	58.3	9.7	2.8	0.0	87.5	9.7	2.8
	전업주부	136	31.6	52.9	14.7	0.7	0.0	84.6	14.7	0.7
	학생	62	29.0	30.6	37.1	1.6	1.6	59.7	37.1	3.2
	무직	122	35.2	44.3	19.7	0.8	0.0	79.5	19.7	0.8
	기타	7	42.9	42.9	14.3	0.0	0.0	85.7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66.7	0.0	0.0	33.3	6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0.8	44.9	22.7	1.1	0.5	75.7	22.7	1.6
	전문대(중퇴/졸업)	162	22.2	51.2	21.0	4.3	1.2	73.5	21.0	5.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8.9	51.0	18.4	1.2	0.4	79.9	18.4	1.7
	대학원 이상	124	31.5	55.6	12.1	0.8	0.0	87.1	12.1	0.8
생활수준별	상	133	36.1	37.6	23.3	3.0	0.0	73.7	23.3	3.0
	중	538	25.7	53.7	19.0	1.3	0.4	79.4	19.0	1.7
	하	529	29.3	50.5	18.0	1.5	0.8	79.8	18.0	2.3

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8.8%, 전문가 9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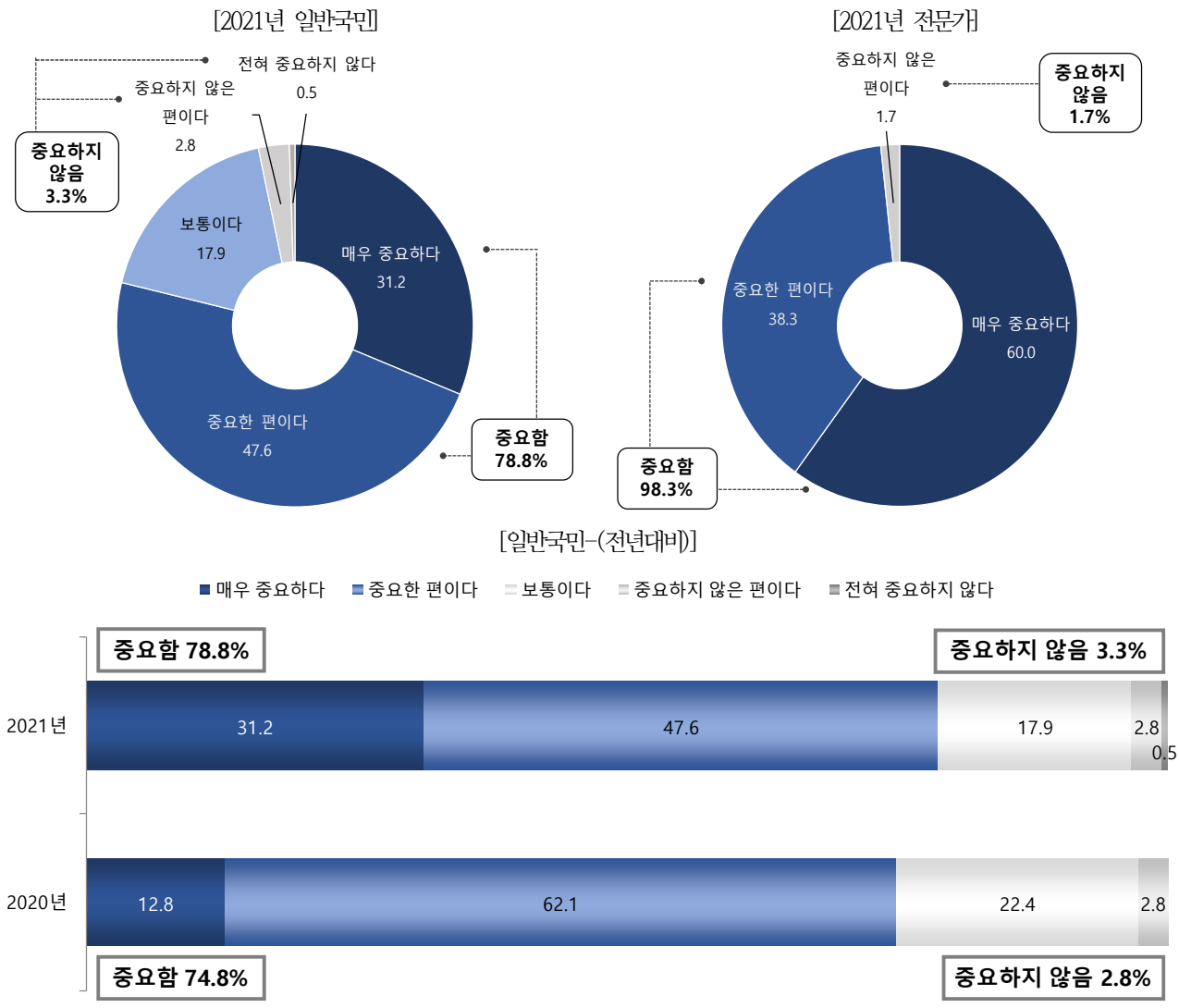
● **[일반국민]**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8.8%로, '중요하지 않다'(3.3%)보다 75.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중요하다'는 4.0%p(2020년 74.8%), '중요하지 않다'는 0.5%p(2020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중요하지 않다 : 1.7%)

○ 지속적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주한 미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2-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 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2-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체		1,260	32.5	47.1	17.1	2.8	0.5	79.7	17.1	3.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1.2	47.6	17.9	2.8	0.5	78.8	17.9	3.3
	전문가	60	60.0	38.3	0.0	1.7	0.0	98.3	0.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43.3	41.6	11.8	3.0	0.3	84.9	11.8	3.3
	중	479	18.4	54.1	24.6	2.5	0.4	72.4	24.6	2.9
	하	118	21.2	51.7	22.0	3.4	1.7	72.9	22.0	5.1
성별	남성	720	38.1	44.2	14.9	2.1	0.8	82.2	14.9	2.9
	여성	480	20.8	52.7	22.5	4.0	0.0	73.5	22.5	4.0
연령별	20대 이하	235	25.1	48.1	23.0	3.0	0.9	73.2	23.0	3.8
	30대	198	26.3	48.0	21.7	4.0	0.0	74.2	21.7	4.0
	40대	247	25.1	48.2	22.7	3.2	0.8	73.3	22.7	4.0
	50대	252	29.4	50.4	16.3	3.6	0.4	79.8	16.3	4.0
	60대 이상	268	47.4	43.7	7.8	0.7	0.4	91.0	7.8	1.1
지역별	서울	226	29.6	49.6	17.7	2.2	0.9	79.2	17.7	3.1
	경기/인천	384	34.4	44.0	18.5	2.6	0.5	78.4	18.5	3.1
	부산/울산/경남	184	35.9	47.3	14.1	2.7	0.0	83.2	14.1	2.7
	대구/경북	117	33.3	42.7	18.8	3.4	1.7	76.1	18.8	5.1
	광주/전라	112	23.2	50.9	24.1	1.8	0.0	74.1	24.1	1.8
	대전/충청/세종	129	24.0	58.1	13.2	4.7	0.0	82.2	13.2	4.7
	강원/제주	48	27.1	43.8	25.0	4.2	0.0	70.8	25.0	4.2
지역크기	대도시	537	29.6	49.2	17.5	3.2	0.6	78.8	17.5	3.7
	중소도시	601	32.3	45.8	18.8	2.7	0.5	78.0	18.8	3.2
	읍/면	62	33.9	51.6	12.9	1.6	0.0	85.5	12.9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78.6	14.3	0.0	7.1	0.0	92.9	0.0	7.1
	자영업자	85	41.2	49.4	9.4	0.0	0.0	90.6	9.4	0.0
	판매/서비스직	85	21.2	49.4	22.4	5.9	1.2	70.6	22.4	7.1
	기능/숙련공	42	21.4	38.1	38.1	0.0	2.4	59.5	38.1	2.4
	일반 노무직	49	26.5	46.9	22.4	2.0	2.0	73.5	22.4	4.1
	사무/기술직	460	30.4	46.7	18.7	3.7	0.4	77.2	18.7	4.1
	경영/관리직	66	36.4	50.0	12.1	1.5	0.0	86.4	12.1	1.5
	전문/자유직	72	47.2	43.1	9.7	0.0	0.0	90.3	9.7	0.0
	전업주부	136	22.1	53.7	21.3	2.9	0.0	75.7	21.3	2.9
	학생	62	24.2	53.2	19.4	1.6	1.6	77.4	19.4	3.2
	무직	122	34.4	46.7	15.6	3.3	0.0	81.1	15.6	3.3
	기타	7	42.9	57.1	0.0	0.0	0.0	10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16.7	50.0	0.0	0.0	50.0	5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9.7	46.5	18.9	3.8	1.1	76.2	18.9	4.9
	전문대(중퇴/졸업)	162	25.3	42.0	29.6	2.5	0.6	67.3	29.6	3.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2.4	48.8	15.5	2.9	0.4	81.2	15.5	3.3
	대학원 이상	124	33.9	50.8	13.7	1.6	0.0	84.7	13.7	1.6
생활수준별	상	133	40.6	39.1	16.5	3.0	0.8	79.7	16.5	3.8
	중	538	29.6	50.0	18.2	2.2	0.0	79.6	18.2	2.2
	하	529	30.4	47.3	18.0	3.4	0.9	77.7	18.0	4.3

5. 주한미군 주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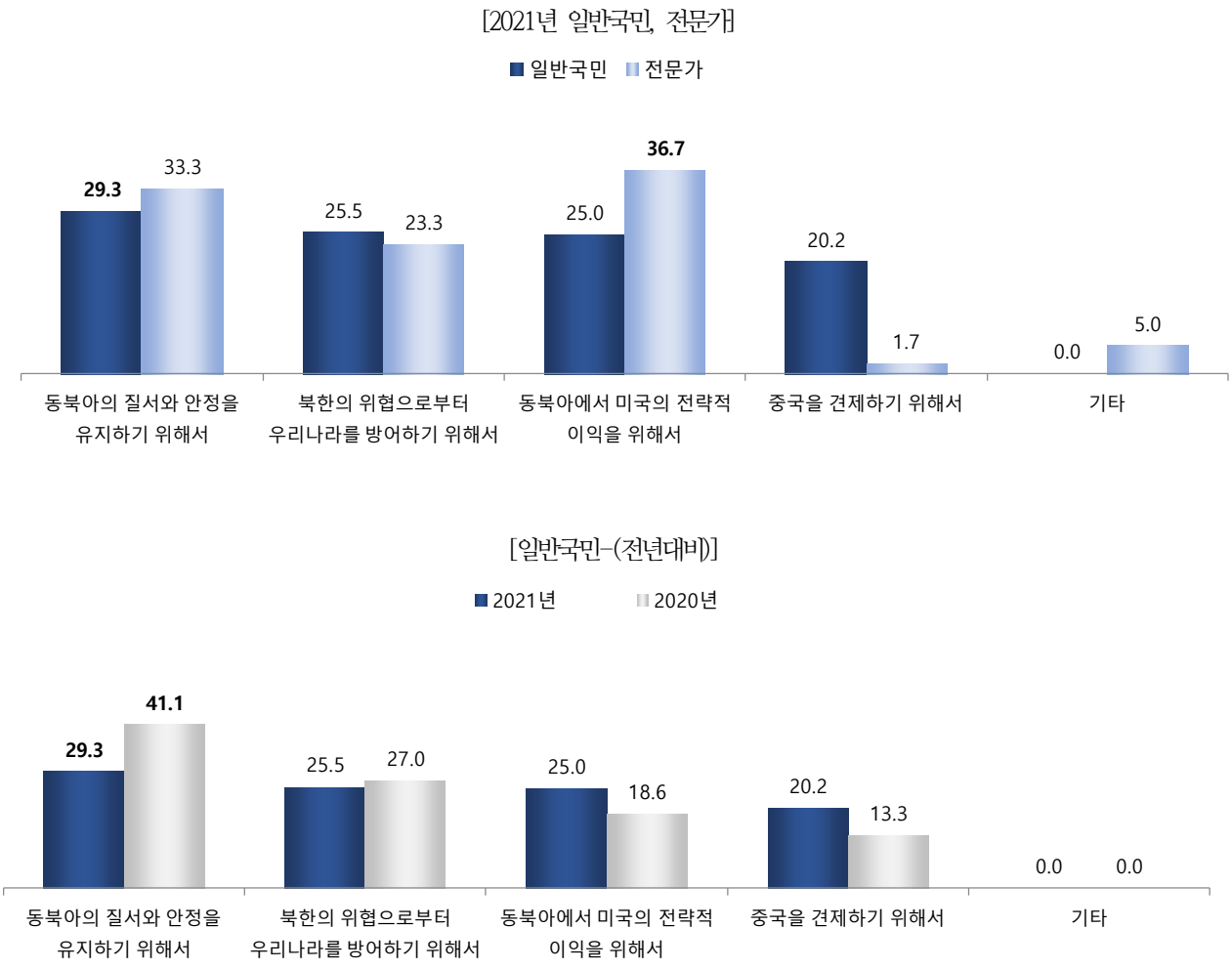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29.3%)가 가장 높고, 전문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36.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2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2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1.8%p(2020년 41.1%) 감소하였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6.9%p(2020년 18.6%) 증가하였음.

● **[전문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가 3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주한미군 주둔 이유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견은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서울', 직업별로는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2-5〉 주한미군 주둔 이유

단위[%]		사례수 (명)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		1,260	29.5	25.4	25.6	19.3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9.3	25.5	25.0	20.2	0.0
	전문가	60	33.3	23.3	36.7	1.7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3.8	25.0	25.4	15.8	0.0
	중	479	25.5	24.2	25.7	24.6	0.0
	하	118	22.0	33.1	20.3	24.6	0.0
성별	남성	720	30.0	25.1	25.6	19.3	0.0
	여성	480	28.3	26.0	24.2	21.5	0.0
연령별	20대 이하	235	28.5	27.2	14.5	29.8	0.0
	30대	198	28.8	29.3	17.2	24.7	0.0
	40대	247	29.6	18.6	28.7	23.1	0.0
	50대	252	27.8	22.6	32.9	16.7	0.0
	60대 이상	268	31.7	30.2	29.1	9.0	0.0
지역별	서울	226	33.2	24.8	19.9	22.1	0.0
	경기/인천	384	29.2	25.3	24.7	20.8	0.0
	부산/울산/경남	184	27.7	34.2	19.0	19.0	0.0
	대구/경북	117	23.1	28.2	32.5	16.2	0.0
	광주/전라	112	31.3	20.5	29.5	18.8	0.0
	대전/충청/세종	129	29.5	18.6	30.2	21.7	0.0
	강원/제주	48	29.2	20.8	31.3	18.8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31.3	26.1	21.4	21.2	0.0
	중소도시	601	27.5	24.5	28.6	19.5	0.0
	읍/면	62	30.6	30.6	21.0	17.7	0.0
직업별	농/어/임업	14	42.9	35.7	14.3	7.1	0.0
	자영업자	85	31.8	30.6	21.2	16.5	0.0
	판매/서비스직	85	23.5	29.4	23.5	23.5	0.0
	기능/숙련공	42	26.2	16.7	31.0	26.2	0.0
	일반 노무직	49	34.7	30.6	14.3	20.4	0.0
	사무/기술직	460	29.6	23.5	23.3	23.7	0.0
	경영/관리직	66	28.8	15.2	42.4	13.6	0.0
	전문/자유직	72	30.6	25.0	31.9	12.5	0.0
	전업주부	136	30.9	27.9	23.5	17.6	0.0
	학생	62	30.6	29.0	16.1	24.2	0.0
	무직	122	24.6	29.5	31.1	14.8	0.0
	기타	7	42.9	0.0	28.6	28.6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66.7	0.0	1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7.6	29.7	22.2	20.5	0.0
	전문대(중퇴/졸업)	162	28.4	28.4	21.6	21.6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9.7	24.8	25.6	19.9	0.0
	대학원 이상	124	31.5	17.7	31.5	19.4	0.0
생활수준별	상	133	34.6	24.1	23.3	18.0	0.0
	중	538	30.9	23.8	24.5	20.8	0.0
	하	529	26.5	27.6	25.9	20.0	0.0

6. 주한미군 주둔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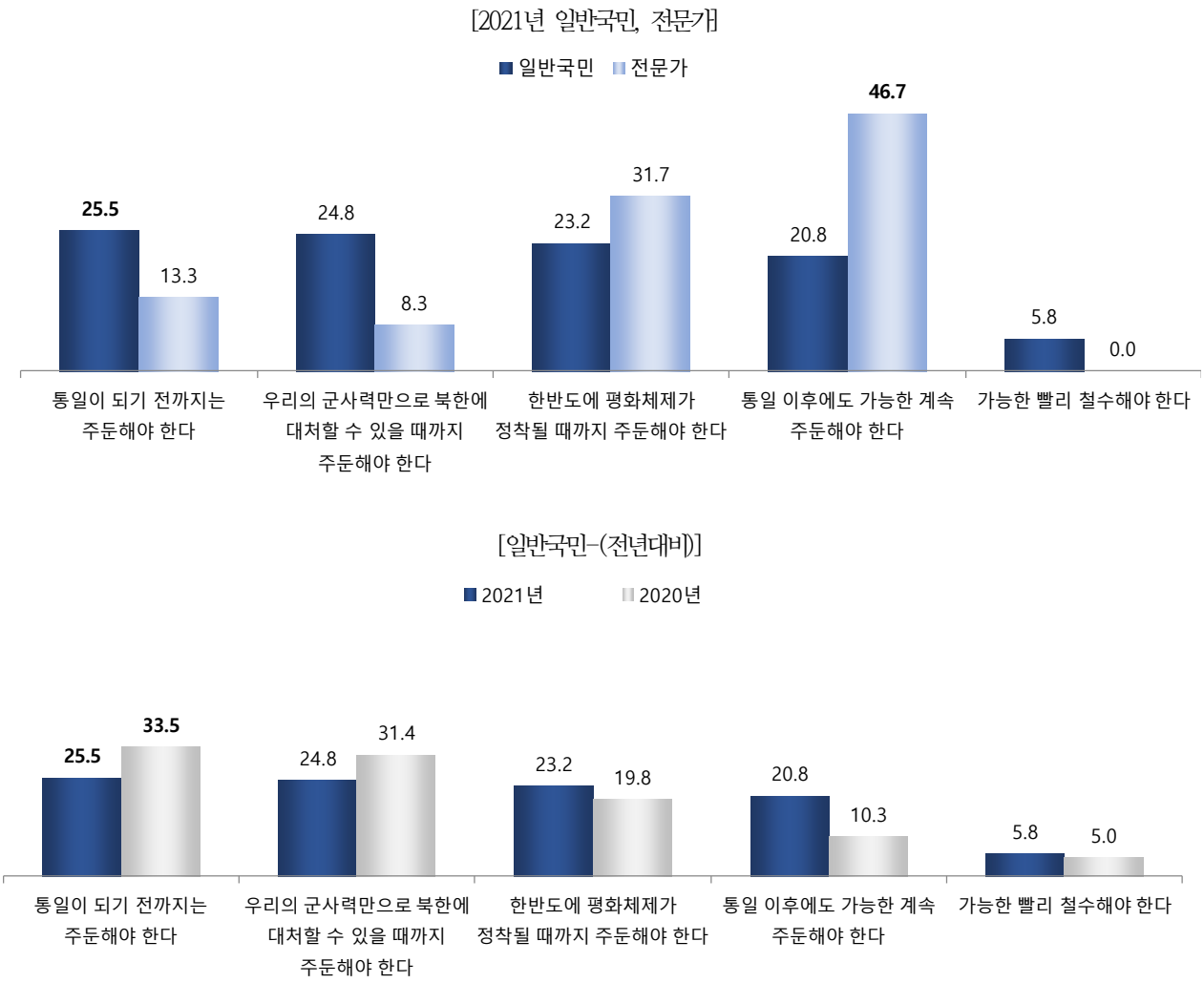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25.5%), 전문가는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46.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8.0%p(2020년 33.5%),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6.6%p(2020년 3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가 4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31.7%),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 주한미군 주둔 시기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크기별로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2-6〉 주한미군 주둔 시기

단위[%]		사례수 (명)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전체		1,260	24.9	24.0	23.6	22.1	5.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5.5	24.8	23.2	20.8	5.8
	전문가	60	13.3	8.3	31.7	46.7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7.4	18.4	23.1	24.9	6.3
	중	479	24.0	32.4	23.2	15.7	4.8
	하	118	22.0	26.3	23.7	21.2	6.8
성별	남성	720	26.3	21.0	21.3	26.5	5.0
	여성	480	24.4	30.4	26.0	12.3	6.9
연령별	20대 이하	235	25.5	25.1	20.4	27.2	1.7
	30대	198	28.8	28.3	16.2	22.2	4.5
	40대	247	28.3	27.9	18.6	16.6	8.5
	50대	252	25.0	23.4	26.6	15.9	9.1
	60대 이상	268	20.9	20.1	31.7	22.8	4.5
지역별	서울	226	26.1	23.0	19.9	24.3	6.6
	경기/인천	384	23.4	29.4	22.9	20.1	4.2
	부산/울산/경남	184	28.3	22.8	22.3	22.3	4.3
	대구/경북	117	29.1	23.1	21.4	21.4	5.1
	광주/전라	112	22.3	23.2	28.6	17.9	8.0
	대전/충청/세종	129	27.1	21.7	22.5	21.7	7.0
	강원/제주	48	22.9	18.8	37.5	8.3	12.5
지역크기	대도시	537	27.0	22.5	22.3	21.6	6.5
	중소도시	601	23.3	27.0	23.8	20.5	5.5
	읍/면	62	33.9	22.6	24.2	17.7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14.3	21.4	35.7	28.6	0.0
	자영업자	85	25.9	28.2	20.0	23.5	2.4
	판매/서비스직	85	34.1	15.3	20.0	23.5	7.1
	기능/숙련공	42	21.4	21.4	31.0	19.0	7.1
	일반 노무직	49	20.4	40.8	14.3	22.4	2.0
	사무/기술직	460	28.9	25.0	20.9	19.3	5.9
	경영/관리직	66	19.7	21.2	28.8	18.2	12.1
	전문/자유직	72	16.7	20.8	29.2	26.4	6.9
	전업주부	136	25.0	33.1	27.2	8.1	6.6
	학생	62	24.2	27.4	19.4	27.4	1.6
	무직	122	21.3	17.2	24.6	32.0	4.9
	기타	7	14.3	14.3	57.1	0.0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50.0	0.0	33.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4.3	27.6	23.2	20.0	4.9
	전문대(중퇴/졸업)	162	24.7	22.8	25.9	20.4	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6.6	24.8	21.6	20.9	6.2
	대학원 이상	124	22.6	21.8	29.8	21.8	4.0
생활수준별	상	133	27.8	20.3	21.8	24.8	5.3
	중	538	27.0	25.5	23.2	19.0	5.4
	하	529	23.4	25.1	23.4	21.7	6.2

7.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9.1%, 전문가 80.0%로 전문가에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9.1%로, '그렇지 않다'(25.0%)보다 14.1%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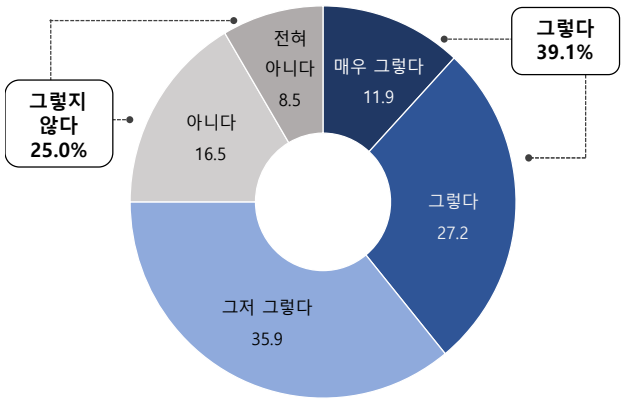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그렇다'는 4.7%p(2020년 43.8%) 감소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1.8%p(2020년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0.0%로, '그렇지 않다'(3.3%)보다 76.7%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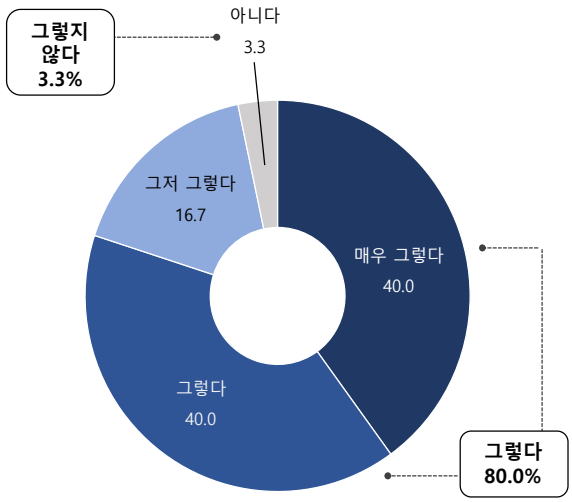
○ 안보비용 절약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국민 보다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을 높게 인식함.

〈그림 2-7〉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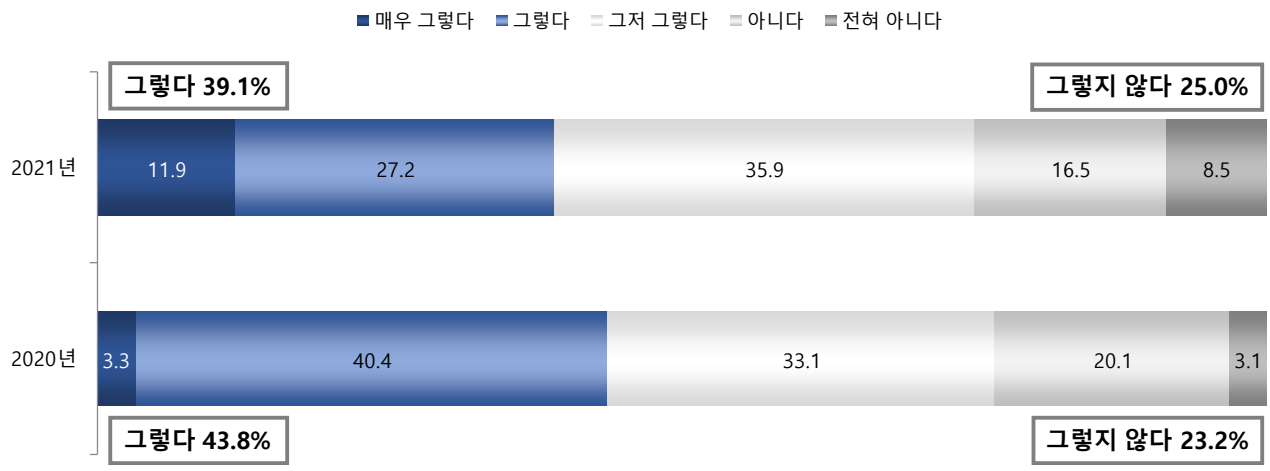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2-7〉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260	13.3	27.8	35.0	15.9	8.1	41.0	35.0	2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9	27.2	35.9	16.5	8.5	39.1	35.9	25.0
	전문가	60	40.0	40.0	16.7	3.3	0.0	80.0	16.7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6.9	32.2	26.0	16.3	8.6	49.1	26.0	24.9
	중	479	6.1	23.4	45.9	17.3	7.3	29.4	45.9	24.6
	하	118	10.2	16.9	45.8	14.4	12.7	27.1	45.8	27.1
성별	남성	720	16.1	33.1	29.9	13.8	7.2	49.2	29.9	21.0
	여성	480	5.6	18.3	45.0	20.6	10.4	24.0	45.0	31.0
연령별	20대 이하	235	12.3	26.4	43.8	14.0	3.4	38.7	43.8	17.4
	30대	198	14.1	30.8	35.4	11.1	8.6	44.9	35.4	19.7
	40대	247	10.9	24.7	37.2	16.2	10.9	35.6	37.2	27.1
	50대	252	7.5	23.0	33.7	23.0	12.7	30.6	33.7	35.7
	60대 이상	268	14.9	31.3	30.2	16.8	6.7	46.3	30.2	23.5
지역별	서울	226	15.0	27.0	31.4	17.3	9.3	42.0	31.4	26.5
	경기/인천	384	10.7	25.3	39.8	16.4	7.8	35.9	39.8	24.2
	부산/울산/경남	184	15.8	28.3	34.2	16.3	5.4	44.0	34.2	21.7
	대구/경북	117	11.1	30.8	36.8	16.2	5.1	41.9	36.8	21.4
	광주/전라	112	8.0	30.4	37.5	16.1	8.0	38.4	37.5	24.1
	대전/충청/세종	129	7.0	28.7	34.9	16.3	13.2	35.7	34.9	29.5
	강원/제주	48	16.7	18.8	29.2	16.7	18.8	35.4	29.2	35.4
지역크기	대도시	537	12.5	28.1	34.6	16.2	8.6	40.6	34.6	24.8
	중소도시	601	11.6	25.6	36.6	17.6	8.5	37.3	36.6	26.1
	읍/면	62	9.7	33.9	40.3	8.1	8.1	43.5	40.3	16.1
직업별	농/어/임업	14	14.3	50.0	28.6	7.1	0.0	64.3	28.6	7.1
	자영업자	85	12.9	31.8	28.2	18.8	8.2	44.7	28.2	27.1
	판매/서비스직	85	8.2	27.1	38.8	17.6	8.2	35.3	38.8	25.9
	기능/숙련공	42	4.8	35.7	31.0	16.7	11.9	40.5	31.0	28.6
	일반 노무직	49	14.3	34.7	36.7	8.2	6.1	49.0	36.7	14.3
	사무/기술직	460	12.4	25.9	35.4	16.7	9.6	38.3	35.4	26.3
	경영/관리직	66	9.1	30.3	24.2	27.3	9.1	39.4	24.2	36.4
	전문/자유직	72	19.4	25.0	36.1	11.1	8.3	44.4	36.1	19.4
	전업주부	136	8.1	14.7	45.6	20.6	11.0	22.8	45.6	31.6
	학생	62	12.9	30.6	38.7	12.9	4.8	43.5	38.7	17.7
	무직	122	14.8	32.0	36.1	12.3	4.9	46.7	36.1	17.2
	기타	7	0.0	28.6	57.1	14.3	0.0	28.6	57.1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0.0	66.7	0.0	0.0	33.3	6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7.6	23.2	37.8	18.9	12.4	30.8	37.8	31.4
	전문대(중퇴/졸업)	162	7.4	27.2	41.4	15.4	8.6	34.6	41.4	24.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3.6	28.5	34.6	15.8	7.6	42.0	34.6	23.4
	대학원 이상	124	13.7	26.6	32.3	19.4	8.1	40.3	32.3	27.4
생활수준별	상	133	15.8	36.8	27.8	11.3	8.3	52.6	27.8	19.5
	중	538	11.3	27.1	37.9	17.7	5.9	38.5	37.9	23.6
	하	529	11.5	24.8	35.9	16.6	11.2	36.3	35.9	27.8

8. 한·미동맹 관련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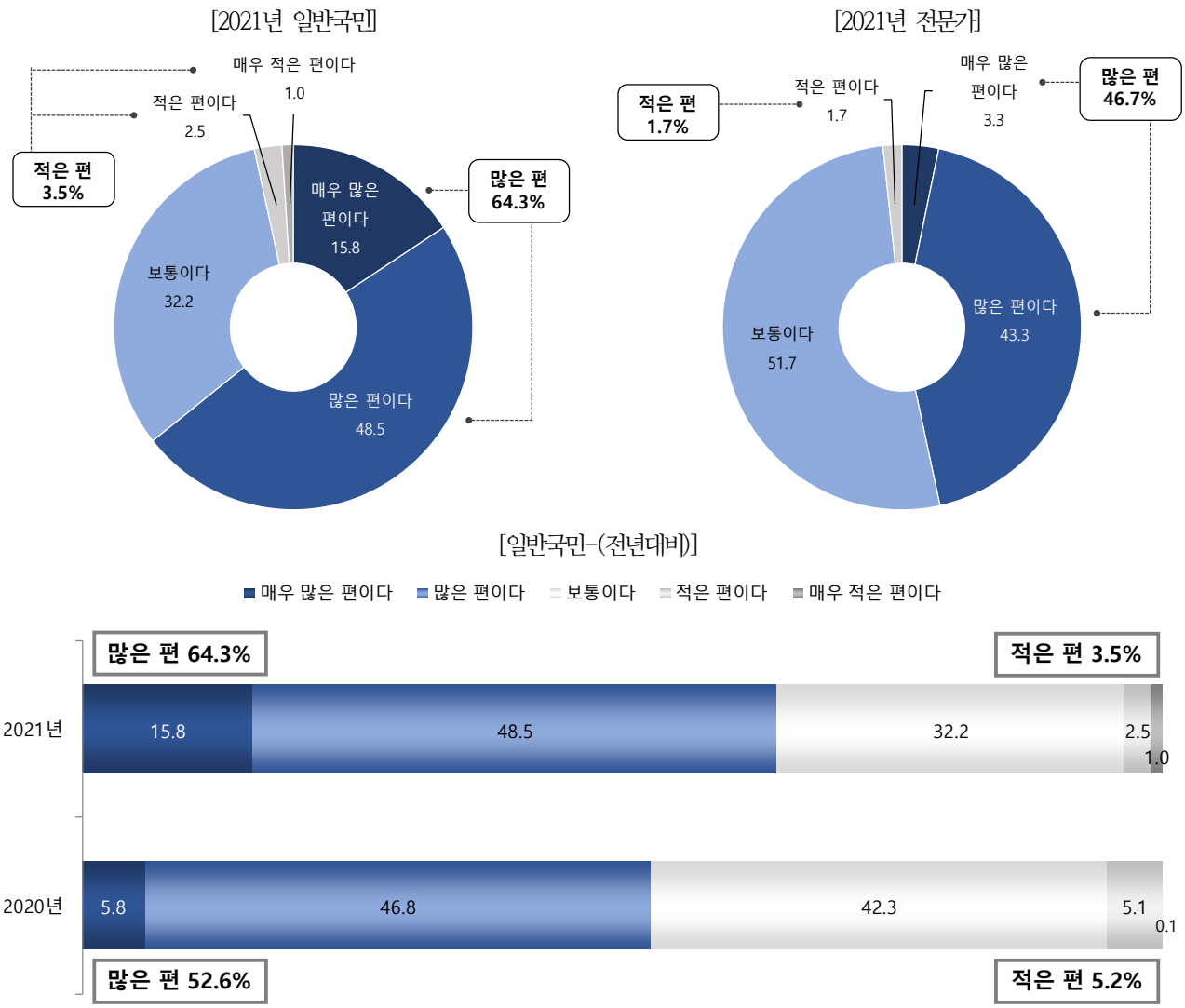
현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 '많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64.3%, 전문가 4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현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 '많다'가 64.3%로 '적다'(3.5%) 보다 60.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많다'는 11.7%p(2020년 52.6%) 증가하였고, '적다'는 1.7%p(2020년 5.2%) 감소하였음.

● **[전문가]** '현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 '많다'가 46.7%로 '적다'(1.7%) 보다 45.0%p 높게 나타남.

〈그림 2-8〉 한·미동맹 관련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특성별 분석]

◉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많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50대', 직업별로는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2-8〉 한·미동맹 관련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은 편이다	매우 적은 편이다	종합		
								많은 편	보통	적은 편
전체		1,260	15.2	48.3	33.1	2.5	1.0	63.5	33.1	3.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8	48.5	32.2	2.5	1.0	64.3	32.2	3.5
	전문가	60	3.3	43.3	51.7	1.7	0.0	46.7	51.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8.4	47.3	29.9	3.3	1.2	65.7	29.9	4.5
	중	479	13.2	51.4	34.2	0.8	0.4	64.5	34.2	1.3
	하	118	13.6	43.2	35.6	5.1	2.5	56.8	35.6	7.6
성별	남성	720	15.8	44.7	35.4	3.1	1.0	60.6	35.4	4.0
	여성	480	15.8	54.2	27.3	1.7	1.0	70.0	27.3	2.7
연령별	20대 이하	235	9.8	35.7	46.8	5.1	2.6	45.5	46.8	7.7
	30대	198	13.6	45.5	36.9	3.5	0.5	59.1	36.9	4.0
	40대	247	17.0	55.5	25.1	1.6	0.8	72.5	25.1	2.4
	50대	252	21.4	51.6	25.8	1.2	0.0	73.0	25.8	1.2
	60대 이상	268	16.4	52.6	28.4	1.5	1.1	69.0	28.4	2.6
지역별	서울	226	17.3	44.2	34.5	4.0	0.0	61.5	34.5	4.0
	경기/인천	384	13.5	49.5	33.6	2.1	1.3	63.0	33.6	3.4
	부산/울산/경남	184	15.2	50.5	29.3	3.3	1.6	65.8	29.3	4.9
	대구/경북	117	11.1	48.7	38.5	1.7	0.0	59.8	38.5	1.7
	광주/전라	112	16.1	51.8	29.5	1.8	0.9	67.9	29.5	2.7
	대전/충청/세종	129	20.9	48.1	27.1	2.3	1.6	69.0	27.1	3.9
	강원/제주	48	27.1	45.8	25.0	0.0	2.1	72.9	25.0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15.6	46.7	33.9	3.0	0.7	62.4	33.9	3.7
	중소도시	601	15.6	49.9	31.3	2.3	0.8	65.6	31.3	3.2
	읍/면	62	19.4	50.0	25.8	0.0	4.8	69.4	25.8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42.9	28.6	0.0	0.0	71.4	28.6	0.0
	자영업자	85	15.3	55.3	25.9	3.5	0.0	70.6	25.9	3.5
	판매/서비스직	85	20.0	45.9	30.6	1.2	2.4	65.9	30.6	3.5
	기능/숙련공	42	16.7	45.2	35.7	2.4	0.0	61.9	35.7	2.4
	일반 노무직	49	4.1	36.7	57.1	2.0	0.0	40.8	57.1	2.0
	사무/기술직	460	17.0	48.7	30.9	2.8	0.7	65.7	30.9	3.5
	경영/관리직	66	21.2	48.5	27.3	3.0	0.0	69.7	27.3	3.0
	전문/자유직	72	13.9	48.6	37.5	0.0	0.0	62.5	37.5	0.0
	전업주부	136	15.4	55.1	26.5	0.7	2.2	70.6	26.5	2.9
	학생	62	9.7	38.7	38.7	8.1	4.8	48.4	38.7	12.9
	무직	122	13.1	48.4	35.2	2.5	0.8	61.5	35.2	3.3
	기타	7	28.6	57.1	14.3	0.0	0.0	85.7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50.0	50.0	0.0	0.0	50.0	5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0.0	49.7	29.2	1.1	0.0	69.7	29.2	1.1
	전문대(중퇴/졸업)	162	17.9	46.3	33.3	1.9	0.6	64.2	33.3	2.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4.5	48.0	32.6	3.3	1.5	62.5	32.6	4.8
	대학원 이상	124	15.3	52.4	31.5	0.8	0.0	67.7	31.5	0.8
생활수준별	상	133	18.0	42.9	35.3	3.8	0.0	60.9	35.3	3.8
	중	538	13.0	50.9	32.3	2.6	1.1	63.9	32.3	3.7
	하	529	18.1	47.4	31.2	2.1	1.1	65.6	31.2	3.2

9.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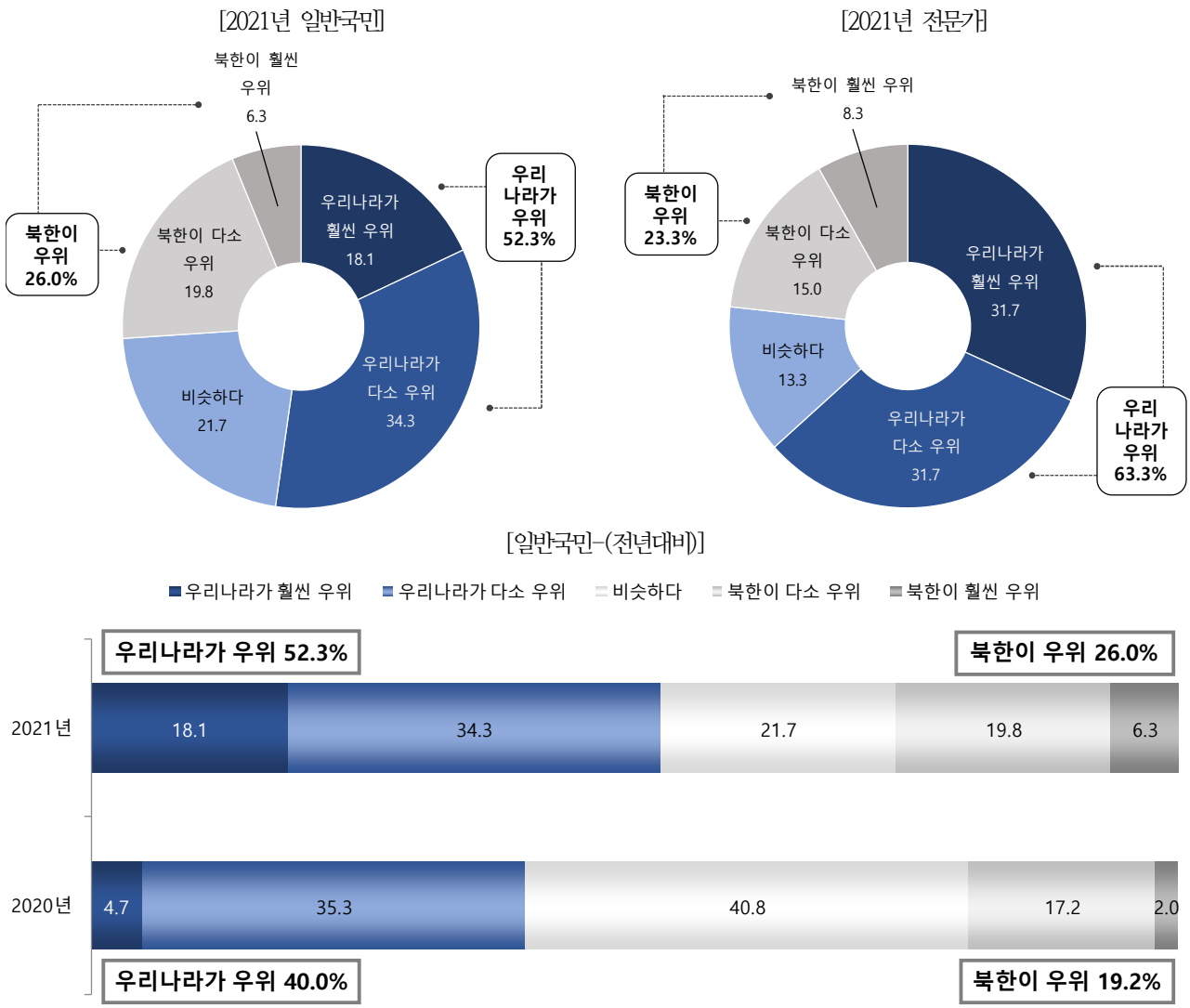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52.3%, 전문가 6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라는 응답이 52.3%로, '북한이 우위'(26.0%)라는 응답보다 26.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우리나라가 우위'는 12.3%p(2020년 40.0%), '북한이 우위'는 6.8%p(2020년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라는 응답이 63.3%로, '북한이 우위'(23.3%)보다 40.0%p 높게 나타남.

〈그림 2-9〉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우위'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2-9〉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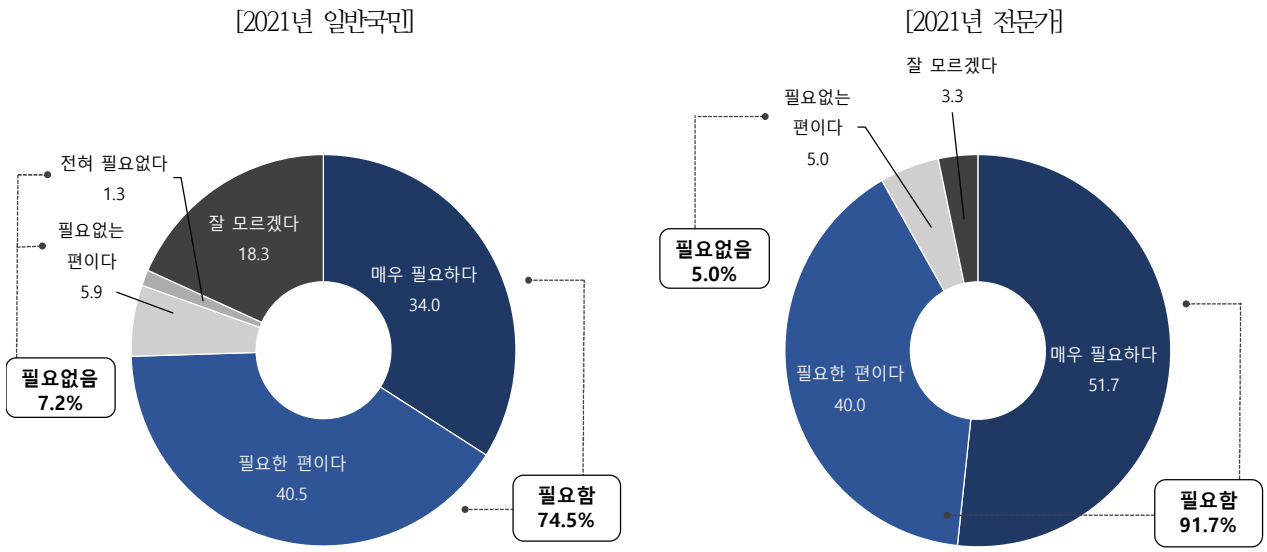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명)	우리나라가 훨씬 우위	우리나라가 다소 우위	비슷하다	북한이 다소 우위	북한이 훨씬 우위	종합		
								우리나라가 우위	비슷	북한이 우위
전체		1,260	18.7	34.1	21.3	19.5	6.3	52.9	21.3	25.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1	34.3	21.7	19.8	6.3	52.3	21.7	26.0
	전문가	60	31.7	31.7	13.3	15.0	8.3	63.3	13.3	2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4.5	34.8	13.4	19.9	7.3	59.4	13.4	27.2
	중	479	12.3	33.2	29.0	20.9	4.6	45.5	29.0	25.5
	하	118	8.5	35.6	33.9	14.4	7.6	44.1	33.9	22.0
성별	남성	720	24.6	36.0	18.6	15.4	5.4	60.6	18.6	20.8
	여성	480	8.3	31.7	26.3	26.3	7.5	40.0	26.3	33.8
연령별	20대 이하	235	19.6	38.7	27.2	12.3	2.1	58.3	27.2	14.5
	30대	198	19.7	38.4	24.7	13.1	4.0	58.1	24.7	17.2
	40대	247	20.2	34.8	23.9	14.2	6.9	55.1	23.9	21.1
	50대	252	19.0	34.5	15.9	26.6	4.0	53.6	15.9	30.6
	60대 이상	268	12.7	26.5	17.9	29.9	13.1	39.2	17.9	42.9
지역별	서울	226	22.6	31.0	21.2	20.4	4.9	53.5	21.2	25.2
	경기/인천	384	15.6	34.4	21.4	20.1	8.6	50.0	21.4	28.6
	부산/울산/경남	184	17.9	35.3	22.8	15.8	8.2	53.3	22.8	23.9
	대구/경북	117	10.3	40.2	22.2	23.1	4.3	50.4	22.2	27.4
	광주/전라	112	17.9	38.4	17.9	20.5	5.4	56.3	17.9	25.9
	대전/충청/세종	129	27.1	32.6	17.8	20.9	1.6	59.7	17.8	22.5
	강원/제주	48	12.5	25.0	39.6	16.7	6.3	37.5	39.6	22.9
지역크기	대도시	537	18.1	32.2	22.5	21.0	6.1	50.3	22.5	27.2
	중소도시	601	18.6	35.9	21.1	18.1	6.2	54.6	21.1	24.3
	읍/면	62	12.9	35.5	19.4	24.2	8.1	48.4	19.4	32.3
직업별	농/어/임업	14	21.4	28.6	14.3	21.4	14.3	50.0	14.3	35.7
	자영업자	85	25.9	27.1	18.8	23.5	4.7	52.9	18.8	28.2
	판매/서비스직	85	9.4	43.5	22.4	23.5	1.2	52.9	22.4	24.7
	기능/숙련공	42	21.4	26.2	26.2	23.8	2.4	47.6	26.2	26.2
	일반 노무직	49	12.2	32.7	28.6	20.4	6.1	44.9	28.6	26.5
	사무/기술직	460	21.1	38.7	18.3	16.5	5.4	59.8	18.3	22.0
	경영/관리직	66	15.2	42.4	22.7	12.1	7.6	57.6	22.7	19.7
	전문/자유직	72	25.0	25.0	19.4	25.0	5.6	50.0	19.4	30.6
	전업주부	136	6.6	24.3	30.1	28.7	10.3	30.9	30.1	39.0
	학생	62	14.5	43.5	32.3	6.5	3.2	58.1	32.3	9.7
	무직	122	18.9	28.7	18.9	22.1	11.5	47.5	18.9	33.6
	기타	7	42.9	14.3	14.3	28.6	0.0	57.1	14.3	28.6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50.0	33.3	0.0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6.8	29.2	22.2	25.4	6.5	45.9	22.2	31.9
	전문대(중퇴/졸업)	162	15.4	37.7	21.0	20.4	5.6	53.1	21.0	25.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8.7	35.5	22.1	17.3	6.4	54.2	22.1	23.7
	대학원 이상	124	21.0	30.6	17.7	24.2	6.5	51.6	17.7	30.6
생활수준별	상	133	20.3	32.3	22.6	17.3	7.5	52.6	22.6	24.8
	중	538	17.5	35.5	22.7	20.1	4.3	53.0	22.7	24.3
	하	529	18.1	33.5	20.4	20.0	7.9	51.6	20.4	28.0

10.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4.5%, 전문가 9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5%로, '필요없다'(7.2%)보다 67.3%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7%로, '필요없다'(5.0%)는 응답보다 86.7%p 높게 나타남.

〈그림 2-10〉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한·미 연합 훈련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2-10〉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잘 모르겠다	필요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없다	종합		
								필요함	필요없음	잘 모름
전체		1,260	34.8	40.5	17.6	5.9	1.2	75.3	7.1	17.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4.0	40.5	18.3	5.9	1.3	74.5	7.2	18.3
	전문가	60	51.7	40.0	3.3	5.0	0.0	91.7	5.0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45.1	38.1	10.4	5.1	1.2	83.3	6.3	10.4
	중	479	21.7	44.9	25.7	6.7	1.0	66.6	7.7	25.7
	하	118	27.1	34.7	28.8	6.8	2.5	61.9	9.3	28.8
성별	남성	720	41.1	39.3	12.4	5.4	1.8	80.4	7.2	12.4
	여성	480	23.3	42.3	27.3	6.7	0.4	65.6	7.1	27.3
연령별	20대 이하	235	32.3	37.9	23.8	4.7	1.3	70.2	6.0	23.8
	30대	198	29.3	37.4	25.3	7.6	0.5	66.7	8.1	25.3
	40대	247	26.7	43.3	22.7	6.1	1.2	70.0	7.3	22.7
	50대	252	28.6	47.2	15.5	6.3	2.4	75.8	8.7	15.5
	60대 이상	268	50.7	36.2	7.1	5.2	0.7	86.9	6.0	7.1
지역별	서울	226	36.7	38.9	16.4	5.8	2.2	75.7	8.0	16.4
	경기/인천	384	32.6	40.4	19.3	7.0	0.8	72.9	7.8	19.3
	부산/울산/경남	184	37.5	42.9	16.3	2.7	0.5	80.4	3.3	16.3
	대구/경북	117	38.5	35.9	17.9	5.1	2.6	74.4	7.7	17.9
	광주/전라	112	28.6	42.9	18.8	8.9	0.9	71.4	9.8	18.8
	대전/충청/세종	129	31.8	41.9	21.7	3.9	0.8	73.6	4.7	21.7
	강원/제주	48	27.1	41.7	18.8	10.4	2.1	68.8	12.5	18.8
지역크기	대도시	537	35.2	39.1	17.9	6.3	1.5	74.3	7.8	17.9
	중소도시	601	32.6	41.8	18.8	5.7	1.2	74.4	6.8	18.8
	읍/면	62	37.1	40.3	17.7	4.8	0.0	77.4	4.8	17.7
직업별	농/어/임업	14	85.7	7.1	7.1	0.0	0.0	92.9	0.0	7.1
	자영업자	85	40.0	43.5	10.6	4.7	1.2	83.5	5.9	10.6
	판매/서비스직	85	28.2	42.4	22.4	4.7	2.4	70.6	7.1	22.4
	기능/숙련공	42	26.2	40.5	21.4	7.1	4.8	66.7	11.9	21.4
	일반 노무직	49	28.6	38.8	22.4	8.2	2.0	67.3	10.2	22.4
	사무/기술직	460	33.5	41.5	18.0	6.1	0.9	75.0	7.0	18.0
	경영/관리직	66	39.4	42.4	10.6	6.1	1.5	81.8	7.6	10.6
	전문/자유직	72	37.5	40.3	12.5	6.9	2.8	77.8	9.7	12.5
	전업주부	136	30.1	36.0	27.2	6.6	0.0	66.2	6.6	27.2
	학생	62	25.8	41.9	24.2	6.5	1.6	67.7	8.1	24.2
	무직	122	37.7	40.2	16.4	4.9	0.8	77.9	5.7	16.4
	기타	7	42.9	57.1	0.0	0.0	0.0	10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16.7	50.0	0.0	0.0	50.0	0.0	5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3.5	38.9	21.6	4.3	1.6	72.4	5.9	21.6
	전문대(중퇴/졸업)	162	25.3	46.3	22.2	4.3	1.9	71.6	6.2	22.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5.7	39.8	17.2	6.5	0.8	75.5	7.3	17.2
	대학원 이상	124	36.3	40.3	13.7	7.3	2.4	76.6	9.7	13.7
생활수준별	상	133	40.6	30.1	15.8	10.5	3.0	70.7	13.5	15.8
	중	538	32.2	43.5	19.0	5.0	0.4	75.7	5.4	19.0
	하	529	34.2	40.1	18.3	5.7	1.7	74.3	7.4	18.3

11.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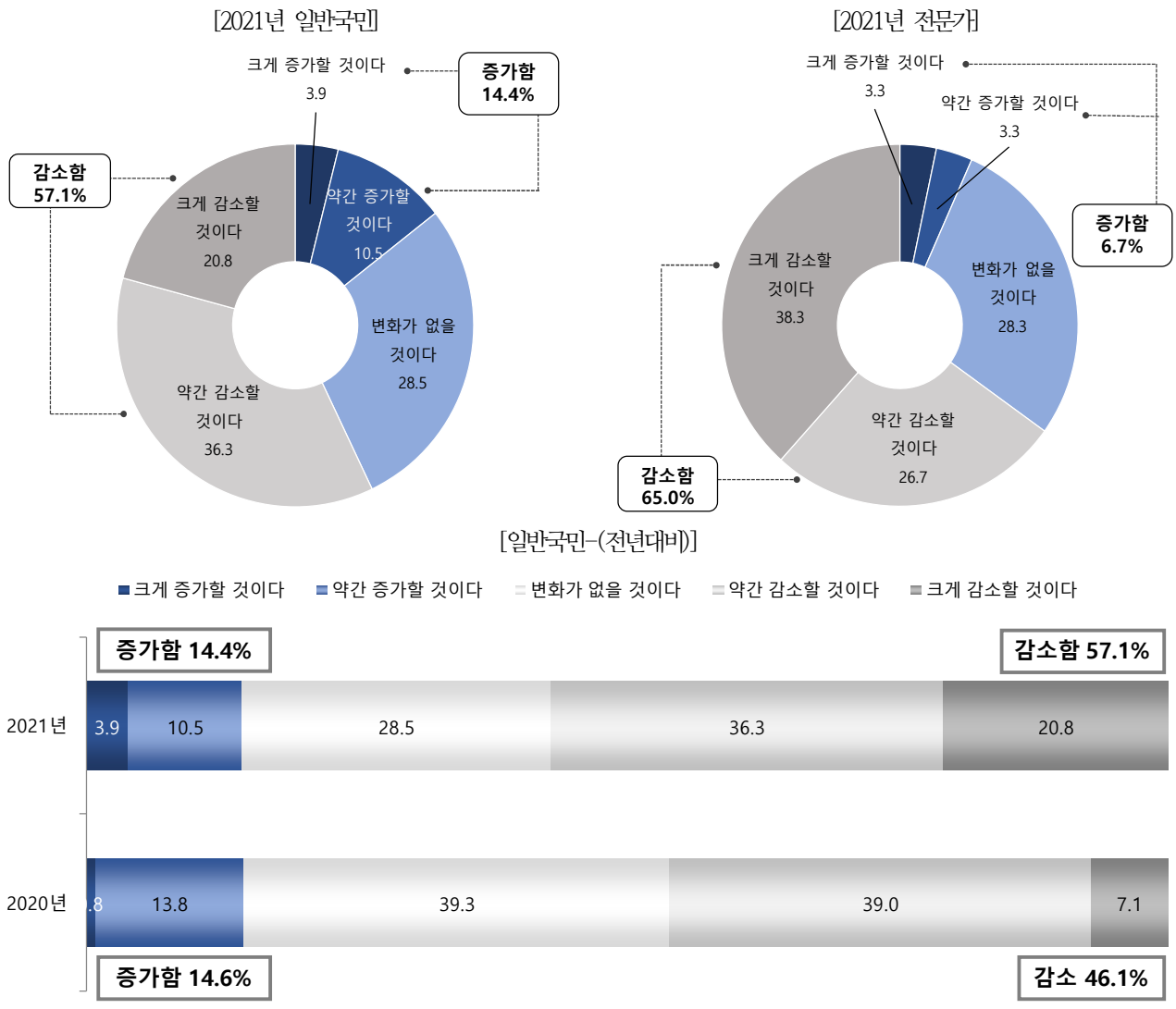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7.1%, 전문가 6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57.1%로, '증가할 것이다'(14.4%)는 응답보다 42.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는 11.0%p(2020년 46.1%) 증가하였고, '증가할 것이다'는 0.2%p(2020년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65.0%로, '증가할 것이다'(6.7%)보다 58.3%p 높게 나타남.

〈그림 2-11〉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농/어/임업(n=14)' 높게 나타남.

〈표 2-11〉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단위[%]		사례수(명)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종합		
								증가함	변화없음	감소함
전체		1,260	3.9	10.2	28.5	35.8	21.7	14.0	28.5	57.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9	10.5	28.5	36.3	20.8	14.4	28.5	57.1
	전문가	60	3.3	3.3	28.3	26.7	38.3	6.7	28.3	6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1	9.6	22.7	36.0	26.5	14.8	22.7	62.5
	중	479	2.1	11.5	33.8	39.0	13.6	13.6	33.8	52.6
	하	118	5.1	11.0	36.4	26.3	21.2	16.1	36.4	47.5
성별	남성	720	4.4	9.7	26.9	34.7	24.2	14.2	26.9	58.9
	여성	480	3.1	11.7	30.8	38.5	15.8	14.8	30.8	54.4
연령별	20대 이하	235	3.4	12.3	25.5	34.9	23.8	15.7	25.5	58.7
	30대	198	4.0	9.6	31.8	39.9	14.6	13.6	31.8	54.5
	40대	247	4.9	10.5	38.5	30.4	15.8	15.4	38.5	46.2
	50대	252	5.2	10.7	31.0	36.1	17.1	15.9	31.0	53.2
	60대 이상	268	2.2	9.3	17.2	40.3	31.0	11.6	17.2	71.3
지역별	서울	226	2.2	12.4	27.0	35.8	22.6	14.6	27.0	58.4
	경기/인천	384	3.4	8.9	27.9	36.5	23.4	12.2	27.9	59.9
	부산/울산/경남	184	4.9	13.6	23.9	33.2	24.5	18.5	23.9	57.6
	대구/경북	117	7.7	11.1	28.2	34.2	18.8	18.8	28.2	53.0
	광주/전라	112	7.1	8.9	30.4	42.0	11.6	16.1	30.4	53.6
	대전/충청/세종	129	2.3	6.2	38.8	38.8	14.0	8.5	38.8	52.7
	강원/제주	48	0.0	16.7	27.1	33.3	22.9	16.7	27.1	56.3
지역크기	대도시	537	4.1	11.5	26.6	33.9	23.8	15.6	26.6	57.7
	중소도시	601	3.3	9.5	30.9	38.4	17.8	12.8	30.9	56.2
	읍/면	62	8.1	11.3	21.0	35.5	24.2	19.4	21.0	59.7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14.3	14.3	14.3	57.1	14.3	14.3	71.4
	자영업자	85	3.5	8.2	23.5	36.5	28.2	11.8	23.5	64.7
	판매/서비스직	85	2.4	3.5	25.9	44.7	23.5	5.9	25.9	68.2
	기능/숙련공	42	2.4	7.1	50.0	28.6	11.9	9.5	50.0	40.5
	일반 노무직	49	4.1	8.2	32.7	30.6	24.5	12.2	32.7	55.1
	사무/기술직	460	5.0	12.0	28.3	37.8	17.0	17.0	28.3	54.8
	경영/관리직	66	3.0	21.2	24.2	27.3	24.2	24.2	24.2	51.5
	전문/자유직	72	2.8	6.9	27.8	33.3	29.2	9.7	27.8	62.5
	전업주부	136	2.9	10.3	31.6	40.4	14.7	13.2	31.6	55.1
	학생	62	4.8	11.3	27.4	35.5	21.0	16.1	27.4	56.5
	무직	122	3.3	9.8	28.7	32.0	26.2	13.1	28.7	58.2
	기타	7	14.3	0.0	0.0	71.4	14.3	14.3	0.0	85.7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33.3	0.0	33.3	33.3	33.3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3	8.6	33.0	37.8	16.2	13.0	33.0	54.1
	전문대(중퇴/졸업)	162	2.5	12.3	30.9	35.8	18.5	14.8	30.9	54.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3	10.5	27.8	34.4	23.0	14.8	27.8	57.4
	대학원 이상	124	3.2	9.7	22.6	46.8	17.7	12.9	22.6	64.5
생활수준별	상	133	3.0	8.3	24.8	33.8	30.1	11.3	24.8	63.9
	중	538	2.6	11.2	29.9	37.4	19.0	13.8	29.9	56.3
	하	529	5.5	10.4	28.0	35.7	20.4	15.9	28.0	56.1

12.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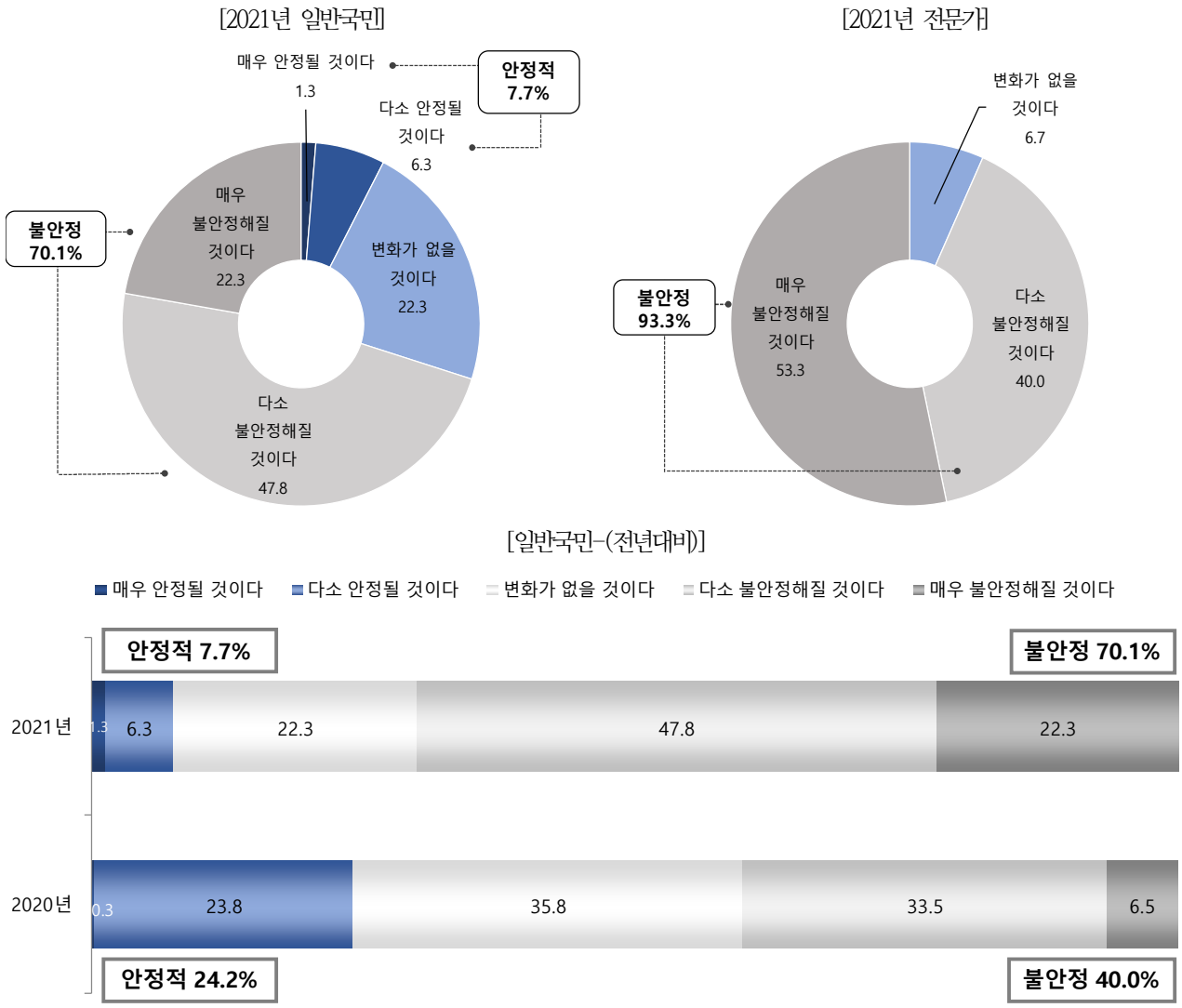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0.1%, 전문가 9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70.1%로, '안정될 것이다'(7.7%)보다 62.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불안정해 질 것이다'는 30.1%p(2020년 40.0%) 증가하였고, '안정될 것이다'는 16.5%p(2020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남.(안정 : 0.0%)

〈그림 2-12〉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특성별 분석]

◉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안정해질 것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별로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2-12〉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안정될 것이다	다소 안정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소 불안정해질 것이다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종합		
								안정적	변화없음	불안정
전체		1,260	1.3	6.0	21.5	47.4	23.8	7.3	21.5	71.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6.3	22.3	47.8	22.3	7.7	22.3	70.1
	전문가	60	0.0	0.0	6.7	40.0	53.3	0.0	6.7	9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8	7.5	15.3	46.1	29.4	9.3	15.3	75.5
	중	479	0.6	4.6	29.9	51.1	13.8	5.2	29.9	64.9
	하	118	1.7	7.6	27.1	42.4	21.2	9.3	27.1	63.6
성별	남성	720	1.5	6.1	18.9	45.0	28.5	7.6	18.9	73.5
	여성	480	1.0	6.7	27.3	51.9	13.1	7.7	27.3	65.0
연령별	20대 이하	235	3.4	7.7	22.1	44.3	22.6	11.1	22.1	66.8
	30대	198	1.0	9.6	30.3	40.4	18.7	10.6	30.3	59.1
	40대	247	0.8	5.3	23.5	53.0	17.4	6.1	23.5	70.4
	50대	252	0.8	6.0	23.8	47.2	22.2	6.7	23.8	69.4
	60대 이상	268	0.7	4.1	13.8	51.9	29.5	4.9	13.8	81.3
지역별	서울	226	2.2	5.8	22.6	46.5	23.0	8.0	22.6	69.5
	경기/인천	384	1.0	4.9	22.7	50.0	21.4	6.0	22.7	71.4
	부산/울산/경남	184	2.2	6.0	17.9	47.3	26.6	8.2	17.9	73.9
	대구/경북	117	1.7	7.7	20.5	44.4	25.6	9.4	20.5	70.1
	광주/전라	112	0.0	8.9	22.3	47.3	21.4	8.9	22.3	68.8
	대전/충청/세종	129	0.8	8.5	27.1	45.0	18.6	9.3	27.1	63.6
	강원/제주	48	0.0	6.3	25.0	54.2	14.6	6.3	25.0	68.8
지역크기	대도시	537	1.9	5.8	21.8	46.6	24.0	7.6	21.8	70.6
	중소도시	601	1.0	7.0	22.5	49.6	20.0	8.0	22.5	69.6
	읍/면	62	0.0	4.8	24.2	40.3	30.6	4.8	24.2	71.0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0.0	7.1	42.9	50.0	0.0	7.1	92.9
	자영업자	85	3.5	5.9	14.1	49.4	27.1	9.4	14.1	76.5
	판매/서비스직	85	1.2	11.8	25.9	40.0	21.2	12.9	25.9	61.2
	기능/숙련공	42	2.4	14.3	26.2	45.2	11.9	16.7	26.2	57.1
	일반 노무직	49	0.0	10.2	28.6	42.9	18.4	10.2	28.6	61.2
	사무/기술직	460	1.3	6.5	23.3	47.4	21.5	7.8	23.3	68.9
	경영/관리직	66	0.0	3.0	16.7	59.1	21.2	3.0	16.7	80.3
	전문/자유직	72	0.0	1.4	13.9	52.8	31.9	1.4	13.9	84.7
	전업주부	136	0.7	3.7	32.4	48.5	14.7	4.4	32.4	63.2
	학생	62	3.2	9.7	22.6	45.2	19.4	12.9	22.6	64.5
	무직	122	1.6	4.9	17.2	45.1	31.1	6.6	17.2	76.2
	기타	7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0.0	50.0	33.3	16.7	0.0	50.0	5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0.5	9.2	27.6	44.3	18.4	9.7	27.6	62.7
	전문대(중퇴/졸업)	162	1.2	8.6	27.2	44.4	18.5	9.9	27.2	63.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7	5.4	20.6	48.4	23.9	7.1	20.6	72.3
	대학원 이상	124	0.8	4.8	16.1	54.0	24.2	5.6	16.1	78.2
생활수준별	상	133	4.5	8.3	22.6	37.6	27.1	12.8	22.6	64.7
	중	538	0.7	5.6	21.9	51.5	20.3	6.3	21.9	71.7
	하	529	1.1	6.6	22.5	46.5	23.3	7.8	22.5	69.8

1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일반국민은 '악화될 것이다'(25.3%), 전문가는 '악화될 것이다'(48.3%)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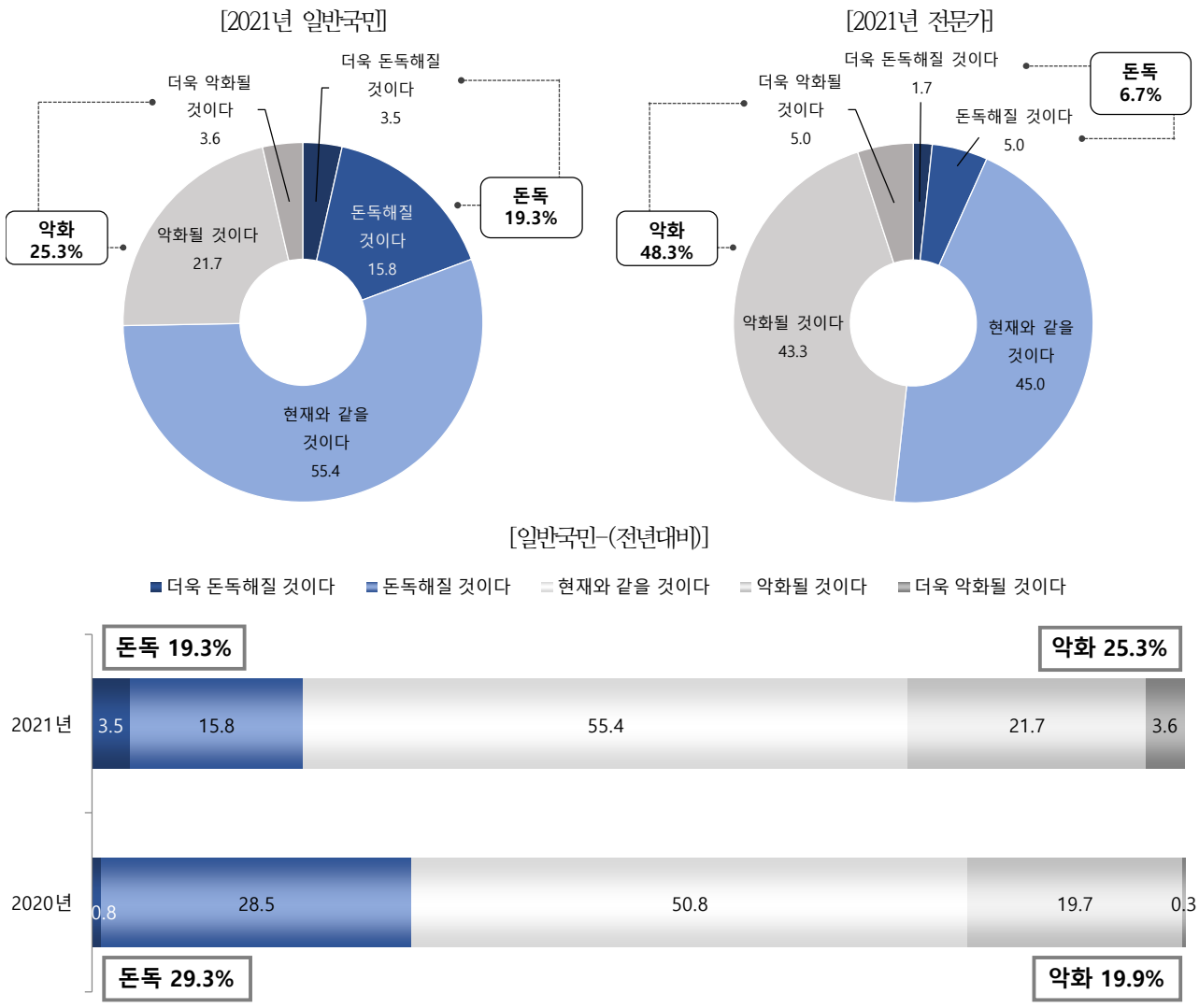
● **[일반국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25.3%로, '돈독해질 것이다'(19.3%)보다 6.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돈독해질 것이다'는 10.0%p(2020년 29.3%) 감소하였고, '악화될 것이다'는 5.4%p (2020년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8.3%로, '돈독해질 것이다'(6.7%)보다 41.6%p 높게 나타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 동맹 변화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 중 일부는 악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응답자 중 절반이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1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특성별 분석]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학력별로 '중졸이하'(n=6)에서 높게 나타남.

〈표 2-1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단위[%]		사례수 (명)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돈독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종합		
								돈독	변화없음	악화
전체		1,260	3.4	15.3	54.9	22.7	3.7	18.7	54.9	26.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5	15.8	55.4	21.7	3.6	19.3	55.4	25.3
	전문가	60	1.7	5.0	45.0	43.3	5.0	6.7	45.0	4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0	16.9	48.1	24.9	5.1	21.9	48.1	30.0
	중	479	2.5	15.0	64.1	16.7	1.7	17.5	64.1	18.4
	하	118	0.0	13.6	57.6	25.4	3.4	13.6	57.6	28.8
성별	남성	720	4.6	14.4	54.7	22.1	4.2	19.0	54.7	26.3
	여성	480	1.9	17.9	56.5	21.0	2.7	19.8	56.5	23.8
연령별	20대 이하	235	3.8	19.1	58.7	17.0	1.3	23.0	58.7	18.3
	30대	198	2.5	22.2	56.6	17.2	1.5	24.7	56.6	18.7
	40대	247	3.2	17.8	62.3	14.2	2.4	21.1	62.3	16.6
	50대	252	5.6	10.3	54.8	25.4	4.0	15.9	54.8	29.4
	60대 이상	268	2.2	11.6	45.9	32.5	7.8	13.8	45.9	40.3
지역별	서울	226	2.2	13.7	58.8	20.4	4.9	15.9	58.8	25.2
	경기/인천	384	4.2	16.9	55.2	20.6	3.1	21.1	55.2	23.7
	부산/울산/경남	184	4.3	17.4	45.7	29.3	3.3	21.7	45.7	32.6
	대구/경북	117	5.1	11.1	59.8	18.8	5.1	16.2	59.8	23.9
	광주/전라	112	1.8	16.1	56.3	22.3	3.6	17.9	56.3	25.9
	대전/충청/세종	129	2.3	21.7	57.4	15.5	3.1	24.0	57.4	18.6
	강원/제주	48	4.2	6.3	60.4	29.2	0.0	10.4	60.4	29.2
지역크기	대도시	537	3.2	15.3	53.8	23.1	4.7	18.4	53.8	27.7
	중소도시	601	3.0	16.8	58.4	19.0	2.8	19.8	58.4	21.8
	읍/면	62	11.3	11.3	40.3	35.5	1.6	22.6	40.3	37.1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7.1	35.7	50.0	7.1	7.1	35.7	57.1
	자영업자	85	7.1	15.3	50.6	24.7	2.4	22.4	50.6	27.1
	판매/서비스직	85	1.2	21.2	55.3	17.6	4.7	22.4	55.3	22.4
	기능/숙련공	42	2.4	14.3	59.5	21.4	2.4	16.7	59.5	23.8
	일반 노무직	49	0.0	14.3	49.0	28.6	8.2	14.3	49.0	36.7
	사무/기술직	460	4.6	16.5	55.7	20.2	3.0	21.1	55.7	23.3
	경영/관리직	66	4.5	9.1	60.6	22.7	3.0	13.6	60.6	25.8
	전문/자유직	72	1.4	19.4	45.8	29.2	4.2	20.8	45.8	33.3
	전업주부	136	0.7	15.4	58.1	22.8	2.9	16.2	58.1	25.7
	학생	62	4.8	16.1	62.9	14.5	1.6	21.0	62.9	16.1
	무직	122	4.1	13.9	58.2	18.0	5.7	18.0	58.2	23.8
	기타	7	0.0	14.3	42.9	42.9	0.0	14.3	42.9	42.9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50.0	33.3	0.0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7	16.8	58.4	17.8	4.3	19.5	58.4	22.2
	전문대(중퇴/졸업)	162	4.9	17.3	54.3	20.4	3.1	22.2	54.3	23.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3	15.5	55.6	22.1	3.5	18.8	55.6	25.6
	대학원 이상	124	4.0	14.5	51.6	25.8	4.0	18.5	51.6	29.8
생활수준별	상	133	4.5	17.3	52.6	22.6	3.0	21.8	52.6	25.6
	중	538	3.7	15.2	57.1	20.4	3.5	19.0	57.1	24.0
	하	529	3.0	16.1	54.4	22.7	3.8	19.1	54.4	26.5

Ⅲ 북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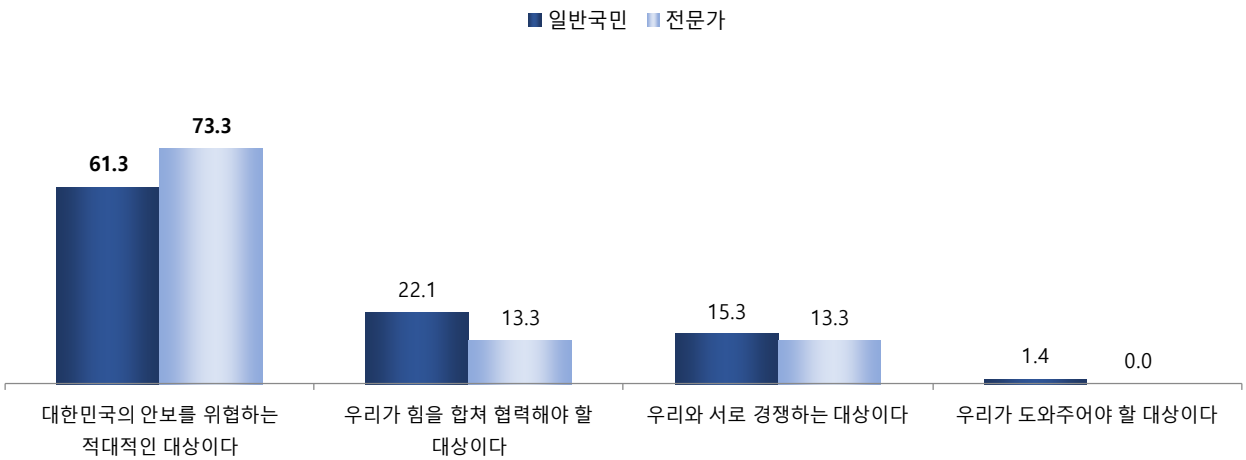
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국민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61.3%),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73.3%)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2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고,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단위[%]		사례수 (명)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전체		1,260	61.8	21.7	15.2	1.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1.3	22.1	15.3	1.4
	전문가	60	73.3	13.3	13.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66.7	19.9	11.6	1.8
	중	479	56.2	24.2	18.4	1.3
	하	118	54.2	24.6	21.2	0.0
성별	남성	720	66.1	17.8	15.0	1.1
	여성	480	54.0	28.5	15.6	1.9
연령별	20대 이하	235	60.9	11.9	26.0	1.3
	30대	198	56.6	24.7	18.2	0.5
	40대	247	52.2	29.6	16.6	1.6
	50대	252	56.3	29.8	11.5	2.4
	60대 이상	268	78.0	14.9	6.0	1.1
지역별	서울	226	60.2	19.0	19.0	1.8
	경기/인천	384	59.6	24.2	14.6	1.6
	부산/울산/경남	184	62.0	20.1	16.3	1.6
	대구/경북	117	69.2	16.2	13.7	0.9
	광주/전라	112	59.8	24.1	15.2	0.9
	대전/충청/세종	129	61.2	24.8	12.4	1.6
	강원/제주	48	60.4	29.2	10.4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60.3	20.9	17.3	1.5
	중소도시	601	62.1	23.5	13.1	1.3
	읍/면	62	61.3	19.4	17.7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85.7	7.1	7.1	0.0
	자영업자	85	72.9	14.1	11.8	1.2
	판매/서비스직	85	63.5	18.8	17.6	0.0
	기능/숙련공	42	50.0	23.8	21.4	4.8
	일반 노무직	49	55.1	24.5	18.4	2.0
	사무/기술직	460	58.3	24.1	16.1	1.5
	경영/관리직	66	62.1	22.7	15.2	0.0
	전문/자유직	72	65.3	25.0	8.3	1.4
	전업주부	136	64.0	25.7	9.6	0.7
	학생	62	58.1	14.5	27.4	0.0
	무직	122	61.5	19.7	15.6	3.3
	기타	7	71.4	28.6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50.0	16.7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59.5	21.6	16.8	2.2
	전문대(중퇴/졸업)	162	61.1	24.7	13.0	1.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62.5	19.9	16.2	1.4
	대학원 이상	124	58.9	30.6	10.5	0.0
생활수준별	상	133	60.9	20.3	17.3	1.5
	중	538	59.5	22.7	16.4	1.5
	하	529	63.1	21.9	13.6	1.3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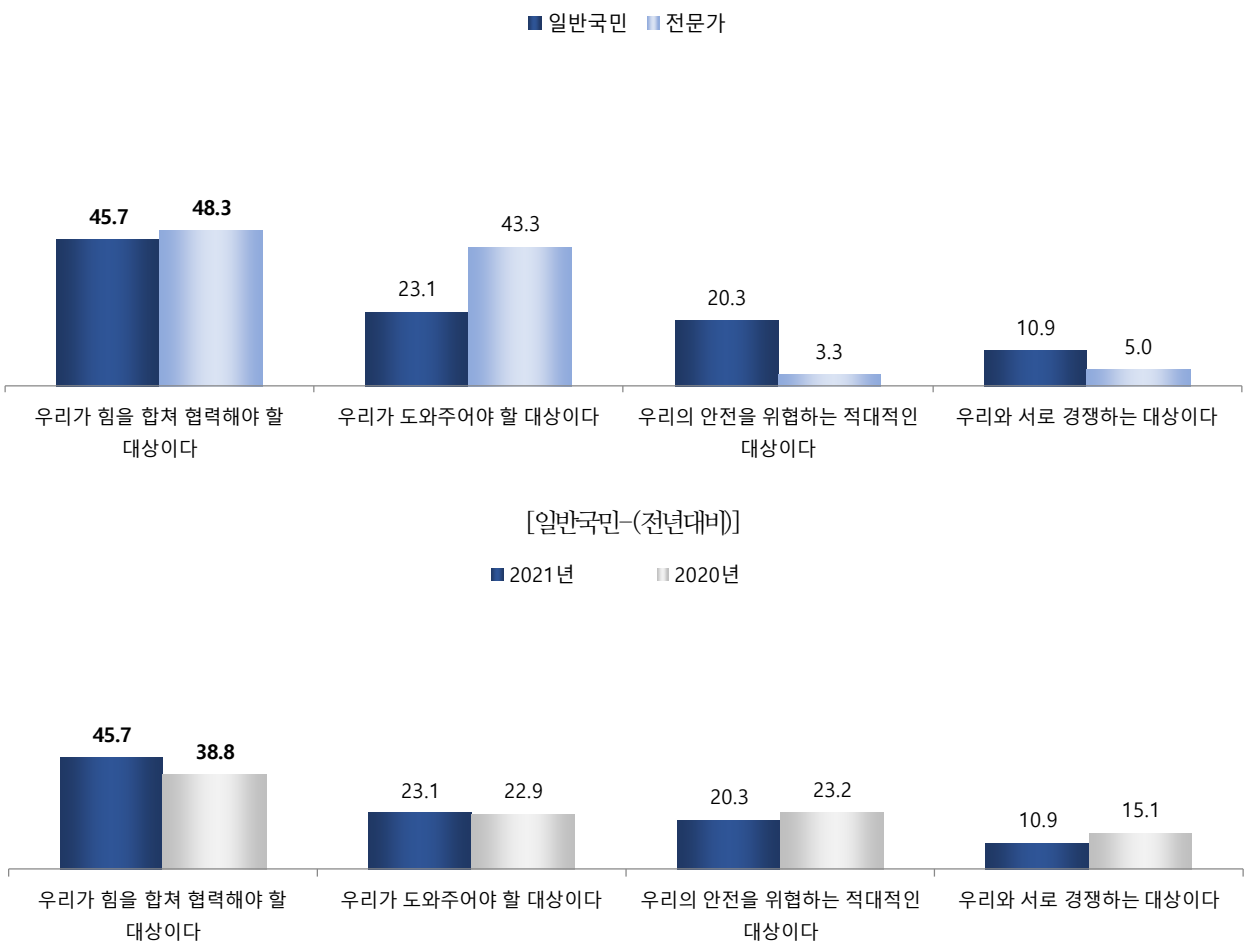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5.7%, 전문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2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6.9%p(2020년 38.8%),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는 0.2%p(2020년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4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특성별 분석]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2〉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단위[%]		사례수 (명)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전체		1,260	45.8	24.0	19.5	10.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5.7	23.1	20.3	10.9
	전문가	60	48.3	43.3	3.3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42.5	27.5	20.9	9.1
	중	479	48.6	19.6	20.3	11.5
	하	118	50.0	14.4	17.8	17.8
성별	남성	720	44.4	24.6	20.4	10.6
	여성	480	47.5	20.8	20.2	11.5
연령별	20대 이하	235	36.2	20.4	28.1	15.3
	30대	198	41.4	19.2	21.7	17.7
	40대	247	50.6	23.5	16.2	9.7
	50대	252	54.0	23.4	15.9	6.7
	60대 이상	268	44.8	27.6	20.5	7.1
지역별	서울	226	40.7	26.1	20.8	12.4
	경기/인천	384	46.6	20.6	20.1	12.8
	부산/울산/경남	184	45.1	23.4	21.2	10.3
	대구/경북	117	53.8	16.2	21.4	8.5
	광주/전라	112	39.3	30.4	19.6	10.7
	대전/충청/세종	129	49.6	24.8	20.2	5.4
	강원/제주	48	47.9	22.9	16.7	12.5
지역크기	대도시	537	44.3	22.3	22.5	10.8
	중소도시	601	46.6	23.5	19.0	11.0
	읍/면	62	48.4	25.8	14.5	11.3
직업별	농/어/임업	14	42.9	35.7	14.3	7.1
	자영업자	85	41.2	23.5	20.0	15.3
	판매/서비스직	85	44.7	17.6	18.8	18.8
	기능/숙련공	42	45.2	19.0	26.2	9.5
	일반 노무직	49	46.9	18.4	14.3	20.4
	사무/기술직	460	44.3	23.0	23.0	9.6
	경영/관리직	66	54.5	30.3	12.1	3.0
	전문/자유직	72	44.4	30.6	19.4	5.6
	전업주부	136	53.7	16.9	20.6	8.8
	학생	62	35.5	22.6	25.8	16.1
	무직	122	47.5	24.6	15.6	12.3
	기타	7	28.6	71.4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66.7	16.7	1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5.4	17.8	23.2	13.5
	전문대(중퇴/졸업)	162	47.5	20.4	16.0	16.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3.8	24.6	21.7	9.8
	대학원 이상	124	53.2	25.8	13.7	7.3
생활수준별	상	133	43.6	26.3	18.0	12.0
	중	538	45.7	25.3	17.5	11.5
	하	529	46.1	20.0	23.8	10.0

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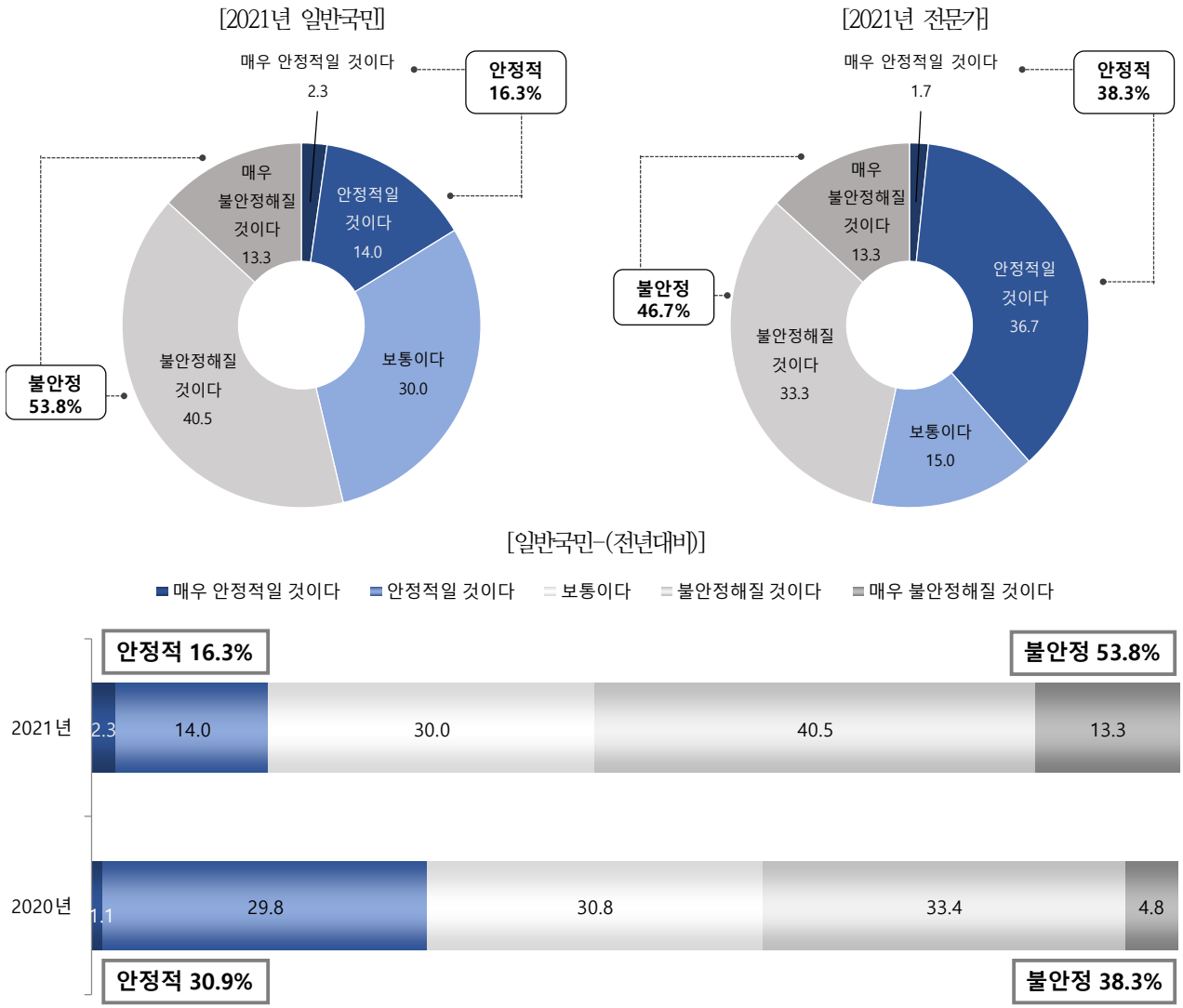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전망에 대해 일반국민은 '불안정적이다'(53.8%), 전문가는 '불안정적이다'(46.7%)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에 대해 '불안정적일 것이다'는 응답이 53.8%로, '안정적일 것이다'(16.3%) 응답보다 37.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불안정적일 것이다'는 15.5%p(2020년 38.3%) 증가하였고, '안정적일 것이다'는 14.6%p(2020년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이 '불안정적일 것이다'는 응답이 46.7%로, '안정적일 것이다'(38.3%)보다 8.4%p 높게 나타남.

〈그림 3-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특성별 분석]

◉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성', 지역별로 '서울', 지역크기별로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단위[%]		사례수(명)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안정적일 것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해질 것이다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종합		
								안정적일 것	보통	불안정할 것
전체		1,260	2.2	15.1	29.3	40.2	13.3	17.3	29.3	53.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14.0	30.0	40.5	13.3	16.3	30.0	53.8
	전문가	60	1.7	36.7	15.0	33.3	13.3	38.3	15.0	4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0	18.1	23.5	40.5	14.9	21.1	23.5	55.4
	중	479	1.3	10.2	37.0	40.9	10.6	11.5	37.0	51.6
	하	118	2.5	8.5	34.7	39.0	15.3	11.0	34.7	54.2
성별	남성	720	3.2	14.7	31.4	36.8	13.9	17.9	31.4	50.7
	여성	480	0.8	12.9	27.9	46.0	12.3	13.8	27.9	58.3
연령별	20대 이하	235	2.1	15.3	30.6	34.9	17.0	17.4	30.6	51.9
	30대	198	3.0	9.1	30.3	42.4	15.2	12.1	30.3	57.6
	40대	247	2.4	12.6	35.2	38.9	10.9	15.0	35.2	49.8
	50대	252	1.6	17.1	34.1	39.3	7.9	18.7	34.1	47.2
	60대 이상	268	2.2	14.9	20.5	46.6	15.7	17.2	20.5	62.3
지역별	서울	226	2.2	13.3	26.1	42.9	15.5	15.5	26.1	58.4
	경기/인천	384	2.1	15.9	31.8	38.5	11.7	18.0	31.8	50.3
	부산/울산/경남	184	3.3	10.3	32.1	42.9	11.4	13.6	32.1	54.3
	대구/경북	117	3.4	12.0	36.8	33.3	14.5	15.4	36.8	47.9
	광주/전라	112	0.9	12.5	28.6	45.5	12.5	13.4	28.6	58.0
	대전/충청/세종	129	1.6	15.5	25.6	39.5	17.8	17.1	25.6	57.4
	강원/제주	48	2.1	20.8	25.0	43.8	8.3	22.9	25.0	5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3.0	13.4	27.4	42.8	13.4	16.4	27.4	56.2
	중소도시	601	1.7	15.5	32.6	37.6	12.6	17.1	32.6	50.2
	읍/면	62	1.6	4.8	27.4	48.4	17.7	6.5	27.4	66.1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7.1	35.7	57.1	0.0	7.1	35.7	57.1
	자영업자	85	3.5	12.9	30.6	40.0	12.9	16.5	30.6	52.9
	판매/서비스직	85	4.7	20.0	31.8	31.8	11.8	24.7	31.8	43.5
	기능/숙련공	42	2.4	7.1	47.6	31.0	11.9	9.5	47.6	42.9
	일반 노무직	49	6.1	18.4	36.7	28.6	10.2	24.5	36.7	38.8
	사무/기술직	460	2.2	12.4	28.3	43.0	14.1	14.6	28.3	57.2
	경영/관리직	66	1.5	24.2	21.2	40.9	12.1	25.8	21.2	53.0
	전문/자유직	72	1.4	12.5	23.6	54.2	8.3	13.9	23.6	62.5
	전업주부	136	0.7	12.5	33.1	40.4	13.2	13.2	33.1	53.7
	학생	62	1.6	14.5	38.7	29.0	16.1	16.1	38.7	45.2
	무직	122	1.6	15.6	27.0	39.3	16.4	17.2	27.0	55.7
	기타	7	0.0	0.0	14.3	71.4	14.3	0.0	14.3	85.7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50.0	33.3	0.0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6	18.9	31.4	36.8	11.4	20.5	31.4	48.1
	전문대(중퇴/졸업)	162	1.2	14.2	30.2	38.3	16.0	15.4	30.2	54.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6	12.9	29.5	41.8	13.3	15.5	29.5	55.0
	대학원 이상	124	2.4	12.9	29.8	41.9	12.9	15.3	29.8	54.8
생활수준별	상	133	3.8	20.3	29.3	33.8	12.8	24.1	29.3	46.6
	중	538	2.0	11.2	30.9	43.3	12.6	13.2	30.9	55.9
	하	529	2.1	15.3	29.3	39.3	14.0	17.4	29.3	53.3

4.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내)에 대해 일반국민은 '높다'(35.2%), 전문가는 '낮다'(36.7%)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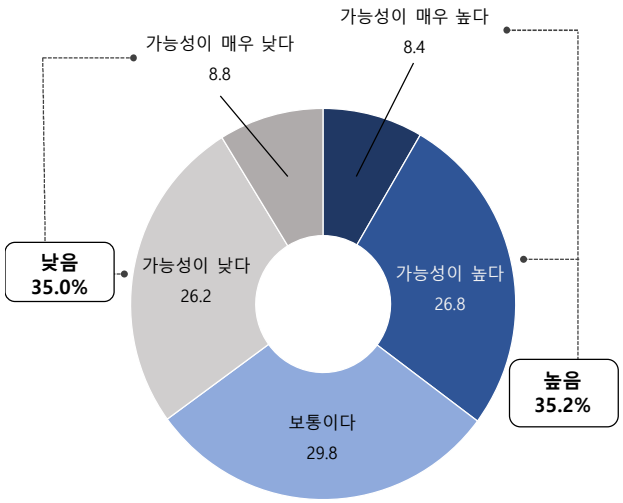
● **[일반국민]**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내)이 '높다'는 응답이 35.2%로, '낮다'(35.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높다'는 4.9%p(2020년 30.3%), '낮다'는 1.2%p (2020년 33.8%)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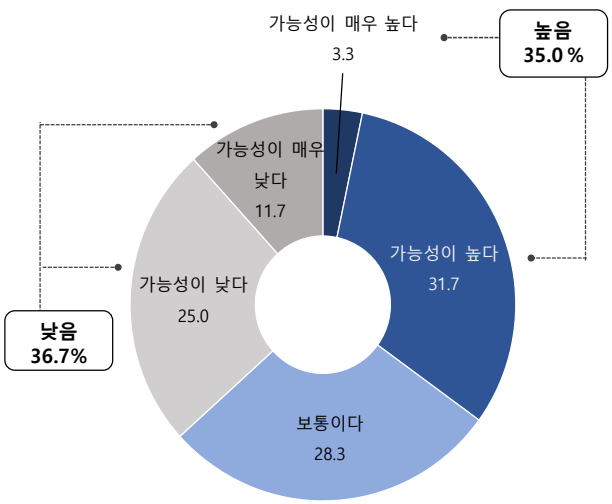
● **[전문가]**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내)이 '낮다'는 응답이 36.7%로, '높다'(35.0%)보다 1.7%p 높게 나타남.

〈그림 3-4〉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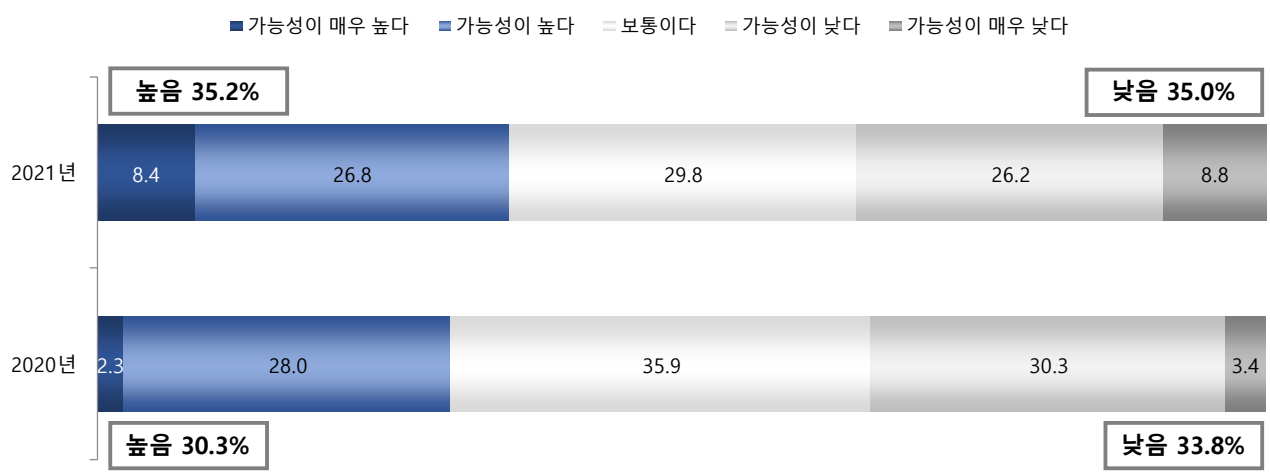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3-4〉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단위[%]		사례수 (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다	보통이다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0	8.2	27.0	29.8	26.1	9.0	35.2	29.8	35.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4	26.8	29.8	26.2	8.8	35.2	29.8	35.0
	전문가	60	3.3	31.7	28.3	25.0	11.7	35.0	28.3	3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9.0	28.2	22.4	28.7	11.8	37.1	22.4	40.5
	중	479	8.1	24.4	39.0	22.8	5.6	32.6	39.0	28.4
	하	118	6.8	28.8	30.5	27.1	6.8	35.6	30.5	33.9
성별	남성	720	10.7	27.4	26.7	24.4	10.8	38.1	26.7	35.3
	여성	480	5.0	25.8	34.6	28.8	5.8	30.8	34.6	34.6
연령별	20대 이하	235	16.2	36.6	33.6	9.4	4.3	52.8	33.6	13.6
	30대	198	8.6	36.4	29.3	20.7	5.1	44.9	29.3	25.8
	40대	247	5.3	23.9	31.2	28.7	10.9	29.1	31.2	39.7
	50대	252	4.8	16.7	28.6	35.7	14.3	21.4	28.6	50.0
	60대 이상	268	7.8	23.1	26.9	33.6	8.6	31.0	26.9	42.2
지역별	서울	226	9.3	27.4	28.8	24.3	10.2	36.7	28.8	34.5
	경기/인천	384	6.5	27.1	33.9	25.0	7.6	33.6	33.9	32.6
	부산/울산/경남	184	13.0	28.8	26.6	23.9	7.6	41.8	26.6	31.5
	대구/경북	117	4.3	28.2	27.4	26.5	13.7	32.5	27.4	40.2
	광주/전라	112	8.9	22.3	25.9	36.6	6.3	31.3	25.9	42.9
	대전/충청/세종	129	7.8	26.4	27.9	27.1	10.9	34.1	27.9	38.0
	강원/제주	48	12.5	20.8	35.4	25.0	6.3	33.3	35.4	31.3
지역크기	대도시	537	10.8	28.3	28.7	24.6	7.6	39.1	28.7	32.2
	중소도시	601	6.3	25.3	31.3	27.3	9.8	31.6	31.3	37.1
	읍/면	62	8.1	27.4	25.8	29.0	9.7	35.5	25.8	38.7
직업별	농/어/임업	14	14.3	21.4	35.7	28.6	0.0	35.7	35.7	28.6
	자영업자	85	8.2	31.8	15.3	36.5	8.2	40.0	15.3	44.7
	판매/서비스직	85	10.6	28.2	34.1	22.4	4.7	38.8	34.1	27.1
	기능/숙련공	42	9.5	14.3	35.7	19.0	21.4	23.8	35.7	40.5
	일반 노무직	49	10.2	26.5	38.8	18.4	6.1	36.7	38.8	24.5
	사무/기술직	460	8.0	28.5	28.5	25.2	9.8	36.5	28.5	35.0
	경영/관리직	66	4.5	13.6	22.7	43.9	15.2	18.2	22.7	59.1
	전문/자유직	72	12.5	26.4	26.4	22.2	12.5	38.9	26.4	34.7
	전업주부	136	4.4	20.6	36.8	32.4	5.9	25.0	36.8	38.2
	학생	62	17.7	35.5	41.9	3.2	1.6	53.2	41.9	4.8
	무직	122	6.6	31.1	28.7	26.2	7.4	37.7	28.7	33.6
	기타	7	0.0	14.3	14.3	57.1	14.3	14.3	14.3	71.4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50.0	16.7	16.7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7.6	23.8	34.1	27.0	7.6	31.4	34.1	34.6
	전문대(중퇴/졸업)	162	9.9	20.4	33.3	30.9	5.6	30.2	33.3	36.4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7.7	30.6	28.8	23.8	9.1	38.3	28.8	32.9
	대학원 이상	124	12.1	17.7	24.2	33.1	12.9	29.8	24.2	46.0
생활수준별	상	133	10.5	24.1	34.6	21.1	9.8	34.6	34.6	30.8
	중	538	6.7	28.8	29.0	27.3	8.2	35.5	29.0	35.5
	하	529	9.6	25.3	29.5	26.3	9.3	35.0	29.5	35.5

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4.6%, 전문가 5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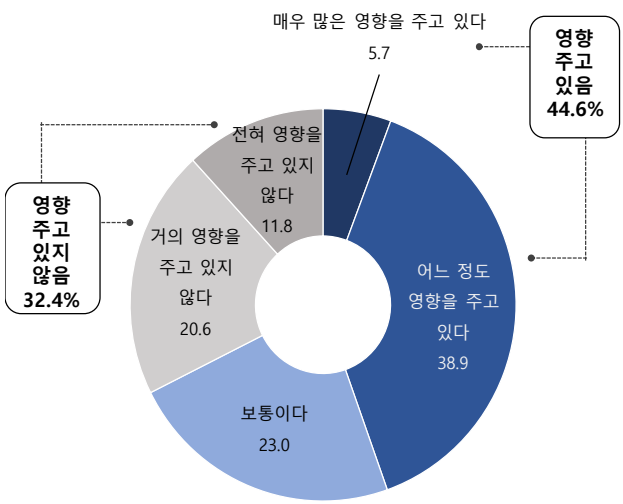
● **[일반국민]**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4.6%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32.4%)보다 12.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3.2%p(2020년 47.8%) 감소하였고, '영향 없다'는 13.1%p(2020년 19.3%)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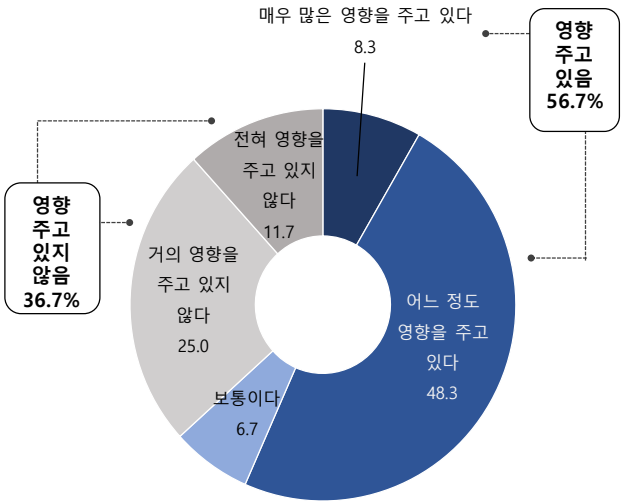
● **[전문가]**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6.7%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36.7%)보다 20.0%p 높게 나타남.

〈그림 3-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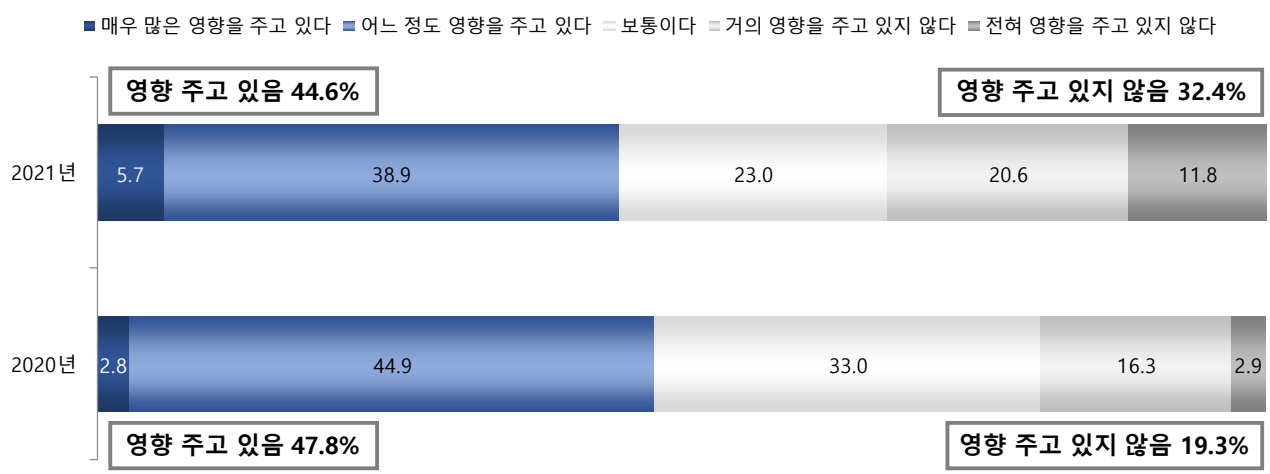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강원/제주',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n=124)에서 높게 나타남.

〈표 3-5〉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단위[%]		사례수(명)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종합		
								영향 주고 있음	보통	영향 주고 있지 않음
전체		1,260	5.8	39.4	22.2	20.8	11.8	45.2	22.2	32.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7	38.9	23.0	20.6	11.8	44.6	23.0	32.4
	전문가	60	8.3	48.3	6.7	25.0	11.7	56.7	6.7	3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8.3	42.5	15.4	20.1	13.8	50.7	15.4	33.8
	중	479	2.9	36.1	31.5	20.3	9.2	39.0	31.5	29.4
	하	118	3.4	32.2	27.1	24.6	12.7	35.6	27.1	37.3
성별	남성	720	6.3	39.4	22.1	18.5	13.8	45.7	22.1	32.2
	여성	480	4.8	38.1	24.4	23.8	9.0	42.9	24.4	32.7
연령별	20대 이하	235	4.7	31.1	31.9	19.6	12.8	35.7	31.9	32.3
	30대	198	4.0	34.8	30.3	19.2	11.6	38.9	30.3	30.8
	40대	247	8.5	38.1	23.1	21.9	8.5	46.6	23.1	30.4
	50대	252	4.8	47.2	17.5	19.0	11.5	52.0	17.5	30.6
	60대 이상	268	6.0	41.8	14.9	22.8	14.6	47.8	14.9	37.3
지역별	서울	226	10.2	33.6	22.1	20.8	13.3	43.8	22.1	34.1
	경기/인천	384	3.9	38.8	24.7	21.9	10.7	42.7	24.7	32.6
	부산/울산/경남	184	4.9	39.1	23.4	19.0	13.6	44.0	23.4	32.6
	대구/경북	117	2.6	41.9	21.4	19.7	14.5	44.4	21.4	34.2
	광주/전라	112	7.1	38.4	29.5	17.0	8.0	45.5	29.5	25.0
	대전/충청/세종	129	3.9	44.2	16.3	21.7	14.0	48.1	16.3	35.7
	강원/제주	48	10.4	43.8	18.8	22.9	4.2	54.2	18.8	27.1
지역크기	대도시	537	6.5	36.9	22.7	20.3	13.6	43.4	22.7	33.9
	중소도시	601	4.5	40.6	23.0	21.3	10.6	45.1	23.0	31.9
	읍/면	62	9.7	40.3	25.8	16.1	8.1	50.0	25.8	24.2
직업별	농/어/임업	14	7.1	71.4	14.3	7.1	0.0	78.6	14.3	7.1
	자영업자	85	9.4	37.6	20.0	21.2	11.8	47.1	20.0	32.9
	판매/서비스직	85	4.7	36.5	25.9	18.8	14.1	41.2	25.9	32.9
	기능/숙련공	42	4.8	50.0	28.6	7.1	9.5	54.8	28.6	16.7
	일반 노무직	49	6.1	34.7	36.7	12.2	10.2	40.8	36.7	22.4
	사무/기술직	460	6.7	38.7	21.5	20.2	12.8	45.4	21.5	33.0
	경영/관리직	66	4.5	43.9	15.2	22.7	13.6	48.5	15.2	36.4
	전문/자유직	72	5.6	37.5	18.1	27.8	11.1	43.1	18.1	38.9
	전업주부	136	2.9	41.2	25.0	22.1	8.8	44.1	25.0	30.9
	학생	62	4.8	25.8	37.1	24.2	8.1	30.6	37.1	32.3
	무직	122	3.3	39.3	20.5	22.1	14.8	42.6	20.5	36.9
	기타	7	14.3	28.6	14.3	42.9	0.0	42.9	14.3	42.9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0.0	66.7	0.0	0.0	33.3	6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8	40.0	28.1	17.3	10.8	43.8	28.1	28.1
	전문대(중퇴/졸업)	162	4.3	40.1	29.6	16.7	9.3	44.4	29.6	25.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6.1	38.0	21.6	21.4	12.9	44.1	21.6	34.3
	대학원 이상	124	6.5	42.7	12.9	26.6	11.3	49.2	12.9	37.9
생활수준별	상	133	7.5	30.8	25.6	22.6	13.5	38.3	25.6	36.1
	중	538	5.8	41.3	21.9	20.6	10.4	47.0	21.9	31.0
	하	529	5.1	38.6	23.4	20.0	12.9	43.7	23.4	32.9

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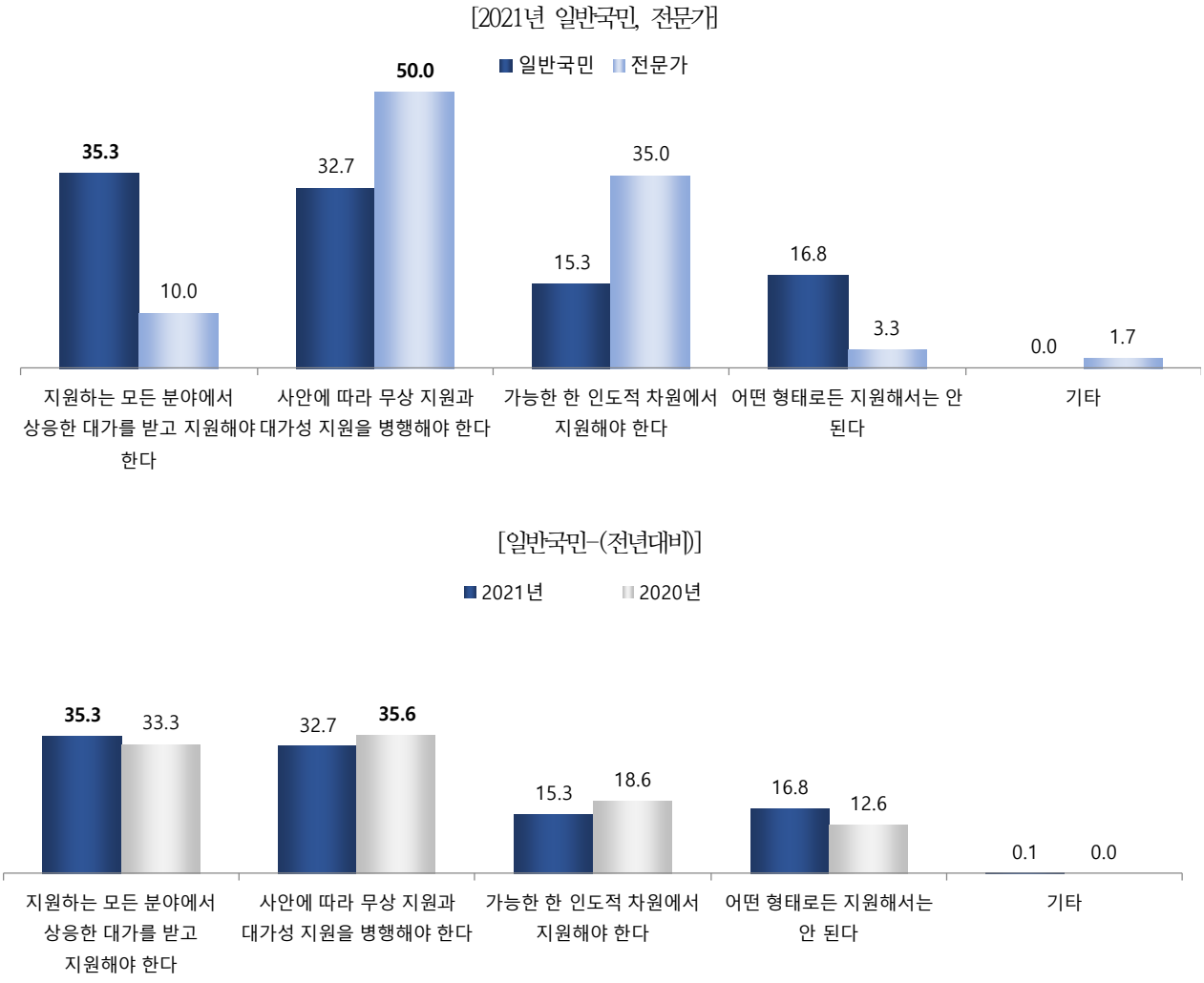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일반국민은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한다'(35.3%), 전문가는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5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가 3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3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는 2.0%p(2020년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능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3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특성별 분석]

◉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생활수준별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3-6〉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단위[%]		사례수 (명)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기타
전체		1,260	34.1	33.5	16.2	16.1	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5.3	32.7	15.3	16.8	0.0
	전문가	60	10.0	50.0	35.0	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0.3	35.2	18.2	16.3	0.0
	중	479	38.8	30.7	13.4	17.1	0.0
	하	118	46.6	28.0	7.6	17.8	0.0
성별	남성	720	34.3	33.1	15.0	17.6	0.0
	여성	480	36.9	32.1	15.6	15.4	0.0
연령별	20대 이하	235	41.7	24.3	7.2	26.8	0.0
	30대	198	42.9	26.3	12.1	18.7	0.0
	40대	247	36.4	38.1	15.4	10.1	0.0
	50대	252	29.8	38.9	21.8	9.5	0.0
	60대 이상	268	28.4	34.0	18.3	19.4	0.0
지역별	서울	226	35.8	35.0	11.9	17.3	0.0
	경기/인천	384	37.2	33.9	15.4	13.5	0.0
	부산/울산/경남	184	37.5	23.9	17.4	21.2	0.0
	대구/경북	117	31.6	31.6	13.7	23.1	0.0
	광주/전라	112	25.0	42.0	16.1	17.0	0.0
	대전/충청/세종	129	36.4	31.8	17.8	14.0	0.0
	강원/제주	48	39.6	29.2	16.7	14.6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37.8	31.8	12.8	17.5	0.0
	중소도시	601	33.1	33.4	16.5	17.0	0.0
	읍/면	62	35.5	32.3	24.2	8.1	0.0
직업별	농/어/임업	14	42.9	21.4	21.4	14.3	0.0
	자영업자	85	32.9	37.6	15.3	14.1	0.0
	판매/서비스직	85	40.0	37.6	11.8	10.6	0.0
	기능/숙련공	42	45.2	16.7	23.8	14.3	0.0
	일반 노무직	49	36.7	22.4	20.4	20.4	0.0
	사무/기술직	460	36.3	33.0	13.3	17.4	0.0
	경영/관리직	66	25.8	45.5	18.2	10.6	0.0
	전문/자유직	72	25.0	41.7	16.7	16.7	0.0
	전업주부	136	33.1	30.9	19.1	16.9	0.0
	학생	62	45.2	21.0	8.1	25.8	0.0
	무직	122	33.6	30.3	16.4	19.7	0.0
	기타	7	42.9	42.9	14.3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16.7	5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2.4	33.0	16.2	18.4	0.0
	전문대(중퇴/졸업)	162	40.7	29.0	11.7	18.5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6.4	31.7	14.9	17.0	0.0
	대학원 이상	124	26.6	43.5	18.5	11.3	0.0
생활수준별	상	133	33.8	31.6	20.3	14.3	0.0
	중	538	36.6	36.2	13.4	13.8	0.0
	하	529	34.4	29.3	15.9	20.4	0.0

7.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잘한 편이다'는 의견이 일반국민(53.5%), 전문가(6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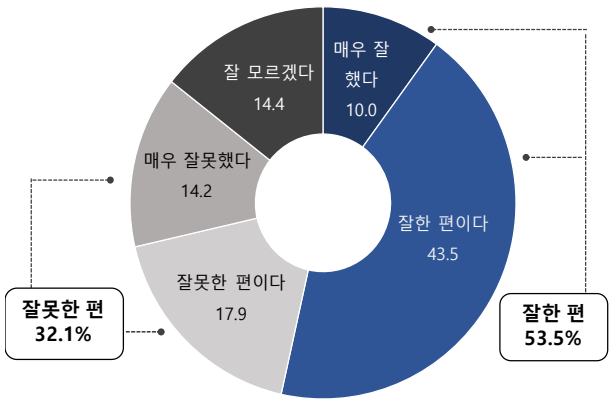
● **[일반국민]**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잘한 편이다'는 53.5%로 '잘 못한 편이다'(32.1%)보다 21.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잘한 편이다'는 5.1%p(2020년 58.6%), '잘 못한 편이다'는 5.4%p(2020년 37.5%)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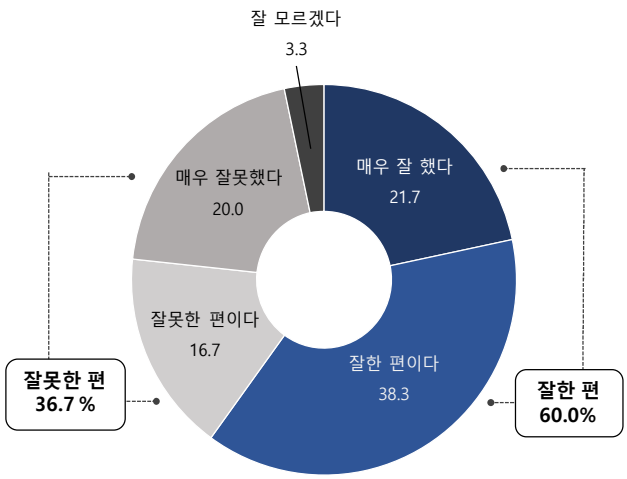
● **[전문가]**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잘한 편이다'는 60.0%로 '잘 못한 편이다'(36.7%)보다 23.3%p 높게 나타남.

〈그림 3-7〉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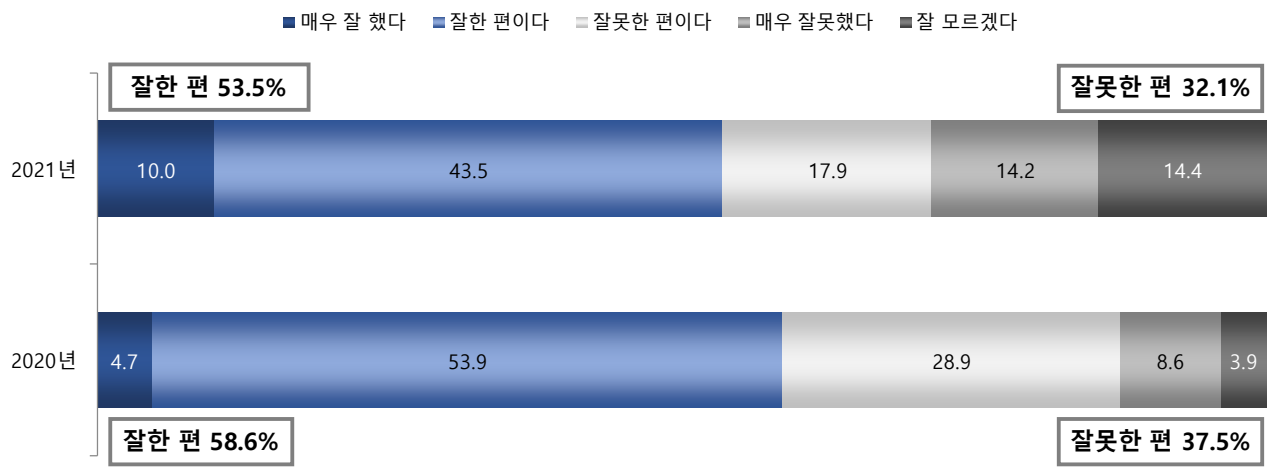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잘한 편이다'는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직업별로는 '경영/관리직'(n=66)에서 높게 나타남.

〈표 3-7〉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한 평가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했다	잘한 편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잘 모르겠다	종합		
								잘한 편	잘못한 편	잘 모름
전체		1,260	10.6	43.3	17.9	14.4	13.9	53.8	32.3	13.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0.0	43.5	17.9	14.2	14.4	53.5	32.1	14.4
	전문가	60	21.7	38.3	16.7	20.0	3.3	60.0	36.7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3.4	44.4	15.6	18.4	8.1	57.9	34.0	8.1
	중	479	6.9	44.5	20.3	8.4	20.0	51.4	28.6	20.0
	하	118	5.1	34.7	20.3	16.1	23.7	39.8	36.4	23.7
성별	남성	720	11.3	44.9	17.8	16.1	10.0	56.1	33.9	10.0
	여성	480	8.1	41.5	18.1	11.3	21.0	49.6	29.4	21.0
연령별	20대 이하	235	6.0	36.2	23.0	13.6	21.3	42.1	36.6	21.3
	30대	198	7.6	40.4	21.2	13.6	17.2	48.0	34.8	17.2
	40대	247	14.2	49.8	13.4	8.5	14.2	64.0	21.9	14.2
	50대	252	11.1	48.0	18.3	11.1	11.5	59.1	29.4	11.5
	60대 이상	268	10.4	42.2	14.9	23.1	9.3	52.6	38.1	9.3
지역별	서울	226	11.1	40.3	17.3	17.3	14.2	51.3	34.5	14.2
	경기/인천	384	10.2	47.4	15.4	12.8	14.3	57.6	28.1	14.3
	부산/울산/경남	184	10.9	33.7	22.8	15.8	16.8	44.6	38.6	16.8
	대구/경북	117	7.7	38.5	17.9	17.1	18.8	46.2	35.0	18.8
	광주/전라	112	8.9	52.7	17.9	9.8	10.7	61.6	27.7	10.7
	대전/충청/세종	129	9.3	45.0	20.9	14.7	10.1	54.3	35.7	10.1
	강원/제주	48	10.4	52.1	14.6	6.3	16.7	62.5	20.8	16.7
지역크기	대도시	537	10.2	39.1	19.6	16.9	14.2	49.3	36.5	14.2
	중소도시	601	10.0	47.3	16.1	12.3	14.3	57.2	28.5	14.3
	읍/면	62	8.1	45.2	21.0	8.1	17.7	53.2	29.0	17.7
직업별	농/어/임업	14	21.4	28.6	28.6	14.3	7.1	50.0	42.9	7.1
	자영업자	85	14.1	32.9	22.4	10.6	20.0	47.1	32.9	20.0
	판매/서비스직	85	8.2	36.5	23.5	12.9	18.8	44.7	36.5	18.8
	기능/숙련공	42	11.9	50.0	23.8	11.9	2.4	61.9	35.7	2.4
	일반 노무직	49	6.1	46.9	18.4	16.3	12.2	53.1	34.7	12.2
	사무/기술직	460	10.0	47.0	16.1	14.3	12.6	57.0	30.4	12.6
	경영/관리직	66	13.6	51.5	12.1	15.2	7.6	65.2	27.3	7.6
	전문/자유직	72	8.3	50.0	11.1	12.5	18.1	58.3	23.6	18.1
	전업주부	136	7.4	41.2	18.4	14.0	19.1	48.5	32.4	19.1
	학생	62	8.1	40.3	25.8	11.3	14.5	48.4	37.1	14.5
	무직	122	10.7	36.9	17.2	19.7	15.6	47.5	36.9	15.6
	기타	7	14.3	42.9	14.3	0.0	28.6	57.1	14.3	28.6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16.7	16.7	16.7	33.3	33.3	33.3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0.3	44.3	17.8	10.3	17.3	54.6	28.1	17.3
	전문대(중퇴/졸업)	162	9.3	45.1	17.3	15.4	13.0	54.3	32.7	13.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9.1	43.7	18.8	13.8	14.5	52.8	32.6	14.5
	대학원 이상	124	15.3	40.3	13.7	20.2	10.5	55.6	33.9	10.5
생활수준별	상	133	12.8	41.4	19.5	13.5	12.8	54.1	33.1	12.8
	중	538	9.3	45.0	17.3	14.1	14.3	54.3	31.4	14.3
	하	529	10.0	42.5	18.1	14.4	14.9	52.6	32.5	14.9

8.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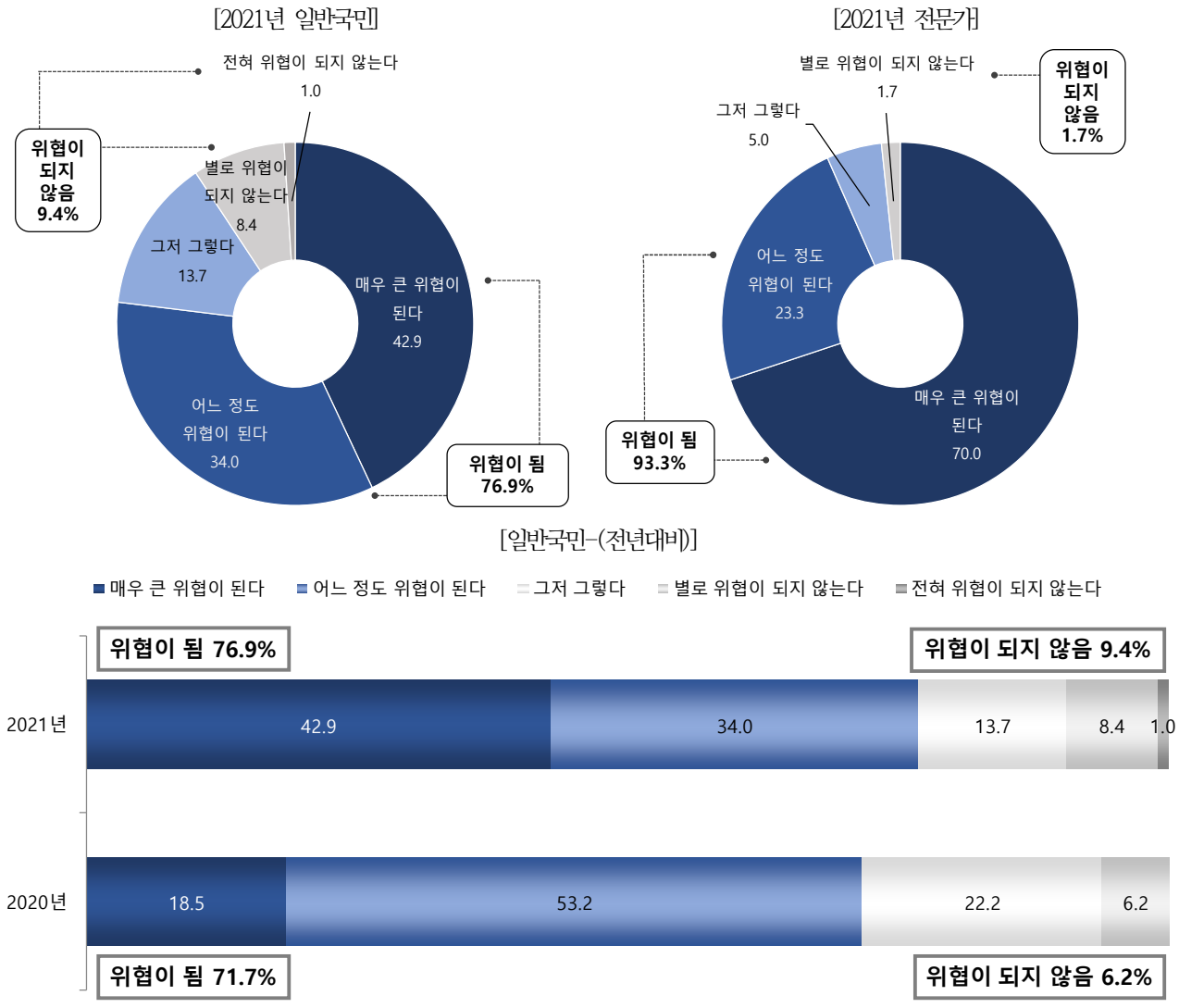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6.9%, 전문가 93.3%로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6.9%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9.4%)보다 67.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위협이 된다'는 5.2%p(2020년 71.7%),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3.2%p(2020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93.3%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1.7%)보다 91.6%p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8〉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특성별 분석]

◉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 '상',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남.

〈표 3-8〉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단위[%]		사례수(명)	매우 큰 위협이 된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종합		
								위협이 됨	보통	위협이 되지 않음
전체		1,260	44.2	33.5	13.3	8.1	1.0	77.7	13.3	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2.9	34.0	13.7	8.4	1.0	76.9	13.7	9.4
	전문가	60	70.0	23.3	5.0	1.7	0.0	93.3	5.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0.6	30.8	10.1	7.8	0.7	81.4	10.1	8.5
	중	479	35.1	37.0	19.4	7.7	0.8	72.0	19.4	8.6
	하	118	35.6	38.1	8.5	14.4	3.4	73.7	8.5	17.8
성별	남성	720	49.4	28.9	13.3	7.2	1.1	78.3	13.3	8.3
	여성	480	33.1	41.7	14.2	10.2	0.8	74.8	14.2	11.0
연령별	20대 이하	235	37.4	34.0	15.3	11.5	1.7	71.5	15.3	13.2
	30대	198	37.4	36.9	16.7	8.1	1.0	74.2	16.7	9.1
	40대	247	36.4	32.4	19.0	10.5	1.6	68.8	19.0	12.1
	50대	252	41.7	40.1	9.1	8.7	0.4	81.7	9.1	9.1
	60대 이상	268	59.0	27.6	9.3	3.7	0.4	86.6	9.3	4.1
지역별	서울	226	42.5	34.5	13.3	8.4	1.3	77.0	13.3	9.7
	경기/인천	384	42.4	32.6	15.1	8.9	1.0	75.0	15.1	9.9
	부산/울산/경남	184	51.1	26.6	14.7	7.1	0.5	77.7	14.7	7.6
	대구/경북	117	44.4	29.9	16.2	8.5	0.9	74.4	16.2	9.4
	광주/전라	112	36.6	38.4	11.6	11.6	1.8	75.0	11.6	13.4
	대전/충청/세종	129	36.4	44.2	10.1	8.5	0.8	80.6	10.1	9.3
	강원/제주	48	45.8	43.8	8.3	2.1	0.0	89.6	8.3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43.2	33.0	14.2	8.4	1.3	76.2	14.2	9.7
	중소도시	601	42.4	34.6	13.3	8.8	0.8	77.0	13.3	9.7
	읍/면	62	45.2	37.1	12.9	4.8	0.0	82.3	12.9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14.3	14.3	0.0	0.0	85.7	14.3	0.0
	자영업자	85	49.4	31.8	16.5	2.4	0.0	81.2	16.5	2.4
	판매/서비스직	85	37.6	36.5	12.9	9.4	3.5	74.1	12.9	12.9
	가능/숙련공	42	33.3	33.3	28.6	4.8	0.0	66.7	28.6	4.8
	일반 노무직	49	32.7	42.9	14.3	10.2	0.0	75.5	14.3	10.2
	사무/기술직	460	41.7	34.1	12.8	10.2	1.1	75.9	12.8	11.3
	경영/관리직	66	43.9	33.3	12.1	9.1	1.5	77.3	12.1	10.6
	전문/자유직	72	52.8	29.2	9.7	6.9	1.4	81.9	9.7	8.3
	전업주부	136	42.6	40.4	13.2	3.7	0.0	83.1	13.2	3.7
	학생	62	37.1	37.1	11.3	12.9	1.6	74.2	11.3	14.5
	무직	122	47.5	27.9	14.8	9.0	0.8	75.4	14.8	9.8
	기타	7	42.9	14.3	14.3	28.6	0.0	57.1	14.3	28.6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0.0	50.0	16.7	0.0	33.3	50.0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3.2	32.4	16.2	7.0	1.1	75.7	16.2	8.1
	전문대(중퇴/졸업)	162	35.8	36.4	16.7	9.9	1.2	72.2	16.7	11.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3.3	35.0	11.9	8.9	1.0	78.3	11.9	9.8
	대학원 이상	124	50.0	29.0	14.5	5.6	0.8	79.0	14.5	6.5
생활수준별	상	133	47.4	30.8	9.0	11.3	1.5	78.2	9.0	12.8
	중	538	39.2	37.9	14.3	8.2	0.4	77.1	14.3	8.6
	하	529	45.6	30.8	14.2	7.9	1.5	76.4	14.2	9.5

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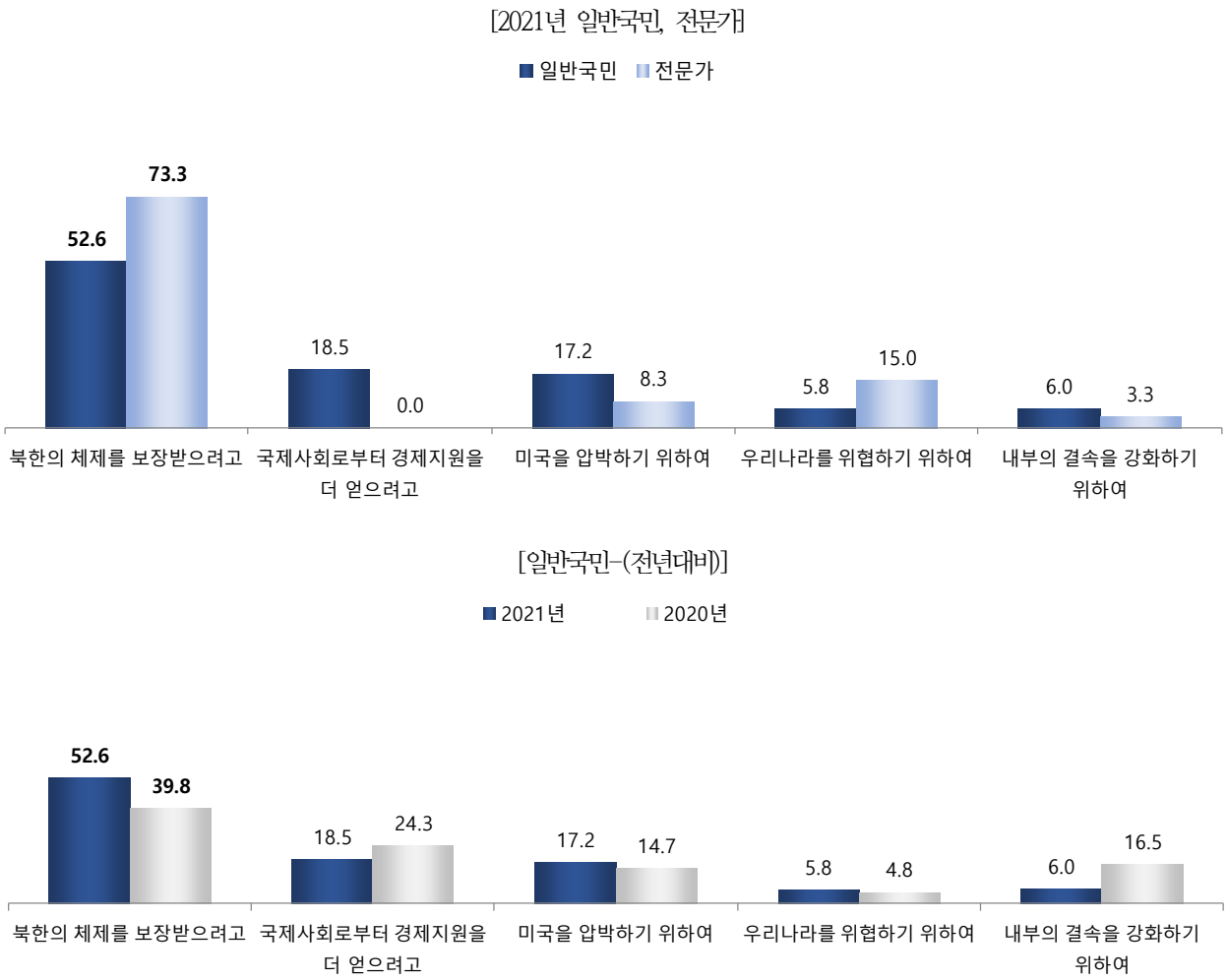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2.6%, 전문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는 12.8%p(2020년 39.8%) 증가하였고,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는 5.8%p(2020년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하여'(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특성별 분석]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남.

〈표 3-9〉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

단위[%]		사례수 (명)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하여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1,260	53.6	17.6	16.7	6.2	5.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2.6	18.5	17.2	5.8	6.0
	전문가	60	73.3	0.0	8.3	15.0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8.9	15.6	15.4	5.1	5.0
	중	479	47.6	22.3	18.8	5.6	5.6
	하	118	40.7	17.8	19.5	9.3	12.7
성별	남성	720	57.8	17.2	14.9	4.9	5.3
	여성	480	44.8	20.4	20.6	7.1	7.1
연령별	20대 이하	235	42.1	22.6	20.4	7.7	7.2
	30대	198	47.5	25.8	15.7	4.0	7.1
	40대	247	58.7	15.0	18.2	2.0	6.1
	50대	252	48.4	17.1	23.4	4.8	6.3
	60대 이상	268	63.8	14.2	8.6	9.7	3.7
지역별	서울	226	50.9	22.1	18.6	5.3	3.1
	경기/인천	384	52.9	18.0	16.1	6.5	6.5
	부산/울산/경남	184	48.4	15.8	21.2	6.5	8.2
	대구/경북	117	56.4	18.8	13.7	5.1	6.0
	광주/전라	112	58.0	15.2	17.0	3.6	6.3
	대전/충청/세종	129	53.5	19.4	18.6	3.9	4.7
	강원/제주	48	50.0	20.8	8.3	10.4	10.4
지역크기	대도시	537	53.6	18.8	16.9	5.6	5.0
	중소도시	601	51.1	18.5	18.0	5.7	6.8
	읍/면	62	58.1	16.1	11.3	8.1	6.5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7.1	7.1	7.1	7.1
	자영업자	85	63.5	17.6	15.3	2.4	1.2
	판매/서비스직	85	52.9	23.5	16.5	3.5	3.5
	기능/숙련공	42	45.2	21.4	21.4	4.8	7.1
	일반 노무직	49	53.1	18.4	10.2	10.2	8.2
	사무/기술직	460	49.6	19.6	20.4	3.5	7.0
	경영/관리직	66	60.6	10.6	15.2	6.1	7.6
	전문/자유직	72	68.1	13.9	8.3	5.6	4.2
	전업주부	136	48.5	19.9	16.2	8.8	6.6
	학생	62	40.3	29.0	21.0	4.8	4.8
	무직	122	52.5	11.5	15.6	13.9	6.6
	기타	7	71.4	28.6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50.0	0.0	33.3	1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4.9	25.9	18.4	6.5	4.3
	전문대(중퇴/졸업)	162	52.5	21.0	17.3	4.9	4.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53.0	17.6	17.0	5.5	6.9
	대학원 이상	124	62.1	10.5	15.3	6.5	5.6
생활수준별	상	133	57.9	14.3	15.0	8.3	4.5
	중	538	50.9	18.8	19.5	4.3	6.5
	하	529	52.9	19.3	15.3	6.6	5.9

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은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26.8%), 전문가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30.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 2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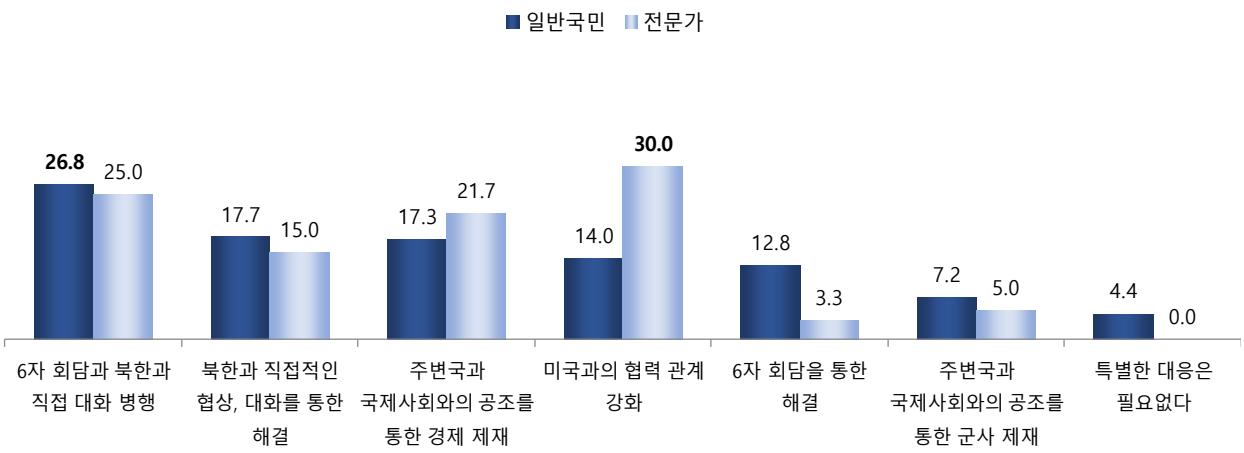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4.9%p(2020년 21.9%) 증가하였고,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은 4.0%p(2020년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가 3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2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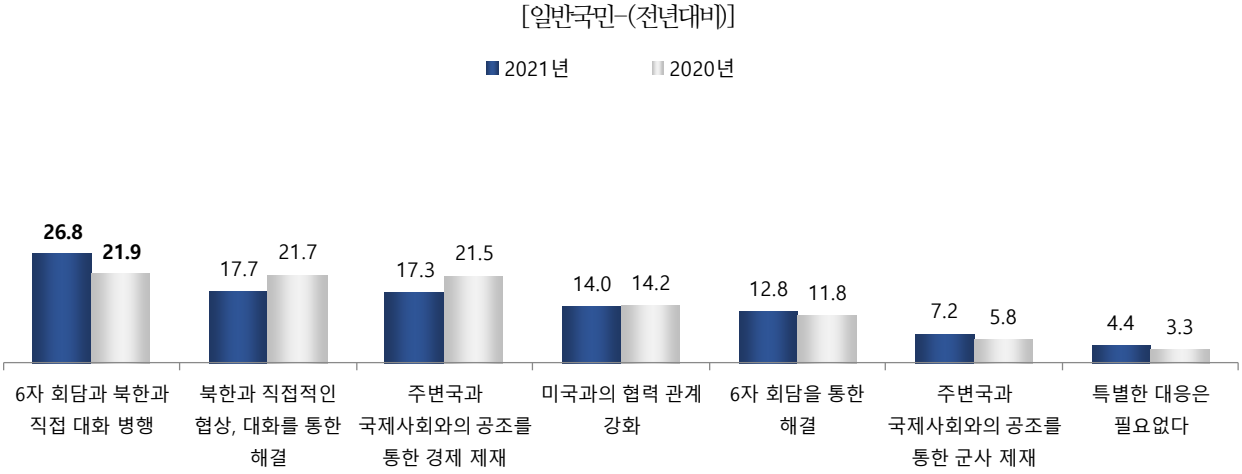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일반국민은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에 우선순위를 두었음.

〈그림 3-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72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단위[%]		사례수 (명)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전체		1,260	26.7	17.5	17.5	14.8	12.3	7.1	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6.8	17.7	17.3	14.0	12.8	7.2	4.4
	전문가	60	25.0	15.0	21.7	30.0	3.3	5.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6.4	19.2	19.4	14.3	10.6	7.0	3.2
	중	479	29.0	17.1	14.4	12.5	15.0	7.1	4.8
	하	118	19.5	11.9	17.8	18.6	14.4	8.5	9.3
성별	남성	720	27.4	19.2	16.3	14.7	11.8	7.5	3.2
	여성	480	25.8	15.4	18.8	12.9	14.2	6.7	6.3
연령별	20대 이하	235	24.3	14.0	12.3	17.9	14.0	11.9	5.5
	30대	198	28.8	14.6	12.1	16.2	15.2	8.6	4.5
	40대	247	32.0	19.8	15.8	15.0	10.5	2.8	4.0
	50대	252	26.2	21.0	19.0	9.1	14.3	5.2	5.2
	60대 이상	268	23.1	17.9	25.0	12.7	10.4	7.8	3.0
지역별	서울	226	20.4	19.0	18.1	15.5	17.7	4.9	4.4
	경기/인천	384	30.5	16.1	18.0	13.3	10.4	7.6	4.2
	부산/울산/경남	184	27.2	19.6	15.8	15.8	11.4	6.0	4.3
	대구/경북	117	23.9	18.8	19.7	8.5	15.4	6.0	7.7
	광주/전라	112	25.9	17.9	12.5	17.0	12.5	9.8	4.5
	대전/충청/세종	129	29.5	15.5	15.5	14.0	12.4	10.1	3.1
	강원/제주	48	27.1	18.8	22.9	12.5	8.3	8.3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25.0	17.1	17.5	14.2	15.1	6.3	4.8
	중소도시	601	28.8	17.3	18.0	13.6	10.1	8.2	4.0
	읍/면	62	22.6	25.8	8.1	16.1	17.7	4.8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21.4	14.3	14.3	7.1	14.3	0.0
	자영업자	85	34.1	14.1	14.1	12.9	12.9	5.9	5.9
	판매/서비스직	85	28.2	16.5	17.6	8.2	20.0	8.2	1.2
	기능/숙련공	42	16.7	28.6	16.7	16.7	14.3	7.1	0.0
	일반 노무직	49	28.6	12.2	12.2	24.5	8.2	6.1	8.2
	사무/기술직	460	27.4	18.9	15.2	14.3	14.8	6.1	3.3
	경영/관리직	66	28.8	24.2	13.6	10.6	10.6	4.5	7.6
	전문/자유직	72	36.1	13.9	20.8	9.7	9.7	6.9	2.8
	전업주부	136	23.5	13.2	27.2	14.0	10.3	5.1	6.6
	학생	62	25.8	12.9	11.3	14.5	12.9	12.9	9.7
	무직	122	18.0	20.5	20.5	17.2	7.4	12.3	4.1
	기타	7	28.6	14.3	28.6	0.0	14.3	0.0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16.7	16.7	33.3	0.0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5.4	17.3	16.2	15.7	13.5	5.9	5.9
	전문대(중퇴/졸업)	162	24.7	19.8	18.5	12.3	14.8	4.9	4.9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7.4	17.3	16.2	14.0	12.2	8.6	4.4
	대학원 이상	124	29.0	17.7	23.4	13.7	11.3	4.0	0.8
생활수준별	상	133	27.1	13.5	18.0	18.8	16.5	4.5	1.5
	중	538	30.5	16.0	14.7	13.4	14.1	7.4	3.9
	하	529	22.9	20.4	19.7	13.4	10.4	7.6	5.7

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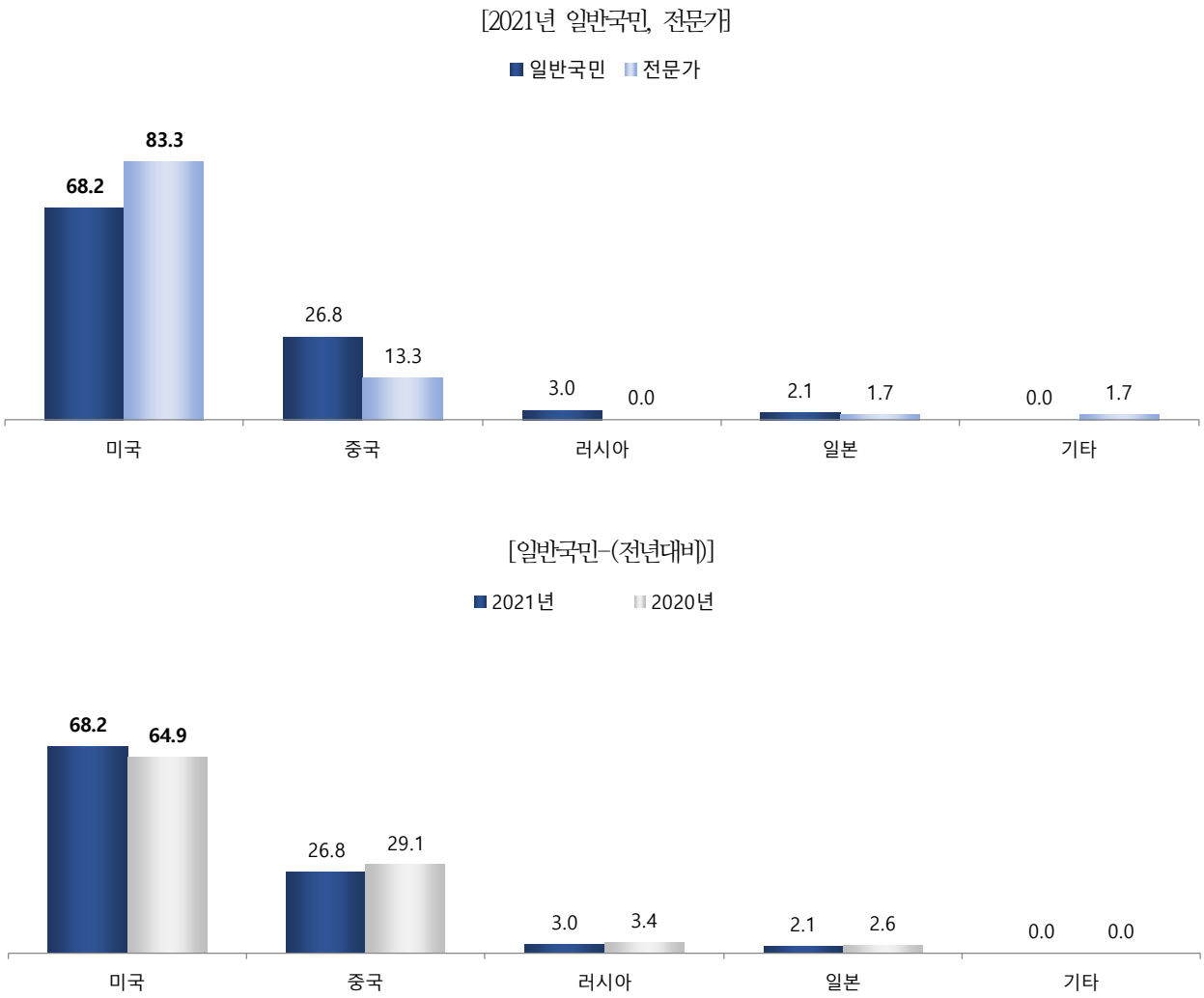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68.2%, 전문가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6.8%), '러시아'(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미국'은 3.3%p(2020년 64.9%) 증가하였고, '중국'은 2.3%p(2020년 29.1%)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특성별 분석]

◉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미국'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무직'n=81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단위[%]		사례수(명)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기타
전체		1,260	68.9	26.1	2.9	2.1	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8.2	26.8	3.0	2.1	0.0
	전문가	60	83.3	13.3	0.0	1.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67.3	28.2	2.3	2.2	0.0
	중	479	69.1	25.5	3.3	2.1	0.0
	하	118	68.6	24.6	5.1	1.7	0.0
성별	남성	720	66.9	27.9	2.8	2.4	0.0
	여성	480	70.0	25.0	3.3	1.7	0.0
연령별	20대 이하	235	74.0	18.3	4.7	3.0	0.0
	30대	198	69.7	19.7	5.1	5.6	0.0
	40대	247	66.0	30.0	2.8	1.2	0.0
	50대	252	61.5	34.9	2.4	1.2	0.0
	60대 이상	268	70.1	28.7	0.7	0.4	0.0
지역별	서울	226	72.6	23.0	1.3	3.1	0.0
	경기/인천	384	66.7	26.6	4.4	2.3	0.0
	부산/울산/경남	184	76.6	19.6	2.7	1.1	0.0
	대구/경북	117	68.4	28.2	3.4	0.0	0.0
	광주/전라	112	58.9	33.0	4.5	3.6	0.0
	대전/충청/세종	129	65.9	31.0	1.6	1.6	0.0
	강원/제주	48	54.2	43.8	0.0	2.1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70.9	24.8	2.6	1.7	0.0
	중소도시	601	65.6	28.6	3.5	2.3	0.0
	읍/면	62	69.4	25.8	1.6	3.2	0.0
직업별	농/어/임업	14	50.0	42.9	7.1	0.0	0.0
	자영업자	85	69.4	29.4	0.0	1.2	0.0
	판매/서비스직	85	64.7	25.9	5.9	3.5	0.0
	기능/숙련공	42	61.9	33.3	0.0	4.8	0.0
	일반 노무직	49	63.3	32.7	2.0	2.0	0.0
	사무/기술직	460	66.1	27.4	3.7	2.8	0.0
	경영/관리직	66	65.2	31.8	3.0	0.0	0.0
	전문/자유직	72	72.2	25.0	1.4	1.4	0.0
	전업주부	136	69.1	26.5	3.7	0.7	0.0
	학생	62	72.6	19.4	4.8	3.2	0.0
	무직	122	81.1	17.2	0.8	0.8	0.0
	기타	7	42.9	57.1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83.3	16.7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66.5	31.4	1.6	0.5	0.0
	전문대(중퇴/졸업)	162	63.6	30.2	3.7	2.5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69.6	24.5	3.5	2.5	0.0
	대학원 이상	124	67.7	29.0	1.6	1.6	0.0
생활수준별	상	133	63.9	24.1	6.8	5.3	0.0
	중	538	66.7	28.1	2.4	2.8	0.0
	하	529	70.7	26.1	2.6	0.6	0.0

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0.6%, 전문가 7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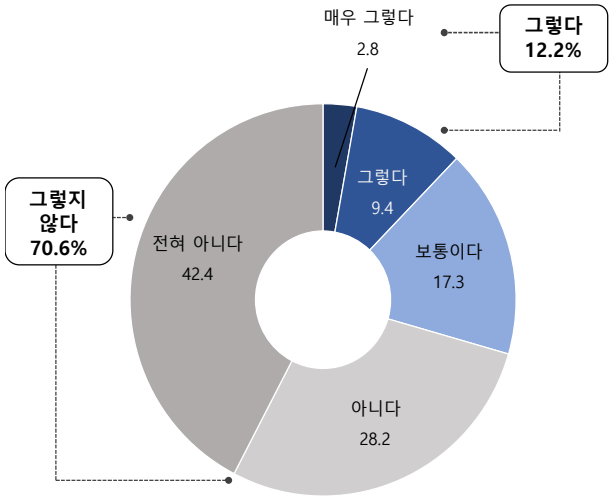
● **[일반국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6%로, '그렇다'(12.2%)보다 58.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그렇다'는 14.9%p(2020년 27.1%) 감소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16.3%p(2020년 5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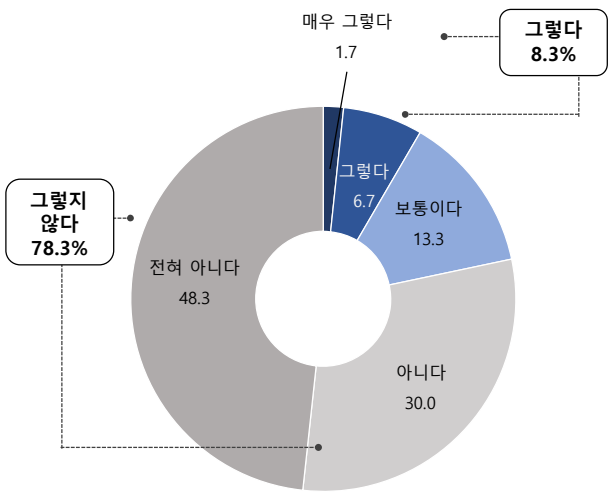
●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8.3%로, '그렇다'(8.3%)보다 70.0%p 높게 나타남.

〈그림 3-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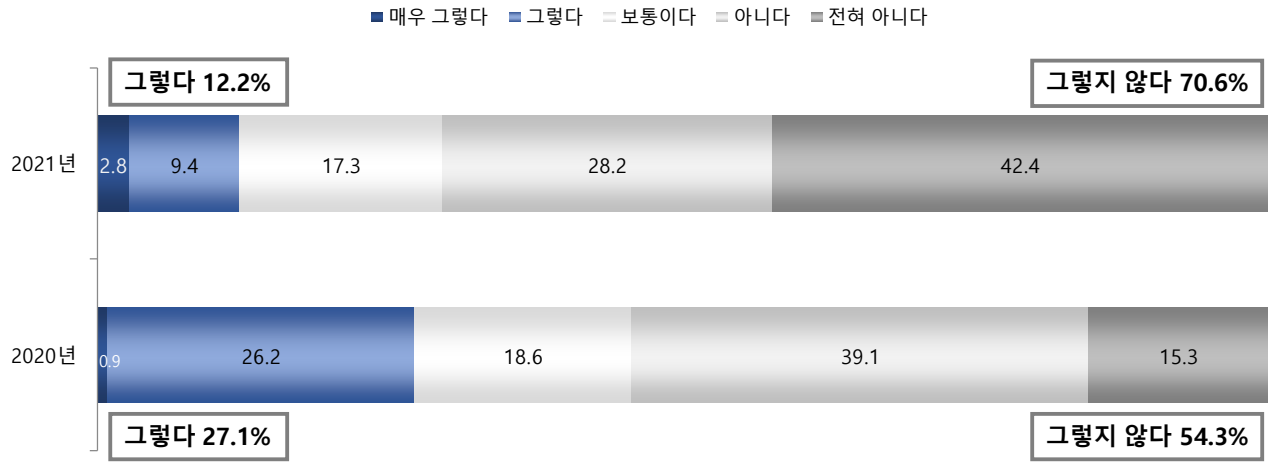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260	2.7	9.3	17.1	28.3	42.7	12.0	17.1	71.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8	9.4	17.3	28.2	42.4	12.2	17.3	70.6
	전문가	60	1.7	6.7	13.3	30.0	48.3	8.3	13.3	7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3	10.4	13.9	25.4	46.9	13.8	13.9	72.3
	중	479	1.7	8.4	21.7	31.5	36.7	10.0	21.7	68.3
	하	118	4.2	8.5	16.1	28.8	42.4	12.7	16.1	71.2
성별	남성	720	2.6	9.9	16.3	25.3	46.0	12.5	16.3	71.3
	여성	480	2.9	8.8	18.8	32.5	37.1	11.7	18.8	69.6
연령별	20대 이하	235	2.1	8.5	19.1	27.2	43.0	10.6	19.1	70.2
	30대	198	4.0	13.6	21.7	23.7	36.9	17.7	21.7	60.6
	40대	247	2.8	12.6	19.0	29.1	36.4	15.4	19.0	65.6
	50대	252	2.4	7.5	16.7	34.9	38.5	9.9	16.7	73.4
	60대 이상	268	2.6	6.0	11.2	25.0	55.2	8.6	11.2	80.2
지역별	서울	226	4.0	8.4	17.7	29.2	40.7	12.4	17.7	69.9
	경기/인천	384	2.1	10.9	17.7	27.6	41.7	13.0	17.7	69.3
	부산/울산/경남	184	3.3	8.7	16.3	23.9	47.8	12.0	16.3	71.7
	대구/경북	117	3.4	6.8	16.2	25.6	47.9	10.3	16.2	73.5
	광주/전라	112	2.7	9.8	20.5	29.5	37.5	12.5	20.5	67.0
	대전/충청/세종	129	1.6	11.6	14.0	34.9	38.0	13.2	14.0	72.9
	강원/제주	48	2.1	4.2	18.8	29.2	45.8	6.3	18.8	75.0
지역크기	대도시	537	3.0	8.9	18.4	26.8	42.8	11.9	18.4	69.6
	중소도시	601	2.8	9.7	15.8	29.6	42.1	12.5	15.8	71.7
	읍/면	62	0.0	11.3	21.0	25.8	41.9	11.3	21.0	67.7
직업별	농/어/임업	14	7.1	0.0	21.4	21.4	50.0	7.1	21.4	71.4
	자영업자	85	1.2	8.2	17.6	24.7	48.2	9.4	17.6	72.9
	판매/서비스직	85	1.2	15.3	18.8	28.2	36.5	16.5	18.8	64.7
	기능/숙련공	42	2.4	9.5	28.6	28.6	31.0	11.9	28.6	59.5
	일반 노무직	49	4.1	10.2	30.6	16.3	38.8	14.3	30.6	55.1
	사무/기술직	460	3.3	9.3	13.7	31.5	42.2	12.6	13.7	73.7
	경영/관리직	66	1.5	9.1	18.2	22.7	48.5	10.6	18.2	71.2
	전문/자유직	72	2.8	5.6	16.7	31.9	43.1	8.3	16.7	75.0
	전업주부	136	3.7	8.8	16.2	28.7	42.6	12.5	16.2	71.3
	학생	62	0.0	9.7	17.7	29.0	43.5	9.7	17.7	72.6
	무직	122	3.3	10.7	20.5	22.1	43.4	13.9	20.5	65.6
	기타	7	0.0	0.0	14.3	42.9	42.9	0.0	14.3	85.7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0.0	50.0	0.0	33.3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2	13.0	17.8	27.6	39.5	15.1	17.8	67.0
	전문대(중퇴/졸업)	162	2.5	13.0	17.9	25.3	41.4	15.4	17.9	66.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4	8.4	17.3	29.6	42.3	10.8	17.3	71.9
	대학원 이상	124	5.6	5.6	13.7	25.8	49.2	11.3	13.7	75.0
생활수준별	상	133	4.5	9.8	17.3	22.6	45.9	14.3	17.3	68.4
	중	538	2.6	8.9	18.4	32.0	38.1	11.5	18.4	70.1
	하	529	2.5	9.8	16.1	25.7	45.9	12.3	16.1	71.6

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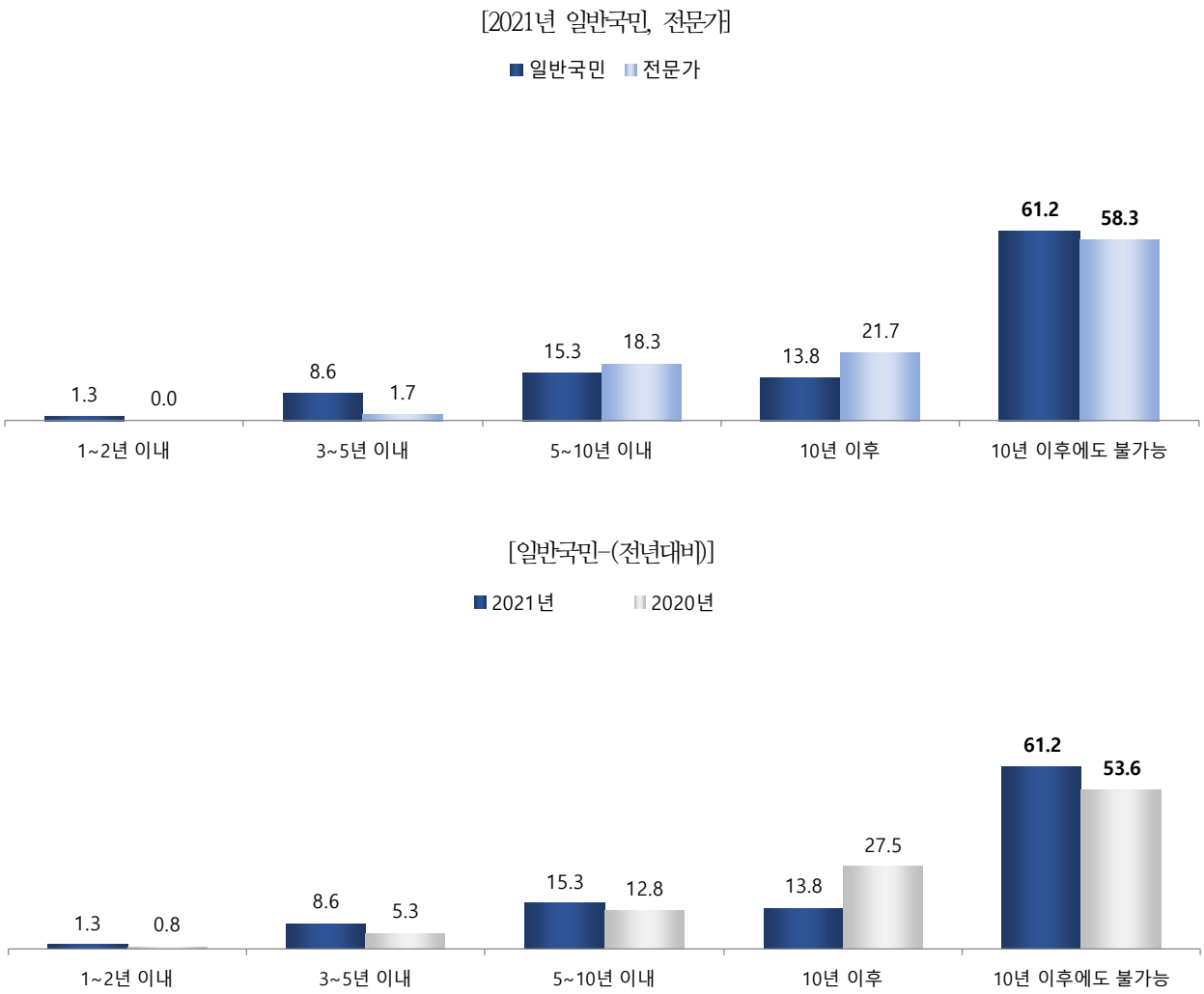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 일반국민(61.2%), 전문가(5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10년 이내'(15.3%), '10년 이후'(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은 7.6%p(2020년 53.6%) 증가하였고, '10년 이후'는 13.7%p(2020년 2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21.7%), '5~10년 이내'(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특성별 분석]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단위[%]		사례수(명)	1~2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전체		1,260	1.2	8.3	15.4	14.1	61.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8.6	15.3	13.8	61.2
	전문가	60	0.0	1.7	18.3	21.7	5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8	9.5	13.4	12.3	63.0
	중	479	0.4	7.9	17.5	15.2	58.9
	하	118	1.7	6.8	15.3	15.3	61.0
성별	남성	720	1.0	8.3	15.4	11.9	63.3
	여성	480	1.7	9.0	15.0	16.5	57.9
연령별	20대 이하	235	0.9	7.7	17.4	13.6	60.4
	30대	198	1.5	7.6	18.2	16.7	56.1
	40대	247	2.8	11.3	17.0	12.1	56.7
	50대	252	1.2	10.3	11.9	14.7	61.9
	60대 이상	268	0.0	6.0	12.7	12.3	69.0
지역별	서울	226	0.0	9.7	19.0	11.1	60.2
	경기/인천	384	1.0	8.6	16.9	13.3	60.2
	부산/울산/경남	184	2.2	9.2	13.6	12.5	62.5
	대구/경북	117	3.4	6.8	7.7	11.1	70.9
	광주/전라	112	2.7	8.9	15.2	20.5	52.7
	대전/충청/세종	129	0.0	9.3	12.4	17.8	60.5
	강원/제주	48	0.0	2.1	16.7	14.6	66.7
지역크기	대도시	537	0.9	9.5	16.8	13.6	59.2
	중소도시	601	1.5	7.8	14.0	14.0	62.7
	읍/면	62	1.6	8.1	14.5	12.9	62.9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0.0	21.4	0.0	78.6
	자영업자	85	0.0	8.2	16.5	9.4	65.9
	판매/서비스직	85	1.2	15.3	20.0	11.8	51.8
	기능/숙련공	42	4.8	11.9	21.4	9.5	52.4
	일반 노무직	49	0.0	4.1	28.6	4.1	63.3
	사무/기술직	460	0.7	9.1	13.0	16.3	60.9
	경영/관리직	66	1.5	10.6	13.6	12.1	62.1
	전문/자유직	72	1.4	5.6	15.3	12.5	65.3
	전업주부	136	1.5	5.1	14.7	14.0	64.7
	학생	62	1.6	8.1	16.1	16.1	58.1
	무직	122	3.3	9.0	12.3	16.4	59.0
	기타	7	0.0	0.0	14.3	0.0	85.7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33.3	0.0	5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2	10.8	11.4	15.7	60.0
	전문대(중퇴/졸업)	162	2.5	8.6	17.9	8.0	63.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0.7	7.7	15.9	14.8	60.9
	대학원 이상	124	1.6	9.7	12.9	12.9	62.9
생활수준별	상	133	0.8	9.8	18.8	12.8	57.9
	중	538	0.9	10.4	14.1	15.4	59.1
	하	529	1.7	6.4	15.5	12.3	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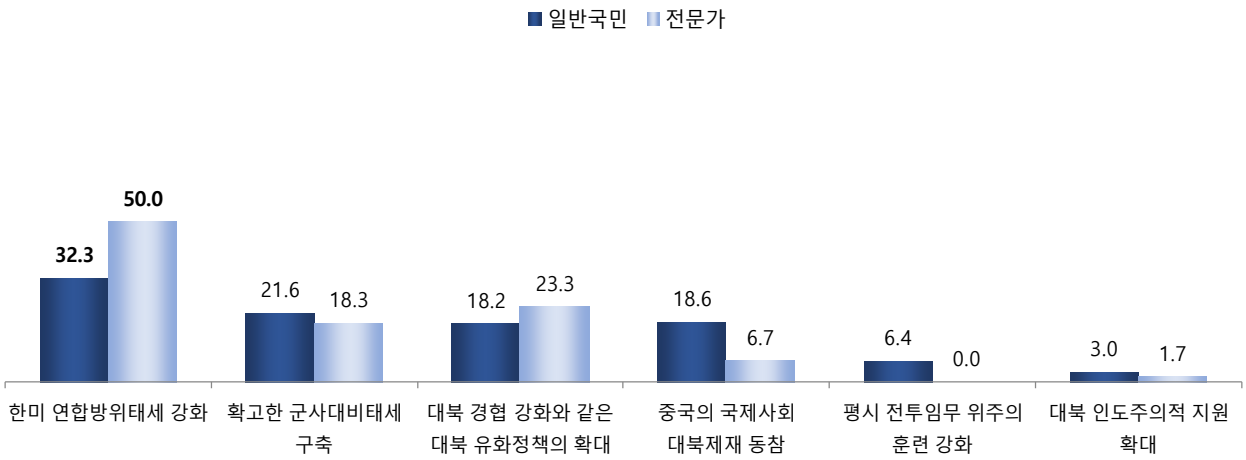
14.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일반국민(32.3%), 전문가(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라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북 경협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4〉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4〉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단위[%]		사례수 (명)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대북 경협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정책의 확대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평시 전투임무 위주의 훈련 강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전체		1,260	33.1	21.4	18.4	18.0	6.1	2.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3	21.6	18.2	18.6	6.4	3.0
	전문가	60	50.0	18.3	23.3	6.7	0.0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2.5	20.9	19.6	19.2	5.5	2.3
	중	479	31.1	22.3	17.3	17.5	7.7	4.0
	하	118	35.6	22.0	14.4	19.5	5.9	2.5
성별	남성	720	32.8	23.3	16.0	18.5	6.9	2.5
	여성	480	31.5	19.0	21.5	18.8	5.6	3.8
연령별	20대 이하	235	36.2	19.1	16.2	14.5	10.2	3.8
	30대	198	34.8	20.2	18.7	14.1	9.6	2.5
	40대	247	32.0	18.6	17.4	20.6	6.1	5.3
	50대	252	26.2	23.8	21.0	23.0	2.8	3.2
	60대 이상	268	32.8	25.4	17.5	19.4	4.5	0.4
지역별	서울	226	34.1	16.8	19.5	17.3	8.0	4.4
	경기/인천	384	31.8	19.8	21.4	17.4	6.8	2.9
	부산/울산/경남	184	40.2	25.0	9.2	17.9	5.4	2.2
	대구/경북	117	28.2	25.6	12.0	25.6	5.1	3.4
	광주/전라	112	26.8	24.1	23.2	20.5	2.7	2.7
	대전/충청/세종	129	31.0	20.9	19.4	16.3	9.3	3.1
	강원/제주	48	22.9	31.3	20.8	20.8	4.2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35.2	20.1	16.4	18.1	7.6	2.6
	중소도시	601	30.3	23.0	20.0	18.3	5.0	3.5
	읍/면	62	25.8	21.0	16.1	25.8	9.7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42.9	35.7	0.0	14.3	7.1	0.0
	자영업자	85	36.5	22.4	20.0	17.6	1.2	2.4
	판매/서비스직	85	42.4	14.1	14.1	22.4	7.1	0.0
	기능/숙련공	42	47.6	16.7	14.3	16.7	0.0	4.8
	일반 노무직	49	42.9	24.5	6.1	18.4	2.0	6.1
	사무/기술직	460	26.7	21.3	18.7	20.7	8.9	3.7
	경영/관리직	66	34.8	28.8	16.7	13.6	4.5	1.5
	전문/자유직	72	29.2	26.4	23.6	15.3	1.4	4.2
	전업주부	136	28.7	19.9	20.6	23.5	4.4	2.9
	학생	62	40.3	17.7	12.9	17.7	9.7	1.6
	무직	122	32.0	23.0	23.8	9.8	9.0	2.5
	기타	7	42.9	28.6	14.3	14.3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66.7	0.0	0.0	16.7	1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2.4	23.2	19.5	17.8	4.9	2.2
	전문대(중퇴/졸업)	162	34.6	21.6	16.7	16.7	6.8	3.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2.0	21.2	17.4	19.6	6.6	3.2
	대학원 이상	124	29.0	22.6	23.4	16.1	6.5	2.4
생활수준별	상	133	36.8	16.5	17.3	19.5	9.8	0.0
	중	538	33.6	19.5	19.1	17.1	6.7	3.9
	하	529	29.7	25.0	17.4	19.8	5.3	2.8

15.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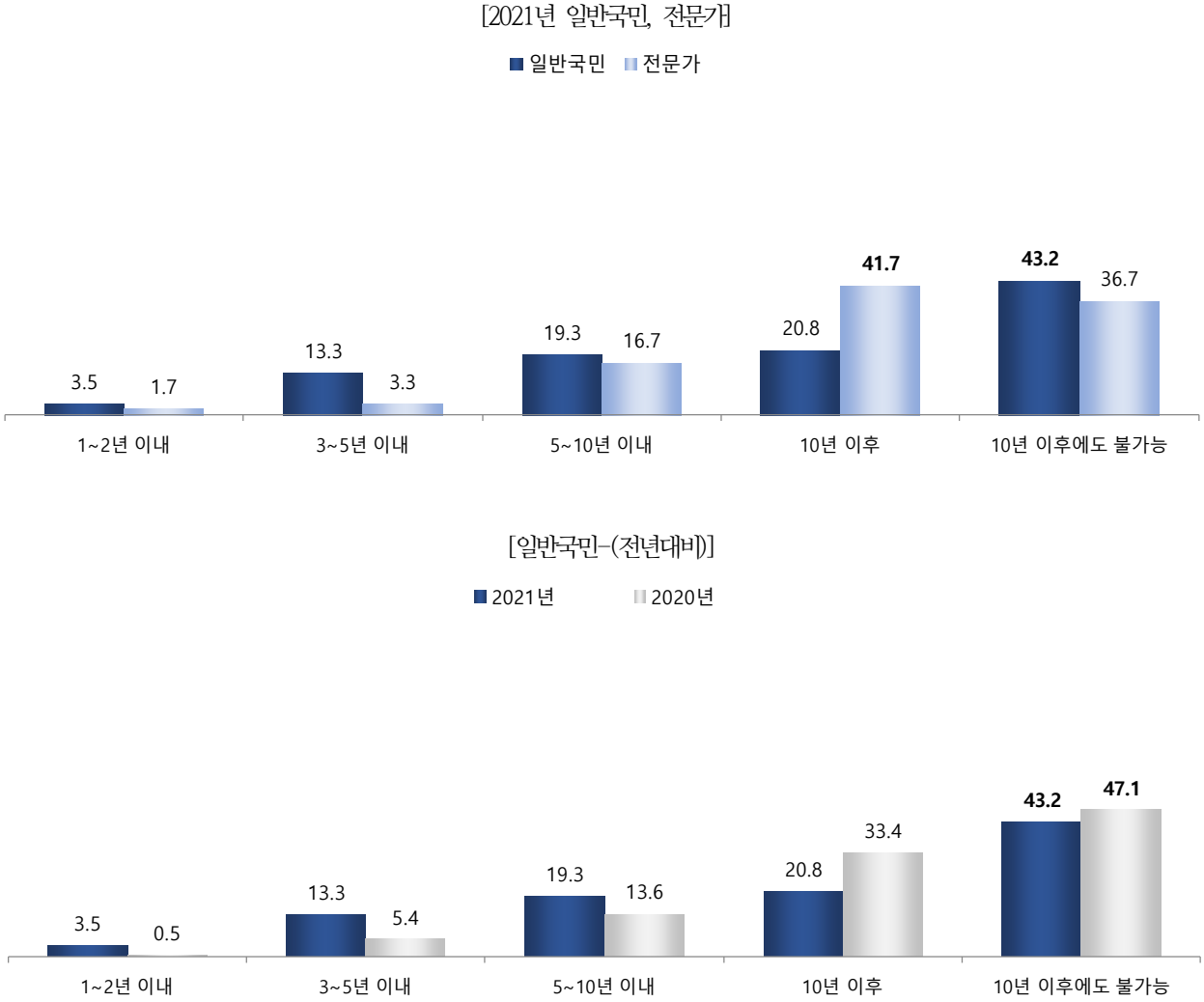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에 대해 일반국민은 '10년 이후에도 불가능'(43.2%), 전문가는 '10년 이후'(4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20.8%), '5~10년 이내'(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은 3.9%p(2020년 47.1%), '10년 이후'는 12.6%p(2020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에도 불가능'(36.7%), '5~10년 이내'(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특성별 분석]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시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5〉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 시기

단위[%]		사례수(명)	1~2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전체		1,260	3.4	12.8	19.2	21.7	42.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5	13.3	19.3	20.8	43.2
	전문가	60	1.7	3.3	16.7	41.7	3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2	13.3	20.6	20.7	42.3
	중	479	3.8	13.4	18.6	21.9	42.4
	하	118	4.2	12.7	16.1	16.1	50.8
성별	남성	720	3.2	13.8	19.9	21.4	41.8
	여성	480	4.0	12.5	18.5	19.8	45.2
연령별	20대 이하	235	6.4	14.0	17.0	18.7	43.8
	30대	198	5.1	17.7	15.7	20.2	41.4
	40대	247	3.6	16.6	23.9	17.4	38.5
	50대	252	2.8	10.3	17.5	25.8	43.7
	60대 이상	268	0.4	9.0	21.6	21.3	47.8
지역별	서울	226	5.3	12.4	21.2	17.3	43.8
	경기/인천	384	2.9	16.7	18.5	20.6	41.4
	부산/울산/경남	184	4.9	10.9	17.4	20.7	46.2
	대구/경북	117	3.4	14.5	12.8	17.9	51.3
	광주/전라	112	3.6	8.9	26.8	25.9	34.8
	대전/충청/세종	129	1.6	13.2	18.6	20.9	45.7
	강원/제주	48	0.0	6.3	25.0	33.3	35.4
지역크기	대도시	537	4.5	13.4	19.6	18.8	43.8
	중소도시	601	2.8	12.6	19.5	22.5	42.6
	읍/면	62	1.6	17.7	16.1	21.0	43.5
직업별	농/어/임업	14	7.1	0.0	21.4	14.3	57.1
	자영업자	85	3.5	8.2	23.5	21.2	43.5
	판매/서비스직	85	3.5	20.0	21.2	21.2	34.1
	기능/숙련공	42	4.8	21.4	19.0	21.4	33.3
	일반 노무직	49	2.0	16.3	18.4	14.3	49.0
	사무/기술직	460	2.2	13.3	18.7	23.0	42.8
	경영/관리직	66	6.1	15.2	19.7	12.1	47.0
	전문/자유직	72	1.4	8.3	25.0	23.6	41.7
	전업주부	136	2.2	8.8	18.4	18.4	52.2
	학생	62	9.7	16.1	11.3	21.0	41.9
	무직	122	6.6	15.6	18.0	21.3	38.5
	기타	7	0.0	0.0	42.9	0.0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16.7	16.7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9	17.8	13.5	21.6	42.2
	전문대(중퇴/졸업)	162	6.2	13.6	19.1	15.4	45.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9	12.0	20.5	21.3	43.3
	대학원 이상	124	1.6	12.1	21.8	23.4	41.1
생활수준별	상	133	6.0	16.5	22.6	11.3	43.6
	중	538	3.0	13.9	21.7	22.5	38.8
	하	529	3.4	11.7	16.1	21.4	47.4

16. 한반도 통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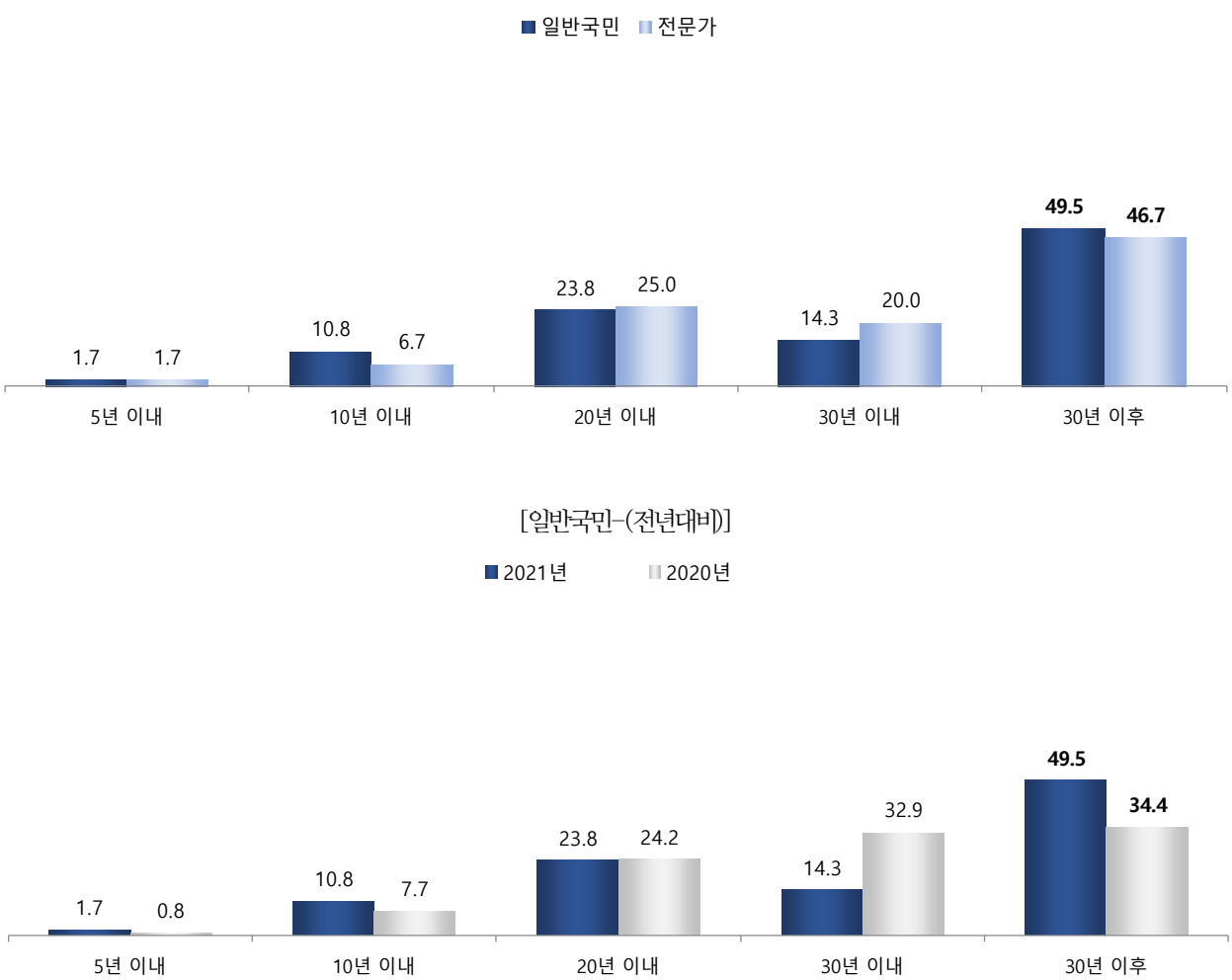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일반국민은 '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49.5%), 전문가(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년 이내'(23.8%), '30년 이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30년 이후'는 15.1%p(2020년 34.4%) 증가하였고, '20년 이내'는 0.4%p(2020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년 이내'(25.0%), '30년 이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한반도 통일 전망



[특성별 분석]

◉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년 이후'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 '하',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6〉 한반도 통일 전망

단위[%]		사례수(명)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후
전체		1,260	1.7	10.6	23.8	14.6	4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	10.8	23.8	14.3	49.5
	전문가	60	1.7	6.7	25.0	20.0	4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8	11.6	27.9	13.4	45.3
	중	479	1.5	9.8	20.5	15.7	52.6
	하	118	1.7	10.2	16.1	13.6	58.5
성별	남성	720	1.5	10.3	24.7	15.0	48.5
	여성	480	1.9	11.5	22.3	13.3	51.0
연령별	20대 이하	235	0.9	8.1	15.3	17.0	58.7
	30대	198	1.0	9.1	21.2	15.2	53.5
	40대	247	3.6	12.6	26.7	14.2	42.9
	50대	252	2.0	11.9	26.6	17.5	42.1
	60대 이상	268	0.7	11.6	27.6	8.6	51.5
지역별	서울	226	1.8	10.6	22.6	15.9	49.1
	경기/인천	384	1.0	12.2	21.1	15.6	50.0
	부산/울산/경남	184	1.6	8.7	26.1	10.9	52.7
	대구/경북	117	3.4	11.1	21.4	9.4	54.7
	광주/전라	112	2.7	9.8	25.9	17.9	43.8
	대전/충청/세종	129	1.6	8.5	30.2	15.5	44.2
	강원/제주	48	0.0	14.6	25.0	10.4	5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1.3	10.2	24.4	13.4	50.7
	중소도시	601	1.8	11.0	22.3	15.5	49.4
	읍/면	62	3.2	12.9	32.3	11.3	40.3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0.0	35.7	0.0	64.3
	자영업자	85	1.2	8.2	38.8	12.9	38.8
	판매/서비스직	85	1.2	16.5	24.7	11.8	45.9
	기능/숙련공	42	4.8	11.9	28.6	28.6	26.2
	일반 노무직	49	0.0	4.1	18.4	24.5	53.1
	사무/기술직	460	1.1	10.9	20.9	16.3	50.9
	경영/관리직	66	3.0	16.7	24.2	12.1	43.9
	전문/자유직	72	0.0	9.7	27.8	12.5	50.0
	전업주부	136	2.2	9.6	22.8	11.0	54.4
	학생	62	0.0	6.5	19.4	16.1	58.1
	무직	122	4.9	13.1	24.6	8.2	49.2
	기타	7	0.0	0.0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16.7	16.7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7	14.6	21.6	15.7	45.4
	전문대(중퇴/졸업)	162	4.9	9.9	21.0	11.7	52.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0.8	9.4	25.0	14.5	50.2
	대학원 이상	124	0.8	12.9	23.4	14.5	48.4
생활수준별	상	133	1.5	8.3	29.3	15.8	45.1
	중	538	1.1	10.2	25.3	16.4	47.0
	하	529	2.3	11.9	20.8	11.9	53.1

17. 한반도 통일 방식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36.1%), 전문가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장기간 현상유지'(33.3%)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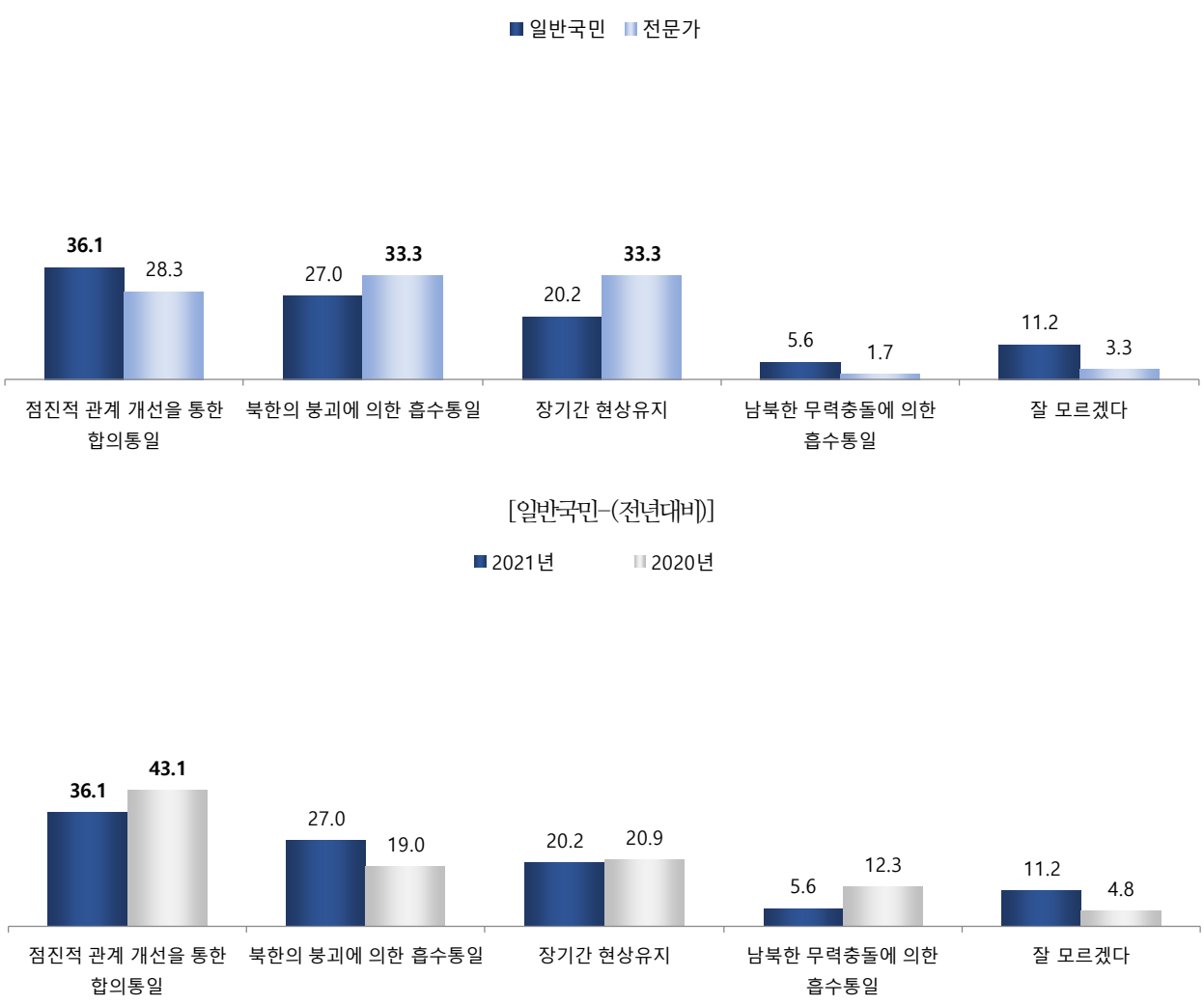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은 7.0%p(2020년 43.1%) 감소하였고,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은 8.0%p(2020년 1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장기간 현상유지'가 3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2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한반도 통일 방식



[특성별 분석]

◉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 학력별 '중졸이하'n=6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7〉 한반도 통일 방식

단위[%]		사례수 (명)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장기간 현상유지	잘 모르겠다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전체		1,260	35.7	27.3	20.8	10.8	5.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6.1	27.0	20.2	11.2	5.6
	전문가	60	28.3	33.3	33.3	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7.5	30.7	18.6	8.1	5.1
	중	479	34.7	23.6	21.3	14.2	6.3
	하	118	34.7	22.0	23.7	14.4	5.1
성별	남성	720	36.9	29.7	19.3	8.5	5.6
	여성	480	34.8	22.9	21.5	15.2	5.6
연령별	20대 이하	235	22.1	27.7	22.1	18.3	9.8
	30대	198	29.8	24.7	23.2	13.1	9.1
	40대	247	42.9	25.5	17.0	8.9	5.7
	50대	252	48.0	23.8	17.1	9.1	2.0
	60대 이상	268	35.4	32.5	22.0	7.5	2.6
지역별	서울	226	37.6	24.8	21.2	10.6	5.8
	경기/인천	384	35.4	27.3	20.1	10.9	6.3
	부산/울산/경남	184	31.0	27.7	23.4	14.1	3.8
	대구/경북	117	31.6	32.5	13.7	17.1	5.1
	광주/전라	112	40.2	22.3	22.3	7.1	8.0
	대전/충청/세종	129	40.3	27.9	16.3	9.3	6.2
	강원/제주	48	43.8	27.1	25.0	4.2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35.0	24.8	23.3	11.0	6.0
	중소도시	601	37.1	28.6	17.5	11.8	5.0
	읍/면	62	35.5	30.6	19.4	6.5	8.1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42.9	28.6	0.0	0.0
	자영업자	85	43.5	25.9	18.8	7.1	4.7
	판매/서비스직	85	40.0	24.7	16.5	11.8	7.1
	기능/숙련공	42	35.7	38.1	4.8	11.9	9.5
	일반 노무직	49	28.6	26.5	16.3	16.3	12.2
	사무/기술직	460	35.9	26.5	22.2	9.1	6.3
	경영/관리직	66	37.9	34.8	22.7	4.5	0.0
	전문/자유직	72	40.3	25.0	18.1	13.9	2.8
	전업주부	136	39.7	23.5	19.9	12.5	4.4
	학생	62	21.0	22.6	21.0	24.2	11.3
	무직	122	33.6	29.5	21.3	13.1	2.5
	기타	7	28.6	14.3	28.6	28.6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50.0	16.7	0.0	16.7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5.7	28.1	16.8	13.0	6.5
	전문대(중퇴/졸업)	162	32.7	30.9	17.9	10.5	8.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5.7	25.9	22.0	11.5	5.0
	대학원 이상	124	42.7	27.4	18.5	7.3	4.0
생활수준별	상	133	36.8	23.3	22.6	9.8	7.5
	중	538	40.0	24.7	19.9	10.2	5.2
	하	529	31.9	30.2	19.8	12.5	5.5

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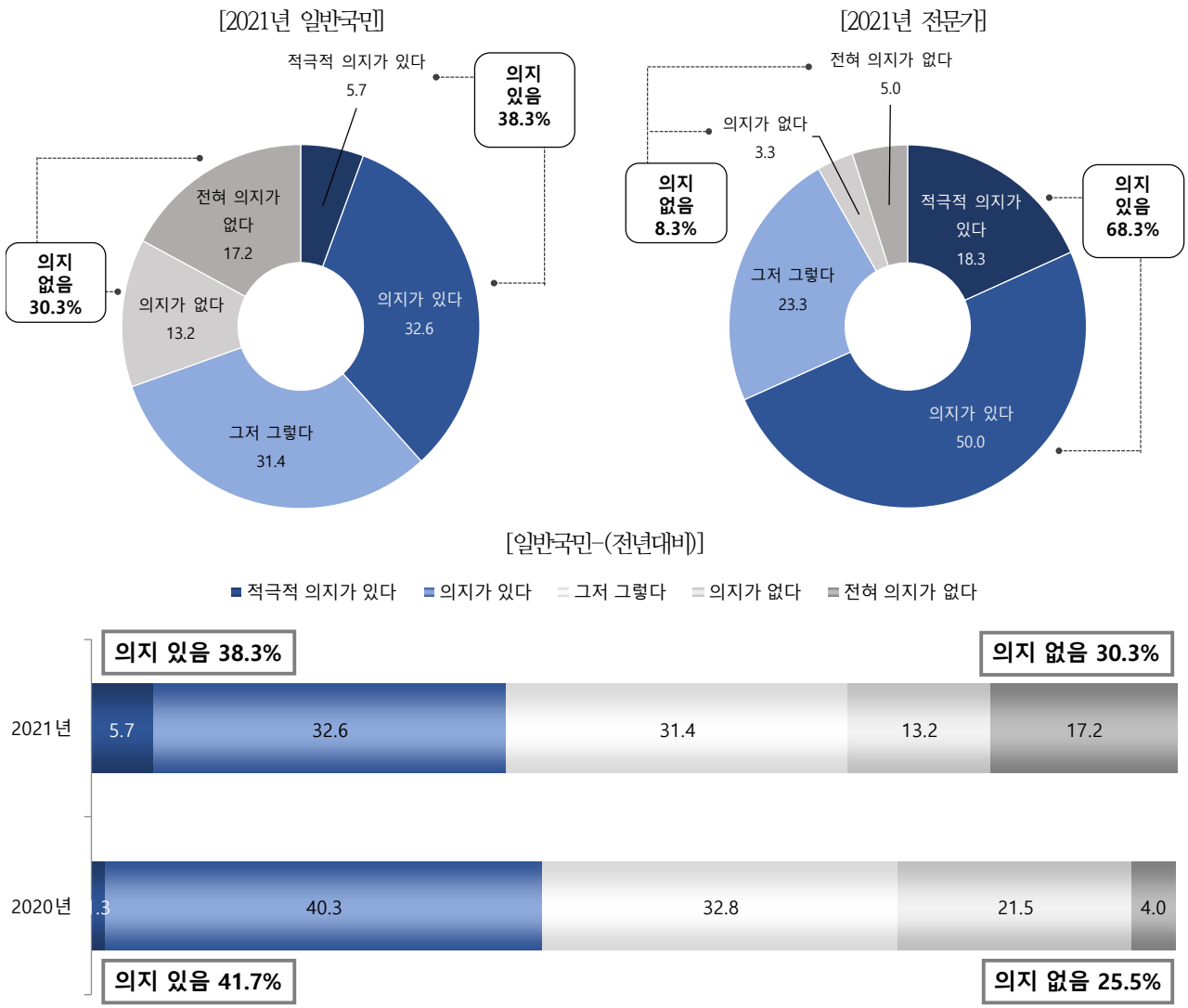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8.3%, 전문가 6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38.3%로, '의지가 없다'(30.3%)는 응답보다 8.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의지가 있다'는 응답은 3.4%p(2020년 41.7%) 감소하였고, '의지가 없다'는 응답은 4.8%p(2020년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통일비용 지불 의향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68.3%로, '의지가 없다'(8.3%)는 응답보다 60.0%p 높게 나타남.

〈그림 3-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특성별 분석]

◉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크기별로는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단위[%]		사례수 (명)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그저 그렇다	의지가 없다	전혀 의지가 없다	종합		
								의지 있음	보통	의지 없음
전체		1,260	6.3	33.4	31.0	12.7	16.6	39.7	31.0	29.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7	32.6	31.4	13.2	17.2	38.3	31.4	30.3
	전문가	60	18.3	50.0	23.3	3.3	5.0	68.3	23.3	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9.1	40.0	24.2	11.3	15.4	49.1	24.2	26.7
	중	479	2.3	26.5	38.8	14.6	17.7	28.8	38.8	32.4
	하	118	1.7	19.5	38.1	16.9	23.7	21.2	38.1	40.7
성별	남성	720	8.1	35.3	28.8	11.3	16.7	43.3	28.8	27.9
	여성	480	2.1	28.5	35.4	16.0	17.9	30.6	35.4	34.0
연령별	20대 이하	235	3.0	24.7	31.1	16.2	25.1	27.7	31.1	41.3
	30대	198	2.5	28.3	34.3	10.1	24.7	30.8	34.3	34.8
	40대	247	6.9	34.0	35.6	10.1	13.4	40.9	35.6	23.5
	50대	252	7.5	38.9	29.0	12.3	12.3	46.4	29.0	24.6
	60대 이상	268	7.5	35.4	28.0	16.4	12.7	42.9	28.0	29.1
지역별	서울	226	5.8	29.6	34.5	12.4	17.7	35.4	34.5	30.1
	경기/인천	384	3.9	33.6	31.5	13.3	17.7	37.5	31.5	31.0
	부산/울산/경남	184	6.0	32.1	29.9	14.1	17.9	38.0	29.9	32.1
	대구/경북	117	6.0	29.9	32.5	12.8	18.8	35.9	32.5	31.6
	광주/전라	112	7.1	35.7	33.9	12.5	10.7	42.9	33.9	23.2
	대전/충청/세종	129	8.5	33.3	29.5	11.6	17.1	41.9	29.5	28.7
	강원/제주	48	6.3	37.5	18.8	18.8	18.8	43.8	18.8	37.5
지역크기	대도시	537	5.2	30.2	34.6	12.7	17.3	35.4	34.6	30.0
	중소도시	601	6.0	33.8	29.3	13.3	17.6	39.8	29.3	30.9
	읍/면	62	6.5	41.9	24.2	16.1	11.3	48.4	24.2	27.4
직업별	농/어/임업	14	7.1	42.9	14.3	14.3	21.4	50.0	14.3	35.7
	자영업자	85	7.1	35.3	32.9	8.2	16.5	42.4	32.9	24.7
	판매/서비스직	85	1.2	27.1	43.5	15.3	12.9	28.2	43.5	28.2
	기능/숙련공	42	9.5	31.0	42.9	4.8	11.9	40.5	42.9	16.7
	일반 노무직	49	2.0	30.6	28.6	12.2	26.5	32.7	28.6	38.8
	사무/기술직	460	6.1	34.8	26.5	13.0	19.6	40.9	26.5	32.6
	경영/관리직	66	12.1	42.4	28.8	7.6	9.1	54.5	28.8	16.7
	전문/자유직	72	8.3	34.7	27.8	13.9	15.3	43.1	27.8	29.2
	전업주부	136	0.0	31.6	33.1	17.6	17.6	31.6	33.1	35.3
	학생	62	4.8	22.6	32.3	17.7	22.6	27.4	32.3	40.3
	무직	122	8.2	26.2	41.0	13.1	11.5	34.4	41.0	24.6
	기타	7	0.0	28.6	28.6	28.6	14.3	28.6	28.6	42.9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50.0	16.7	16.7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8	30.3	35.1	12.4	18.4	34.1	35.1	30.8
	전문대(중퇴/졸업)	162	3.7	29.6	35.2	13.6	17.9	33.3	35.2	31.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5.9	33.1	30.2	12.9	18.0	39.0	30.2	30.8
	대학원 이상	124	9.7	37.9	27.4	15.3	9.7	47.6	27.4	25.0
생활수준별	상	133	8.3	29.3	34.6	11.3	16.5	37.6	34.6	27.8
	중	538	5.9	37.0	28.8	14.1	14.1	42.9	28.8	28.3
	하	529	4.7	28.9	33.3	12.7	20.4	33.6	33.3	33.1

19.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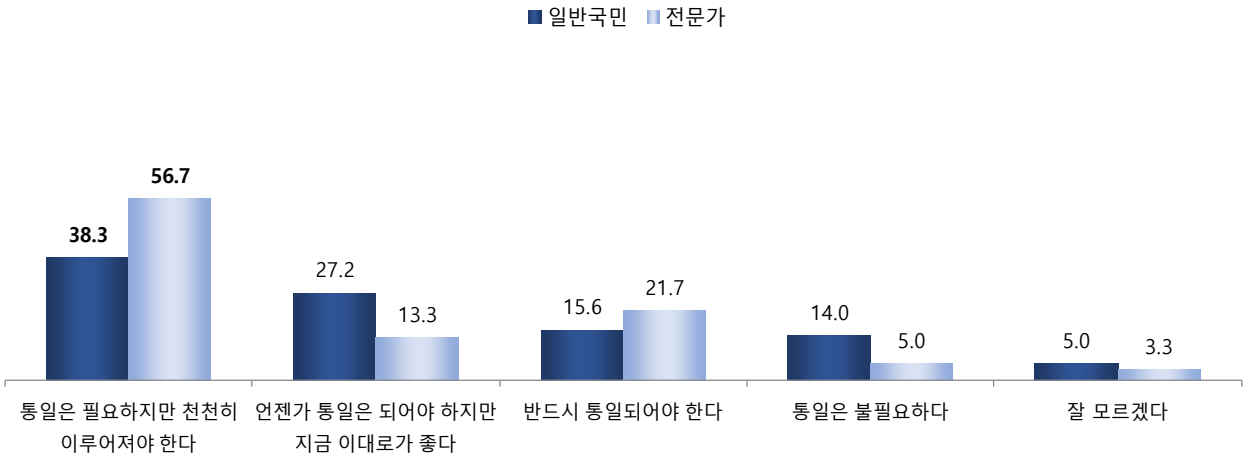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38.3%), 전문가(5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가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27.2%),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가 5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반드시 통일은되어야 한다'(21.7%),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9〉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경기/인천', 직업별로 '기능/숙련공'(n=42) 등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9〉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단위[%]		사례수 (명)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은 불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39.1	26.5	15.9	13.6	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8.3	27.2	15.6	14.0	5.0
	전문가	60	56.7	13.3	21.7	5.0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42.5	23.5	21.1	10.8	2.2
	중	479	37.6	29.0	9.8	15.7	7.9
	하	118	19.5	38.1	11.0	23.7	7.6
성별	남성	720	40.3	24.4	18.9	12.9	3.5
	여성	480	35.2	31.3	10.6	15.6	7.3
연령별	20대 이하	235	28.1	33.2	7.7	21.7	9.4
	30대	198	30.3	29.8	10.6	23.2	6.1
	40대	247	41.7	29.6	17.4	8.5	2.8
	50대	252	44.4	20.6	21.8	8.7	4.4
	60대 이상	268	44.0	23.9	18.7	10.4	3.0
지역별	서울	226	38.9	26.1	14.2	15.5	5.3
	경기/인천	384	40.1	28.9	13.8	12.5	4.7
	부산/울산/경남	184	34.2	25.0	17.4	16.3	7.1
	대구/경북	117	38.5	28.2	15.4	14.5	3.4
	광주/전라	112	39.3	25.9	15.2	11.6	8.0
	대전/충청/세종	129	35.7	28.7	19.4	14.0	2.3
	강원/제주	48	39.6	22.9	20.8	14.6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39.1	26.3	13.4	16.8	4.5
	중소도시	601	36.9	28.0	17.1	12.5	5.5
	읍/면	62	43.5	27.4	19.4	4.8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42.9	28.6	14.3	14.3	0.0
	자영업자	85	41.2	28.2	18.8	8.2	3.5
	판매/서비스직	85	40.0	29.4	12.9	11.8	5.9
	기능/숙련공	42	45.2	19.0	21.4	11.9	2.4
	일반 노무직	49	26.5	32.7	16.3	18.4	6.1
	사무/기술직	460	36.5	25.9	16.1	17.4	4.1
	경영/관리직	66	42.4	21.2	27.3	7.6	1.5
	전문/자유직	72	44.4	25.0	13.9	9.7	6.9
	전업주부	136	42.6	27.9	10.3	14.0	5.1
	학생	62	27.4	45.2	3.2	12.9	11.3
	무직	122	37.7	23.8	18.0	13.1	7.4
	기타	7	42.9	42.9	14.3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50.0	33.3	0.0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3.5	28.6	16.8	15.1	5.9
	전문대(중퇴/졸업)	162	42.0	25.9	9.9	16.7	5.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7.3	27.8	16.0	13.8	5.0
	대학원 이상	124	47.6	21.8	17.7	10.5	2.4
생활수준별	상	133	33.8	34.6	13.5	14.3	3.8
	중	538	43.7	26.2	13.4	13.0	3.7
	하	529	33.8	26.3	18.3	14.9	6.6

Ⅳ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

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국민개병제에 대해 일반국민은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35.1%), 전문가는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48.3%)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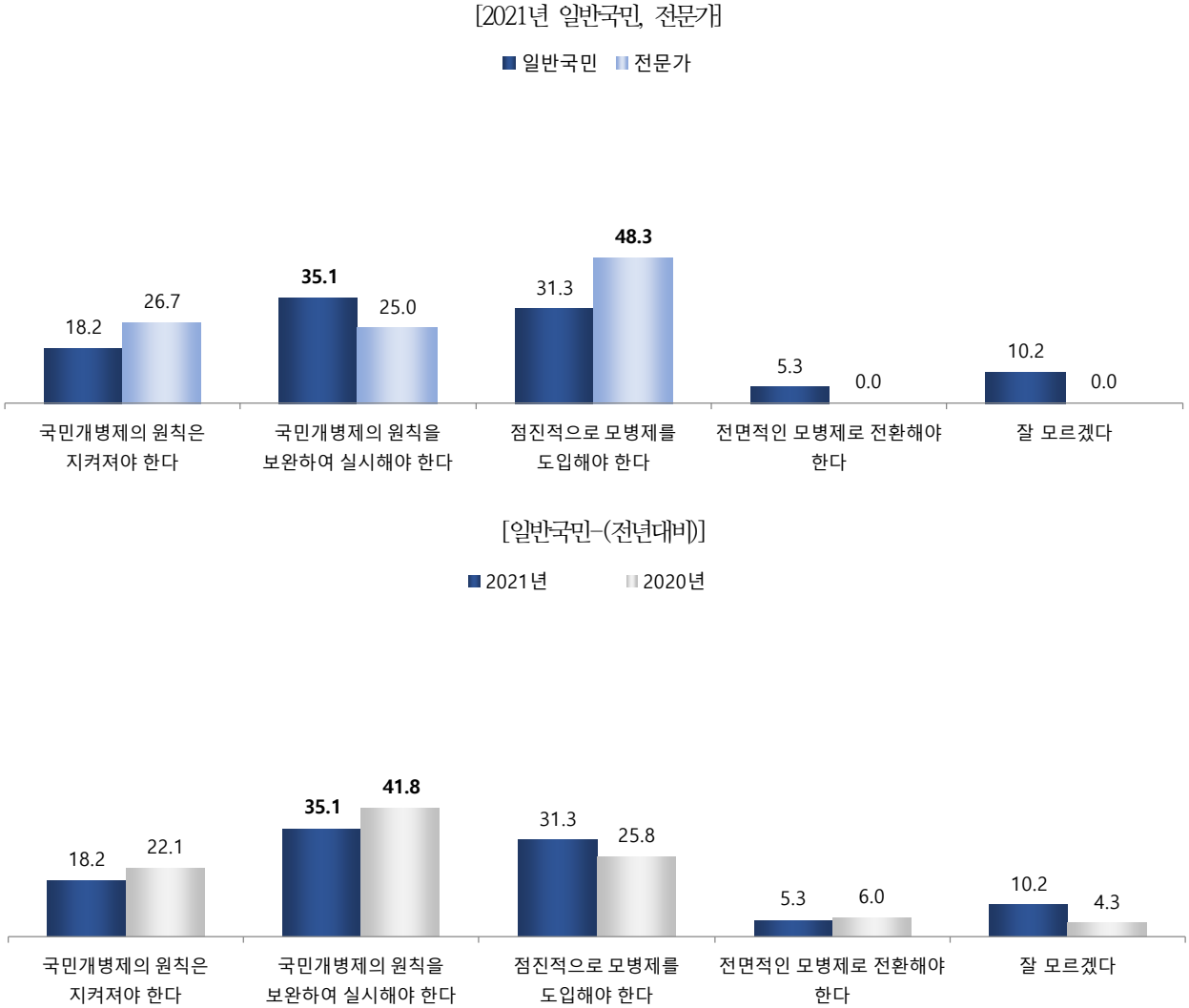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으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3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국민개병제를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6.7%p(2020년 41.8%) 감소하였고,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5.5%p(2020년 25.8%) 증가하였음.

● **[전문가]**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2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민개병제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특성별 분석]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명)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18.6	34.6	32.1	5.0	9.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2	35.1	31.3	5.3	10.2
	전문가	60	26.7	25.0	48.3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2.9	38.1	29.5	5.1	4.3
	중	479	13.8	31.3	34.2	5.0	15.7
	하	118	11.9	34.7	28.8	6.8	17.8
성별	남성	720	19.7	35.3	32.9	6.7	5.4
	여성	480	15.8	34.8	29.0	3.1	17.3
연령별	20대 이하	235	17.4	28.5	31.9	8.1	14.0
	30대	198	13.6	33.3	28.8	6.6	17.7
	40대	247	13.8	38.5	34.0	3.6	10.1
	50대	252	18.3	36.5	32.5	4.8	7.9
	60대 이상	268	26.1	37.7	29.1	3.7	3.4
지역별	서울	226	20.4	30.5	32.3	7.5	9.3
	경기/인천	384	18.8	34.4	32.8	4.7	9.4
	부산/울산/경남	184	19.0	36.4	27.7	6.0	10.9
	대구/경북	117	19.7	36.8	24.8	4.3	14.5
	광주/전라	112	13.4	42.0	31.3	3.6	9.8
	대전/충청/세종	129	14.7	36.4	32.6	6.2	10.1
	강원/제주	48	16.7	33.3	41.7	0.0	8.3
지역크기	대도시	537	18.8	34.8	30.7	6.7	8.9
	중소도시	601	17.3	35.3	32.1	4.0	11.3
	읍/면	62	21.0	35.5	29.0	4.8	9.7
직업별	농/어/임업	14	35.7	28.6	35.7	0.0	0.0
	자영업자	85	23.5	36.5	30.6	7.1	2.4
	판매/서비스직	85	14.1	37.6	30.6	3.5	14.1
	기능/숙련공	42	21.4	35.7	31.0	2.4	9.5
	일반 노무직	49	18.4	28.6	26.5	8.2	18.4
	사무/기술직	460	17.4	37.2	30.7	5.0	9.8
	경영/관리직	66	16.7	40.9	33.3	6.1	3.0
	전문/자유직	72	19.4	30.6	36.1	2.8	11.1
	전업주부	136	17.6	36.0	30.1	4.4	11.8
	학생	62	8.1	24.2	40.3	11.3	16.1
	무직	122	19.7	32.8	30.3	5.7	11.5
	기타	7	71.4	14.3	14.3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33.3	33.3	0.0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0.0	34.6	29.7	2.2	13.5
	전문대(중퇴/졸업)	162	17.9	34.0	32.1	3.7	12.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7.4	35.7	31.1	6.6	9.1
	대학원 이상	124	20.2	33.9	33.9	4.0	8.1
생활수준별	상	133	22.6	33.1	31.6	6.8	6.0
	중	538	17.3	37.7	30.3	4.8	9.9
	하	529	18.0	32.9	32.3	5.3	11.5

2. 현재 병무 부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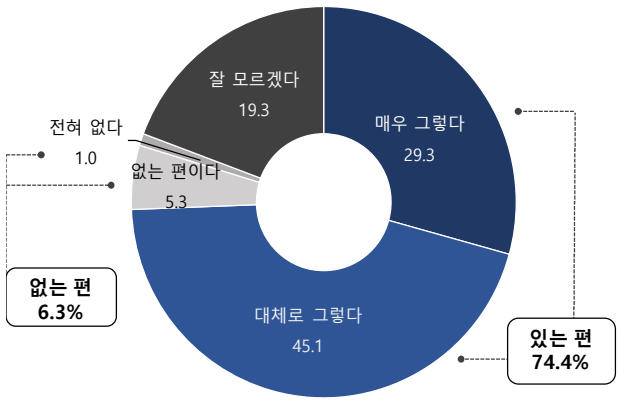
현재 병무 부조리가 유무에 대해 '있는 편이다'는 의견이 일반국민(74.4%), 전문가(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현재 병무 부조리가 유무에 대해 '있는 편이다'는 의견이 74.4%로 '없는 편이다'(6.3%)보다 68.1%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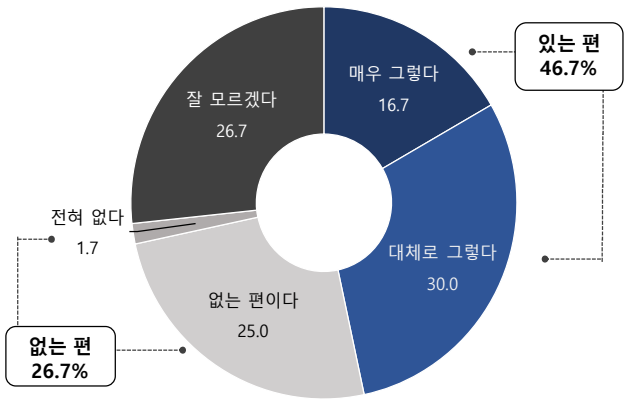
● **[전문가]** 현재 병무 부조리가 유무에 대해 '있는 편이다'는 의견이 46.7%로 '없는 편이다'(26.7%)보다 20.0%p 높게 나타남.

〈그림 4-2〉 현재 병무 부조리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현재 병무 부조리 유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있는 편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서울'에서 높게 나타남.

〈표 4-2〉 현재 병무 부조리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종합		
								있는 편	없는 편	잘 모름
전체		1,260	28.7	44.4	19.7	6.2	1.0	73.1	7.2	19.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9.3	45.1	19.3	5.3	1.0	74.4	6.3	19.3
	전문가	60	16.7	30.0	26.7	25.0	1.7	46.7	26.7	2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1260	28.7	44.4	19.7	6.2	1.0	73.1	7.2	19.7
	중	1200	29.3	45.1	19.3	5.3	1.0	74.4	6.3	19.3
	하	60	16.7	30.0	26.7	25.0	1.7	46.7	26.7	26.7
성별	남성	603	30.3	46.8	15.3	7.3	0.3	77.1	7.6	15.3
	여성	479	27.1	45.3	23.4	2.9	1.3	72.4	4.2	23.4
연령별	20대 이하	118	33.1	35.6	23.7	4.2	3.4	68.6	7.6	23.7
	30대	720	30.4	46.7	15.6	6.4	1.0	77.1	7.4	15.6
	40대	480	27.7	42.7	25.0	3.5	1.0	70.4	4.6	25.0
	50대	235	33.6	36.6	21.3	6.0	2.6	70.2	8.5	21.3
	60대 이상	198	34.3	39.9	21.2	3.5	1.0	74.2	4.5	21.2
지역별	서울	247	30.8	48.6	16.6	3.2	0.8	79.4	4.0	16.6
	경기/인천	252	27.4	50.0	16.7	5.6	0.4	77.4	6.0	16.7
	부산/울산/경남	268	22.4	48.5	21.3	7.5	0.4	70.9	7.8	21.3
	대구/경북	226	34.1	42.5	16.8	6.2	0.4	76.5	6.6	16.8
	광주/전라	384	27.3	50.0	17.2	3.9	1.6	77.3	5.5	17.2
	대전/충청/세종	184	30.4	41.8	19.0	8.2	0.5	72.3	8.7	19.0
	강원/제주	117	30.8	37.6	27.4	2.6	1.7	68.4	4.3	27.4
지역크기	대도시	112	24.1	47.3	21.4	7.1	0.0	71.4	7.1	21.4
	중소도시	129	27.9	43.4	22.5	4.7	1.6	71.3	6.2	22.5
	읍/면	48	31.3	47.9	16.7	4.2	0.0	79.2	4.2	16.7
직업별	농/어/임업	537	31.8	43.8	18.2	5.4	0.7	75.6	6.1	18.2
	자영업자	601	28.0	46.3	19.0	5.7	1.2	74.2	6.8	19.0
	판매/서비스직	62	21.0	45.2	32.3	0.0	1.6	66.1	1.6	32.3
	기능/숙련공	14	14.3	57.1	21.4	7.1	0.0	71.4	7.1	21.4
	일반 노무직	85	27.1	54.1	12.9	5.9	0.0	81.2	5.9	12.9
	사무/기술직	85	31.8	43.5	21.2	1.2	2.4	75.3	3.5	21.2
	경영/관리직	42	21.4	57.1	14.3	4.8	2.4	78.6	7.1	14.3
	전문/자유직	49	6.1	51.0	34.7	4.1	4.1	57.1	8.2	34.7
	전업주부	460	34.3	43.5	16.5	4.8	0.9	77.8	5.7	16.5
	학생	66	28.8	42.4	18.2	9.1	1.5	71.2	10.6	18.2
	무직	72	30.6	52.8	9.7	5.6	1.4	83.3	6.9	9.7
	기타	136	25.0	44.1	26.5	4.4	0.0	69.1	4.4	26.5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2	40.3	33.9	16.1	8.1	1.6	74.2	9.7	16.1
	고등학교(중퇴/졸업)	122	21.3	43.4	28.7	6.6	0.0	64.8	6.6	28.7
	전문대(중퇴/졸업)	7	57.1	14.3	14.3	14.3	0.0	71.4	14.3	14.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6	16.7	33.3	33.3	0.0	16.7	50.0	16.7	33.3
	대학원 이상	185	22.7	43.8	29.7	2.2	1.6	66.5	3.8	29.7
생활수준별	상	162	29.6	43.8	21.6	3.1	1.9	73.5	4.9	21.6
	중	723	31.7	44.7	16.6	6.6	0.4	76.3	7.1	16.6
	하	124	25.8	51.6	16.1	4.8	1.6	77.4	6.5	16.1

3.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보장되지 않음'(48.3%), 전문가는 '보장됨'(35.0%)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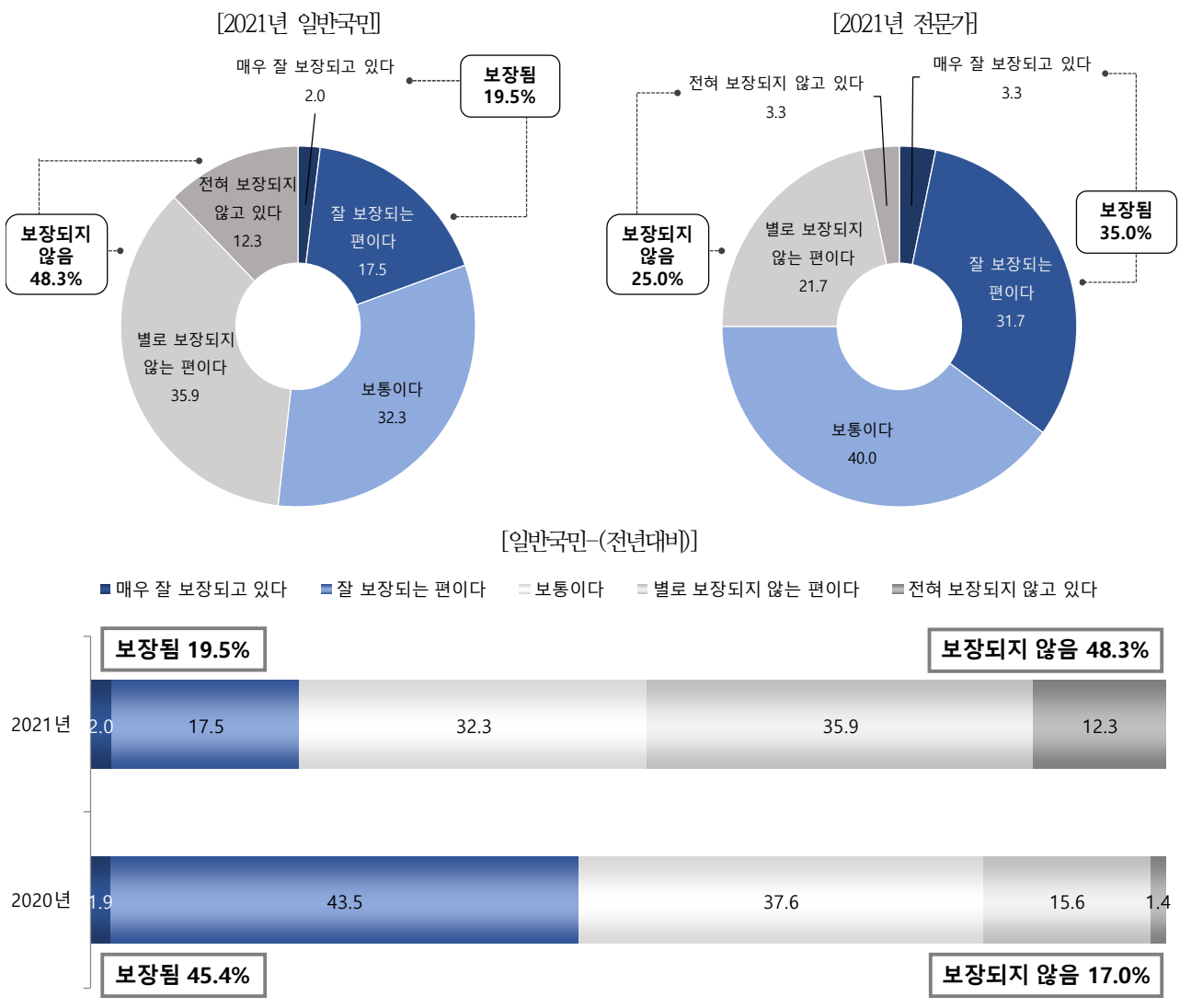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3%로, '보장된다(19.5%)'보다 28.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보장되지 않는다'는 31.3%p(2020년 17.0%) 증가하였고, '보장된다'는 25.9%p(2020년 4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된다'는 응답이 35.0%로, '보장되지 않는다'(25.0%)보다 10.0%p 높게 나타남.

○ 국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그림 4-3〉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특성별 분석]

◉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 '하',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학생'(n=62)에서 높게 나타남.

〈표 4-3〉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잘 보장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종합		
								보장됨	보통	보장되지 않음
전체		1,260	2.1	18.2	32.6	35.2	11.9	20.2	32.6	47.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0	17.5	32.3	35.9	12.3	19.5	32.3	48.3
	전문가	60	3.3	31.7	40.0	21.7	3.3	35.0	40.0	2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0	21.9	29.7	34.2	11.3	24.9	29.7	45.4
	중	479	0.8	14.0	35.9	37.6	11.7	14.8	35.9	49.3
	하	118	1.7	9.3	30.5	38.1	20.3	11.0	30.5	58.5
성별	남성	720	2.5	19.9	30.1	33.5	14.0	22.4	30.1	47.5
	여성	480	1.3	14.0	35.4	39.6	9.8	15.2	35.4	49.4
연령별	20대 이하	235	2.1	12.3	27.7	36.2	21.7	14.5	27.7	57.9
	30대	198	1.5	13.6	26.8	46.0	12.1	15.2	26.8	58.1
	40대	247	2.0	14.2	44.1	26.7	13.0	16.2	44.1	39.7
	50대	252	2.0	22.6	26.2	41.3	7.9	24.6	26.2	49.2
	60대 이상	268	2.2	23.1	35.1	31.7	7.8	25.4	35.1	39.6
지역별	서울	226	1.8	18.1	33.6	34.1	12.4	19.9	33.6	46.5
	경기/인천	384	2.3	18.2	31.5	35.9	12.0	20.6	31.5	47.9
	부산/울산/경남	184	2.2	15.2	34.2	38.0	10.3	17.4	34.2	48.4
	대구/경북	117	2.6	12.8	30.8	41.9	12.0	15.4	30.8	53.8
	광주/전라	112	0.0	19.6	35.7	27.7	17.0	19.6	35.7	44.6
	대전/충청/세종	129	1.6	20.2	27.9	38.8	11.6	21.7	27.9	50.4
	강원/제주	48	4.2	16.7	31.3	33.3	14.6	20.8	31.3	47.9
지역크기	대도시	537	1.9	15.6	33.3	37.1	12.1	17.5	33.3	49.2
	중소도시	601	2.2	18.0	31.3	36.1	12.5	20.1	31.3	48.6
	읍/면	62	1.6	29.0	32.3	24.2	12.9	30.6	32.3	37.1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57.1	21.4	14.3	7.1	57.1	21.4	21.4
	자영업자	85	3.5	21.2	31.8	35.3	8.2	24.7	31.8	43.5
	판매/서비스직	85	2.4	14.1	37.6	34.1	11.8	16.5	37.6	45.9
	기능/숙련공	42	4.8	16.7	28.6	40.5	9.5	21.4	28.6	50.0
	일반 노무직	49	2.0	18.4	34.7	30.6	14.3	20.4	34.7	44.9
	사무/기술직	460	1.7	17.0	28.7	39.3	13.3	18.7	28.7	52.6
	경영/관리직	66	0.0	27.3	28.8	28.8	15.2	27.3	28.8	43.9
	전문/자유직	72	4.2	22.2	25.0	37.5	11.1	26.4	25.0	48.6
	전업주부	136	2.2	12.5	41.9	35.3	8.1	14.7	41.9	43.4
	학생	62	1.6	9.7	27.4	35.5	25.8	11.3	27.4	61.3
	무직	122	0.8	16.4	41.8	31.1	9.8	17.2	41.8	41.0
	기타	7	0.0	14.3	28.6	42.9	14.3	14.3	28.6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66.7	16.7	0.0	16.7	66.7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2	18.4	36.2	29.2	13.0	21.6	36.2	42.2
	전문대(중퇴/졸업)	162	0.6	13.6	37.0	35.8	13.0	14.2	37.0	48.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1	17.4	30.0	37.9	12.6	19.5	30.0	50.5
	대학원 이상	124	1.6	21.8	31.5	35.5	9.7	23.4	31.5	45.2
생활수준별	상	133	1.5	20.3	30.8	33.1	14.3	21.8	30.8	47.4
	중	538	2.2	17.7	32.9	38.1	9.1	19.9	32.9	47.2
	하	529	1.9	16.6	31.9	34.4	15.1	18.5	31.9	49.5

3-1.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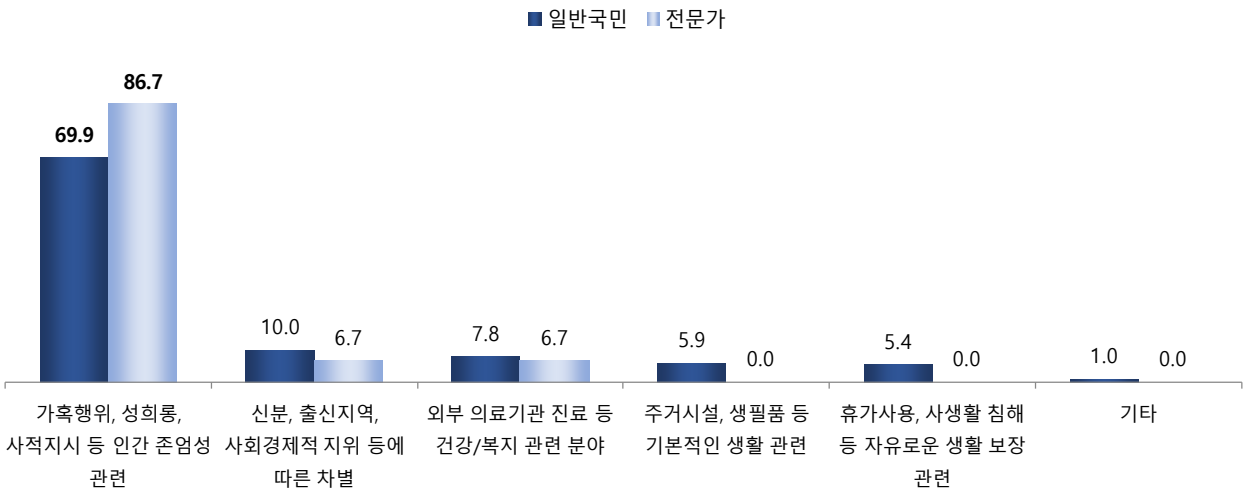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 일반국민(69.9%), 전문가(8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 6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10.0%),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 8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1〉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 '상',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4-3-1〉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단위[%]		사례수 (명)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전체		594	70.4	9.9	7.7	5.7	5.2
대상별	일반국민	579	69.9	10.0	7.8	5.9	5.4
	전문가	15	86.7	6.7	6.7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274	74.5	9.5	5.5	4.4	5.5
	중	236	66.5	10.2	9.3	6.8	6.4
	하	69	63.8	11.6	11.6	8.7	1.4
성별	남성	342	64.6	11.7	9.1	6.4	6.7
	여성	237	77.6	7.6	5.9	5.1	3.4
연령별	20대 이하	136	46.3	11.8	17.6	10.3	11.0
	30대	115	62.6	9.6	10.4	8.7	7.0
	40대	98	85.7	4.1	6.1	3.1	1.0
	50대	124	79.8	12.1	2.4	3.2	2.4
	60대 이상	106	82.1	11.3	0.0	2.8	3.8
지역별	서울	105	72.4	10.5	3.8	5.7	7.6
	경기/인천	184	65.8	12.5	9.8	7.1	3.8
	부산/울산/경남	89	76.4	6.7	7.9	3.4	4.5
	대구/경북	63	73.0	11.1	9.5	1.6	3.2
	광주/전라	50	68.0	10.0	10.0	4.0	6.0
	대전/충청/세종	65	69.2	7.7	1.5	9.2	10.8
	강원/제주	23	65.2	4.3	17.4	13.0	0.0
지역크기	대도시	264	73.5	11.4	5.7	3.4	5.3
	중소도시	292	67.8	7.9	9.6	8.2	5.1
	읍/면	23	56.5	21.7	8.7	4.3	8.7
직업별	농/어/임업	3	33.3	0.0	33.3	0.0	33.3
	자영업자	37	86.5	2.7	5.4	5.4	0.0
	판매/서비스직	39	61.5	15.4	5.1	7.7	7.7
	기능/숙련공	21	76.2	14.3	9.5	0.0	0.0
	일반 노무직	22	50.0	27.3	4.5	13.6	4.5
	사무/기술직	242	69.4	9.1	9.5	5.4	5.4
	경영/관리직	29	75.9	17.2	0.0	0.0	6.9
	전문/자유직	35	71.4	14.3	5.7	2.9	5.7
	전업주부	59	83.1	3.4	6.8	5.1	0.0
	학생	38	36.8	13.2	15.8	15.8	15.8
	무직	50	78.0	6.0	4.0	6.0	6.0
	기타	4	100.0	0.0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1	100.0	0.0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78	76.9	11.5	6.4	3.8	0.0
	전문대(중퇴/졸업)	79	65.8	11.4	7.6	8.9	5.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365	69.6	9.3	7.9	6.0	6.3
	대학원 이상	56	67.9	10.7	8.9	3.6	7.1
생활수준별	상	63	44.4	17.5	15.9	15.9	4.8
	중	254	75.6	8.7	6.3	3.9	5.1
	하	262	70.6	9.5	7.3	5.3	5.7

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1. 우리 군의 각종 발표 신뢰도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일반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71.3%), 전문가는 '신뢰한다'(55.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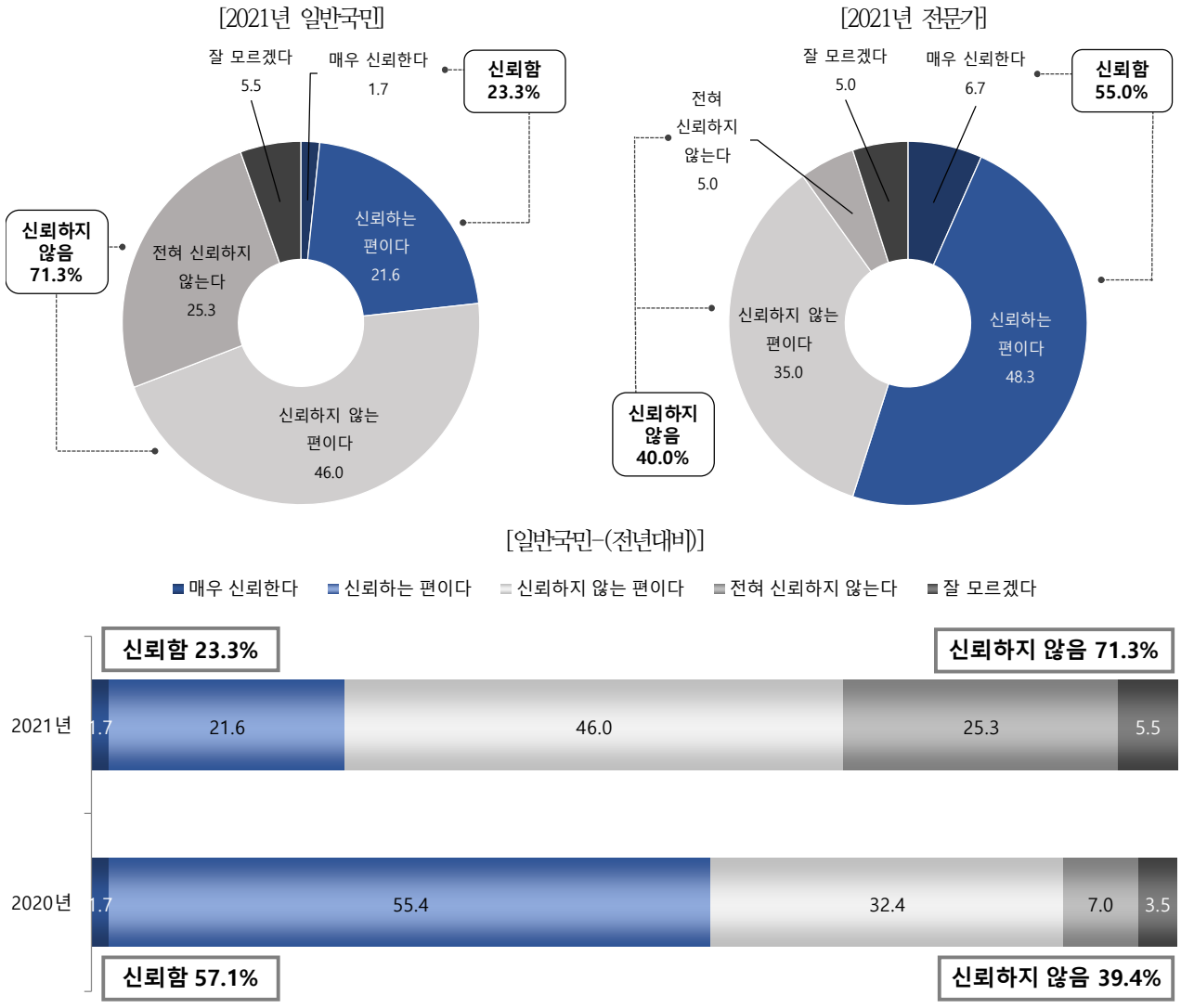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방부의 각종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3%로, '신뢰한다'(23.3%)보다 48.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는 31.9%p(2020년 39.4%) 증가하였고, '신뢰한다'는 33.8%p(2020년 57.1%) 감소하였음.

● **[전문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5.0%로, '신뢰하지 않는다'(40.0%)는 응답보다 15.0%p 높게 나타남.

○ 군내 성추행, 급식 문제 등으로 인해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음.

〈그림 5-1〉 우리 군의 각종 발표 신뢰도



[특성별 분석]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 '하',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서울', 지역크기별로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1〉 우리 군의 각종 발표 신뢰도

단위[%]		사례수(명)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종합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1,260	1.9	22.9	45.5	24.3	5.5	24.8	69.8	5.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	21.6	46.0	25.3	5.5	23.3	71.3	5.5
	전문가	60	6.7	48.3	35.0	5.0	5.0	55.0	40.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8	23.9	46.4	25.0	2.8	25.7	71.5	2.8
	중	479	1.7	21.3	46.6	22.8	7.7	23.0	69.3	7.7
	하	118	0.8	11.0	41.5	36.4	10.2	11.9	78.0	10.2
성별	남성	720	2.4	21.7	45.0	27.2	3.8	24.0	72.2	3.8
	여성	480	0.6	21.5	47.5	22.3	8.1	22.1	69.8	8.1
연령별	20대 이하	235	3.0	16.2	42.1	30.6	8.1	19.1	72.8	8.1
	30대	198	1.5	21.7	42.9	28.3	5.6	23.2	71.2	5.6
	40대	247	1.6	21.5	43.7	26.3	6.9	23.1	70.0	6.9
	50대	252	1.2	22.6	50.4	21.4	4.4	23.8	71.8	4.4
	60대 이상	268	1.1	25.4	49.6	20.9	3.0	26.5	70.5	3.0
지역별	서울	226	1.3	16.4	47.8	29.2	5.3	17.7	77.0	5.3
	경기/인천	384	1.3	23.7	45.3	23.7	6.0	25.0	69.0	6.0
	부산/울산/경남	184	2.7	18.5	48.9	25.5	4.3	21.2	74.5	4.3
	대구/경북	117	3.4	23.1	41.0	27.4	5.1	26.5	68.4	5.1
	광주/전라	112	0.0	29.5	43.8	21.4	5.4	29.5	65.2	5.4
	대전/충청/세종	129	1.6	20.9	50.4	21.7	5.4	22.5	72.1	5.4
	강원/제주	48	2.1	20.8	37.5	31.3	8.3	22.9	68.8	8.3
지역크기	대도시	537	1.3	19.6	46.0	28.3	4.8	20.9	74.3	4.8
	중소도시	601	1.8	22.1	46.9	23.1	6.0	24.0	70.0	6.0
	읍/면	62	3.2	33.9	37.1	19.4	6.5	37.1	56.5	6.5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14.3	64.3	21.4	0.0	14.3	85.7	0.0
	자영업자	85	0.0	29.4	44.7	24.7	1.2	29.4	69.4	1.2
	판매/서비스직	85	2.4	17.6	49.4	24.7	5.9	20.0	74.1	5.9
	기능/숙련공	42	4.8	35.7	31.0	23.8	4.8	40.5	54.8	4.8
	일반 노무직	49	2.0	22.4	49.0	20.4	6.1	24.5	69.4	6.1
	사무/기술직	460	1.5	21.7	43.9	29.1	3.7	23.3	73.0	3.7
	경영/관리직	66	0.0	21.2	39.4	34.8	4.5	21.2	74.2	4.5
	전문/자유직	72	1.4	12.5	55.6	26.4	4.2	13.9	81.9	4.2
	전업주부	136	0.7	22.8	50.7	16.9	8.8	23.5	67.6	8.8
	학생	62	3.2	12.9	40.3	29.0	14.5	16.1	69.4	14.5
	무직	122	3.3	23.0	48.4	16.4	9.0	26.2	64.8	9.0
	기타	7	0.0	14.3	71.4	14.3	0.0	14.3	85.7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33.3	0.0	33.3	33.3	33.3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2	25.9	41.1	23.8	7.0	28.1	64.9	7.0
	전문대(중퇴/졸업)	162	2.5	25.3	38.9	26.5	6.8	27.8	65.4	6.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4	19.6	49.1	25.0	4.8	21.0	74.1	4.8
	대학원 이상	124	1.6	21.0	45.2	28.2	4.0	22.6	73.4	4.0
생활수준별	상	133	3.0	23.3	44.4	27.8	1.5	26.3	72.2	1.5
	중	538	1.9	20.6	50.0	21.9	5.6	22.5	71.9	5.6
	하	529	1.1	22.1	42.3	28.0	6.4	23.3	70.3	6.4

1-1. 우리 군의 각종 발표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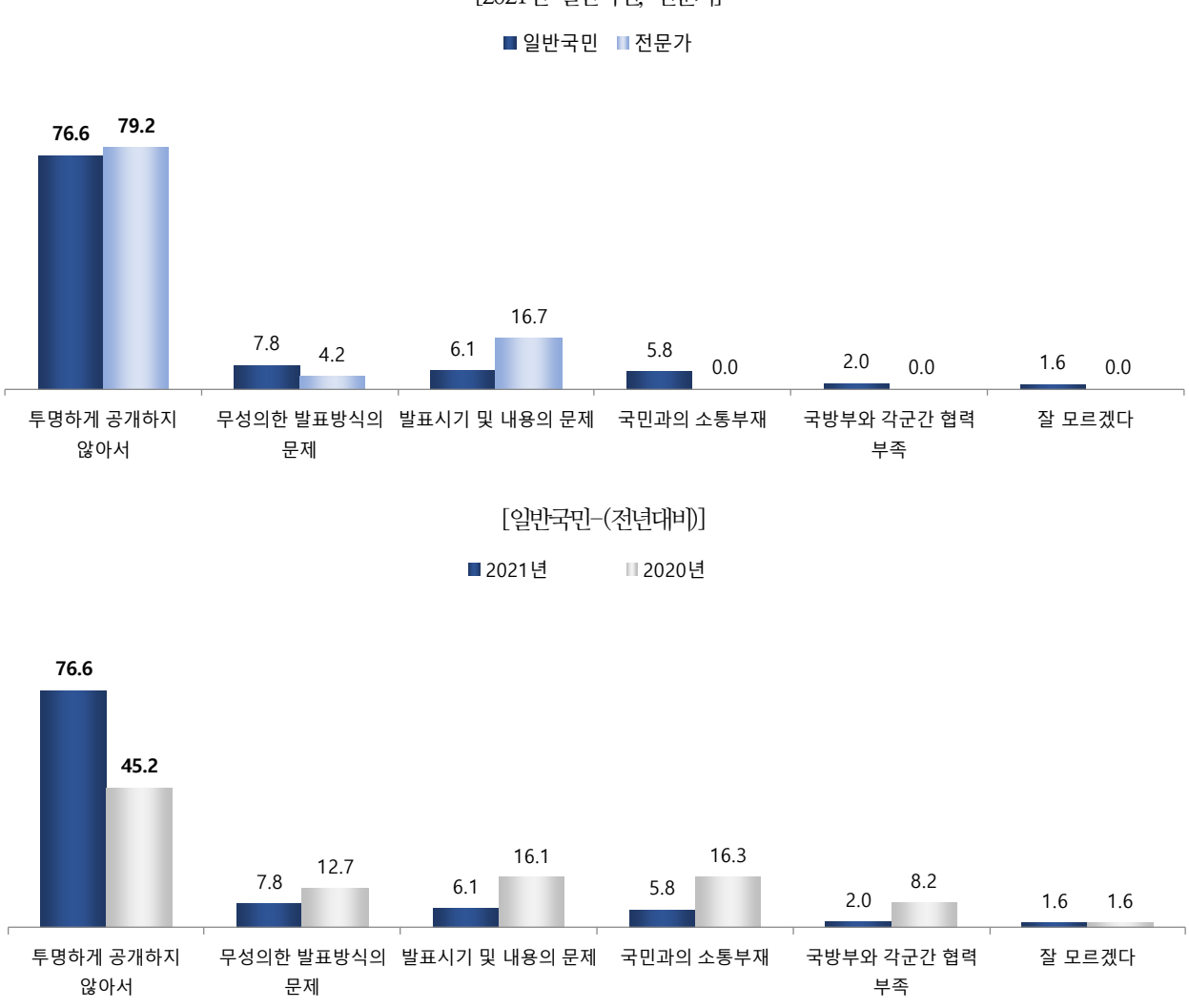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76.6%, 전문가 7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7.8%),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는 31.4%p(2020년 45.2%) 증가하였고, '무성의한 발표방식 문제'는 4.9%p(2020년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16.7%), '무성의한 발표방식 문제'(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1〉 우리 군의 각종 발표 신뢰하지 않는 이유



[특성별 분석]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의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상',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경영/관리직'(n=49)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1〉 우리 군의 각종 발표 신뢰하지 않는 이유

단위[%]		사례수(명)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	국민과의 소통부재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	잘 모르겠다
전체		879	76.7	7.7	6.4	5.7	1.9	1.6
대상별	일반국민	855	76.6	7.8	6.1	5.8	2.0	1.6
	전문가	24	79.2	4.2	16.7	0.0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31	80.7	6.0	4.4	5.8	1.4	1.6
	중	332	74.1	9.0	8.1	5.4	2.1	1.2
	하	92	66.3	12.0	6.5	7.6	4.3	3.3
성별	남성	520	80.0	6.7	5.8	5.0	1.3	1.2
	여성	335	71.3	9.6	6.6	7.2	3.0	2.4
연령별	20대 이하	171	68.4	12.9	6.4	7.6	0.6	4.1
	30대	141	72.3	6.4	7.1	9.9	2.8	1.4
	40대	173	73.4	6.4	8.1	7.5	2.9	1.7
	50대	181	81.2	7.7	3.9	3.3	3.3	0.6
	60대 이상	189	85.7	5.8	5.3	2.1	0.5	0.5
지역별	서울	174	72.4	9.8	6.3	8.0	1.7	1.7
	경기/인천	265	78.9	9.4	4.9	4.2	1.1	1.5
	부산/울산/경남	137	80.3	5.1	9.5	2.9	1.5	0.7
	대구/경북	80	72.5	6.3	6.3	3.8	6.3	5.0
	광주/전라	73	75.3	6.8	4.1	11.0	1.4	1.4
	대전/충청/세종	93	74.2	8.6	3.2	9.7	3.2	1.1
	강원/제주	33	84.8	0.0	12.1	3.0	0.0	0.0
지역크기	대도시	399	72.7	9.0	8.5	6.0	2.3	1.5
	중소도시	421	80.0	6.9	4.3	5.5	1.7	1.7
	읍/면	35	80.0	5.7	0.0	8.6	2.9	2.9
직업별	농/어/임업	12	75.0	8.3	0.0	8.3	0.0	8.3
	자영업자	59	78.0	8.5	3.4	6.8	1.7	1.7
	판매/서비스직	63	76.2	7.9	6.3	3.2	1.6	4.8
	기능/숙련공	23	78.3	13.0	4.3	0.0	0.0	4.3
	일반 노무직	34	61.8	11.8	14.7	8.8	0.0	2.9
	사무/기술직	336	75.0	7.7	6.5	6.8	2.4	1.5
	경영/관리직	49	93.9	0.0	4.1	2.0	0.0	0.0
	전문/자유직	59	86.4	3.4	5.1	3.4	1.7	0.0
	전업주부	92	72.8	9.8	5.4	6.5	4.3	1.1
	학생	43	62.8	18.6	4.7	11.6	0.0	2.3
	무직	79	81.0	5.1	7.6	3.8	2.5	0.0
	기타	6	100.0	0.0	0.0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2	50.0	0.0	50.0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20	70.0	12.5	10.0	3.3	3.3	0.8
	전문대(중퇴/졸업)	106	74.5	11.3	5.7	2.8	1.9	3.8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536	76.9	6.5	5.6	7.6	1.9	1.5
	대학원 이상	91	86.8	5.5	3.3	2.2	1.1	1.1
생활수준별	상	96	79.2	6.3	8.3	6.3	0.0	0.0
	중	387	75.7	7.8	5.7	5.7	3.4	1.8
	하	372	76.9	8.3	5.9	5.9	1.1	1.9

2. 군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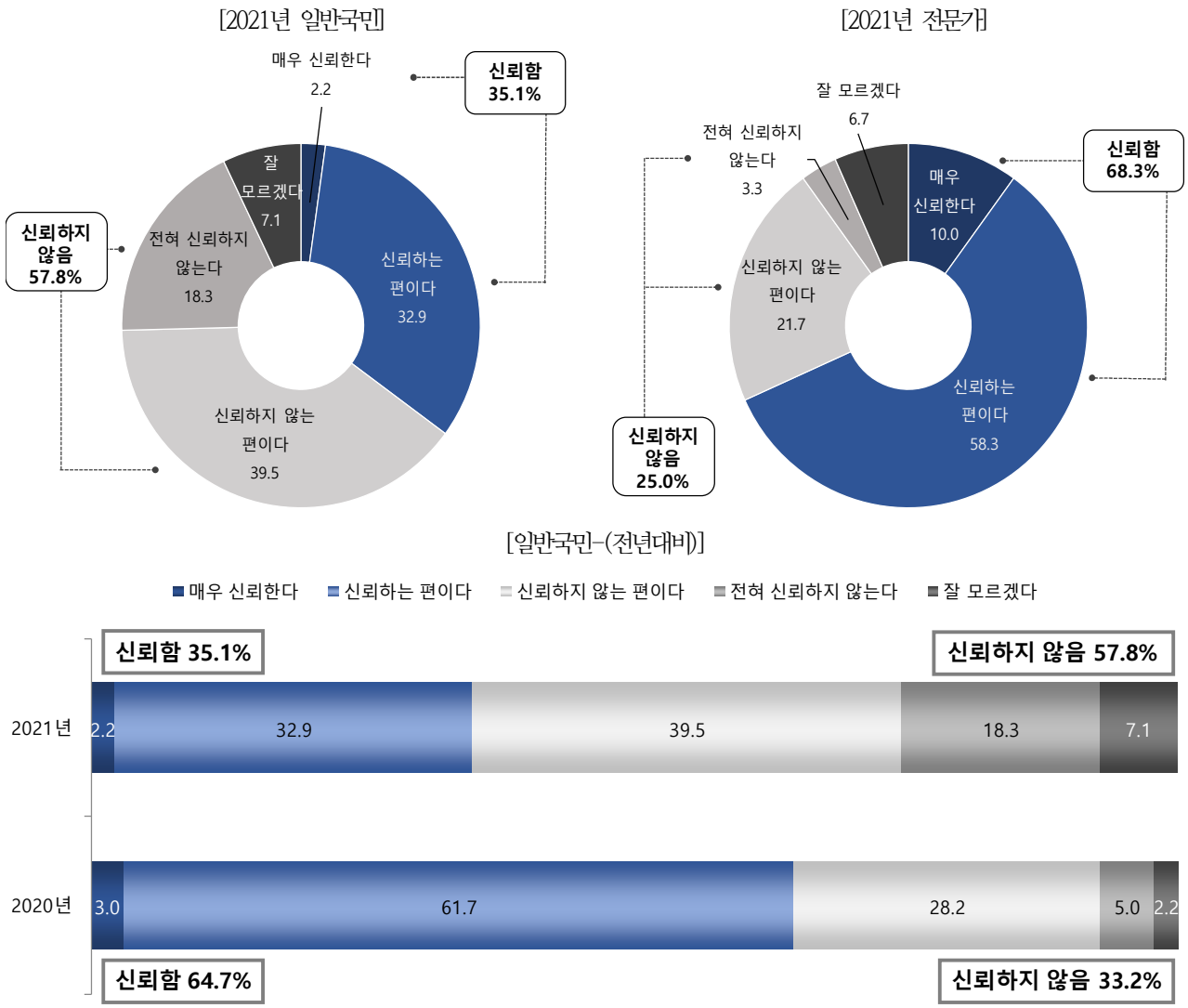
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57.8%), 전문가는 '신뢰한다'(6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57.8%)는 응답이 '신뢰한다'(35.1%)보다 22.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는 24.6%p(2020년 33.2%) 증가하였고, '신뢰한다'는 29.6%p(2020년 6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8.3%로, '신뢰하지 않는다'(25.0%)보다 43.3%p 높게 나타남.

〈그림 5-2〉 군에 대한 신뢰도



[특성별 분석]

◉ 군에 대한 신뢰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하',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 '서울'에서 높게 나타남.

〈표 5-2〉 군에 대한 신뢰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종합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1,260	2.5	34.1	38.7	17.6	7.1	36.7	56.3	7.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2	32.9	39.5	18.3	7.1	35.1	57.8	7.1
	전문가	60	10.0	58.3	21.7	3.3	6.7	68.3	25.0	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4.0	40.8	36.5	15.8	3.0	44.8	52.2	3.0
	중	479	0.2	26.7	43.8	18.6	10.6	26.9	62.4	10.6
	하	118	0.8	17.8	37.3	30.5	13.6	18.6	67.8	13.6
성별	남성	720	2.8	32.9	41.4	18.6	4.3	35.7	60.0	4.3
	여성	480	1.3	32.9	36.7	17.9	11.3	34.2	54.6	11.3
연령별	20대 이하	235	0.4	23.4	38.3	28.1	9.8	23.8	66.4	9.8
	30대	198	0.0	28.3	42.9	22.7	6.1	28.3	65.7	6.1
	40대	247	2.0	30.0	37.7	19.8	10.5	32.0	57.5	10.5
	50대	252	3.2	35.7	46.0	8.7	6.3	38.9	54.8	6.3
	60대 이상	268	4.5	44.8	33.6	14.2	3.0	49.3	47.8	3.0
지역별	서울	226	0.9	25.2	44.2	23.5	6.2	26.1	67.7	6.2
	경기/인천	384	1.3	34.1	38.8	17.4	8.3	35.4	56.3	8.3
	부산/울산/경남	184	4.3	29.9	41.8	15.8	8.2	34.2	57.6	8.2
	대구/경북	117	3.4	35.0	38.5	16.2	6.8	38.5	54.7	6.8
	광주/전라	112	4.5	39.3	33.0	17.0	6.3	43.8	50.0	6.3
	대전/충청/세종	129	1.6	38.8	38.8	17.1	3.9	40.3	55.8	3.9
	강원/제주	48	0.0	35.4	33.3	22.9	8.3	35.4	56.3	8.3
지역크기	대도시	537	1.5	29.6	41.5	20.9	6.5	31.1	62.4	6.5
	중소도시	601	2.7	33.4	39.6	16.3	8.0	36.1	55.9	8.0
	읍/면	62	3.2	56.5	21.0	16.1	3.2	59.7	37.1	3.2
직업별	농/어/임업	14	7.1	50.0	21.4	21.4	0.0	57.1	42.9	0.0
	자영업자	85	4.7	34.1	42.4	15.3	3.5	38.8	57.6	3.5
	판매/서비스직	85	3.5	28.2	40.0	22.4	5.9	31.8	62.4	5.9
	기능/숙련공	42	4.8	31.0	42.9	16.7	4.8	35.7	59.5	4.8
	일반 노무직	49	0.0	28.6	46.9	14.3	10.2	28.6	61.2	10.2
	사무/기술직	460	1.3	32.2	40.4	20.9	5.2	33.5	61.3	5.2
	경영/관리직	66	3.0	37.9	37.9	18.2	3.0	40.9	56.1	3.0
	전문/자유직	72	4.2	36.1	36.1	16.7	6.9	40.3	52.8	6.9
	전업주부	136	2.2	36.0	34.6	12.5	14.7	38.2	47.1	14.7
	학생	62	0.0	21.0	33.9	30.6	14.5	21.0	64.5	14.5
	무직	122	1.6	36.9	41.8	11.5	8.2	38.5	53.3	8.2
	기타	7	0.0	28.6	57.1	14.3	0.0	28.6	71.4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33.3	0.0	33.3	33.3	33.3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7	35.7	38.9	15.1	7.6	38.4	54.1	7.6
	전문대(중퇴/졸업)	162	0.6	35.8	40.7	16.7	6.2	36.4	57.4	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1	32.5	38.5	19.6	7.3	34.6	58.1	7.3
	대학원 이상	124	4.0	27.4	45.2	18.5	4.8	31.5	63.7	4.8
생활수준별	상	133	2.3	29.3	45.9	19.5	3.0	31.6	65.4	3.0
	중	538	2.2	34.6	38.1	17.3	7.8	36.8	55.4	7.8
	하	529	2.1	32.1	39.3	19.1	7.4	34.2	58.4	7.4

2-1.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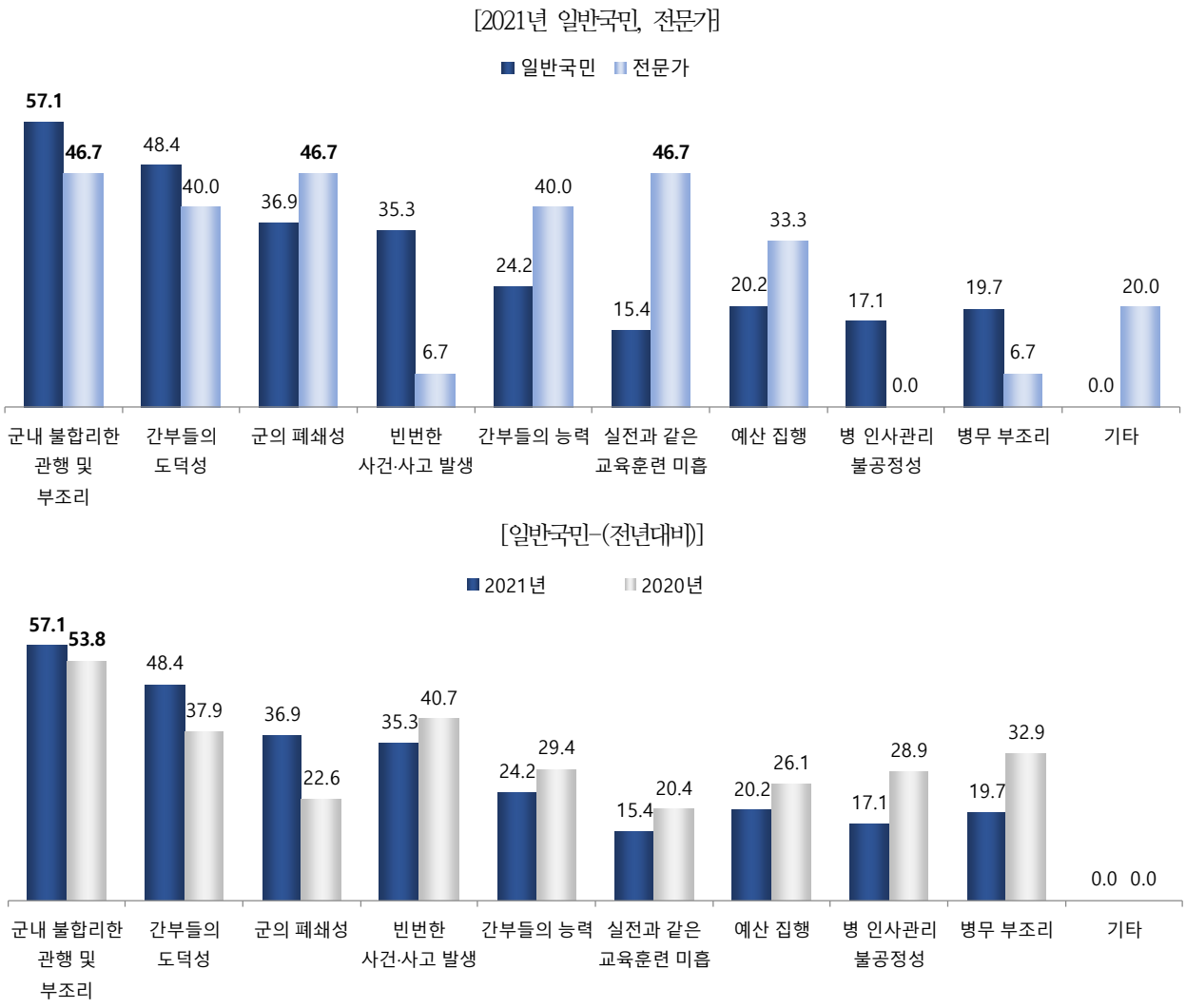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7.1%, 전문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부들의 도덕성'(48.4%), '군의 폐쇄성'(3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는 3.3%p(2020년 53.8%), '간부들의 도덕성'은 10.5%p(2020년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군의 폐쇄성',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미흡'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부들의 도덕성, '간부들의 능력'(4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1〉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특성별 분석]

◉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의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 '중',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일반 노무직(n=30)'에서 높게 나타남.

〈표 5-2-1〉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단위[%]		사례수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간부들의 도덕성	군의 폐쇄성	반복한 사건사고 발생	간부들의 능력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미흡	예산 집행	병 인사관리 불공정성	병무 부조리	기타
전체		709	56.8	48.2	37.1	34.7	24.5	16.1	20.5	16.8	19.5	0.4
대상별	일반국민	694	57.1	48.4	36.9	35.3	24.2	15.4	20.2	17.1	19.7	0.0
	전문가	15	46.7	40.0	46.7	6.7	40.0	46.7	33.3	0.0	6.7	2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15	57.1	48.9	41.6	29.5	27.3	16.8	21.6	16.2	17.5	0.0
	중	299	59.9	49.5	33.8	40.8	19.1	12.0	19.4	17.1	21.7	0.0
	하	80	46.3	42.5	30.0	37.5	31.3	22.5	17.5	21.3	21.3	0.0
성별	남성	432	54.6	44.2	40.0	31.5	26.9	16.7	23.6	17.4	20.1	0.0
	여성	262	61.1	55.3	31.7	41.6	19.8	13.4	14.5	16.8	19.1	0.0
연령별	20대 이하	156	53.8	42.9	26.3	42.9	30.1	19.2	20.5	16.7	26.3	0.0
	30대	130	59.2	51.5	29.2	33.8	25.4	9.2	16.2	21.5	23.8	0.0
	40대	142	61.3	54.9	40.1	41.5	21.1	10.6	12.7	9.9	18.3	0.0
	50대	138	59.4	47.1	46.4	34.1	16.7	17.4	25.4	20.3	15.9	0.0
	60대 이상	128	51.6	46.1	43.8	21.9	27.3	20.3	26.6	18.0	13.3	0.0
지역별	서울	153	66.7	51.6	38.6	34.0	17.6	15.7	15.0	19.0	20.3	0.0
	경기/인천	216	52.8	52.8	35.2	36.1	25.9	14.4	20.8	17.1	18.5	0.0
	부산/울산/경남	106	49.1	48.1	39.6	33.0	31.1	17.0	14.2	17.9	16.0	0.0
	대구/경북	64	57.8	40.6	37.5	39.1	18.8	18.8	23.4	17.2	25.0	0.0
	광주/전라	56	62.5	44.6	33.9	32.1	21.4	16.1	26.8	23.2	16.1	0.0
	대전/충청/세종	72	59.7	41.7	34.7	36.1	30.6	13.9	26.4	9.7	19.4	0.0
	강원/제주	27	48.1	40.7	40.7	40.7	22.2	11.1	29.6	11.1	37.0	0.0
지역크기	대도시	335	57.3	50.4	36.1	34.6	24.2	16.4	17.3	19.1	20.0	0.0
	중소도시	336	57.1	47.0	38.4	35.1	23.8	14.3	22.6	14.9	20.5	0.0
	읍/면	23	52.2	39.1	26.1	47.8	30.4	17.4	26.1	21.7	4.3	0.0
직업별	농/어/임업	6	50.0	66.7	33.3	16.7	50.0	16.7	33.3	0.0	0.0	0.0
	자영업자	49	46.9	42.9	49.0	36.7	34.7	10.2	18.4	16.3	20.4	0.0
	판매/서비스직	53	58.5	49.1	32.1	45.3	20.8	18.9	18.9	17.0	11.3	0.0
	기능/숙련공	25	40.0	56.0	16.0	32.0	24.0	20.0	28.0	24.0	32.0	0.0
	일반 노무직	30	63.3	50.0	23.3	36.7	26.7	26.7	20.0	26.7	13.3	0.0
	사무/기술직	282	61.3	52.1	36.9	34.4	22.3	11.7	16.3	17.7	23.0	0.0
	경영/관리직	37	54.1	48.6	45.9	29.7	27.0	21.6	29.7	8.1	8.1	0.0
	전문/자유직	38	57.9	39.5	50.0	26.3	28.9	7.9	23.7	18.4	21.1	0.0
	전업주부	64	59.4	51.6	39.1	40.6	12.5	17.2	17.2	15.6	17.2	0.0
	학생	40	60.0	40.0	25.0	40.0	37.5	12.5	22.5	17.5	27.5	0.0
	무직	65	46.2	36.9	33.8	35.4	23.1	27.7	29.2	16.9	16.9	0.0
	기타	5	60.0	60.0	100.0	0.0	20.0	0.0	20.0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2	50.0	50.0	0.0	50.0	50.0	50.0	0.0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00	53.0	46.0	25.0	44.0	26.0	24.0	18.0	21.0	18.0	0.0
	전문대(중퇴/졸업)	93	53.8	55.9	33.3	32.3	21.5	17.2	23.7	16.1	25.8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420	58.1	47.1	38.8	35.7	24.5	12.4	21.0	16.4	20.5	0.0
	대학원 이상	79	60.8	49.4	46.8	25.3	22.8	17.7	15.2	17.7	11.4	0.0
생활수준별	상	87	57.5	56.3	32.2	34.5	34.5	13.8	18.4	11.5	18.4	0.0
	중	298	59.7	48.7	38.6	36.2	23.2	11.7	17.4	19.5	18.8	0.0
	하	309	54.4	46.0	36.6	34.6	22.3	19.4	23.3	16.5	21.0	0.0

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6.1%, 전문가 7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6.1%로, '반대한다'(16.8%)는 의견보다 29.3%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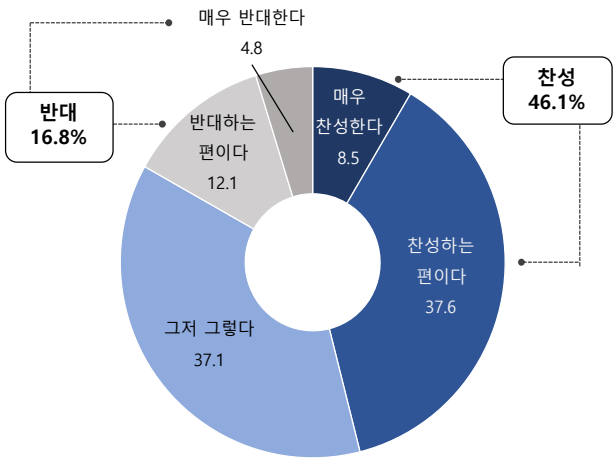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4.8%p(2020년 41.3%) 증가하였고, '반대한다'는 7.4%p(2020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6.7%로, '반대한다'(5.0%)보다 71.7%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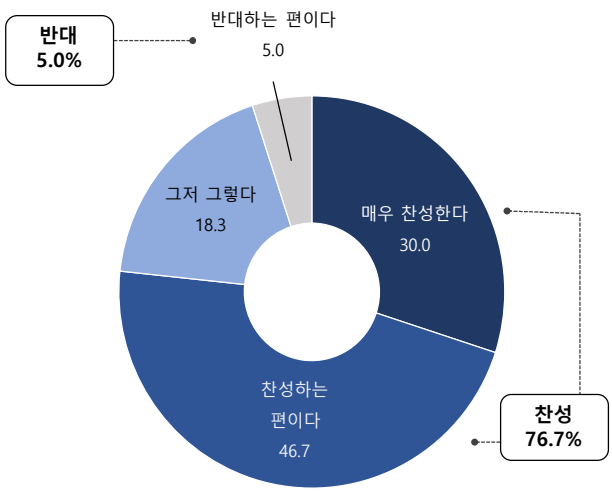
○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세금 상승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그림 5-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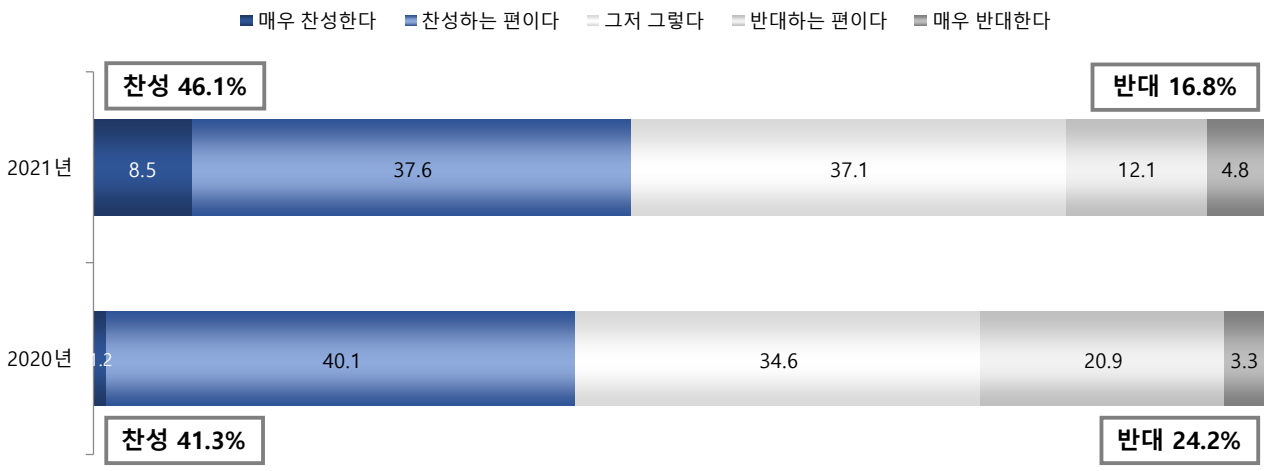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3〉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상승 의견

단위[%]		사례수(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9.5	38.0	36.2	11.7	4.5	47.5	36.2	16.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5	37.6	37.1	12.1	4.8	46.1	37.1	16.8
	전문가	60	30.0	46.7	18.3	5.0	0.0	76.7	18.3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3.8	46.3	27.2	10.1	2.7	60.0	27.2	12.8
	중	479	2.9	29.9	48.2	12.7	6.3	32.8	48.2	19.0
	하	118	4.2	24.6	42.4	19.5	9.3	28.8	42.4	28.8
성별	남성	720	11.9	41.9	32.2	9.2	4.7	53.9	32.2	13.9
	여성	480	3.3	31.0	44.4	16.5	4.8	34.4	44.4	21.3
연령별	20대 이하	235	6.0	29.8	44.7	13.2	6.4	35.7	44.7	19.6
	30대	198	7.6	31.3	38.9	16.2	6.1	38.9	38.9	22.2
	40대	247	6.5	41.3	35.2	11.7	5.3	47.8	35.2	17.0
	50대	252	8.7	40.9	34.1	11.9	4.4	49.6	34.1	16.3
	60대 이상	268	13.1	42.5	33.6	8.6	2.2	55.6	33.6	10.8
지역별	서울	226	8.4	37.2	32.3	18.1	4.0	45.6	32.3	22.1
	경기/인천	384	6.5	40.6	37.5	11.5	3.9	47.1	37.5	15.4
	부산/울산/경남	184	7.6	39.1	40.2	9.2	3.8	46.7	40.2	13.0
	대구/경북	117	10.3	28.2	44.4	11.1	6.0	38.5	44.4	17.1
	광주/전라	112	8.9	38.4	36.6	10.7	5.4	47.3	36.6	16.1
	대전/충청/세종	129	10.9	39.5	33.3	10.9	5.4	50.4	33.3	16.3
	강원/제주	48	16.7	25.0	37.5	8.3	12.5	41.7	37.5	20.8
지역크기	대도시	537	8.2	38.5	35.2	13.6	4.5	46.7	35.2	18.1
	중소도시	601	8.5	36.9	38.4	11.0	5.2	45.4	38.4	16.1
	읍/면	62	11.3	35.5	40.3	9.7	3.2	46.8	40.3	12.9
직업별	농/어/임업	14	21.4	50.0	21.4	7.1	0.0	71.4	21.4	7.1
	자영업자	85	8.2	51.8	27.1	8.2	4.7	60.0	27.1	12.9
	판매/서비스직	85	4.7	37.6	36.5	15.3	5.9	42.4	36.5	21.2
	기능/숙련공	42	7.1	38.1	38.1	4.8	11.9	45.2	38.1	16.7
	일반 노무직	49	6.1	32.7	49.0	12.2	0.0	38.8	49.0	12.2
	사무/기술직	460	8.9	35.4	35.4	14.8	5.4	44.3	35.4	20.2
	경영/관리직	66	10.6	53.0	25.8	9.1	1.5	63.6	25.8	10.6
	전문/자유직	72	15.3	33.3	36.1	13.9	1.4	48.6	36.1	15.3
	전업주부	136	5.9	33.8	46.3	10.3	3.7	39.7	46.3	14.0
	학생	62	8.1	29.0	41.9	11.3	9.7	37.1	41.9	21.0
	무직	122	8.2	39.3	40.2	8.2	4.1	47.5	40.2	12.3
	기타	7	0.0	28.6	57.1	14.3	0.0	28.6	57.1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83.3	0.0	0.0	16.7	83.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8.6	35.1	40.0	9.7	6.5	43.8	40.0	16.2
	전문대(중퇴/졸업)	162	3.7	35.8	39.5	15.4	5.6	39.5	39.5	21.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9.3	39.1	35.8	11.1	4.7	48.4	35.8	15.8
	대학원 이상	124	10.5	35.5	34.7	17.7	1.6	46.0	34.7	19.4
생활수준별	상	133	13.5	35.3	35.3	10.5	5.3	48.9	35.3	15.8
	중	538	7.6	38.3	36.2	13.9	3.9	45.9	36.2	17.8
	하	529	8.1	37.4	38.4	10.6	5.5	45.6	38.4	16.1

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공정하지 않다'(68.6%), 전문가는 '공정하다'(51.7%)가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8.6%로, '공정하다'(17.7%)보다 50.9%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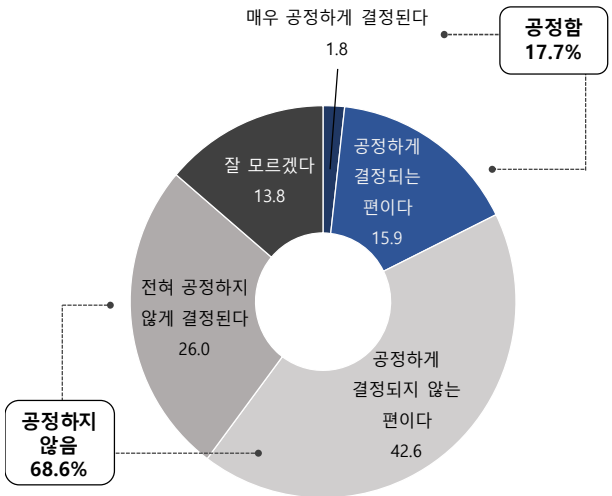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공정하다'는 23.9%p(2020년 41.6%) 감소하였고 '공정하지 않다'는 16.8%p(2020년 5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다'는 응답이 51.7%로, '공정하지 않다'(35.0%)보다 16.7%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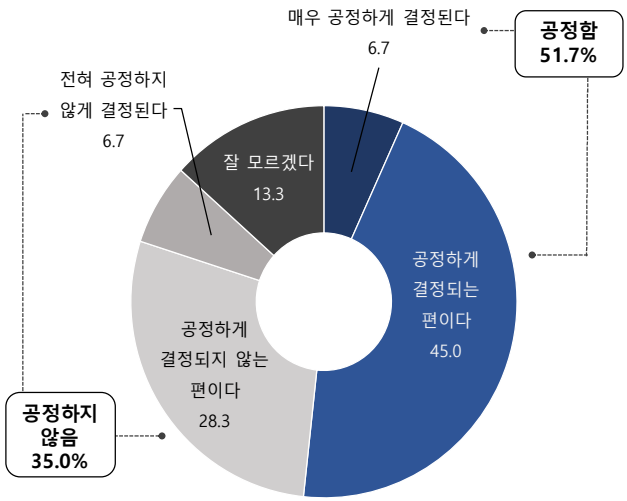
○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군 전력증강 사업 공정성에 대해 더욱 '공정하다'고 인식함.

〈그림 5-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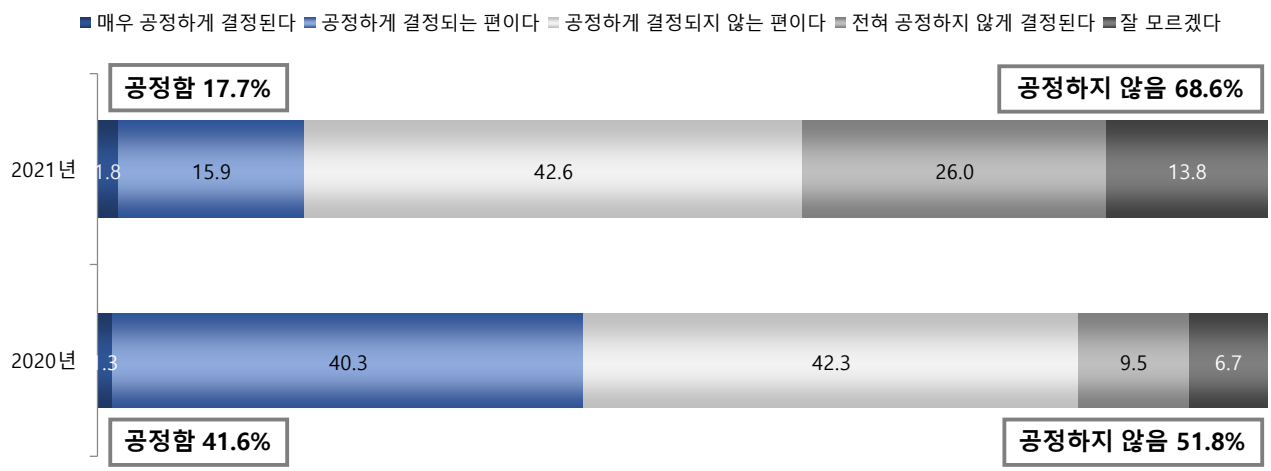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5-4〉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단위[%]		사례수(명)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잘 모르겠다	종합		
								공정함	공정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1,260	2.0	17.3	41.9	25.1	13.7	19.3	67.0	13.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	15.9	42.6	26.0	13.8	17.7	68.6	13.8
	전문가	60	6.7	45.0	28.3	6.7	13.3	51.7	35.0	1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2	21.1	41.1	26.2	9.5	23.2	67.3	9.5
	중	479	1.7	10.9	44.9	24.2	18.4	12.5	69.1	18.4
	하	118	0.0	10.2	40.7	32.2	16.9	10.2	72.9	16.9
성별	남성	720	2.2	17.9	43.8	26.4	9.7	20.1	70.1	9.7
	여성	480	1.0	12.9	40.8	25.4	19.8	14.0	66.3	19.8
연령별	20대 이하	235	2.6	17.4	34.9	24.3	20.9	20.0	59.1	20.9
	30대	198	0.5	16.7	42.9	26.3	13.6	17.2	69.2	13.6
	40대	247	2.4	16.2	40.9	25.9	14.6	18.6	66.8	14.6
	50대	252	2.4	13.5	46.0	28.2	9.9	15.9	74.2	9.9
	60대 이상	268	0.7	16.0	47.4	25.4	10.4	16.8	72.8	10.4
지역별	서울	226	0.9	17.3	44.7	24.8	12.4	18.1	69.5	12.4
	경기/인천	384	2.1	14.3	43.5	25.3	14.8	16.4	68.8	14.8
	부산/울산/경남	184	2.7	17.4	39.7	26.1	14.1	20.1	65.8	14.1
	대구/경북	117	3.4	16.2	38.5	23.9	17.9	19.7	62.4	17.9
	광주/전라	112	1.8	17.9	42.9	28.6	8.9	19.6	71.4	8.9
	대전/충청/세종	129	0.0	16.3	46.5	26.4	10.9	16.3	72.9	10.9
	강원/제주	48	0.0	10.4	35.4	35.4	18.8	10.4	70.8	18.8
지역크기	대도시	537	1.1	15.1	43.4	28.7	11.7	16.2	72.1	11.7
	중소도시	601	2.3	15.8	42.3	24.1	15.5	18.1	66.4	15.5
	읍/면	62	1.6	24.2	38.7	21.0	14.5	25.8	59.7	14.5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28.6	28.6	28.6	14.3	28.6	57.1	14.3
	자영업자	85	2.4	17.6	44.7	25.9	9.4	20.0	70.6	9.4
	판매/서비스직	85	3.5	15.3	45.9	22.4	12.9	18.8	68.2	12.9
	기능/숙련공	42	2.4	19.0	45.2	23.8	9.5	21.4	69.0	9.5
	일반 노무직	49	0.0	4.1	55.1	26.5	14.3	4.1	81.6	14.3
	사무/기술직	460	1.5	17.6	40.2	30.0	10.7	19.1	70.2	10.7
	경영/관리직	66	1.5	12.1	47.0	33.3	6.1	13.6	80.3	6.1
	전문/자유직	72	2.8	8.3	47.2	33.3	8.3	11.1	80.6	8.3
	전업주부	136	1.5	11.0	47.1	22.8	17.6	12.5	69.9	17.6
	학생	62	3.2	16.1	29.0	19.4	32.3	19.4	48.4	32.3
	무직	122	0.8	23.8	40.2	11.5	23.8	24.6	51.6	23.8
	기타	7	0.0	0.0	42.9	42.9	14.3	0.0	85.7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0.0	50.0	0.0	33.3	16.7	5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1	19.5	36.2	22.7	20.5	20.5	58.9	20.5
	전문대(중퇴/졸업)	162	3.1	16.0	41.4	27.8	11.7	19.1	69.1	11.7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2	16.2	42.7	27.0	12.9	17.4	69.7	12.9
	대학원 이상	124	3.2	9.7	52.4	24.2	10.5	12.9	76.6	10.5
생활수준별	상	133	3.8	17.3	42.1	27.8	9.0	21.1	69.9	9.0
	중	538	1.9	16.7	45.2	23.0	13.2	18.6	68.2	13.2
	하	529	1.1	14.7	40.1	28.5	15.5	15.9	68.6	15.5

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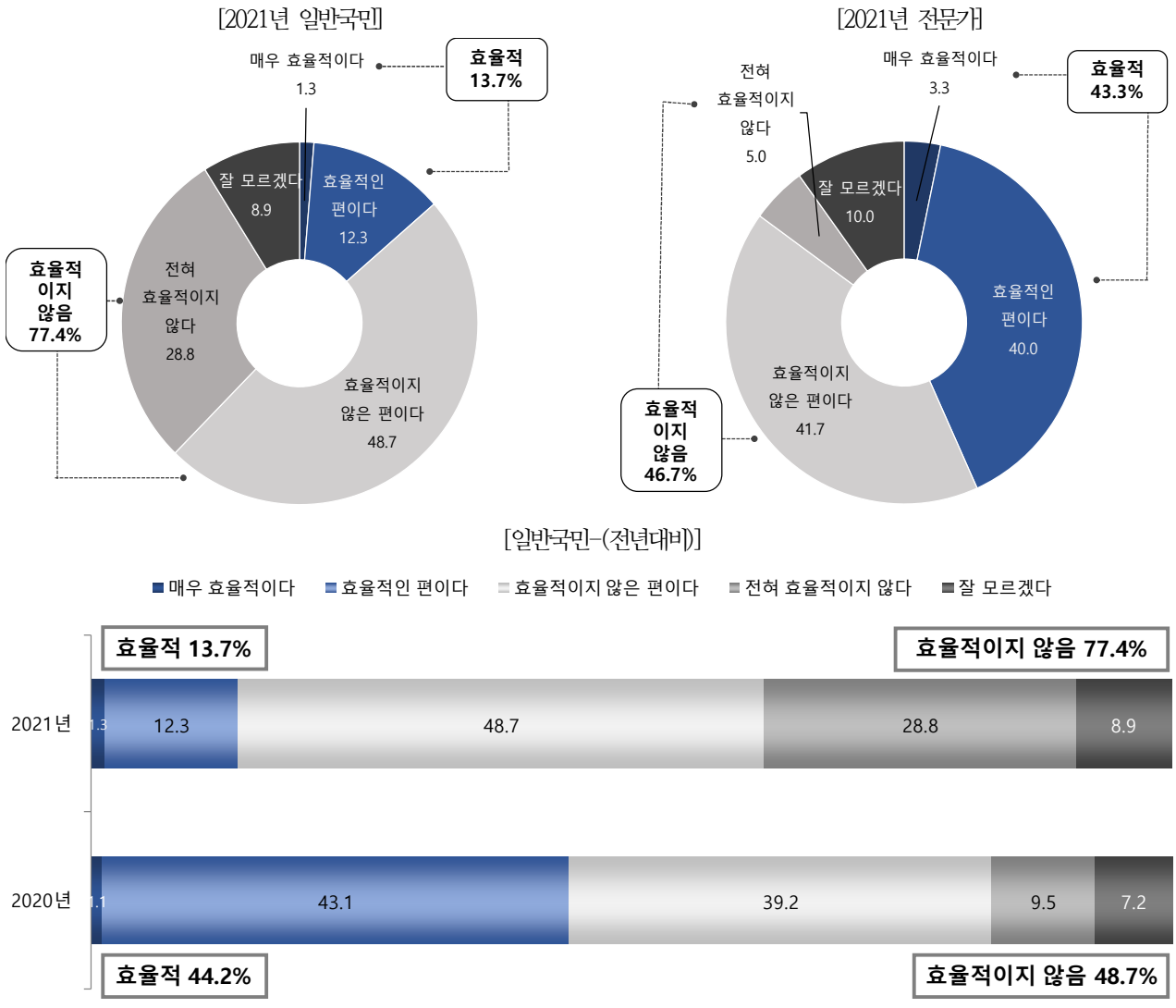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7.4%, 전문가 4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7.4%로, '효율적이다'(13.7%)보다 63.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효율적이다'는 30.5%p(2020년 44.2%) 감소하였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28.7%p(2020년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46.7%로, '효율적이다'(43.3%)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5-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특성별 분석]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직업별로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5-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편이다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잘 모르겠다	종합		
								효율적	효율적이지 않음	잘 모름
전체		1,260	1.4	13.7	48.3	27.6	9.0	15.1	76.0	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12.3	48.7	28.8	8.9	13.7	77.4	8.9
	전문가	60	3.3	40.0	41.7	5.0	10.0	43.3	46.7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8	16.7	46.3	29.2	6.0	18.6	75.5	6.0
	중	479	0.8	8.1	51.1	28.0	11.9	9.0	79.1	11.9
	하	118	0.8	6.8	50.8	29.7	11.9	7.6	80.5	11.9
성별	남성	720	1.8	12.5	48.9	31.1	5.7	14.3	80.0	5.7
	여성	480	0.6	12.1	48.3	25.2	13.8	12.7	73.5	13.8
연령별	20대 이하	235	1.3	10.2	42.1	32.3	14.0	11.5	74.5	14.0
	30대	198	0.5	12.6	45.5	29.8	11.6	13.1	75.3	11.6
	40대	247	1.6	13.8	47.4	26.7	10.5	15.4	74.1	10.5
	50대	252	2.0	11.9	54.4	27.8	4.0	13.9	82.1	4.0
	60대 이상	268	1.1	13.1	52.6	27.6	5.6	14.2	80.2	5.6
지역별	서울	226	1.3	10.6	53.5	27.4	7.1	11.9	81.0	7.1
	경기/인천	384	1.3	13.0	47.4	28.6	9.6	14.3	76.0	9.6
	부산/울산/경남	184	2.7	11.4	50.5	28.3	7.1	14.1	78.8	7.1
	대구/경북	117	0.9	12.0	42.7	33.3	11.1	12.8	76.1	11.1
	광주/전라	112	0.9	20.5	46.4	21.4	10.7	21.4	67.9	10.7
	대전/충청/세종	129	0.8	7.8	51.9	30.2	9.3	8.5	82.2	9.3
	강원/제주	48	0.0	12.5	39.6	39.6	8.3	12.5	79.2	8.3
지역크기	대도시	537	0.9	10.6	52.1	29.6	6.7	11.5	81.8	6.7
	중소도시	601	1.7	13.6	45.1	28.6	11.0	15.3	73.7	11.0
	읍/면	62	1.6	14.5	53.2	22.6	8.1	16.1	75.8	8.1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7.1	57.1	28.6	7.1	7.1	85.7	7.1
	자영업자	85	1.2	14.1	52.9	28.2	3.5	15.3	81.2	3.5
	판매/서비스직	85	1.2	14.1	55.3	22.4	7.1	15.3	77.6	7.1
	기능/숙련공	42	2.4	16.7	52.4	21.4	7.1	19.0	73.8	7.1
	일반 노무직	49	0.0	10.2	61.2	18.4	10.2	10.2	79.6	10.2
	사무/기술직	460	2.0	12.4	45.0	33.0	7.6	14.3	78.0	7.6
	경영/관리직	66	1.5	13.6	47.0	34.8	3.0	15.2	81.8	3.0
	전문/자유직	72	1.4	8.3	51.4	29.2	9.7	9.7	80.6	9.7
	전업주부	136	0.7	12.5	48.5	25.7	12.5	13.2	74.3	12.5
	학생	62	0.0	9.7	41.9	32.3	16.1	9.7	74.2	16.1
	무직	122	0.8	13.1	49.2	22.1	14.8	13.9	71.3	14.8
	기타	7	0.0	0.0	71.4	28.6	0.0	0.0	10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16.7	33.3	0.0	33.3	33.3	33.3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1	13.5	49.7	22.7	13.0	14.6	72.4	13.0
	전문대(중퇴/졸업)	162	1.2	14.2	50.6	29.6	4.3	15.4	80.2	4.3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1	12.3	47.3	29.9	9.4	13.4	77.2	9.4
	대학원 이상	124	2.4	8.1	53.2	31.5	4.8	10.5	84.7	4.8
생활수준별	상	133	3.0	10.5	47.4	31.6	7.5	13.5	78.9	7.5
	중	538	1.3	14.1	50.0	27.0	7.6	15.4	77.0	7.6
	하	529	0.9	11.0	47.6	29.9	10.6	11.9	77.5	10.6

6.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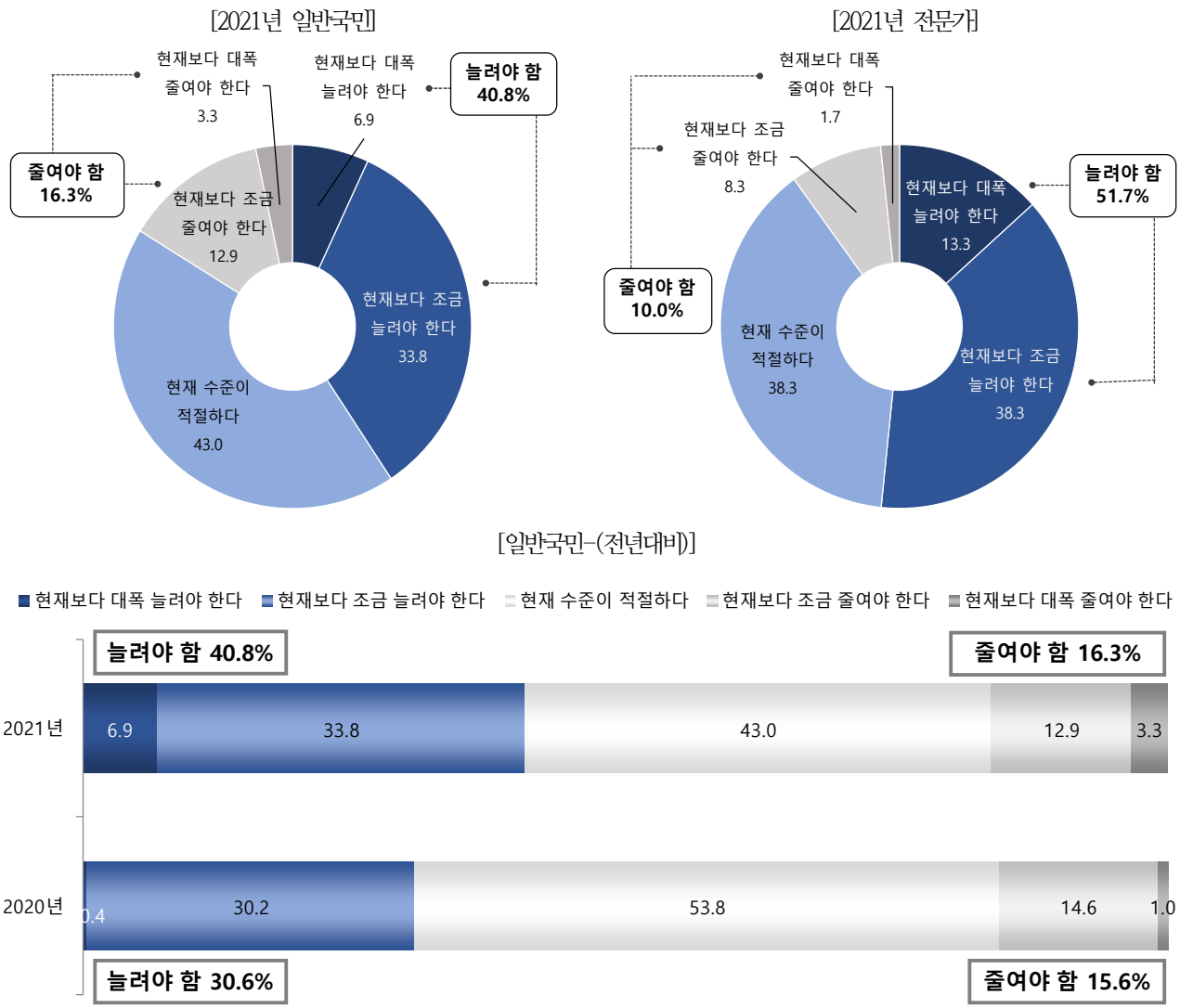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0.8%, 전문가 51.7%로 나타남.

● **[일반국민]**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8%로, '줄여야 한다'(16.3%)보다 24.5%p 높게 나타남. (적절함 : 43.0%)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10.2%p(2020년 30.6%), '줄여야 한다'는 0.7%p(2020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줄여야 한다'(10.0%)보다 41.7%p 높게 나타남. (적절함 : 38.3%)

〈그림 5-6〉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특성별 분석]

◉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직업별로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5-6〉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단위[%]		사례수 (명)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종합		
								늘려야 함	현재 수준 적절	줄여야 함
전체		1,260	7.2	34.0	42.8	12.7	3.3	41.3	42.8	16.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9	33.8	43.0	12.9	3.3	40.8	43.0	16.3
	전문가	60	13.3	38.3	38.3	8.3	1.7	51.7	38.3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0.6	41.1	35.7	10.8	1.8	51.7	35.7	12.6
	중	479	2.1	26.7	51.6	15.4	4.2	28.8	51.6	19.6
	하	118	7.6	25.4	45.8	13.6	7.6	33.1	45.8	21.2
성별	남성	720	9.7	38.9	37.8	10.8	2.8	48.6	37.8	13.6
	여성	480	2.7	26.3	50.8	16.0	4.2	29.0	50.8	20.2
연령별	20대 이하	235	4.7	33.2	42.6	14.0	5.5	37.9	42.6	19.6
	30대	198	7.1	27.8	42.4	18.7	4.0	34.8	42.4	22.7
	40대	247	4.9	33.6	46.6	11.7	3.2	38.5	46.6	15.0
	50대	252	6.3	38.9	39.3	13.9	1.6	45.2	39.3	15.5
	60대 이상	268	11.2	34.3	44.0	7.8	2.6	45.5	44.0	10.4
지역별	서울	226	8.0	31.4	42.9	14.6	3.1	39.4	42.9	17.7
	경기/인천	384	6.8	35.7	42.4	12.5	2.6	42.4	42.4	15.1
	부산/울산/경남	184	6.0	35.3	44.0	13.0	1.6	41.3	44.0	14.7
	대구/경북	117	6.0	27.4	47.9	13.7	5.1	33.3	47.9	18.8
	광주/전라	112	7.1	35.7	44.6	8.0	4.5	42.9	44.6	12.5
	대전/충청/세종	129	7.8	34.9	40.3	14.0	3.1	42.6	40.3	17.1
	강원/제주	48	6.3	33.3	35.4	14.6	10.4	39.6	35.4	25.0
지역크기	대도시	537	6.5	33.7	42.5	13.6	3.7	40.2	42.5	17.3
	중소도시	601	7.2	34.3	42.9	12.5	3.2	41.4	42.9	15.6
	읍/면	62	8.1	30.6	48.4	11.3	1.6	38.7	48.4	12.9
직업별	농/어/임업	14	21.4	57.1	21.4	0.0	0.0	78.6	21.4	0.0
	자영업자	85	5.9	40.0	37.6	11.8	4.7	45.9	37.6	16.5
	판매/서비스직	85	3.5	35.3	45.9	11.8	3.5	38.8	45.9	15.3
	기능/숙련공	42	11.9	31.0	42.9	11.9	2.4	42.9	42.9	14.3
	일반 노무직	49	10.2	34.7	46.9	8.2	0.0	44.9	46.9	8.2
	사무/기술직	460	6.1	31.7	42.2	16.1	3.9	37.8	42.2	20.0
	경영/관리직	66	6.1	54.5	28.8	9.1	1.5	60.6	28.8	10.6
	전문/자유직	72	12.5	25.0	48.6	13.9	0.0	37.5	48.6	13.9
	전업주부	136	5.9	25.0	55.1	11.8	2.2	30.9	55.1	14.0
	학생	62	6.5	37.1	32.3	14.5	9.7	43.5	32.3	24.2
	무직	122	7.4	36.9	44.3	8.2	3.3	44.3	44.3	11.5
	기타	7	0.0	28.6	57.1	14.3	0.0	28.6	57.1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66.7	0.0	0.0	33.3	6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5.4	31.4	45.4	15.7	2.2	36.8	45.4	17.8
	전문대(중퇴/졸업)	162	3.7	37.0	38.9	14.8	5.6	40.7	38.9	20.4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7.3	34.4	43.3	11.6	3.3	41.8	43.3	14.9
	대학원 이상	124	11.3	29.8	41.9	14.5	2.4	41.1	41.9	16.9
생활수준별	상	133	9.0	33.8	39.1	15.0	3.0	42.9	39.1	18.0
	중	538	5.9	33.1	44.4	12.8	3.7	39.0	44.4	16.5
	하	529	7.4	34.6	42.5	12.5	3.0	42.0	42.5	15.5

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43.8%, 전문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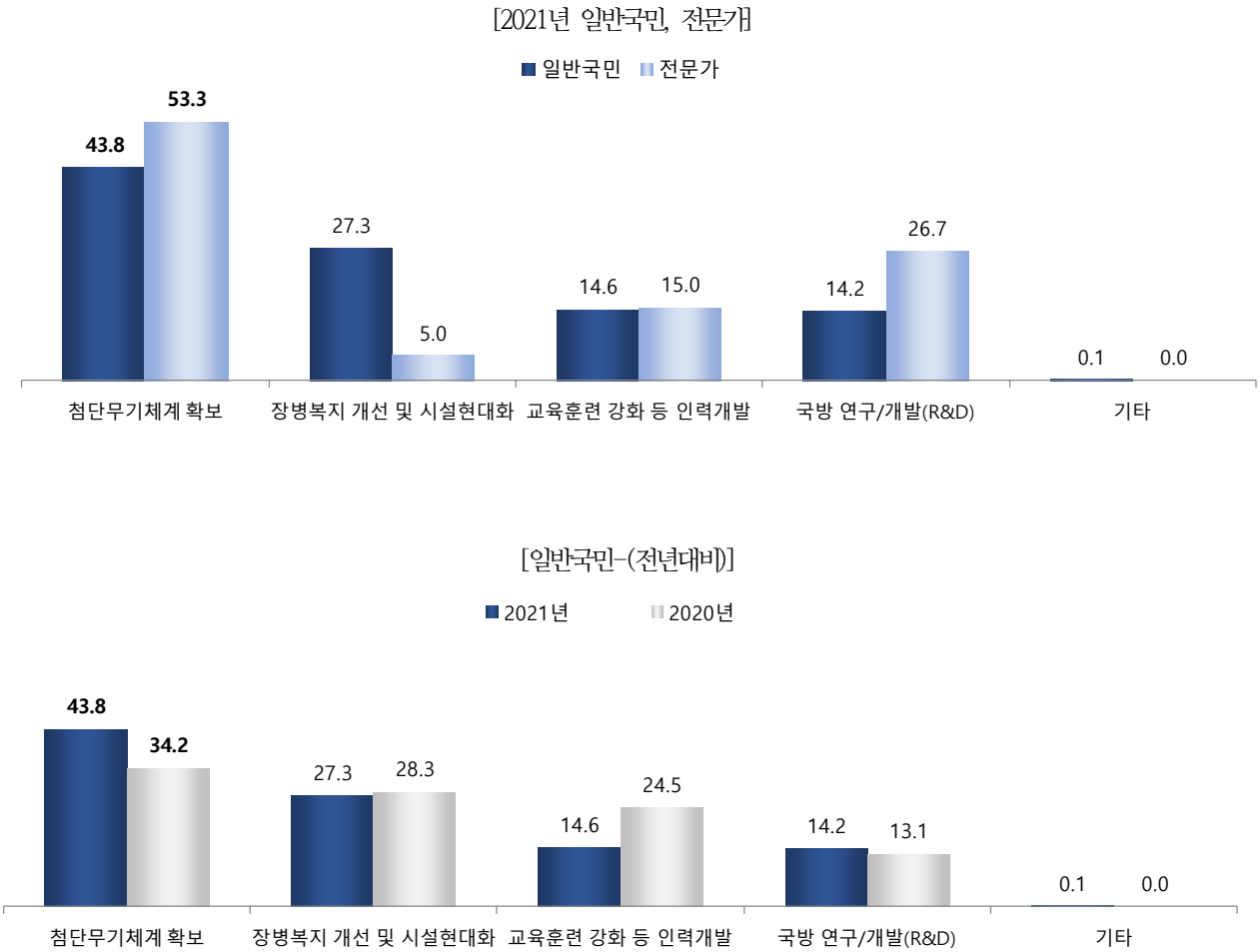
● **[일반국민]**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7.3%),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9.6%p(2020년 34.2%) 증가하였고,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라는 응답은 1.0%p(2020년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방 연구/개발(R&D)'(26.7%),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국방비 투자분야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첨단무기체계 확보'라고 응답함.

〈그림 5-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특성별 분석]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농/어/임업'(n=14), 생활수준별 '중'에서 높게 나타남.

〈표 5-7〉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단위[%]		사례수 (명)	첨단무기체계 확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국방 연구/개발(R&D)	기타
전체		1,260	44.3	26.3	14.6	14.8	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8	27.3	14.6	14.2	0.1
	전문가	60	53.3	5.0	15.0	26.7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0.7	21.6	14.4	14.4	0.0
	중	479	36.1	34.0	14.2	14.2	0.2
	하	118	39.8	29.7	16.9	16.9	0.0
성별	남성	720	50.6	26.3	11.5	11.5	0.0
	여성	480	33.8	29.0	19.2	19.2	0.2
연령별	20대 이하	235	31.9	34.9	19.1	19.1	0.0
	30대	198	34.8	28.3	21.2	21.2	0.5
	40대	247	39.7	28.7	14.6	14.6	0.0
	50대	252	53.6	26.2	8.3	8.3	0.0
	60대 이상	268	55.6	19.8	11.6	11.6	0.0
지역별	서울	226	43.4	29.6	13.7	13.7	0.0
	경기/인천	384	42.4	29.7	13.3	13.3	0.0
	부산/울산/경남	184	48.4	20.7	17.9	17.9	0.0
	대구/경북	117	46.2	25.6	13.7	13.7	0.0
	광주/전라	112	43.8	25.0	18.8	18.8	0.0
	대전/충청/세종	129	38.0	31.0	14.0	14.0	0.8
	강원/제주	48	50.0	22.9	10.4	10.4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43.2	27.2	14.7	14.7	0.0
	중소도시	601	44.3	27.5	14.3	14.3	0.2
	읍/면	62	45.2	27.4	16.1	16.1	0.0
직업별	농/어/임업	14	57.1	14.3	7.1	7.1	0.0
	자영업자	85	47.1	28.2	11.8	11.8	0.0
	판매/서비스직	85	41.2	23.5	22.4	22.4	0.0
	기능/숙련공	42	35.7	35.7	14.3	14.3	0.0
	일반 노무직	49	49.0	26.5	10.2	10.2	0.0
	사무/기술직	460	42.4	27.2	15.7	15.7	0.0
	경영/관리직	66	56.1	24.2	6.1	6.1	0.0
	전문/자유직	72	52.8	20.8	9.7	9.7	0.0
	전업주부	136	41.9	24.3	19.9	19.9	0.7
	학생	62	25.8	41.9	16.1	16.1	0.0
	무직	122	46.7	31.1	11.5	11.5	0.0
	기타	7	57.1	14.3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50.0	33.3	16.7	1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1.6	29.7	15.1	15.1	0.5
	전문대(중퇴/졸업)	162	42.6	29.0	16.7	16.7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4.3	26.4	15.4	15.4	0.0
	대학원 이상	124	46.0	26.6	6.5	6.5	0.0
생활수준별	상	133	43.6	30.8	11.3	11.3	0.0
	중	538	44.6	25.7	15.6	15.6	0.0
	하	529	43.1	28.2	14.4	14.4	0.2

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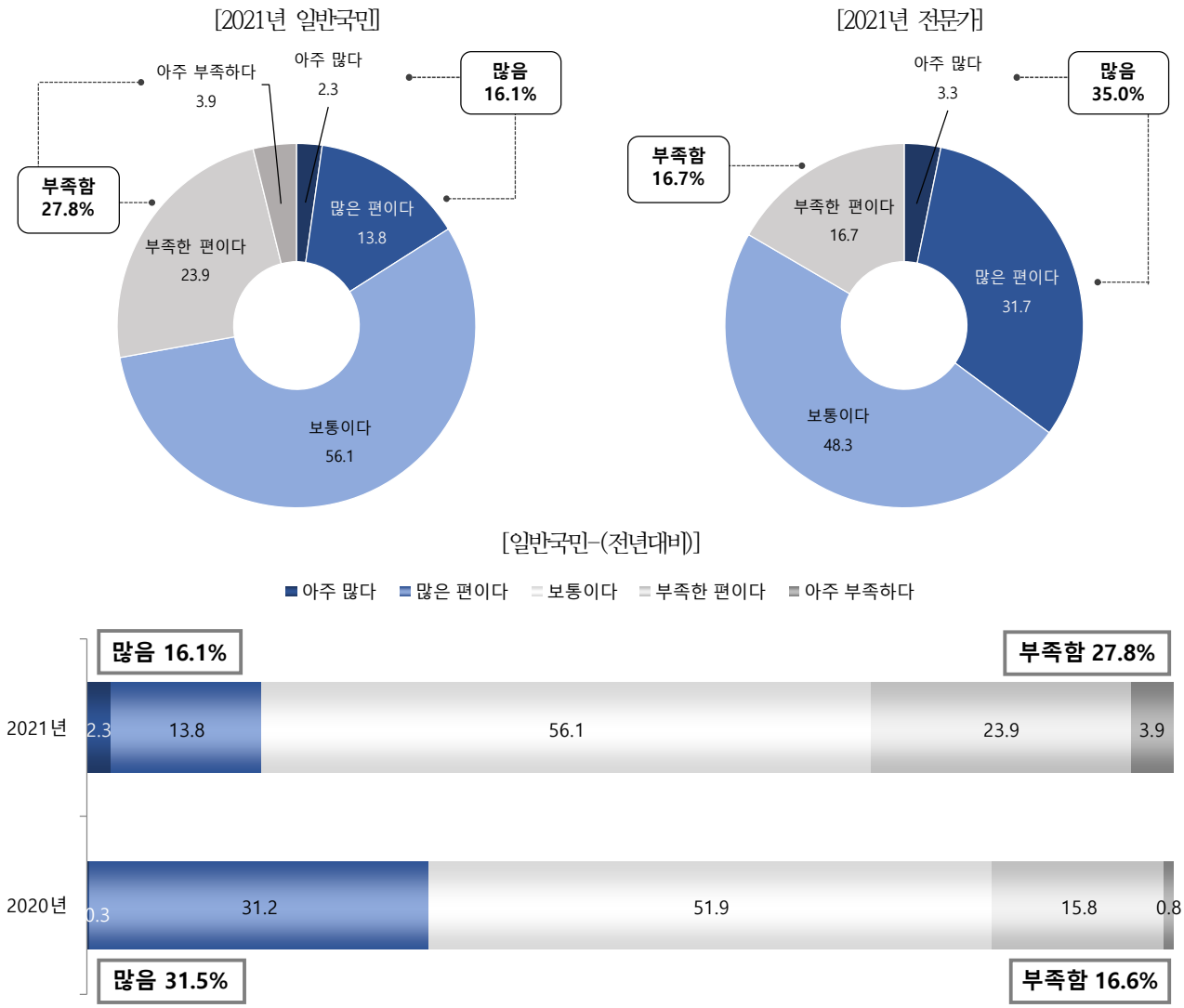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16.1%, 전문가 3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27.8%로, '많다'(16.1%)보다 11.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많다'는 15.4%p(2020년 31.5%) 감소하였고, '부족하다'는 11.2%p(2020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35.0%로, '부족하다'(16.7%)보다 18.3%p 높게 나타남.

〈그림 5-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특성별 분석]

◉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많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서울',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단위[%]		사례수 (명)	아주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아주 부족하다	종합		
								많음	보통	부족함
전체		1,260	2.3	14.7	55.7	23.6	3.7	17.0	55.7	27.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13.8	56.1	23.9	3.9	16.1	56.1	27.8
	전문가	60	3.3	31.7	48.3	16.7	0.0	35.0	48.3	1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7	16.6	48.9	26.9	5.0	19.2	48.9	31.8
	중	479	1.7	11.9	64.3	19.2	2.9	13.6	64.3	22.1
	하	118	2.5	7.6	59.3	28.0	2.5	10.2	59.3	30.5
성별	남성	720	2.9	16.9	51.7	23.8	4.7	19.9	51.7	28.5
	여성	480	1.3	9.2	62.7	24.2	2.7	10.4	62.7	26.9
연령별	20대 이하	235	3.8	13.6	53.6	26.0	3.0	17.4	53.6	28.9
	30대	198	3.0	10.1	60.1	23.2	3.5	13.1	60.1	26.8
	40대	247	1.6	14.6	56.7	23.1	4.0	16.2	56.7	27.1
	50대	252	1.2	15.5	59.9	19.8	3.6	16.7	59.9	23.4
	60대 이상	268	1.9	14.6	51.1	27.2	5.2	16.4	51.1	32.5
지역별	서울	226	4.4	19.5	50.9	21.2	4.0	23.9	50.9	25.2
	경기/인천	384	1.6	14.1	58.6	21.6	4.2	15.6	58.6	25.8
	부산/울산/경남	184	2.2	9.8	52.2	31.5	4.3	12.0	52.2	35.9
	대구/경북	117	1.7	12.8	53.8	26.5	5.1	14.5	53.8	31.6
	광주/전라	112	0.0	13.4	57.1	24.1	5.4	13.4	57.1	29.5
	대전/충청/세종	129	2.3	11.6	64.3	20.2	1.6	14.0	64.3	21.7
	강원/제주	48	4.2	10.4	56.3	29.2	0.0	14.6	56.3	29.2
지역크기	대도시	537	2.4	15.8	52.9	25.0	3.9	18.2	52.9	28.9
	중소도시	601	2.0	12.0	58.4	23.6	4.0	14.0	58.4	27.6
	읍/면	62	3.2	14.5	61.3	17.7	3.2	17.7	61.3	21.0
직업별	농/어/임업	14	0.0	28.6	35.7	35.7	0.0	28.6	35.7	35.7
	자영업자	85	2.4	17.6	50.6	27.1	2.4	20.0	50.6	29.4
	판매/서비스직	85	3.5	16.5	55.3	24.7	0.0	20.0	55.3	24.7
	기능/숙련공	42	2.4	14.3	59.5	21.4	2.4	16.7	59.5	23.8
	일반 노무직	49	0.0	10.2	61.2	26.5	2.0	10.2	61.2	28.6
	사무/기술직	460	3.0	14.8	54.6	23.5	4.1	17.8	54.6	27.6
	경영/관리직	66	3.0	15.2	57.6	18.2	6.1	18.2	57.6	24.2
	전문/자유직	72	0.0	13.9	55.6	25.0	5.6	13.9	55.6	30.6
	전업주부	136	0.7	4.4	65.4	25.0	4.4	5.1	65.4	29.4
	학생	62	3.2	21.0	46.8	22.6	6.5	24.2	46.8	29.0
	무직	122	1.6	11.5	59.8	22.1	4.9	13.1	59.8	27.0
	기타	7	0.0	14.3	42.9	42.9	0.0	14.3	42.9	42.9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0.0	83.3	16.7	0.0	0.0	83.3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0.0	12.4	58.9	25.4	3.2	12.4	58.9	28.6
	전문대(중퇴/졸업)	162	3.7	16.7	57.4	19.8	2.5	20.4	57.4	22.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4	13.3	55.0	25.0	4.3	15.6	55.0	29.3
	대학원 이상	124	3.2	16.1	54.8	21.0	4.8	19.4	54.8	25.8
생활수준별	상	133	5.3	20.3	48.1	23.3	3.0	25.6	48.1	26.3
	중	538	2.2	13.4	56.9	23.8	3.7	15.6	56.9	27.5
	하	529	1.5	12.7	57.3	24.2	4.3	14.2	57.3	28.5

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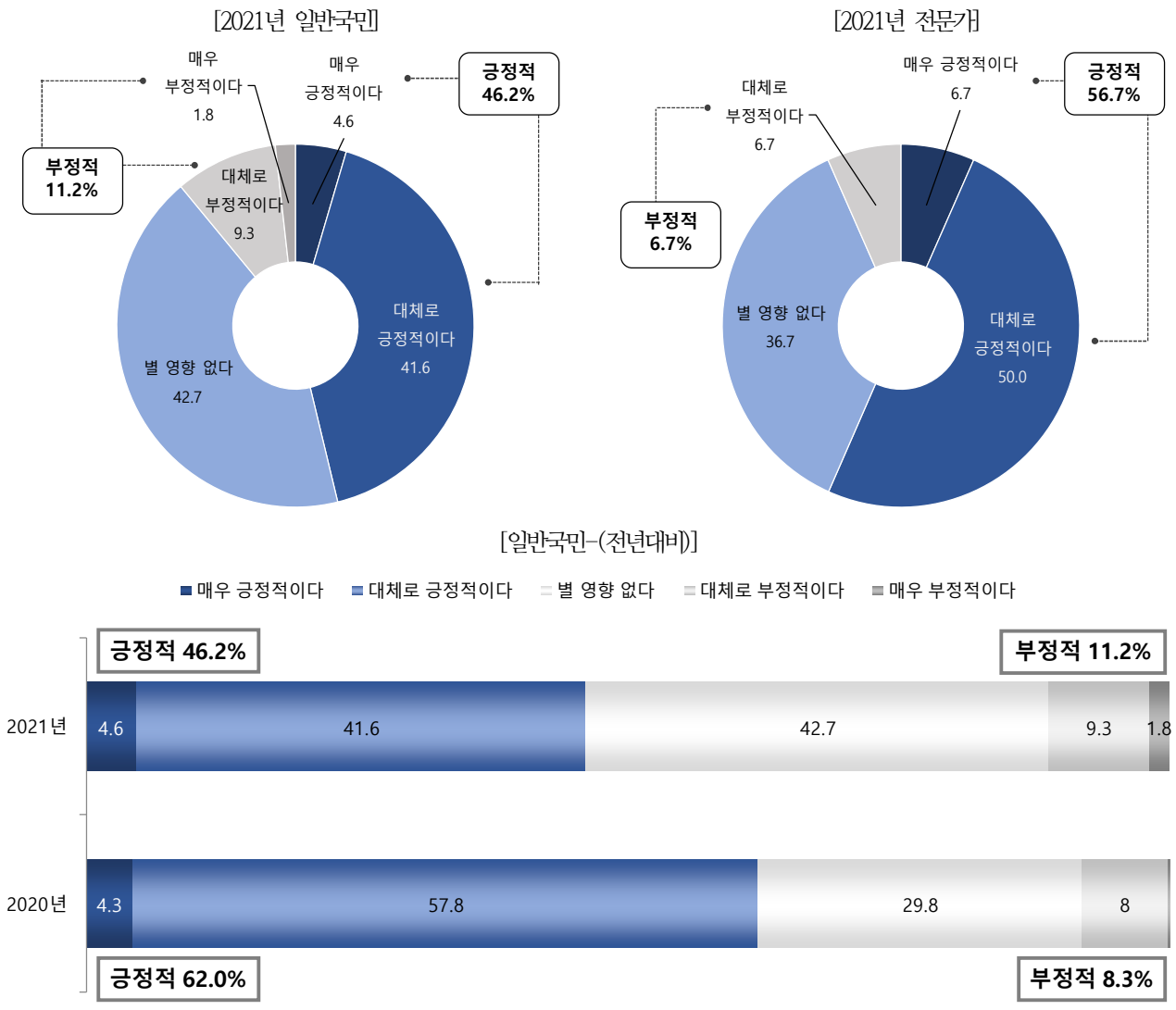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6.2%, 전문가 5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46.2%로, '부정적이다'는 응답 11.2% 보다 35.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긍정적이다'는 15.8%p(2020년 62.0%) 감소하였고, '부정적이다'는 2.9%p(2020년 8.3%) 증가하였음.

● **[전문가]**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6.7%로, '부정적이다'는 응답 6.7% 보다 50.0%p 높게 나타남.

〈그림 5-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특성별 분석]

◉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남.

〈표 5-9〉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별 영향 없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종합		
								긍적적	부정적	영향 없음
전체		1,260	4.7	42.0	42.4	9.2	1.7	46.7	11.0	42.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6	41.6	42.7	9.3	1.8	46.2	11.2	42.7
	전문가	60	6.7	50.0	36.7	6.7	0.0	56.7	6.7	36.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7.1	47.8	34.2	9.0	2.0	54.9	10.9	34.2
	중	479	2.3	34.9	52.2	9.6	1.0	37.2	10.6	52.2
	하	118	0.8	37.3	47.5	10.2	4.2	38.1	14.4	47.5
성별	남성	720	5.0	44.0	39.2	9.4	2.4	49.0	11.8	39.2
	여성	480	4.0	37.9	47.9	9.2	1.0	41.9	10.2	47.9
연령별	20대 이하	235	6.0	34.5	43.4	13.6	2.6	40.4	16.2	43.4
	30대	198	3.0	38.4	47.0	9.1	2.5	41.4	11.6	47.0
	40대	247	3.6	37.7	47.8	8.9	2.0	41.3	10.9	47.8
	50대	252	4.0	44.0	40.5	10.3	1.2	48.0	11.5	40.5
	60대 이상	268	6.0	51.5	36.2	5.2	1.1	57.5	6.3	36.2
지역별	서울	226	3.1	45.1	37.6	11.1	3.1	48.2	14.2	37.6
	경기/인천	384	4.4	38.3	46.6	9.1	1.6	42.7	10.7	46.6
	부산/울산/경남	184	6.5	39.1	42.9	8.7	2.7	45.7	11.4	42.9
	대구/경북	117	3.4	43.6	42.7	9.4	0.9	47.0	10.3	42.7
	광주/전라	112	6.3	46.4	36.6	9.8	0.9	52.7	10.7	36.6
	대전/충청/세종	129	4.7	40.3	48.1	6.2	0.8	45.0	7.0	48.1
	강원/제주	48	4.2	47.9	33.3	12.5	2.1	52.1	14.6	33.3
지역크기	대도시	537	3.2	41.0	41.9	11.5	2.4	44.1	14.0	41.9
	중소도시	601	5.7	41.4	44.1	7.7	1.2	47.1	8.8	44.1
	읍/면	62	6.5	48.4	35.5	6.5	3.2	54.8	9.7	35.5
직업별	농/어/임업	14	14.3	50.0	28.6	7.1	0.0	64.3	7.1	28.6
	자영업자	85	4.7	45.9	38.8	9.4	1.2	50.6	10.6	38.8
	판매/서비스직	85	1.2	50.6	41.2	7.1	0.0	51.8	7.1	41.2
	기능/숙련공	42	4.8	35.7	50.0	9.5	0.0	40.5	9.5	50.0
	일반 노무직	49	0.0	36.7	53.1	10.2	0.0	36.7	10.2	53.1
	사무/기술직	460	3.7	40.7	41.3	11.1	3.3	44.3	14.3	41.3
	경영/관리직	66	6.1	40.9	42.4	10.6	0.0	47.0	10.6	42.4
	전문/자유직	72	9.7	47.2	34.7	5.6	2.8	56.9	8.3	34.7
	전업주부	136	8.1	34.6	50.7	5.9	0.7	42.6	6.6	50.7
	학생	62	8.1	27.4	43.5	16.1	4.8	35.5	21.0	43.5
	무직	122	1.6	48.4	43.4	6.6	0.0	50.0	6.6	43.4
	기타	7	0.0	85.7	14.3	0.0	0.0	85.7	0.0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16.7	66.7	0.0	0.0	33.3	0.0	6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8	42.2	44.9	7.6	1.6	45.9	9.2	44.9
	전문대(중퇴/졸업)	162	3.7	39.5	50.6	6.2	0.0	43.2	6.2	50.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1	41.5	41.2	10.7	2.5	45.6	13.1	41.2
	대학원 이상	124	8.9	45.2	36.3	8.9	0.8	54.0	9.7	36.3
생활수준별	상	133	6.8	44.4	39.8	7.5	1.5	51.1	9.0	39.8
	중	538	5.0	41.3	43.1	9.1	1.5	46.3	10.6	43.1
	하	529	3.6	41.2	42.9	10.0	2.3	44.8	12.3	42.9

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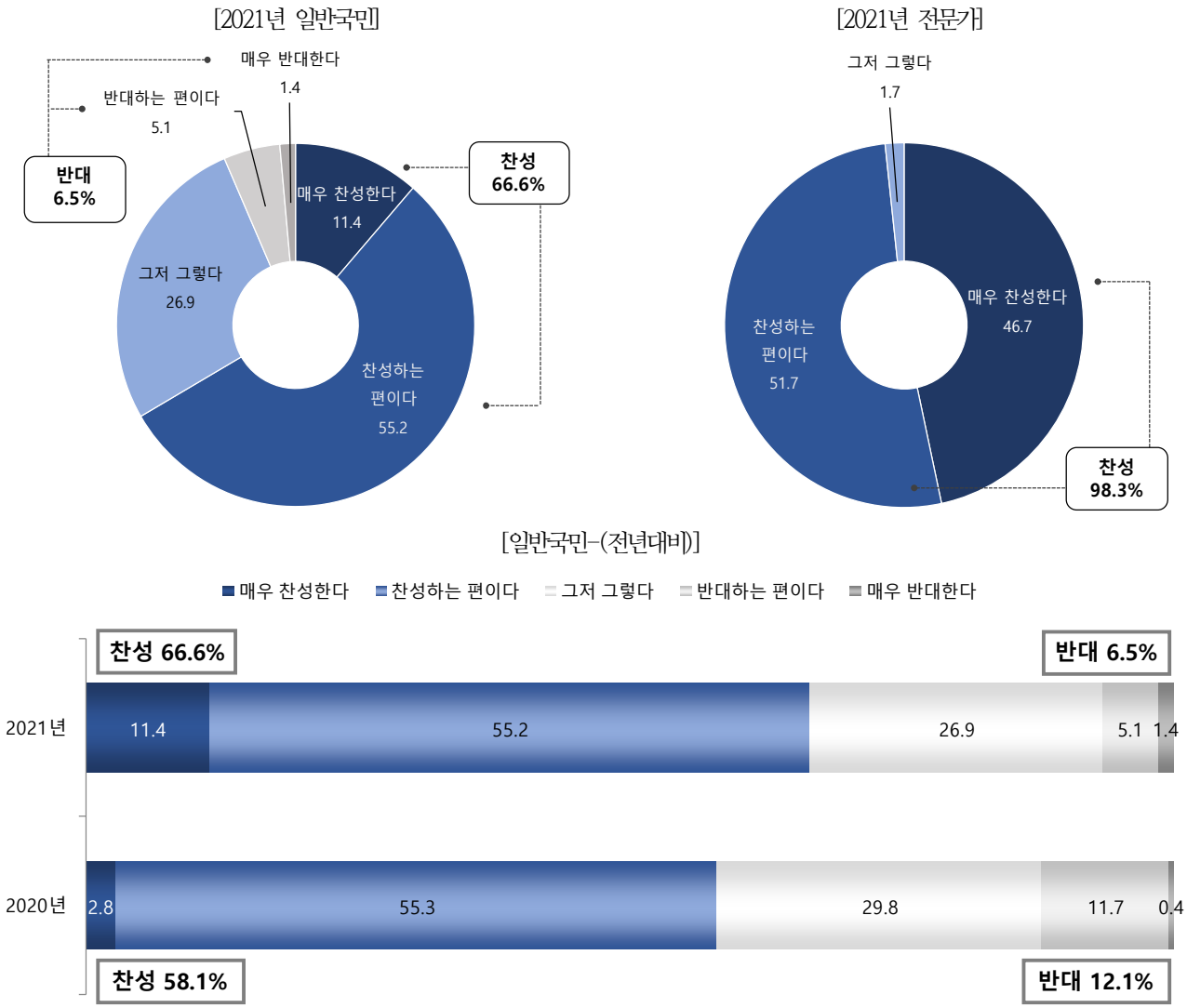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6.6%, 전문가 9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6.6%로, '반대한다'(6.5%)보다 60.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8.5%p(2020년 58.1%), '반대한다'는 5.6%p(2020년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98.3%로 높게 나타남.(반대 : 0.0%)

〈그림 5-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특성별 분석]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경영/관리직'(n=66)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0〉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13.1	55.0	25.7	4.8	1.3	68.1	25.7	6.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4	55.2	26.9	5.1	1.4	66.6	26.9	6.5
	전문가	60	46.7	51.7	1.7	0.0	0.0	98.3	1.7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6.4	59.0	19.1	4.0	1.5	75.5	19.1	5.5
	중	479	6.3	51.8	34.7	6.3	1.0	58.0	34.7	7.3
	하	118	6.8	49.2	35.6	5.9	2.5	55.9	35.6	8.5
성별	남성	720	15.4	56.0	22.6	4.4	1.5	71.4	22.6	6.0
	여성	480	5.4	54.0	33.3	6.0	1.3	59.4	33.3	7.3
연령별	20대 이하	235	10.2	47.7	32.3	6.8	3.0	57.9	32.3	9.8
	30대	198	11.1	46.0	32.8	9.6	0.5	57.1	32.8	10.1
	40대	247	9.3	55.1	28.7	4.9	2.0	64.4	28.7	6.9
	50대	252	12.7	65.1	20.6	1.6	0.0	77.8	20.6	1.6
	60대 이상	268	13.4	59.3	22.0	3.7	1.5	72.8	22.0	5.2
지역별	서울	226	12.8	50.9	31.0	4.0	1.3	63.7	31.0	5.3
	경기/인천	384	9.4	56.0	27.6	5.2	1.8	65.4	27.6	7.0
	부산/울산/경남	184	14.1	53.3	24.5	6.0	2.2	67.4	24.5	8.2
	대구/경북	117	12.0	54.7	28.2	3.4	1.7	66.7	28.2	5.1
	광주/전라	112	13.4	62.5	17.9	5.4	0.9	75.9	17.9	6.3
	대전/충청/세종	129	9.3	61.2	24.8	4.7	0.0	70.5	24.8	4.7
	강원/제주	48	10.4	43.8	35.4	10.4	0.0	54.2	35.4	10.4
지역크기	대도시	537	10.8	51.8	30.4	5.2	1.9	62.6	30.4	7.1
	중소도시	601	12.1	57.4	24.5	4.8	1.2	69.6	24.5	6.0
	읍/면	62	9.7	62.9	21.0	6.5	0.0	72.6	21.0	6.5
직업별	농/어/임업	14	35.7	35.7	21.4	7.1	0.0	71.4	21.4	7.1
	자영업자	85	15.3	60.0	18.8	5.9	0.0	75.3	18.8	5.9
	판매/서비스직	85	4.7	60.0	31.8	1.2	2.4	64.7	31.8	3.5
	기능/숙련공	42	9.5	57.1	28.6	4.8	0.0	66.7	28.6	4.8
	일반 노무직	49	6.1	49.0	40.8	2.0	2.0	55.1	40.8	4.1
	사무/기술직	460	11.5	52.8	26.7	6.5	2.4	64.3	26.7	8.9
	경영/관리직	66	15.2	63.6	15.2	6.1	0.0	78.8	15.2	6.1
	전문/자유직	72	18.1	51.4	25.0	5.6	0.0	69.4	25.0	5.6
	전업주부	136	5.9	60.3	28.7	4.4	0.7	66.2	28.7	5.1
	학생	62	14.5	38.7	33.9	9.7	3.2	53.2	33.9	12.9
	무직	122	11.5	60.7	27.0	0.8	0.0	72.1	27.0	0.8
	기타	7	14.3	71.4	14.3	0.0	0.0	85.7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16.7	66.7	0.0	0.0	33.3	6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9.7	56.8	28.6	2.7	2.2	66.5	28.6	4.9
	전문대(중퇴/졸업)	162	9.9	56.8	24.7	6.8	1.9	66.7	24.7	8.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1.8	54.2	27.4	5.3	1.4	66.0	27.4	6.6
	대학원 이상	124	13.7	58.1	22.6	5.6	0.0	71.8	22.6	5.6
생활수준별	상	133	11.3	57.1	25.6	5.3	0.8	68.4	25.6	6.0
	중	538	10.8	56.3	26.2	5.2	1.5	67.1	26.2	6.7
	하	529	12.1	53.5	28.0	4.9	1.5	65.6	28.0	6.4

11. 위험 지역 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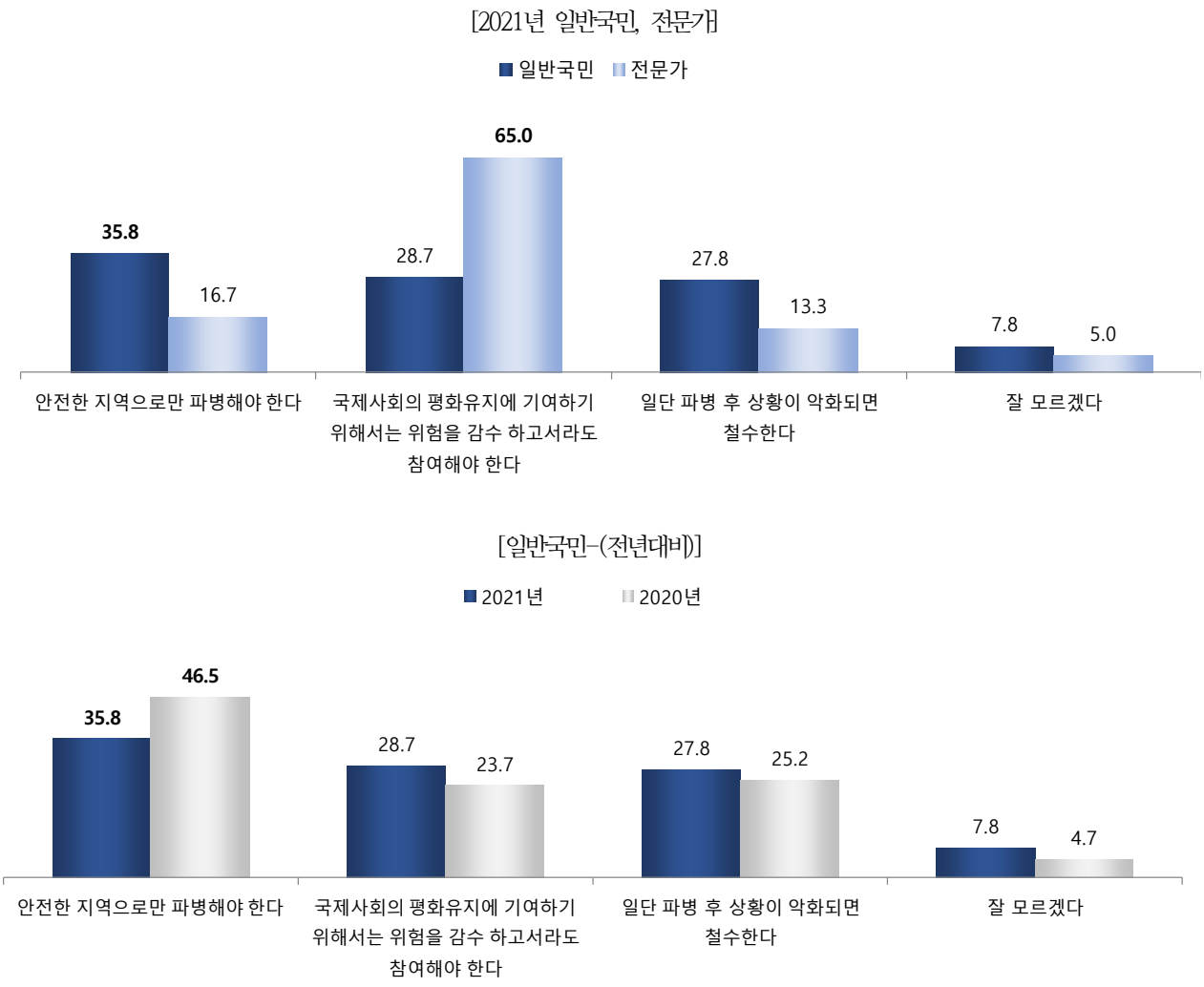
위험 지역에 파병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35.8%), 전문가는 '국제사회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65.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위험 지역에 파병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제사회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 감수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28.7%),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2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0.7%p(2020년 46.5%) 감소하였고, '국제사회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 감수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5.0%p(2020년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국제사회 평화유지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1〉 위험 지역 파병



[특성별 분석]

◉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중',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1〉 위험 지역 파병

단위[%]		사례수 (명)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0	34.8	30.4	27.1	7.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5.8	28.7	27.8	7.8
	전문가	60	16.7	65.0	13.3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2.0	38.5	25.4	4.1
	중	479	40.7	19.0	29.2	11.1
	하	118	34.7	17.8	33.9	13.6
성별	남성	720	33.1	36.5	24.9	5.6
	여성	480	39.8	16.9	32.1	11.3
연령별	20대 이하	235	35.3	20.9	29.4	14.5
	30대	198	40.9	21.7	30.8	6.6
	40대	247	36.0	27.9	31.2	4.9
	50대	252	38.5	33.3	22.2	6.0
	60대 이상	268	29.5	36.9	26.1	7.5
지역별	서울	226	33.6	31.9	28.8	5.8
	경기/인천	384	37.0	26.3	28.4	8.3
	부산/울산/경남	184	36.4	29.3	27.7	6.5
	대구/경북	117	35.9	33.3	18.8	12.0
	광주/전라	112	38.4	31.3	24.1	6.3
	대전/충청/세종	129	32.6	25.6	31.8	10.1
	강원/제주	48	35.4	20.8	37.5	6.3
지역크기	대도시	537	35.9	28.3	29.4	6.3
	중소도시	601	35.4	29.0	26.5	9.2
	읍/면	62	37.1	29.0	25.8	8.1
직업별	농/어/임업	14	42.9	35.7	14.3	7.1
	자영업자	85	34.1	40.0	23.5	2.4
	판매/서비스직	85	40.0	31.8	21.2	7.1
	기능/숙련공	42	47.6	26.2	21.4	4.8
	일반 노무직	49	32.7	20.4	30.6	16.3
	사무/기술직	460	37.6	28.3	29.1	5.0
	경영/관리직	66	22.7	48.5	25.8	3.0
	전문/자유직	72	31.9	36.1	26.4	5.6
	전업주부	136	41.9	19.9	25.7	12.5
	학생	62	32.3	16.1	30.6	21.0
	무직	122	27.9	24.6	36.1	11.5
	기타	7	28.6	28.6	14.3	28.6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33.3	33.3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3.2	22.7	23.8	10.3
	전문대(중퇴/졸업)	162	41.4	21.0	31.5	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3.7	31.1	27.1	8.0
	대학원 이상	124	30.6	33.1	32.3	4.0
생활수준별	상	133	34.6	33.8	26.3	5.3
	중	538	35.5	29.9	28.4	6.1
	하	529	36.3	26.1	27.4	10.2

12.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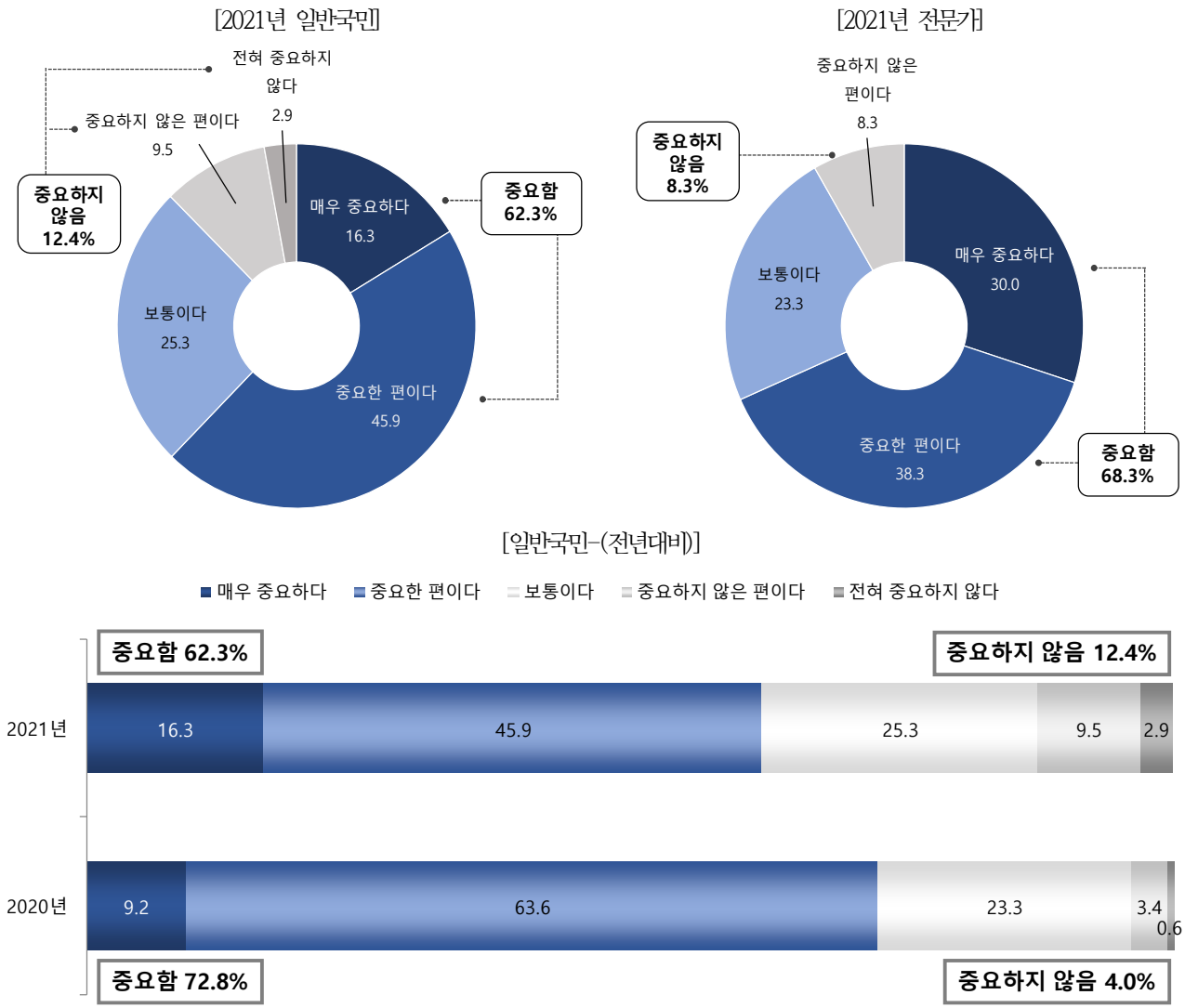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일반국민(62.3%), 전문가(68.3%)로 나타남.

● **[일반국민]**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62.3%로 '중요하지 않다'(12.4%)라는 응답보다 49.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10.5%p(2020년 72.8%) 감소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4%p(2020년 4.0%) 증가하였음.

● **[전문가]**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68.3%로 '중요하지 않다'(8.3%)는 응답 보다 60.0%p 높게 나타남.

〈그림 5-12〉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특성별 분석]

◉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크기별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2〉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체		1,260	17.0	45.6	25.2	9.4	2.8	62.5	25.2	12.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6.3	45.9	25.3	9.5	2.9	62.3	25.3	12.4
	전문가	60	30.0	38.3	23.3	8.3	0.0	68.3	23.3	8.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24.0	47.9	16.4	8.8	2.8	72.0	16.4	11.6
	중	479	7.5	44.9	35.5	9.8	2.3	52.4	35.5	12.1
	하	118	12.7	39.8	29.7	11.9	5.9	52.5	29.7	17.8
성별	남성	720	20.3	44.6	22.4	9.6	3.2	64.9	22.4	12.8
	여성	480	10.4	47.9	29.8	9.4	2.5	58.3	29.8	11.9
연령별	20대 이하	235	13.2	43.8	28.5	9.4	5.1	57.0	28.5	14.5
	30대	198	10.1	47.0	26.8	11.1	5.1	57.1	26.8	16.2
	40대	247	14.6	45.3	30.0	8.5	1.6	59.9	30.0	10.1
	50대	252	15.5	45.6	24.6	11.9	2.4	61.1	24.6	14.3
	60대 이상	268	26.1	47.8	17.9	7.1	1.1	73.9	17.9	8.2
지역별	서울	226	15.5	43.4	27.0	10.6	3.5	58.8	27.0	14.2
	경기/인천	384	12.8	46.9	28.4	9.1	2.9	59.6	28.4	12.0
	부산/울산/경남	184	20.1	46.7	20.1	10.3	2.7	66.8	20.1	13.0
	대구/경북	117	21.4	45.3	18.8	12.0	2.6	66.7	18.8	14.5
	광주/전라	112	16.1	47.3	24.1	9.8	2.7	63.4	24.1	12.5
	대전/충청/세종	129	18.6	44.2	28.7	6.2	2.3	62.8	28.7	8.5
	강원/제주	48	16.7	50.0	22.9	6.3	4.2	66.7	22.9	10.4
지역크기	대도시	537	15.5	44.9	26.3	10.2	3.2	60.3	26.3	13.4
	중소도시	601	16.8	46.4	25.5	8.5	2.8	63.2	25.5	11.3
	읍/면	62	19.4	50.0	16.1	12.9	1.6	69.4	16.1	14.5
직업별	농/어/임업	14	21.4	57.1	7.1	14.3	0.0	78.6	7.1	14.3
	자영업자	85	18.8	50.6	17.6	12.9	0.0	69.4	17.6	12.9
	판매/서비스직	85	7.1	60.0	27.1	4.7	1.2	67.1	27.1	5.9
	기능/숙련공	42	14.3	45.2	31.0	9.5	0.0	59.5	31.0	9.5
	일반 노무직	49	20.4	44.9	30.6	4.1	0.0	65.3	30.6	4.1
	사무/기술직	460	16.7	42.4	25.2	12.0	3.7	59.1	25.2	15.7
	경영/관리직	66	19.7	50.0	16.7	10.6	3.0	69.7	16.7	13.6
	전문/자유직	72	20.8	52.8	15.3	6.9	4.2	73.6	15.3	11.1
	전업주부	136	14.7	37.5	38.2	7.4	2.2	52.2	38.2	9.6
	학생	62	8.1	43.5	33.9	4.8	9.7	51.6	33.9	14.5
	무직	122	20.5	47.5	20.5	9.0	2.5	68.0	20.5	11.5
	기타	7	0.0	85.7	14.3	0.0	0.0	85.7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16.7	33.3	16.7	0.0	50.0	33.3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8.9	44.9	28.1	8.1	0.0	63.8	28.1	8.1
	전문대(중퇴/졸업)	162	14.8	50.6	24.1	9.3	1.2	65.4	24.1	10.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4.9	46.1	25.0	9.8	4.1	61.0	25.0	14.0
	대학원 이상	124	21.8	41.9	24.2	9.7	2.4	63.7	24.2	12.1
생활수준별	상	133	18.8	42.9	24.8	9.0	4.5	61.7	24.8	13.5
	중	538	13.4	47.4	25.8	9.9	3.5	60.8	25.8	13.4
	하	529	18.7	45.2	25.0	9.3	1.9	63.9	25.0	11.2

13.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13-1. 테러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34.5%, 전문가 6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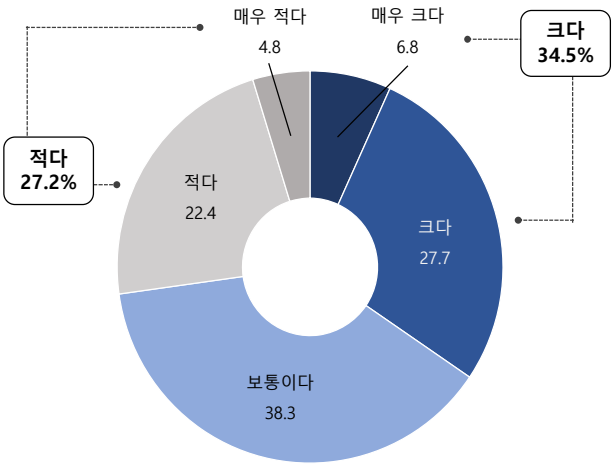
● **[일반국민]**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34.5%로, '적다'(27.2%)보다 7.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8.2%p(2020년 42.7%) 감소하였고, '적다'는 응답은 4.6%p (2020년 22.6%)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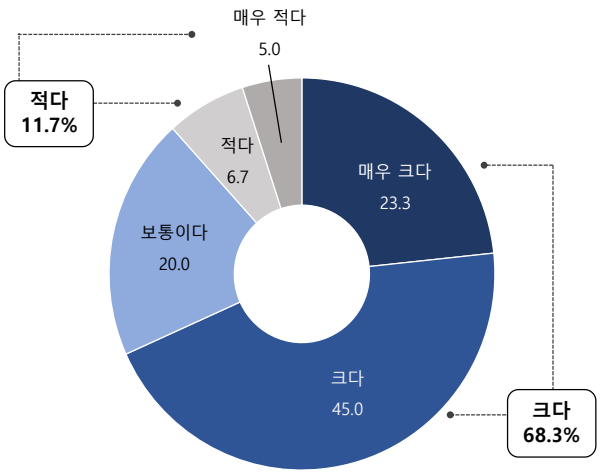
● **[전문가]**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68.3%로, '적다'(11.7%)는 응답보다 56.6%p 높게 나타남.

〈그림 5-13-1〉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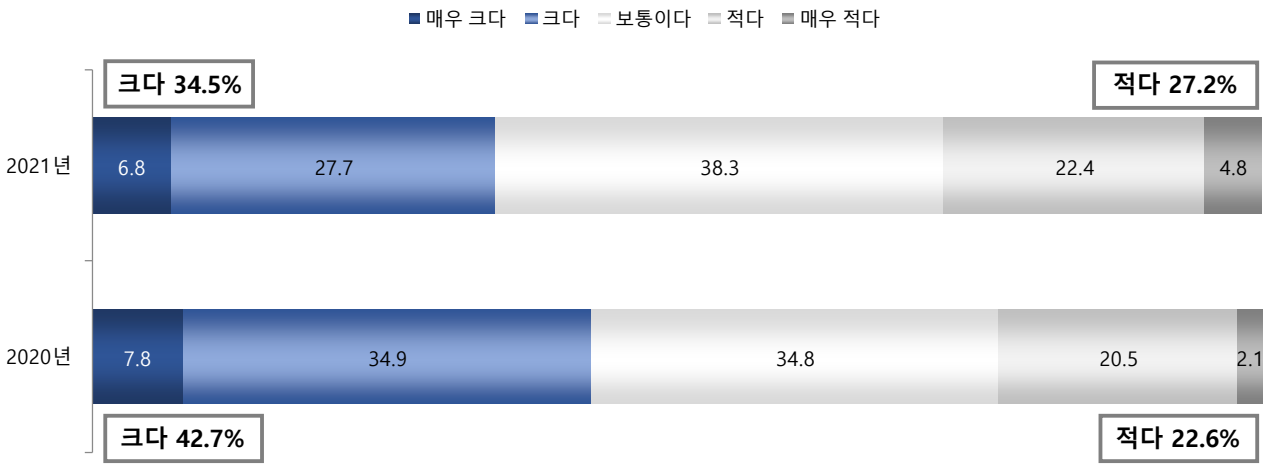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테러 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서울', 직업별로 '농/어/임업'(n=14), 생활수준별로 '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3-1〉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테러

단위[%]		사례수(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큼	보통	적음
전체		1,260	7.6	28.5	37.5	21.7	4.8	36.1	37.5	26.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8	27.7	38.3	22.4	4.8	34.5	38.3	27.2
	전문가	60	23.3	45.0	20.0	6.7	5.0	68.3	20.0	1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8.0	28.9	33.5	23.9	5.8	36.8	33.5	29.7
	중	479	5.8	25.7	44.3	20.7	3.5	31.5	44.3	24.2
	하	118	5.1	29.7	39.0	22.0	4.2	34.7	39.0	26.3
성별	남성	720	7.2	26.7	36.9	23.8	5.4	33.9	36.9	29.2
	여성	480	6.3	29.2	40.4	20.4	3.8	35.4	40.4	24.2
연령별	20대 이하	235	9.8	26.0	33.2	23.0	8.1	35.7	33.2	31.1
	30대	198	9.1	25.3	41.9	21.2	2.5	34.3	41.9	23.7
	40대	247	3.6	24.3	40.9	24.3	6.9	27.9	40.9	31.2
	50대	252	4.8	27.4	39.7	24.2	4.0	32.1	39.7	28.2
	60대 이상	268	7.5	34.3	36.6	19.4	2.2	41.8	36.6	21.6
지역별	서울	226	8.4	34.1	31.4	21.2	4.9	42.5	31.4	26.1
	경기/인천	384	5.2	29.2	37.8	22.4	5.5	34.4	37.8	27.9
	부산/울산/경남	184	8.7	26.1	40.2	22.8	2.2	34.8	40.2	25.0
	대구/경북	117	6.0	21.4	41.0	23.9	7.7	27.4	41.0	31.6
	광주/전라	112	7.1	18.8	47.3	23.2	3.6	25.9	47.3	26.8
	대전/충청/세종	129	7.0	26.4	38.8	24.8	3.1	33.3	38.8	27.9
	강원/제주	48	6.3	31.3	39.6	14.6	8.3	37.5	39.6	22.9
지역크기	대도시	537	7.8	29.6	38.2	20.9	3.5	37.4	38.2	24.4
	중소도시	601	5.7	26.3	38.4	23.8	5.8	31.9	38.4	29.6
	읍/면	62	9.7	24.2	38.7	22.6	4.8	33.9	38.7	27.4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35.7	21.4	14.3	0.0	64.3	21.4	14.3
	자영업자	85	5.9	25.9	38.8	24.7	4.7	31.8	38.8	29.4
	판매/서비스직	85	7.1	22.4	52.9	16.5	1.2	29.4	52.9	17.6
	기능/숙련공	42	11.9	31.0	35.7	16.7	4.8	42.9	35.7	21.4
	일반 노무직	49	8.2	26.5	40.8	20.4	4.1	34.7	40.8	24.5
	사무/기술직	460	6.3	26.7	37.2	23.7	6.1	33.0	37.2	29.8
	경영/관리직	66	4.5	30.3	30.3	30.3	4.5	34.8	30.3	34.8
	전문/자유직	72	8.3	29.2	34.7	25.0	2.8	37.5	34.7	27.8
	전업주부	136	5.9	30.9	39.7	21.3	2.2	36.8	39.7	23.5
	학생	62	6.5	21.0	29.0	30.6	12.9	27.4	29.0	43.5
	무직	122	6.6	31.1	43.4	15.6	3.3	37.7	43.4	18.9
	기타	7	0.0	42.9	42.9	14.3	0.0	42.9	42.9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66.7	0.0	16.7	16.7	66.7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7.0	27.6	46.5	17.3	1.6	34.6	46.5	18.9
	전문대(중퇴/졸업)	162	8.6	26.5	41.4	17.9	5.6	35.2	41.4	23.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6.6	26.1	36.8	24.6	5.8	32.8	36.8	30.4
	대학원 이상	124	5.6	38.7	29.8	24.2	1.6	44.4	29.8	25.8
생활수준별	상	133	5.3	34.6	38.3	16.5	5.3	39.8	38.3	21.8
	중	538	6.1	26.8	37.7	24.0	5.4	32.9	37.7	29.4
	하	529	7.9	26.8	38.9	22.3	4.0	34.8	38.9	26.3

13-2. 해적, 마약, 조직범죄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43.4%, 전문가 45.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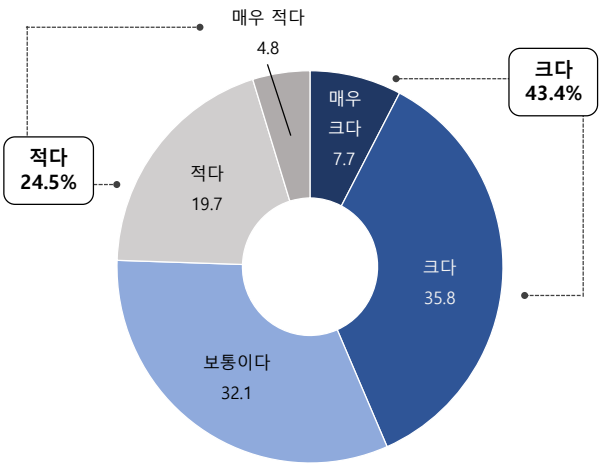
● **[일반국민]**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3.4%로, '적다'(24.5%)보다 18.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0.7%p(2020년 42.7%), '적다'는 응답은 2.6%p (2020년 21.9%)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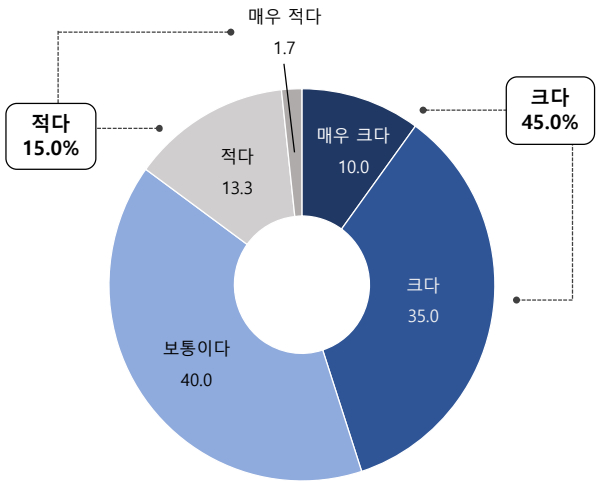
● **[전문가]**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5.0%로, '적다'(15.0%)는 응답보다 30.0%p 높게 나타남.

〈그림 5-13-2〉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해적, 마약, 조직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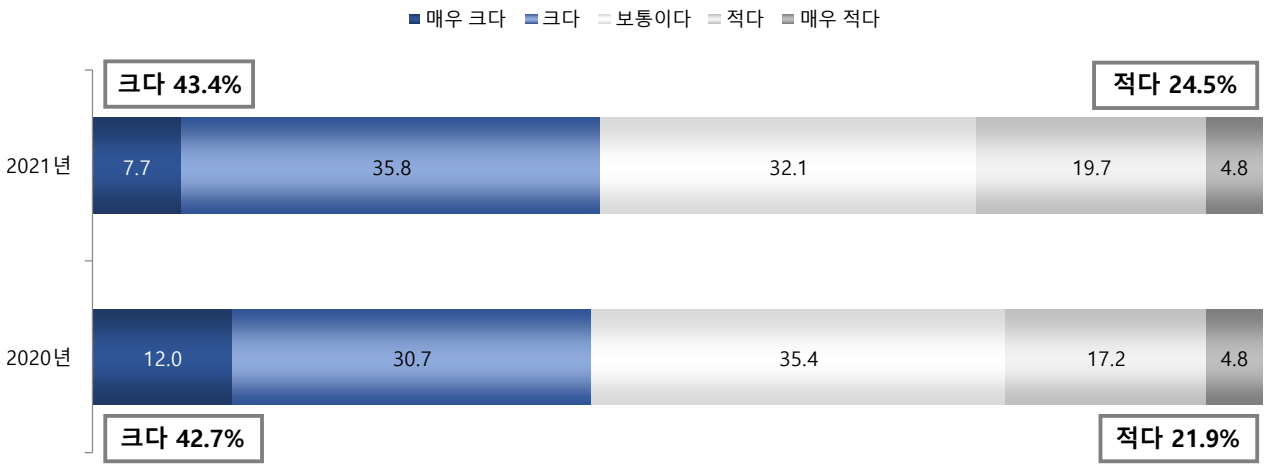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해적, 마약, 조직범죄 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에서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3-2〉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해적, 마약, 조직범죄

단위[%]		사례수(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큼	보통	적음
전체		1,260	7.8	35.7	32.5	19.4	4.7	43.5	32.5	2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7	35.8	32.1	19.7	4.8	43.4	32.1	24.5
	전문가	60	10.0	35.0	40.0	13.3	1.7	45.0	40.0	1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8.5	36.8	27.7	20.9	6.1	45.3	27.7	27.0
	중	479	6.9	34.7	38.2	17.5	2.7	41.5	38.2	20.3
	하	118	6.8	34.7	29.7	22.0	6.8	41.5	29.7	28.8
성별	남성	720	7.6	33.6	32.5	21.3	5.0	41.3	32.5	26.3
	여성	480	7.7	39.0	31.5	17.3	4.6	46.7	31.5	21.9
연령별	20대 이하	235	6.4	28.5	33.2	25.1	6.8	34.9	33.2	31.9
	30대	198	11.6	30.3	35.9	15.7	6.6	41.9	35.9	22.2
	40대	247	7.3	32.4	33.6	20.2	6.5	39.7	33.6	26.7
	50대	252	3.6	40.5	32.9	20.2	2.8	44.0	32.9	23.0
	60대 이상	268	10.1	44.8	26.1	16.8	2.2	54.9	26.1	19.0
지역별	서울	226	7.5	40.3	28.8	20.4	3.1	47.8	28.8	23.5
	경기/인천	384	7.0	34.1	32.0	21.1	5.7	41.1	32.0	26.8
	부산/울산/경남	184	9.8	34.2	31.0	20.1	4.9	44.0	31.0	25.0
	대구/경북	117	6.8	30.8	37.6	20.5	4.3	37.6	37.6	24.8
	광주/전라	112	6.3	42.0	29.5	16.1	6.3	48.2	29.5	22.3
	대전/충청/세종	129	7.0	34.1	36.4	18.6	3.9	41.1	36.4	22.5
	강원/제주	48	12.5	35.4	33.3	12.5	6.3	47.9	33.3	18.8
지역크기	대도시	537	8.2	40.2	29.6	18.8	3.2	48.4	29.6	22.0
	중소도시	601	7.2	31.3	34.8	20.5	6.3	38.4	34.8	26.8
	읍/면	62	8.1	40.3	27.4	19.4	4.8	48.4	27.4	24.2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50.0	7.1	14.3	0.0	78.6	7.1	14.3
	자영업자	85	4.7	34.1	27.1	29.4	4.7	38.8	27.1	34.1
	판매/서비스직	85	10.6	47.1	28.2	12.9	1.2	57.6	28.2	14.1
	기능/숙련공	42	9.5	42.9	33.3	9.5	4.8	52.4	33.3	14.3
	일반 노무직	49	8.2	42.9	30.6	14.3	4.1	51.0	30.6	18.4
	사무/기술직	460	8.5	29.8	34.6	22.0	5.2	38.3	34.6	27.2
	경영/관리직	66	4.5	36.4	31.8	21.2	6.1	40.9	31.8	27.3
	전문/자유직	72	12.5	34.7	25.0	23.6	4.2	47.2	25.0	27.8
	전업주부	136	3.7	47.1	29.4	16.2	3.7	50.7	29.4	19.9
	학생	62	3.2	21.0	38.7	25.8	11.3	24.2	38.7	37.1
	무직	122	7.4	36.9	37.7	13.1	4.9	44.3	37.7	18.0
	기타	7	0.0	85.7	0.0	14.3	0.0	85.7	0.0	14.3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0.0	83.3	0.0	16.7	0.0	83.3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8.6	41.1	31.4	16.8	2.2	49.7	31.4	18.9
	전문대(중퇴/졸업)	162	8.6	37.0	34.0	17.3	3.1	45.7	34.0	20.4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6.5	33.5	33.3	20.5	6.2	40.0	33.3	26.7
	대학원 이상	124	12.1	41.1	21.0	23.4	2.4	53.2	21.0	25.8
생활수준별	상	133	6.8	39.8	29.3	18.0	6.0	46.6	29.3	24.1
	중	538	6.3	36.6	29.6	21.9	5.6	42.9	29.6	27.5
	하	529	9.3	33.8	35.3	17.8	3.8	43.1	35.3	21.6

13-3.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3.4%, 전문가 7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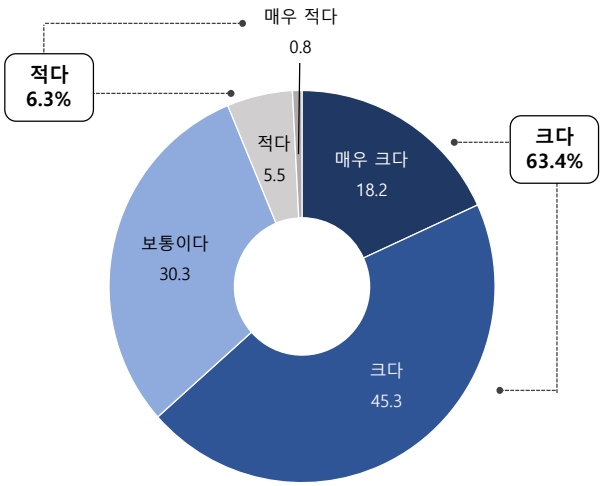
● **[일반국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63.4%로, '적다'(6.3%)보다 57.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4.3%p(2020년 67.7%), '적다'는 응답은 0.5%p(2020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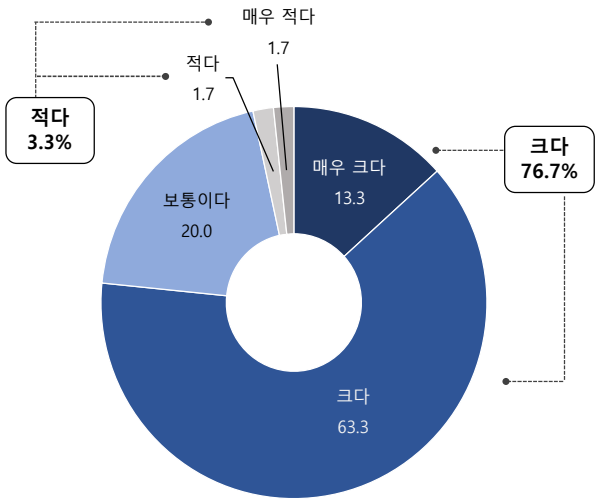
● **[전문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76.7%로, '적다'(3.3%)는 응답보다 73.4%p 높게 나타남.

〈그림 5-13-3〉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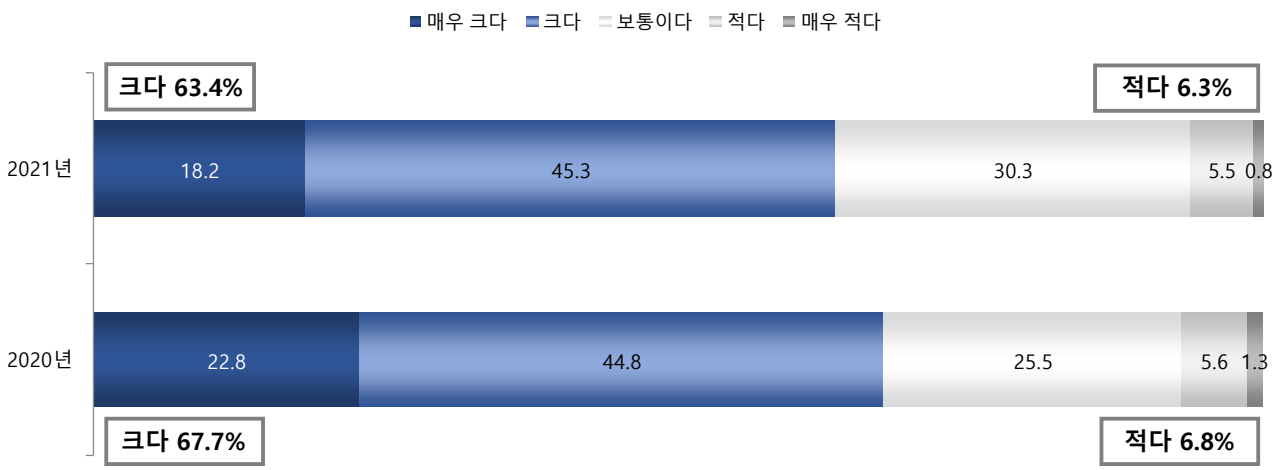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자연재해 부분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72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3-3〉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자연재해

단위[%]		사례수(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큼	보통	적음
전체		1,260	17.9	46.1	29.8	5.3	0.9	64.0	29.8	6.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2	45.3	30.3	5.5	0.8	63.4	30.3	6.3
	전문가	60	13.3	63.3	20.0	1.7	1.7	76.7	20.0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19.9	45.1	28.7	5.3	1.0	65.0	28.7	6.3
	중	479	17.5	45.5	31.3	5.4	0.2	63.0	31.3	5.6
	하	118	11.9	44.9	33.9	6.8	2.5	56.8	33.9	9.3
성별	남성	720	18.8	44.2	30.0	6.3	0.8	62.9	30.0	7.1
	여성	480	17.3	46.9	30.6	4.4	0.8	64.2	30.6	5.2
연령별	20대 이하	235	15.3	43.0	33.6	6.0	2.1	58.3	33.6	8.1
	30대	198	19.2	39.9	31.3	8.6	1.0	59.1	31.3	9.6
	40대	247	16.6	45.3	31.6	5.7	0.8	61.9	31.6	6.5
	50대	252	19.8	46.0	28.2	5.6	0.4	65.9	28.2	6.0
	60대 이상	268	19.8	50.4	27.2	2.6	0.0	70.1	27.2	2.6
지역별	서울	226	20.4	40.7	31.4	6.2	1.3	61.1	31.4	7.5
	경기/인천	384	14.3	47.7	32.0	5.2	0.8	62.0	32.0	6.0
	부산/울산/경남	184	19.0	44.6	30.4	6.0	0.0	63.6	30.4	6.0
	대구/경북	117	16.2	44.4	33.3	6.0	0.0	60.7	33.3	6.0
	광주/전라	112	21.4	50.9	22.3	3.6	1.8	72.3	22.3	5.4
	대전/충청/세종	129	15.5	45.0	31.0	7.0	1.6	60.5	31.0	8.5
	강원/제주	48	39.6	39.6	18.8	2.1	0.0	79.2	18.8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21.0	43.6	29.1	5.4	0.9	64.6	29.1	6.3
	중소도시	601	15.3	45.8	32.6	5.5	0.8	61.1	32.6	6.3
	읍/면	62	21.0	54.8	17.7	6.5	0.0	75.8	17.7	6.5
직업별	농/어/임업	14	50.0	14.3	35.7	0.0	0.0	64.3	35.7	0.0
	자영업자	85	12.9	50.6	28.2	8.2	0.0	63.5	28.2	8.2
	판매/서비스직	85	16.5	49.4	27.1	7.1	0.0	65.9	27.1	7.1
	기능/숙련공	42	21.4	35.7	38.1	4.8	0.0	57.1	38.1	4.8
	일반 노무직	49	12.2	38.8	32.7	12.2	4.1	51.0	32.7	16.3
	사무/기술직	460	19.1	45.9	29.1	4.6	1.3	65.0	29.1	5.9
	경영/관리직	66	21.2	40.9	28.8	9.1	0.0	62.1	28.8	9.1
	전문/자유직	72	26.4	40.3	29.2	2.8	1.4	66.7	29.2	4.2
	전업주부	136	17.6	47.1	32.4	2.9	0.0	64.7	32.4	2.9
	학생	62	12.9	35.5	37.1	12.9	1.6	48.4	37.1	14.5
	무직	122	13.1	53.3	30.3	3.3	0.0	66.4	30.3	3.3
	기타	7	28.6	57.1	14.3	0.0	0.0	85.7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83.3	0.0	0.0	16.7	83.3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0.0	50.8	25.4	3.8	0.0	70.8	25.4	3.8
	전문대(중퇴/졸업)	162	21.6	39.5	31.5	6.2	1.2	61.1	31.5	7.4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17.0	45.2	31.0	5.8	1.0	62.2	31.0	6.8
	대학원 이상	124	18.5	46.0	29.0	5.6	0.8	64.5	29.0	6.5
생활수준별	상	133	20.3	45.1	27.8	4.5	2.3	65.4	27.8	6.8
	중	538	16.5	44.6	31.4	6.7	0.7	61.2	31.4	7.4
	하	529	19.3	45.9	29.7	4.5	0.6	65.2	29.7	5.1

13-4. 사이버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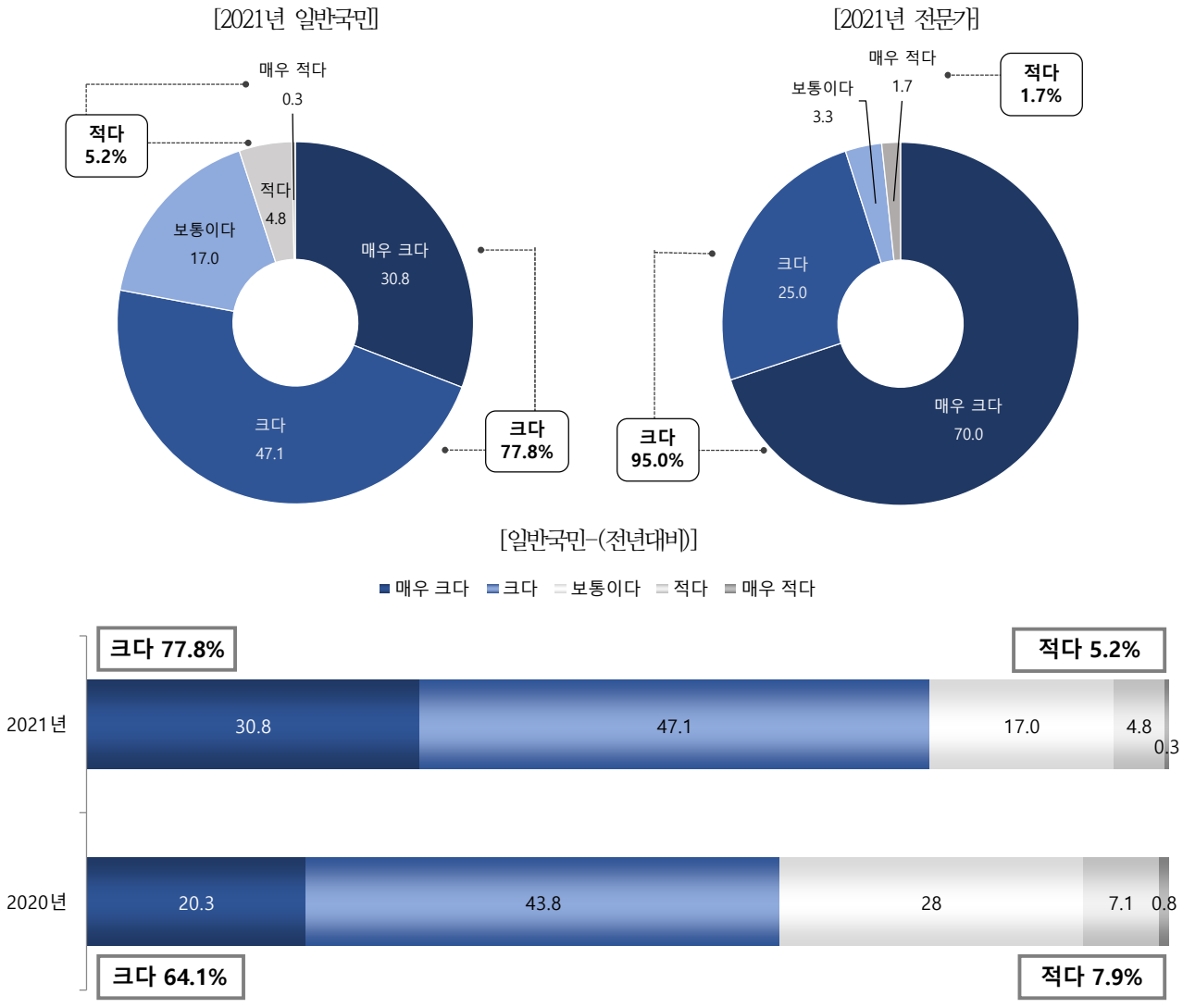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7.8%, 전문가 95.0%로 나타남.

● **[일반국민]**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77.8%로, '적다'(5.2%)보다 72.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크다'는 13.7%p(2020년 64.1%) 증가하였고, '적다'는 2.7%p (2020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95.0%로, '적다'(1.7%)는 응답보다 93.3%p 높게 나타남.

〈그림 5-13-4〉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사이버테러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사이버테러 부분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이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72)'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3-4〉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사이버테러

단위[%]		사례수(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큼	보통	적음
전체		1,260	32.6	46.0	16.3	4.6	0.4	78.7	16.3	5.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0.8	47.1	17.0	4.8	0.3	77.8	17.0	5.2
	전문가	60	70.0	25.0	3.3	0.0	1.7	95.0	3.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2.2	50.9	11.8	4.8	0.3	83.1	11.8	5.1
	중	479	29.4	44.3	21.9	4.0	0.4	73.7	21.9	4.4
	하	118	28.8	39.0	23.7	8.5	0.0	67.8	23.7	8.5
성별	남성	720	30.8	48.5	16.4	4.0	0.3	79.3	16.4	4.3
	여성	480	30.6	45.0	17.9	6.0	0.4	75.6	17.9	6.5
연령별	20대 이하	235	27.2	44.3	19.1	8.9	0.4	71.5	19.1	9.4
	30대	198	37.4	32.8	23.7	5.1	1.0	70.2	23.7	6.1
	40대	247	30.0	46.2	19.0	4.5	0.4	76.1	19.0	4.9
	50대	252	28.6	56.7	11.5	3.2	0.0	85.3	11.5	3.2
	60대 이상	268	31.7	51.9	13.4	3.0	0.0	83.6	13.4	3.0
지역별	서울	226	37.2	42.9	13.7	5.3	0.9	80.1	13.7	6.2
	경기/인천	384	30.5	46.6	19.3	3.1	0.5	77.1	19.3	3.6
	부산/울산/경남	184	29.9	52.7	15.2	2.2	0.0	82.6	15.2	2.2
	대구/경북	117	25.6	45.3	22.2	6.8	0.0	70.9	22.2	6.8
	광주/전라	112	30.4	47.3	13.4	8.9	0.0	77.7	13.4	8.9
	대전/충청/세종	129	25.6	49.6	18.6	6.2	0.0	75.2	18.6	6.2
	강원/제주	48	33.3	45.8	12.5	8.3	0.0	79.2	12.5	8.3
지역크기	대도시	537	33.5	45.4	16.4	4.1	0.6	79.0	16.4	4.7
	중소도시	601	27.8	49.4	17.1	5.5	0.2	77.2	17.1	5.7
	읍/면	62	35.5	38.7	21.0	4.8	0.0	74.2	21.0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57.1	14.3	0.0	0.0	85.7	14.3	0.0
	자영업자	85	31.8	48.2	15.3	4.7	0.0	80.0	15.3	4.7
	판매/서비스직	85	36.5	41.2	17.6	3.5	1.2	77.6	17.6	4.7
	기능/숙련공	42	26.2	38.1	23.8	9.5	2.4	64.3	23.8	11.9
	일반 노무직	49	24.5	46.9	26.5	2.0	0.0	71.4	26.5	2.0
	사무/기술직	460	33.5	45.9	15.4	5.0	0.2	79.3	15.4	5.2
	경영/관리직	66	27.3	54.5	15.2	1.5	1.5	81.8	15.2	3.0
	전문/자유직	72	33.3	54.2	9.7	2.8	0.0	87.5	9.7	2.8
	전업주부	136	25.0	52.2	18.4	4.4	0.0	77.2	18.4	4.4
	학생	62	19.4	41.9	25.8	12.9	0.0	61.3	25.8	12.9
	무직	122	31.1	47.5	16.4	4.9	0.0	78.7	16.4	4.9
	기타	7	57.1	14.3	28.6	0.0	0.0	71.4	28.6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50.0	50.0	0.0	0.0	50.0	5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7.6	43.8	21.6	7.0	0.0	71.4	21.6	7.0
	전문대(중퇴/졸업)	162	30.9	46.3	17.3	4.9	0.6	77.2	17.3	5.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30.6	47.9	16.5	4.7	0.4	78.4	16.5	5.1
	대학원 이상	124	37.9	48.4	11.3	2.4	0.0	86.3	11.3	2.4
생활수준별	상	133	30.1	47.4	18.8	3.8	0.0	77.4	18.8	3.8
	중	538	29.2	49.3	16.2	4.8	0.6	78.4	16.2	5.4
	하	529	32.5	44.8	17.4	5.1	0.2	77.3	17.4	5.3

13-5. 감염병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크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3.2%, 전문가 8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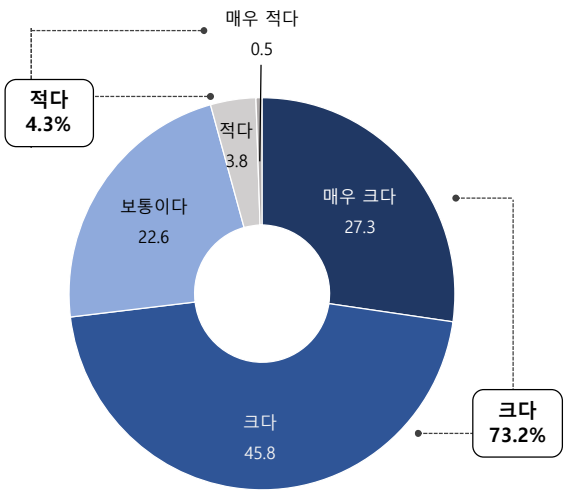
● **[일반국민]**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73.2%로, '적다'(4.3%)보다 68.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크다'는 4.6%p(2020년 77.8%), '적다'는 1.4%p (2020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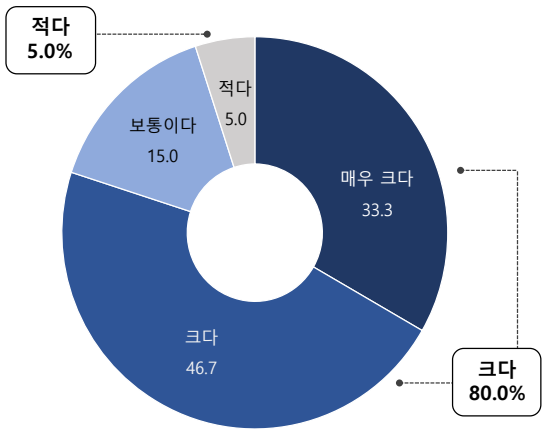
● **[전문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80.0%로, '적다'(5.0%)는 응답보다 75.0%p 높게 나타남.

〈그림 5-13-5〉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감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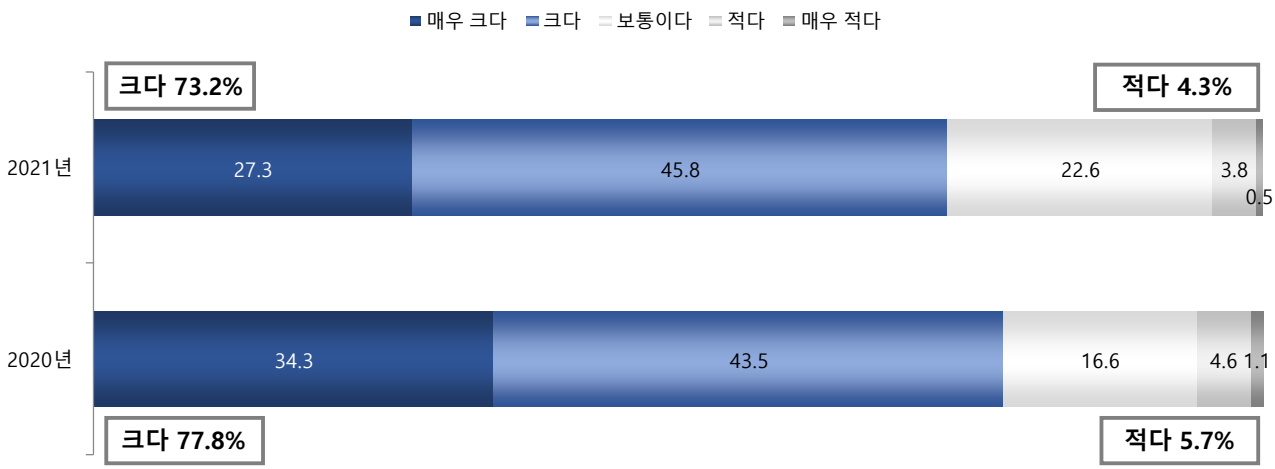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중 감염병 부분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크다'는 의견이 본인 안보수준별로 '상',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전문/자유직'(n=72)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3-5〉 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 감염병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큼	보통	적음
전체		1,260	27.6	45.9	22.2	3.8	0.5	73.5	22.2	4.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7.3	45.8	22.6	3.8	0.5	73.2	22.6	4.3
	전문가	60	33.3	46.7	15.0	5.0	0.0	80.0	15.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0.2	45.1	19.9	4.0	0.8	75.3	19.9	4.8
	중	479	23.6	47.2	25.9	3.1	0.2	70.8	25.9	3.3
	하	118	28.0	44.1	22.9	5.1	0.0	72.0	22.9	5.1
성별	남성	720	26.5	45.7	23.6	3.6	0.6	72.2	23.6	4.2
	여성	480	28.5	46.0	21.0	4.0	0.4	74.6	21.0	4.4
연령별	20대 이하	235	23.4	43.8	26.4	4.7	1.7	67.2	26.4	6.4
	30대	198	26.3	42.9	24.2	6.6	0.0	69.2	24.2	6.6
	40대	247	26.3	44.9	25.1	3.2	0.4	71.3	25.1	3.6
	50대	252	26.6	48.8	20.6	4.0	0.0	75.4	20.6	4.0
	60대 이상	268	33.2	47.8	17.5	1.1	0.4	81.0	17.5	1.5
지역별	서울	226	32.3	40.7	22.6	3.5	0.9	73.0	22.6	4.4
	경기/인천	384	22.7	48.4	25.8	2.9	0.3	71.1	25.8	3.1
	부산/울산/경남	184	28.8	45.1	23.4	2.7	0.0	73.9	23.4	2.7
	대구/경북	117	29.9	42.7	21.4	5.1	0.9	72.6	21.4	6.0
	광주/전라	112	32.1	47.3	15.2	4.5	0.9	79.5	15.2	5.4
	대전/충청/세종	129	19.4	51.2	20.9	7.8	0.8	70.5	20.9	8.5
	강원/제주	48	39.6	41.7	18.8	0.0	0.0	81.3	18.8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30.4	45.6	19.9	3.4	0.7	76.0	19.9	4.1
	중소도시	601	24.1	46.4	25.1	4.0	0.3	70.5	25.1	4.3
	읍/면	62	32.3	41.9	21.0	4.8	0.0	74.2	21.0	4.8
직업별	농/어/임업	14	35.7	42.9	21.4	0.0	0.0	78.6	21.4	0.0
	자영업자	85	29.4	48.2	20.0	1.2	1.2	77.6	20.0	2.4
	판매/서비스직	85	35.3	42.4	15.3	5.9	1.2	77.6	15.3	7.1
	기능/숙련공	42	23.8	33.3	33.3	9.5	0.0	57.1	33.3	9.5
	일반 노무직	49	14.3	42.9	34.7	8.2	0.0	57.1	34.7	8.2
	사무/기술직	460	27.0	45.9	22.8	3.7	0.7	72.8	22.8	4.3
	경영/관리직	66	19.7	57.6	16.7	6.1	0.0	77.3	16.7	6.1
	전문/자유직	72	27.8	51.4	19.4	1.4	0.0	79.2	19.4	1.4
	전업주부	136	30.1	44.9	22.1	2.2	0.7	75.0	22.1	2.9
	학생	62	25.8	32.3	37.1	4.8	0.0	58.1	37.1	4.8
	무직	122	27.0	51.6	18.9	2.5	0.0	78.7	18.9	2.5
	기타	7	57.1	28.6	14.3	0.0	0.0	85.7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16.7	66.7	0.0	0.0	33.3	66.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31.4	43.2	21.1	4.3	0.0	74.6	21.1	4.3
	전문대(중퇴/졸업)	162	26.5	46.9	20.4	5.6	0.6	73.5	20.4	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6.8	44.7	24.2	3.6	0.7	71.5	24.2	4.3
	대학원 이상	124	25.8	56.5	16.1	1.6	0.0	82.3	16.1	1.6
생활수준별	상	133	27.8	45.9	23.3	3.0	0.0	73.7	23.3	3.0
	중	538	25.7	48.0	21.6	4.1	0.7	73.6	21.6	4.8
	하	529	28.9	43.7	23.4	3.6	0.4	72.6	23.4	4.0

14.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8.8%, 전문가 9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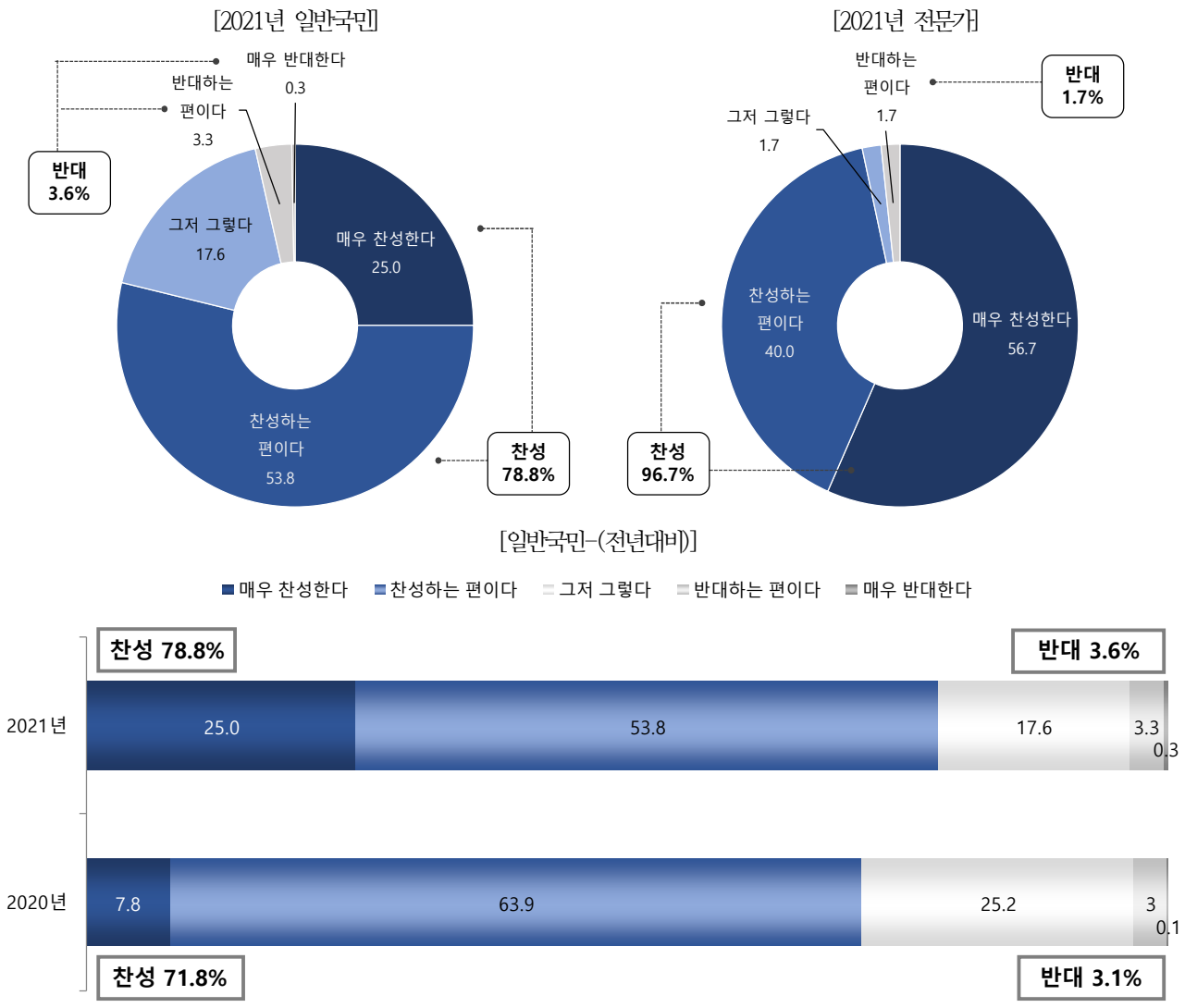
● **[일반국민]**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8%로, '반대한다'(3.6%)보다 75.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7.0%p(2020년 71.8%), '반대한다'는 0.5%p(2020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6.7%로, '반대한다'(1.7%)는 응답보다 95.0%p 높게 나타남.

○ 전문가는 일반국민에 비해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14〉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특성별 분석]

◉ 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강원/제주', 직업별로 '경영/관리직'(n=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14〉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0	26.5	53.2	16.8	3.2	0.3	79.7	16.8	3.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5.0	53.8	17.6	3.3	0.3	78.8	17.6	3.6
	전문가	60	56.7	40.0	1.7	1.7	0.0	96.7	1.7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4.0	53.9	9.8	2.0	0.3	87.9	9.8	2.3
	중	479	15.4	54.7	26.3	3.3	0.2	70.1	26.3	3.5
	하	118	17.8	50.0	22.0	9.3	0.8	67.8	22.0	10.2
성별	남성	720	28.5	51.3	17.4	2.5	0.4	79.7	17.4	2.9
	여성	480	19.8	57.7	17.9	4.4	0.2	77.5	17.9	4.6
연령별	20대 이하	235	19.6	48.1	26.0	5.5	0.9	67.7	26.0	6.4
	30대	198	17.2	54.5	22.7	5.6	0.0	71.7	22.7	5.6
	40대	247	22.7	52.2	21.5	3.2	0.4	74.9	21.5	3.6
	50대	252	23.8	64.3	10.3	1.6	0.0	88.1	10.3	1.6
	60대 이상	268	38.8	50.0	9.7	1.1	0.4	88.8	9.7	1.5
지역별	서울	226	26.1	54.4	15.9	3.1	0.4	80.5	15.9	3.5
	경기/인천	384	22.9	53.9	18.0	4.4	0.8	76.8	18.0	5.2
	부산/울산/경남	184	27.2	50.0	19.6	3.3	0.0	77.2	19.6	3.3
	대구/경북	117	27.4	51.3	17.9	3.4	0.0	78.6	17.9	3.4
	광주/전라	112	26.8	53.6	16.1	3.6	0.0	80.4	16.1	3.6
	대전/충청/세종	129	22.5	58.1	18.6	0.8	0.0	80.6	18.6	0.8
	강원/제주	48	25.0	60.4	14.6	0.0	0.0	85.4	14.6	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25.1	54.9	16.9	2.6	0.4	80.1	16.9	3.0
	중소도시	601	24.3	53.1	18.3	4.0	0.3	77.4	18.3	4.3
	읍/면	62	30.6	51.6	16.1	1.6	0.0	82.3	16.1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57.1	28.6	7.1	7.1	0.0	85.7	7.1	7.1
	자영업자	85	28.2	56.5	12.9	2.4	0.0	84.7	12.9	2.4
	판매/서비스직	85	24.7	49.4	20.0	4.7	1.2	74.1	20.0	5.9
	기능/숙련공	42	21.4	45.2	28.6	4.8	0.0	66.7	28.6	4.8
	일반 노무직	49	16.3	51.0	30.6	2.0	0.0	67.3	30.6	2.0
	사무/기술직	460	22.6	57.4	16.3	3.7	0.0	80.0	16.3	3.7
	경영/관리직	66	27.3	63.6	7.6	1.5	0.0	90.9	7.6	1.5
	전문/자유직	72	30.6	50.0	15.3	4.2	0.0	80.6	15.3	4.2
	전업주부	136	23.5	56.6	16.9	2.2	0.7	80.1	16.9	2.9
	학생	62	19.4	40.3	30.6	6.5	3.2	59.7	30.6	9.7
	무직	122	31.1	50.0	18.0	0.8	0.0	81.1	18.0	0.8
	기타	7	57.1	42.9	0.0	0.0	0.0	10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33.3	50.0	0.0	0.0	50.0	5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24.9	54.1	19.5	1.6	0.0	78.9	19.5	1.6
	전문대(중퇴/졸업)	162	19.8	51.9	22.2	5.6	0.6	71.6	22.2	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5.3	53.7	17.6	3.0	0.4	79.0	17.6	3.5
	대학원 이상	124	30.6	58.1	7.3	4.0	0.0	88.7	7.3	4.0
생활수준별	상	133	31.6	47.4	15.0	6.0	0.0	78.9	15.0	6.0
	중	538	22.7	56.1	18.2	2.6	0.4	78.8	18.2	3.0
	하	529	25.7	53.1	17.6	3.2	0.4	78.8	17.6	3.6

15.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31.0%, 전문가 3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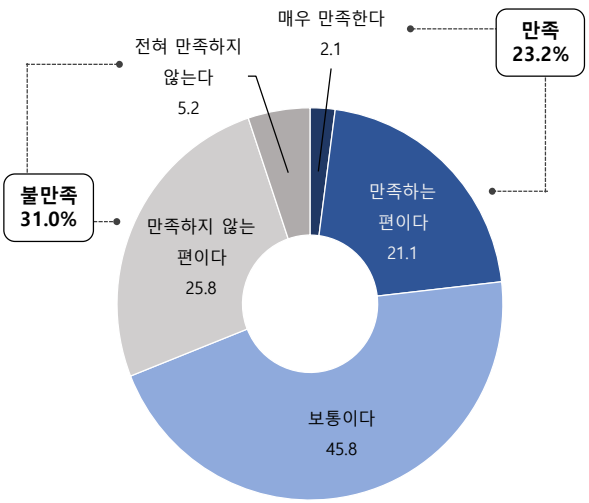
● **[일반국민]**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1.0%로 '만족한다'(23.2%)는 응답보다 7.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만족한다'는 응답은 30.8%p(2020년 54.0%) 감소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2.5%p(2020년 8.5%)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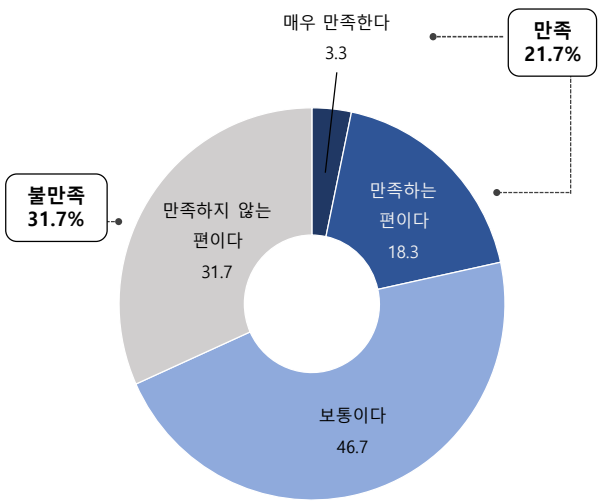
● **[전문가]**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1.7%로 '만족한다'(21.7%)는 응답보다 10.0%p 높게 나타남.

〈그림 5-15〉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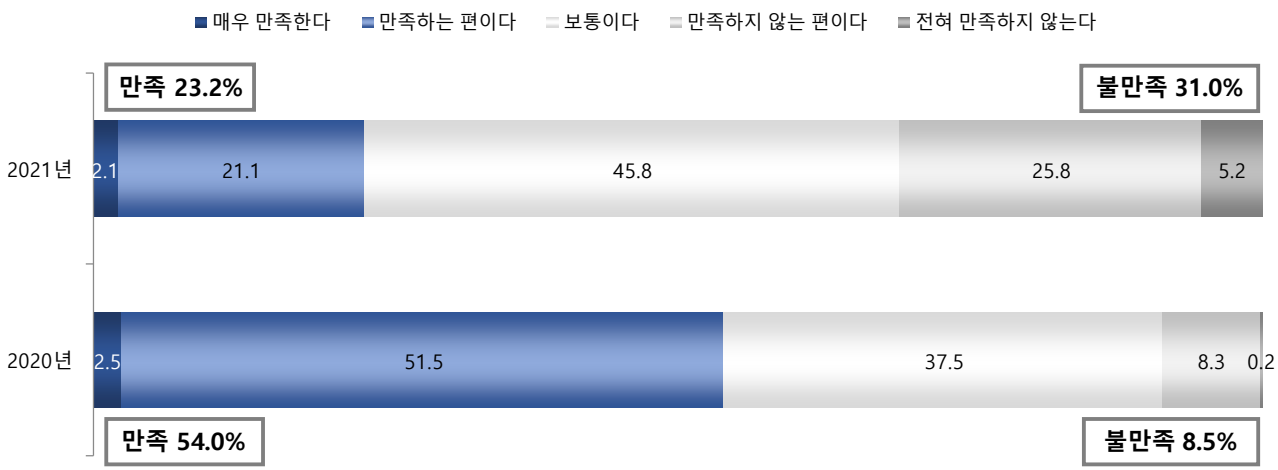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만족한다'의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별로 '하',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5-15〉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의 만족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종합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260	2.1	21.0	45.9	26.1	4.9	23.1	45.9	31.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1	21.1	45.8	25.8	5.2	23.2	45.8	31.0
	전문가	60	3.3	18.3	46.7	31.7	0.0	21.7	46.7	3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3.2	26.2	38.6	25.7	6.3	29.4	38.6	32.0
	중	479	1.0	16.1	55.5	24.2	3.1	17.1	55.5	27.3
	하	118	0.8	15.3	43.2	33.1	7.6	16.1	43.2	40.7
성별	남성	720	2.2	18.2	45.0	27.8	6.8	20.4	45.0	34.6
	여성	480	1.9	25.4	47.1	22.9	2.7	27.3	47.1	25.6
연령별	20대 이하	235	2.6	20.9	47.7	23.4	5.5	23.4	47.7	28.9
	30대	198	1.0	15.7	50.0	26.3	7.1	16.7	50.0	33.3
	40대	247	3.6	23.5	46.6	22.3	4.0	27.1	46.6	26.3
	50대	252	1.6	20.6	51.6	23.0	3.2	22.2	51.6	26.2
	60대 이상	268	1.5	23.5	35.1	33.6	6.3	25.0	35.1	39.9
지역별	서울	226	2.2	19.0	42.9	30.5	5.3	21.2	42.9	35.8
	경기/인천	384	1.8	23.7	46.6	21.9	6.0	25.5	46.6	27.9
	부산/울산/경남	184	3.8	17.4	45.7	27.2	6.0	21.2	45.7	33.2
	대구/경북	117	2.6	21.4	38.5	35.9	1.7	23.9	38.5	37.6
	광주/전라	112	0.9	31.3	42.0	20.5	5.4	32.1	42.0	25.9
	대전/충청/세종	129	1.6	15.5	53.5	24.0	5.4	17.1	53.5	29.5
	강원/제주	48	0.0	14.6	60.4	22.9	2.1	14.6	60.4	25.0
지역크기	대도시	537	2.0	20.3	44.7	27.7	5.2	22.3	44.7	33.0
	중소도시	601	2.0	20.3	47.9	25.5	4.3	22.3	47.9	29.8
	읍/면	62	3.2	35.5	35.5	12.9	12.9	38.7	35.5	25.8
직업별	농/어/임업	14	7.1	14.3	35.7	35.7	7.1	21.4	35.7	42.9
	자영업자	85	1.2	20.0	48.2	24.7	5.9	21.2	48.2	30.6
	판매/서비스직	85	0.0	27.1	30.6	37.6	4.7	27.1	30.6	42.4
	기능/숙련공	42	4.8	11.9	47.6	33.3	2.4	16.7	47.6	35.7
	일반 노무직	49	0.0	14.3	61.2	24.5	0.0	14.3	61.2	24.5
	사무/기술직	460	1.7	22.0	47.8	23.5	5.0	23.7	47.8	28.5
	경영/관리직	66	1.5	15.2	47.0	31.8	4.5	16.7	47.0	36.4
	전문/자유직	72	5.6	12.5	47.2	23.6	11.1	18.1	47.2	34.7
	전업주부	136	2.9	28.7	47.1	18.4	2.9	31.6	47.1	21.3
	학생	62	3.2	24.2	38.7	22.6	11.3	27.4	38.7	33.9
	무직	122	1.6	20.5	41.8	32.0	4.1	22.1	41.8	36.1
	기타	7	0.0	0.0	57.1	28.6	14.3	0.0	57.1	42.9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0.0	16.7	66.7	16.7	0.0	16.7	66.7	1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1.1	24.3	47.0	23.8	3.8	25.4	47.0	27.6
	전문대(중퇴/졸업)	162	2.5	22.8	51.2	20.4	3.1	25.3	51.2	23.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2.1	20.2	45.2	26.7	5.8	22.3	45.2	32.5
	대학원 이상	124	3.2	19.4	39.5	31.5	6.5	22.6	39.5	37.9
생활수준별	상	133	4.5	20.3	41.4	25.6	8.3	24.8	41.4	33.8
	중	538	1.3	22.9	48.3	24.2	3.3	24.2	48.3	27.5
	하	529	2.3	19.5	44.4	27.6	6.2	21.7	44.4	33.8

16.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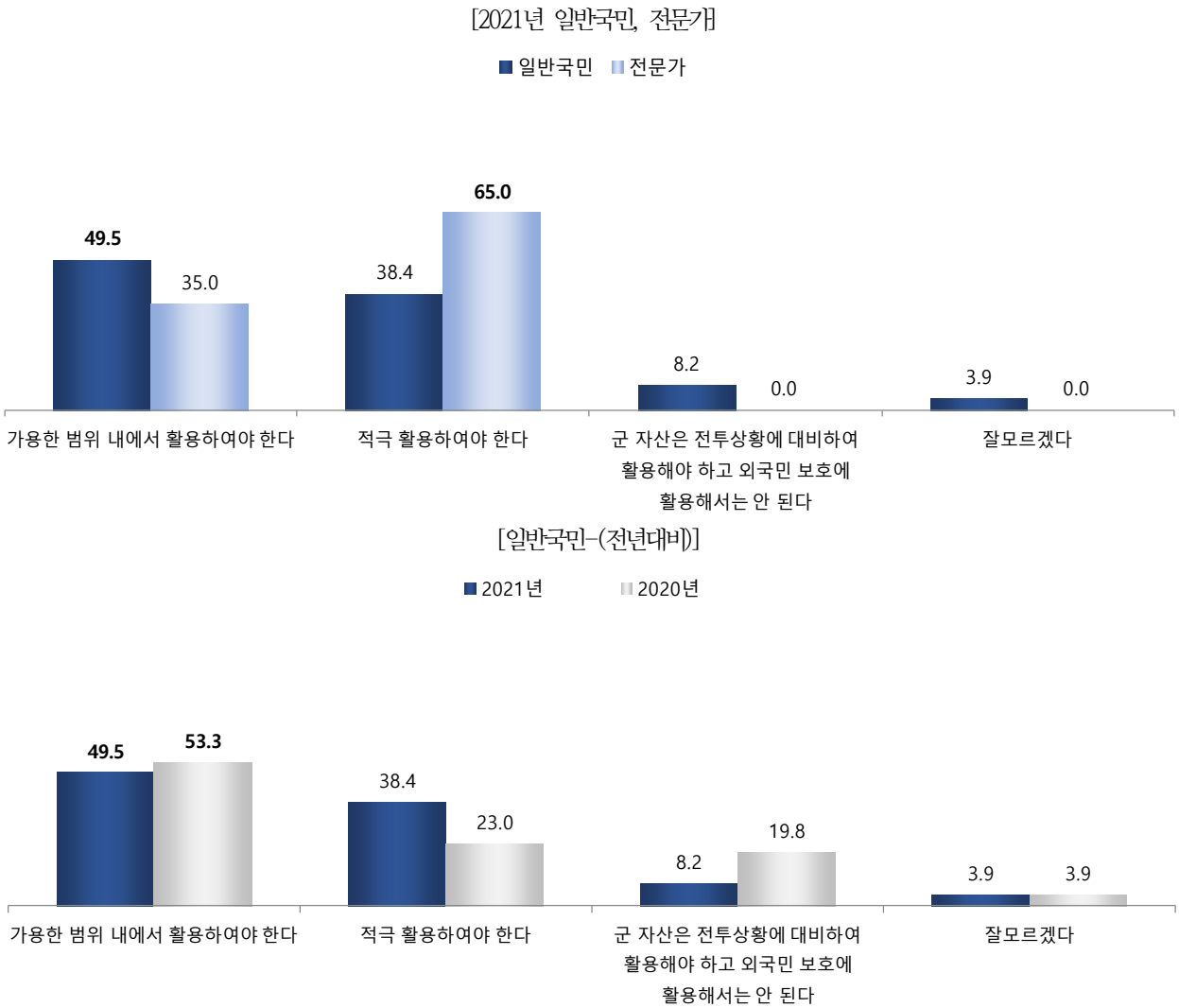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49.5%), 전문가는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65.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가 4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3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한다'는 3.8%p(2020년 53.3%) 감소하였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15.4%p(2020년 23.0%) 증가하였음.

● **[전문가]**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가 6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3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6〉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적극 활용 필요성



[특성별 분석]

◉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6〉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적극 활용 필요성

단위[%]		사례수 (명)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군 자산은 전투상황에 대비하여 활용해야 하고 외국민 보호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잘모르겠다
전체		1,260	48.8	39.7	7.8	3.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5	38.4	8.2	3.9
	전문가	60	35.0	65.0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44.9	48.6	5.3	1.2
	중	479	56.4	26.3	11.1	6.3
	하	118	44.9	35.6	11.0	8.5
성별	남성	720	44.9	46.0	6.5	2.6
	여성	480	56.5	27.1	10.6	5.8
연령별	20대 이하	235	51.9	29.8	10.6	7.7
	30대	198	50.5	33.8	9.1	6.6
	40대	247	51.0	36.8	9.3	2.8
	50대	252	47.6	43.7	6.3	2.4
	60대 이상	268	47.0	45.9	6.0	1.1
지역별	서울	226	48.7	39.4	8.0	4.0
	경기/인천	384	52.9	36.7	7.6	2.9
	부산/울산/경남	184	46.7	39.7	9.8	3.8
	대구/경북	117	42.7	43.6	7.7	6.0
	광주/전라	112	49.1	40.2	8.0	2.7
	대전/충청/세종	129	49.6	35.7	7.8	7.0
	강원/제주	48	54.2	33.3	10.4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49.0	37.2	9.9	3.9
	중소도시	601	50.4	38.4	7.2	4.0
	읍/면	62	45.2	48.4	3.2	3.2
직업별	농/어/임업	14	14.3	78.6	7.1	0.0
	자영업자	85	44.7	47.1	8.2	0.0
	판매/서비스직	85	63.5	25.9	8.2	2.4
	기능/숙련공	42	52.4	40.5	4.8	2.4
	일반 노무직	49	55.1	24.5	10.2	10.2
	사무/기술직	460	46.5	42.2	7.8	3.5
	경영/관리직	66	40.9	56.1	3.0	0.0
	전문/자유직	72	48.6	36.1	12.5	2.8
	전업주부	136	55.1	27.9	11.8	5.1
	학생	62	56.5	24.2	8.1	11.3
	무직	122	51.6	36.9	5.7	5.7
	기타	7	28.6	57.1	14.3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33.3	0.0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9.7	36.2	9.7	4.3
	전문대(중퇴/졸업)	162	47.5	33.3	13.0	6.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9.4	40.4	6.6	3.6
	대학원 이상	124	53.2	37.1	8.9	0.8
생활수준별	상	133	57.1	38.3	3.8	0.8
	중	538	50.4	37.5	8.0	4.1
	하	529	46.7	39.3	9.5	4.5

17.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경로에 대해 일반국민은 'TV방송'(46.2%), 전문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4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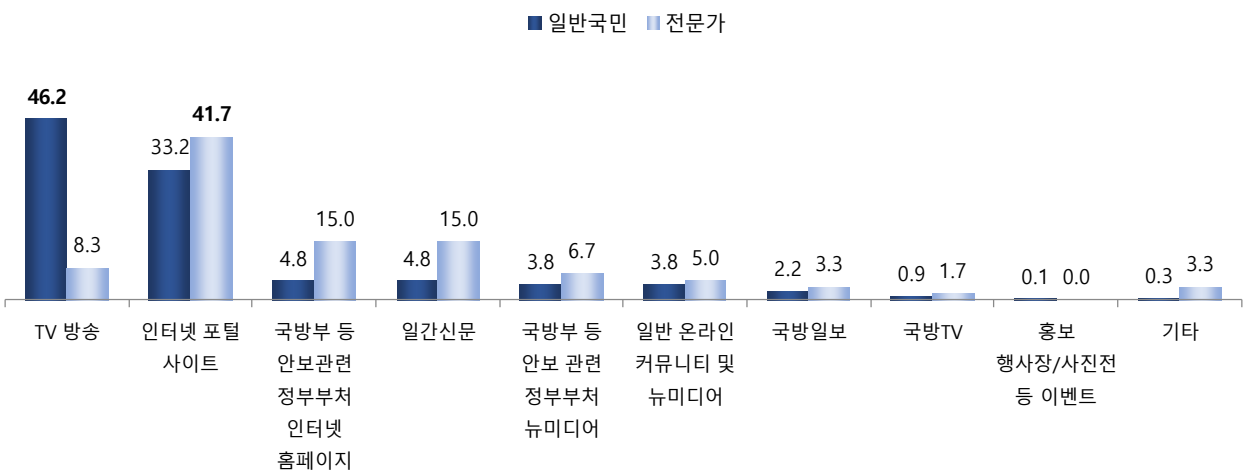
● **[일반국민]**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경로에 대해 'TV방송'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3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0년 대비 'TV방송'이라는 응답은 1.0%p(2020년 45.2%) 증가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은 0.5%p(2020년 33.7%)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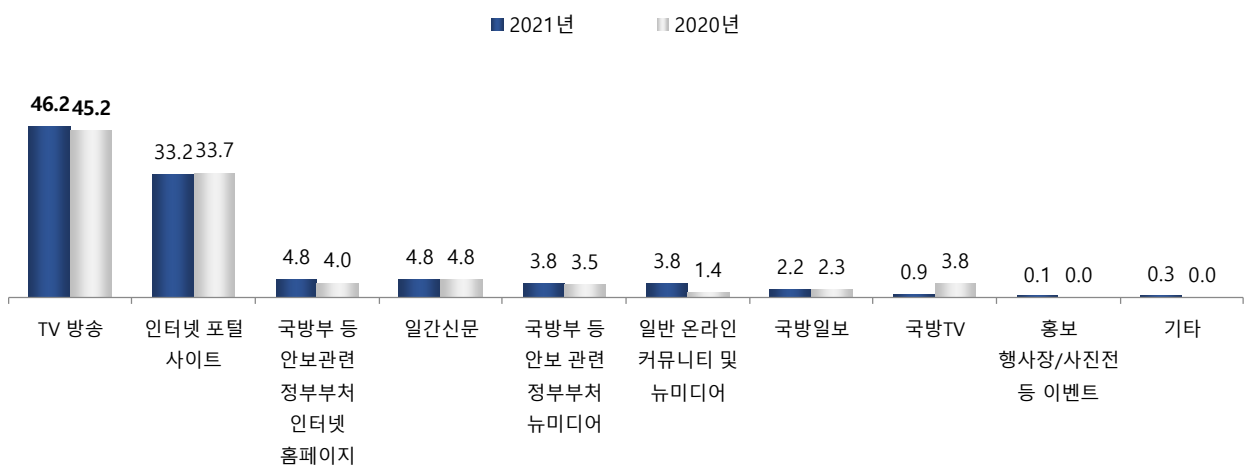
● **[전문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방법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7〉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2021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TV방송'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하',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전업주부(n=136)'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단위[%]		사례수 (명)	TV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국방일보	국방TV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	기타
전체		1,260	44.4	33.6	5.2	5.2	4.0	3.9	2.2	1.0	0.1	0.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6.2	33.2	4.8	4.8	3.8	3.8	2.2	0.9	0.1	0.3
	전문가	60	8.3	41.7	15.0	15.0	6.7	5.0	3.3	1.7	0.0	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46.4	32.8	4.8	4.1	4.1	4.1	1.7	1.2	0.2	0.5
	중	479	45.7	34.2	5.2	4.6	3.5	3.5	2.7	0.2	0.0	0.2
	하	118	46.6	30.5	2.5	8.5	3.4	3.4	2.5	2.5	0.0	0.0
성별	남성	720	41.3	37.6	4.6	5.0	4.0	4.2	2.1	0.8	0.0	0.4
	여성	480	53.5	26.5	5.0	4.4	3.5	3.3	2.3	1.0	0.2	0.2
연령별	20대 이하	235	29.4	38.7	7.2	6.8	4.7	7.2	4.3	0.4	0.4	0.9
	30대	198	33.3	40.4	5.6	5.6	3.5	6.1	4.0	1.5	0.0	0.0
	40대	247	48.6	35.2	3.6	4.0	4.0	2.4	1.2	0.8	0.0	0.0
	50대	252	56.0	29.4	4.4	2.4	3.2	1.2	1.6	1.6	0.0	0.4
	60대 이상	268	59.0	24.6	3.4	5.2	3.7	3.0	0.4	0.4	0.0	0.4
지역별	서울	226	42.5	35.4	5.3	5.3	3.5	3.5	3.1	0.4	0.0	0.9
	경기/인천	384	44.8	34.9	4.4	4.2	3.1	5.5	2.1	1.0	0.0	0.0
	부산/울산/경남	184	46.7	33.7	3.8	9.2	2.2	2.2	1.1	0.5	0.5	0.0
	대구/경북	117	53.0	22.2	7.7	6.0	8.5	0.9	0.9	0.9	0.0	0.0
	광주/전라	112	49.1	33.9	5.4	1.8	0.9	1.8	4.5	2.7	0.0	0.0
	대전/충청/세종	129	47.3	34.9	3.9	1.6	5.4	3.1	2.3	0.8	0.0	0.8
	강원/제주	48	45.8	27.1	2.1	2.1	8.3	12.5	0.0	0.0	0.0	2.1
지역크기	대도시	537	45.3	33.9	4.1	5.6	4.5	3.2	2.4	0.6	0.0	0.6
	중소도시	601	47.3	32.3	5.2	4.2	3.5	4.8	1.5	1.2	0.2	0.0
	읍/면	62	43.5	35.5	6.5	3.2	1.6	0.0	6.5	1.6	0.0	1.6
직업별	농/어/임업	14	28.6	42.9	14.3	7.1	0.0	0.0	7.1	0.0	0.0	0.0
	자영업자	85	48.2	29.4	4.7	7.1	2.4	5.9	1.2	1.2	0.0	0.0
	판매/서비스직	85	41.2	40.0	5.9	3.5	4.7	3.5	0.0	1.2	0.0	0.0
	기능/숙련공	42	52.4	26.2	7.1	4.8	4.8	4.8	0.0	0.0	0.0	0.0
	일반 노무직	49	40.8	38.8	6.1	6.1	2.0	0.0	6.1	0.0	0.0	0.0
	사무/기술직	460	44.6	34.1	5.2	5.7	3.3	3.9	2.4	0.7	0.0	0.2
	경영/관리직	66	45.5	42.4	1.5	3.0	3.0	3.0	0.0	1.5	0.0	0.0
	전문/자유직	72	44.4	37.5	1.4	2.8	4.2	4.2	1.4	2.8	0.0	1.4
	전업주부	136	62.5	19.9	5.1	2.9	5.1	2.2	0.7	1.5	0.0	0.0
	학생	62	22.6	40.3	6.5	3.2	8.1	11.3	4.8	0.0	1.6	1.6
	무직	122	49.2	31.1	2.5	4.9	4.1	2.5	4.1	0.8	0.0	0.8
	기타	7	85.7	14.3	0.0	0.0	0.0	0.0	0.0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50.0	16.7	0.0	16.7	0.0	0.0	16.7	0.0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55.1	28.1	4.9	4.3	3.2	1.6	2.2	0.5	0.0	0.0
	전문대(중퇴/졸업)	162	48.1	34.6	5.6	3.1	4.3	1.2	3.1	0.0	0.0	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2.6	35.1	5.0	4.7	4.0	4.8	2.2	1.1	0.1	0.3
	대학원 이상	124	50.8	28.2	2.4	7.3	3.2	4.8	0.0	1.6	0.0	1.6
생활수준별	상	133	36.1	39.8	6.8	8.3	1.5	3.8	1.5	2.3	0.0	0.0
	중	538	46.5	33.3	4.6	5.0	3.9	3.5	1.1	1.1	0.2	0.7
	하	529	48.4	31.4	4.3	3.6	4.3	4.2	3.4	0.4	0.0	0.0

18.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18-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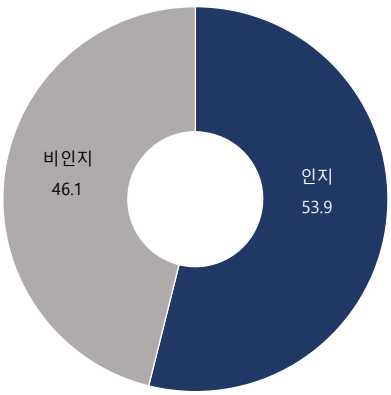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의 응답이 일반국민 53.9%, 전문가 86.7%로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은 53.9%로 '비인지'(46.1%)라는 응답보다 7.8%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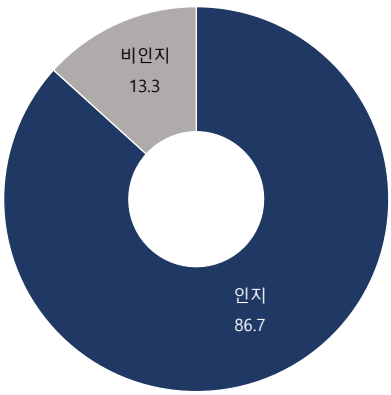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86.7%로 '비인지'(13.3%)라는 응답보다 73.4%p 높게 나타남.

〈그림 5-18-1〉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크기별로는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8-1〉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260	55.5	44.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3.9	46.1
	전문가	60	86.7	13.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61.9	38.1
	중	479	45.3	54.7
	하	118	48.3	51.7
성별	남성	720	58.9	41.1
	여성	480	46.5	53.5
연령별	20대 이하	235	51.9	48.1
	30대	198	51.5	48.5
	40대	247	55.1	44.9
	50대	252	52.0	48.0
	60대 이상	268	58.2	41.8
지역별	서울	226	56.2	43.8
	경기/인천	384	53.1	46.9
	부산/울산/경남	184	51.1	48.9
	대구/경북	117	59.0	41.0
	광주/전라	112	55.4	44.6
	대전/충청/세종	129	51.9	48.1
	강원/제주	48	50.0	5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53.6	46.4
	중소도시	601	53.9	46.1
	읍/면	62	56.5	43.5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28.6
	자영업자	85	57.6	42.4
	판매/서비스직	85	60.0	40.0
	기능/숙련공	42	64.3	35.7
	일반 노무직	49	38.8	61.2
	사무/기술직	460	55.9	44.1
	경영/관리직	66	57.6	42.4
	전문/자유직	72	58.3	41.7
	전업주부	136	42.6	57.4
	학생	62	59.7	40.3
	무직	122	44.3	55.7
	기타	7	71.4	28.6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66.7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9.2	50.8
	전문대(중퇴/졸업)	162	52.5	47.5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54.8	45.2
	대학원 이상	124	57.3	42.7
생활수준별	상	133	57.9	42.1
	중	538	56.5	43.5
	하	529	50.3	49.7

18-2. 국방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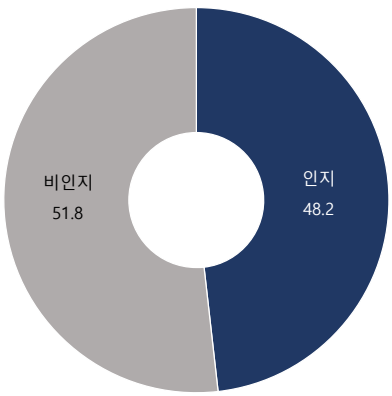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51.8%), 전문가는 '인지'(98.3%)가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51.8%로 '인지'(48.2%)라는 응답보다 3.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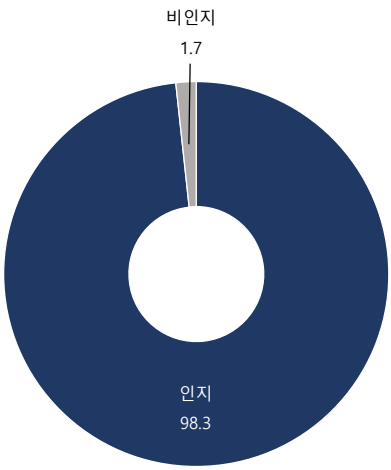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98.3%로 '비인지'(1.7%)라는 응답보다 96.6%p 높게 나타남.

〈그림 5-18-2〉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백서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크기별로는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8-2〉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백서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260	50.6	4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8.2	51.8
	전문가	60	98.3	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63.0	37.0
	중	479	33.6	66.4
	하	118	31.4	68.6
성별	남성	720	61.4	38.6
	여성	480	28.3	71.7
연령별	20대 이하	235	30.6	69.4
	30대	198	34.8	65.2
	40대	247	49.0	51.0
	50대	252	60.7	39.3
	60대 이상	268	60.8	39.2
지역별	서울	226	48.7	51.3
	경기/인천	384	46.4	53.6
	부산/울산/경남	184	51.6	48.4
	대구/경북	117	49.6	50.4
	광주/전라	112	55.4	44.6
	대전/충청/세종	129	41.1	58.9
	강원/제주	48	45.8	54.2
지역크기	대도시	537	48.2	51.8
	중소도시	601	47.6	52.4
	읍/면	62	53.2	46.8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28.6
	자영업자	85	62.4	37.6
	판매/서비스직	85	34.1	65.9
	기능/숙련공	42	59.5	40.5
	일반 노무직	49	44.9	55.1
	사무/기술직	460	51.1	48.9
	경영/관리직	66	75.8	24.2
	전문/자유직	72	54.2	45.8
	전업주부	136	32.4	67.6
	학생	62	22.6	77.4
	무직	122	44.3	55.7
	기타	7	42.9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8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4.9	55.1
	전문대(중퇴/졸업)	162	42.0	58.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8.7	51.3
	대학원 이상	124	59.7	40.3
생활수준별	상	133	60.2	39.8
	중	538	49.3	50.7
	하	529	44.0	56.0

18-3. 국방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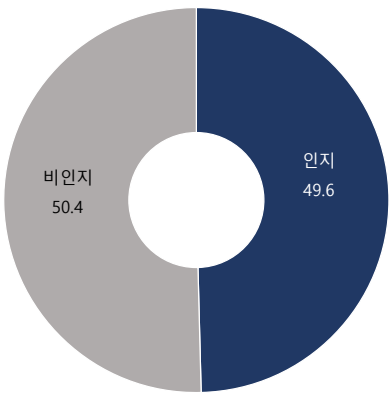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50.4%), 전문가는 '인지'(90.0%)가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50.4%로 '인지'(49.6%)라는 응답보다 0.8%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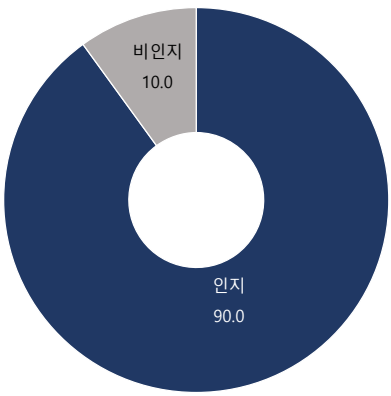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90.0%로 '비인지'(10.0%)라는 응답보다 80.0%p 높게 나타남.

〈그림 5-18-3〉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일보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크기별로는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8-3〉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일보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260	51.5	4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6	50.4
	전문가	60	90.0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6.6	43.4
	중	479	41.8	58.2
	하	118	45.8	54.2
성별	남성	720	62.1	37.9
	여성	480	30.8	69.2
연령별	20대 이하	235	56.2	43.8
	30대	198	50.5	49.5
	40대	247	52.6	47.4
	50대	252	45.2	54.8
	60대 이상	268	44.4	55.6
지역별	서울	226	49.1	50.9
	경기/인천	384	53.6	46.4
	부산/울산/경남	184	52.2	47.8
	대구/경북	117	47.9	52.1
	광주/전라	112	43.8	56.3
	대전/충청/세종	129	48.1	51.9
	강원/제주	48	31.3	68.8
지역크기	대도시	537	47.9	52.1
	중소도시	601	50.4	49.6
	읍/면	62	56.5	43.5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28.6
	자영업자	85	56.5	43.5
	판매/서비스직	85	41.2	58.8
	기능/숙련공	42	57.1	42.9
	일반 노무직	49	53.1	46.9
	사무/기술직	460	55.2	44.8
	경영/관리직	66	56.1	43.9
	전문/자유직	72	48.6	51.4
	전업주부	136	29.4	70.6
	학생	62	50.0	50.0
	무직	122	42.6	57.4
	기타	7	42.9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66.7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1.6	58.4
	전문대(중퇴/졸업)	162	48.8	51.2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51.5	48.5
	대학원 이상	124	50.8	49.2
생활수준별	상	133	51.9	48.1
	중	538	51.7	48.3
	하	529	46.9	53.1

18-4. 국방FM(라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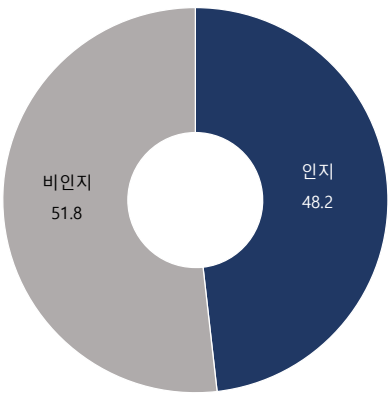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51.8%), 전문가는 '인지'(70.0%)가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51.8%로 '인지'(48.2%)라는 응답보다 3.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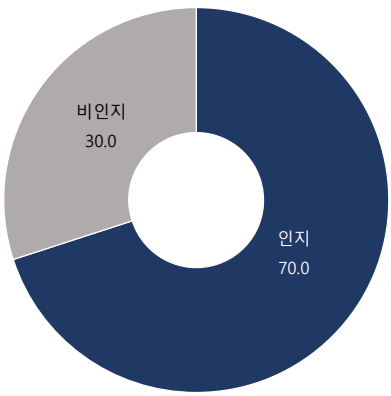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70.0%로 '비인지'(30.0%)라는 응답보다 40.0%p 높게 나타남.

〈그림 5-18-4〉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FM(라디오)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 지역크기별로는 '중소도시', 직업별로 '농/어/임업(n=14)'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8-4〉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FM(라디오)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260	49.2	50.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8.2	51.8
	전문가	60	70.0	3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6.2	43.8
	중	479	38.2	61.8
	하	118	47.5	52.5
성별	남성	720	53.1	46.9
	여성	480	40.8	59.2
연령별	20대 이하	235	43.8	56.2
	30대	198	44.4	55.6
	40대	247	51.0	49.0
	50대	252	51.6	48.4
	60대 이상	268	48.9	51.1
지역별	서울	226	47.8	52.2
	경기/인천	384	54.2	45.8
	부산/울산/경남	184	40.8	59.2
	대구/경북	117	44.4	55.6
	광주/전라	112	43.8	56.3
	대전/충청/세종	129	46.5	53.5
	강원/제주	48	54.2	45.8
지역크기	대도시	537	46.4	53.6
	중소도시	601	49.9	50.1
	읍/면	62	46.8	53.2
직업별	농/어/임업	14	64.3	35.7
	자영업자	85	60.0	40.0
	판매/서비스직	85	52.9	47.1
	기능/숙련공	42	57.1	42.9
	일반 노무직	49	34.7	65.3
	사무/기술직	460	49.6	50.4
	경영/관리직	66	62.1	37.9
	전문/자유직	72	43.1	56.9
	전업주부	136	38.2	61.8
	학생	62	41.9	58.1
	무직	122	42.6	57.4
	기타	7	28.6	71.4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33.3	66.7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4.9	55.1
	전문대(중퇴/졸업)	162	50.0	50.0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8.0	52.0
	대학원 이상	124	52.4	47.6
생활수준별	상	133	55.6	44.4
	중	538	51.1	48.9
	하	529	43.3	56.7

18-5. 국방TV(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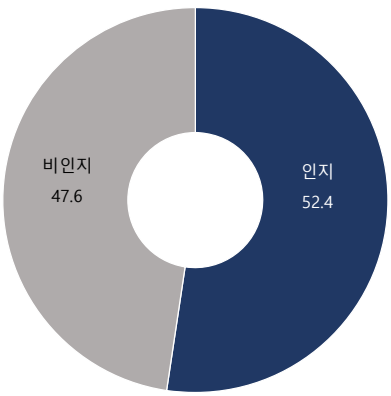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TV(텔레비전)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가 일반국민52.4%, 전문가는80.0%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TV(텔레비전)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52.4%로 '비인지'(47.6%)라는 응답보다 4.8%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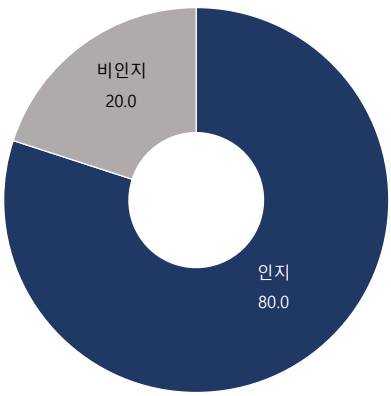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80.0%로 '비인지'(20.0%)라는 응답보다 60.0%p 높게 나타남.

〈그림 5-18-5〉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TV(텔레비전)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TV(텔레비전)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별로는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8-5〉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TV(텔레비전)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260	53.7	46.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2.4	47.6
	전문가	60	80.0	2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60.4	39.6
	중	479	43.6	56.4
	하	118	47.5	52.5
성별	남성	720	60.6	39.4
	여성	480	40.2	59.8
연령별	20대 이하	235	55.7	44.3
	30대	198	52.0	48.0
	40대	247	51.4	48.6
	50대	252	46.8	53.2
	60대 이상	268	56.0	44.0
지역별	서울	226	49.6	50.4
	경기/인천	384	51.3	48.7
	부산/울산/경남	184	50.5	49.5
	대구/경북	117	55.6	44.4
	광주/전라	112	53.6	46.4
	대전/충청/세종	129	59.7	40.3
	강원/제주	48	52.1	47.9
지역크기	대도시	537	52.1	47.9
	중소도시	601	52.2	47.8
	읍/면	62	56.5	43.5
직업별	농/어/임업	14	64.3	35.7
	자영업자	85	58.8	41.2
	판매/서비스직	85	52.9	47.1
	기능/숙련공	42	64.3	35.7
	일반 노무직	49	46.9	53.1
	사무/기술직	460	54.8	45.2
	경영/관리직	66	65.2	34.8
	전문/자유직	72	47.2	52.8
	전업주부	136	39.7	60.3
	학생	62	51.6	48.4
	무직	122	45.9	54.1
	기타	7	57.1	42.9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66.7	3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50.3	49.7
	전문대(중퇴/졸업)	162	49.4	50.6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53.8	46.2
	대학원 이상	124	50.8	49.2
생활수준별	상	133	64.7	35.3
	중	538	52.0	48.0
	하	529	49.7	50.3

18-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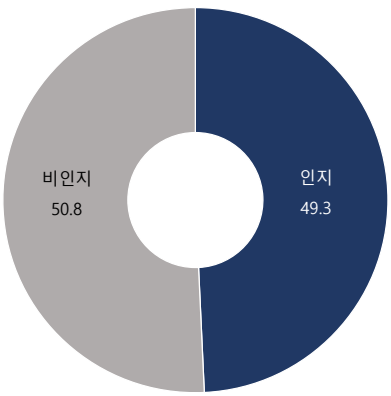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50.8%), 전문가는 '인지'(58.3%)가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50.8%로 '인지'(49.3%)라는 응답보다 1.5%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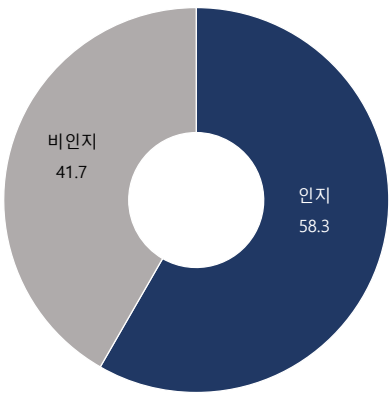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58.3%로 '비인지'(41.7%)라는 응답보다 16.6%p 높게 나타남.

〈그림 5-18-6〉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2021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0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지'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별로는 '읍/면'에서 높게 나타남.

〈표 5-18-6〉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260	49.7	50.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3	50.8
	전문가	60	58.3	41.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603	56.9	43.1
	중	479	41.8	58.2
	하	118	40.7	59.3
성별	남성	720	52.8	47.2
	여성	480	44.0	56.0
연령별	20대 이하	235	52.3	47.7
	30대	198	44.9	55.1
	40대	247	48.6	51.4
	50대	252	48.4	51.6
	60대 이상	268	51.1	48.9
지역별	서울	226	53.5	46.5
	경기/인천	384	48.4	51.6
	부산/울산/경남	184	48.9	51.1
	대구/경북	117	41.9	58.1
	광주/전라	112	57.1	42.9
	대전/충청/세종	129	44.2	55.8
	강원/제주	48	50.0	50.0
지역크기	대도시	537	51.0	49.0
	중소도시	601	47.4	52.6
	읍/면	62	51.6	48.4
직업별	농/어/임업	14	71.4	28.6
	자영업자	85	61.2	38.8
	판매/서비스직	85	52.9	47.1
	기능/숙련공	42	54.8	45.2
	일반 노무직	49	40.8	59.2
	사무/기술직	460	48.0	52.0
	경영/관리직	66	56.1	43.9
	전문/자유직	72	48.6	51.4
	전업주부	136	41.9	58.1
	학생	62	50.0	50.0
	무직	122	46.7	53.3
	기타	7	42.9	57.1
최종 학력별	중졸이하	6	16.7	83.3
	고등학교(중퇴/졸업)	185	47.6	52.4
	전문대(중퇴/졸업)	162	51.9	48.1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	723	48.5	51.5
	대학원 이상	124	54.0	46.0
생활수준별	상	133	52.6	47.4
	중	538	49.4	50.6
	하	529	48.2	51.8

제 4 장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Hyundae Research Institute

시계열 GAB 분석

제4장 시계열 GAP분석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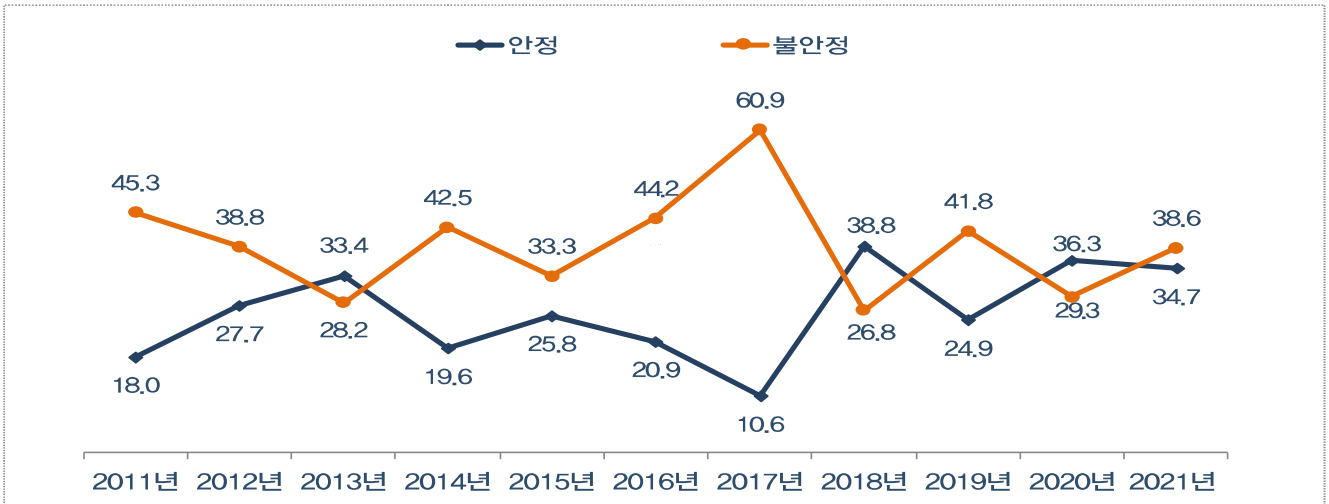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문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8.6%로 '안정적'(34.7%)이라는 응답보다 3.9%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4.7%로 1.6%p 감소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8.6%로 9.3%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16.7%p 증가하였고, '불안정'이라는 응답은 6.7%p 감소함.
- 최근 10년 내 조사 결과 중 대부분은 안보상황을 '불안정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는 '불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음.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최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연도별 비교

구 분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안정 ④	불안정 ⑤	GAP (④-⑤)
2021년 ①	5.8	28.8	26.8	28.9	9.7	34.7	38.6	-3.9
2020년 ②	1.4	34.8	34.4	27.0	2.3	36.3	29.3	6.9
GAP(①-②)	4.4	-6.0	-7.6	1.9	7.4	-1.6	9.3	-
2019년	1.0	23.9	33.3	33.3	8.5	24.9	41.8	-16.9
2018년	3.1	35.8	34.3	22.8	4.1	38.8	26.8	12.0
2017년	1.2	9.4	28.5	47.4	13.5	10.6	60.9	-50.3
2016년	1.8	19.1	35.0	38.6	5.6	20.9	44.2	-23.3
2015년	0.9	24.9	40.9	29.8	3.5	25.8	33.3	-7.5
2014년	1.3	18.3	37.9	39.2	3.3	19.6	42.5	-22.9
2013년	2.2	31.2	38.4	25.6	2.6	33.4	28.2	5.2
2012년	1.9	25.8	33.5	35.0	3.8	27.7	38.8	-11.1
2011년 ③	0.4	17.6	36.7	41.6	3.7	18.0	45.3	-27.3
GAP(①-③)	5.4	11.2	-9.9	-12.7	6.0	16.7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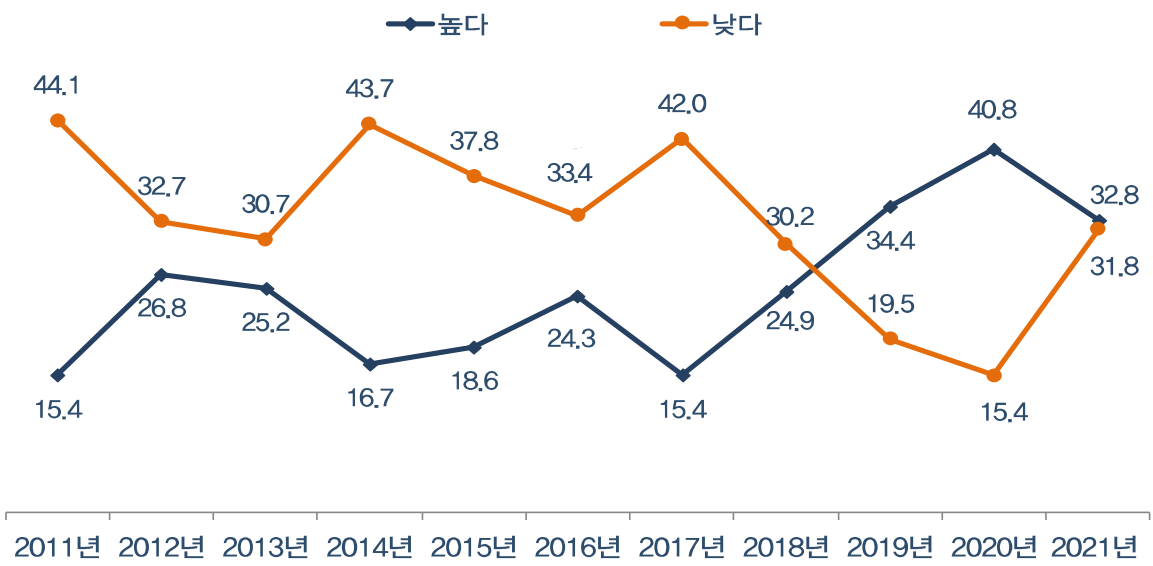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문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2.8%로 '낮다'(31.8%) 보다 1.0%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8.0%p 감소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16.4%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높다'는 응답은 17.4%p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12.3%p 감소함.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매우 높음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매우 낮음	높다 ④	낮다 ⑤	GAP (④-⑤)
2021년 ①	4.3	28.6	35.3	26.5	5.3	32.8	31.8	1.0
2020년 ②	1.9	38.9	43.8	14.8	0.6	40.8	15.4	25.4
GAP(①-②)	2.4	-10.3	-8.5	11.7	4.7	-8.0	16.4	-
2019년	1.8	32.7	46.1	17.1	2.4	34.5	19.5	15.0
2018년	4.5	20.4	44.9	26.8	3.4	24.9	30.2	-5.3
2017년	0.8	14.6	42.6	36.9	5.1	15.4	42.0	-26.6
2016년	2.4	21.9	42.3	28.8	3.6	24.3	32.4	-8.1
2015년	1.2	17.4	43.6	34.1	3.7	18.6	37.8	-19.2
2014년	1.9	14.8	39.6	38.9	4.8	16.7	43.7	-27.0
2013년	1.8	23.4	44.1	27.0	3.7	25.2	30.7	-5.5
2012년	4.5	22.3	40.5	29.8	2.9	26.8	32.7	-5.9
2011년 ③	1.1	14.3	40.5	38.5	5.6	15.4	44.1	-28.7
GAP(①-③)	3.2	14.3	-5.2	-12.0	-0.3	17.4	-1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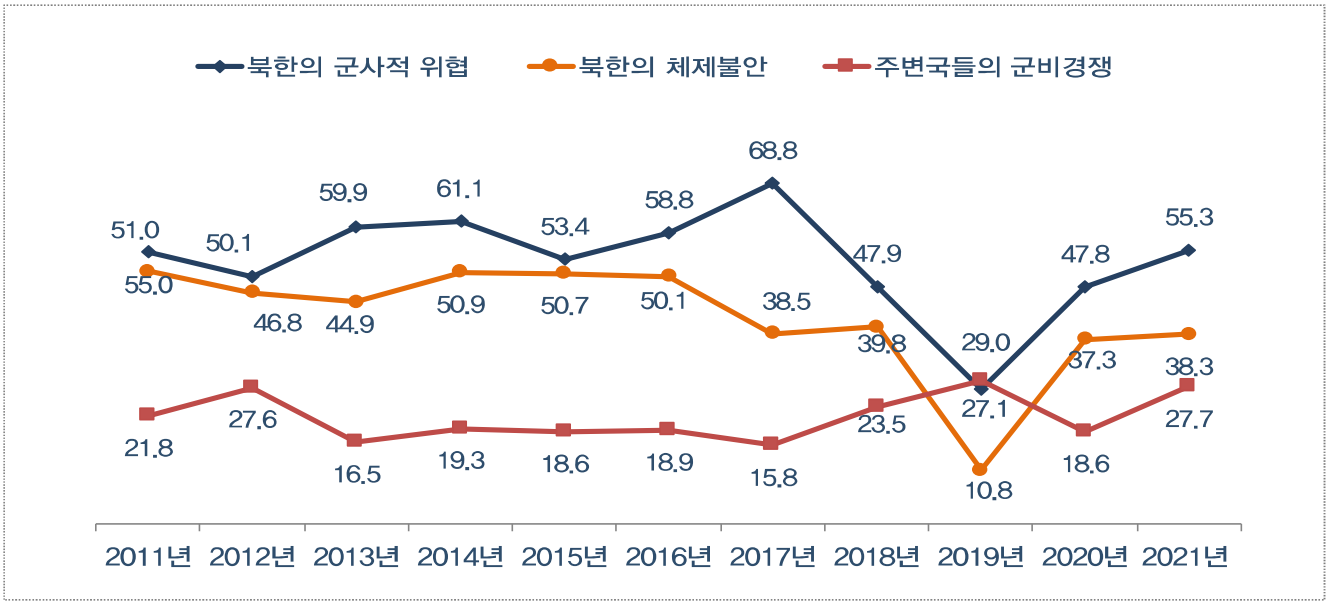
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문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불안'(38.3%),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2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7.5%p, '북한의 체제불안'이라는 응답은 1.0%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0.3%p 증가하였고, '북한의 체제불안'이라는 응답은 12.7%p 감소함.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연도별 비교 – 중복응답(단위 : %, %p)

구 분	2011년 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②	2021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	55.0	50.1	59.9	61.1	53.4	58.8	68.8	47.9	40.8	47.8	55.3	7.5	0.3
북한의 체제 불안	51.0	46.8	44.9	50.9	50.7	50.1	38.5	39.8	24.5	37.3	38.3	1.0	-12.7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18.2	25.4	29.8	19.1	23.8	18.2	22.0	27.3	40.8	26.8	26.3	-0.5	8.1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17.9	21.5	21.8	21.4	22.0	18.5	30.0	27.8	24.7	23.0	16.7	-6.3	-1.2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21.8	27.6	16.5	19.3	18.6	18.9	15.8	23.5	29.0	18.6	27.7	9.1	5.9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21.8	20.0	12.8	11.3	16.8	13.5	11.1	17.8	25.4	16.1	19.3	3.2	-2.5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12.9	8.1	9.5	11.8	10.4	18.9	10.3	11.3	11.0	9.3	8.6	-0.7	-4.3
주변국 영토분쟁	-	-	4.7	4.7	4.0	2.8	2.3	3.8	3.7	4.3	6.8	2.5	-
기타	-	-	-	-	-	-	-	-	0.1	-	0.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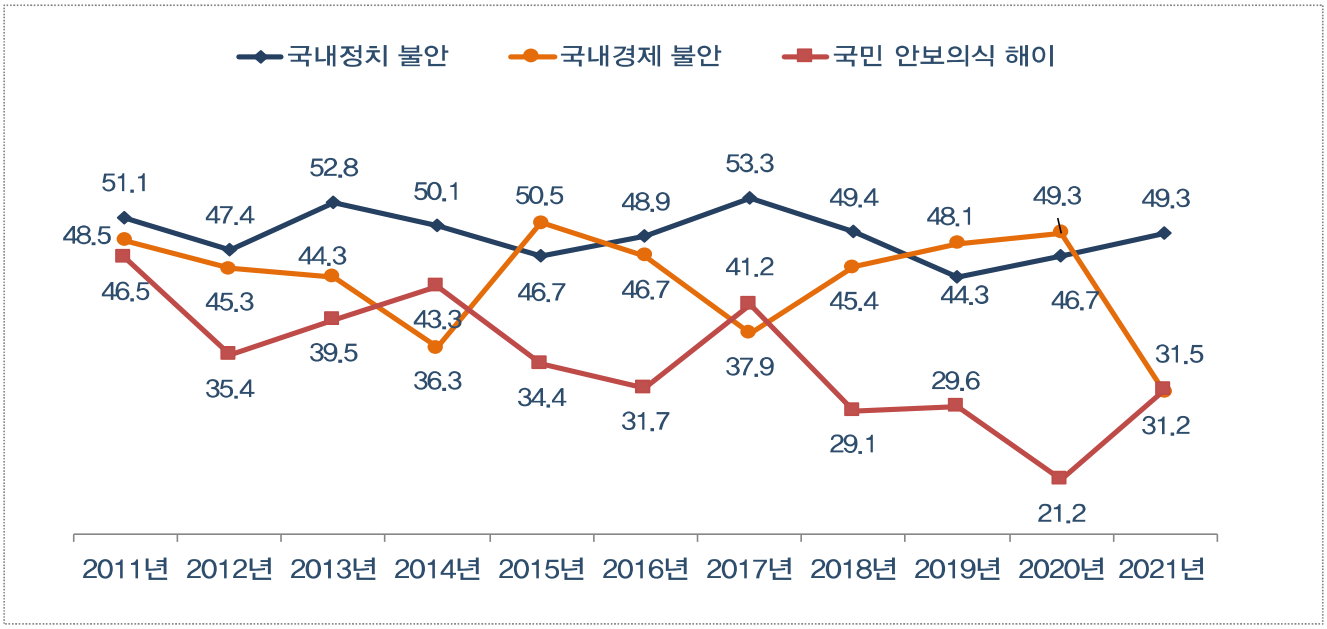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문	대내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념갈등'(32.3%), '국내 안보의식 해이'(3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2.6%p 증가하였고, '국내 경제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18.1%p 감소하였음.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국내 경제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17.3%p,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1.8%p 감소하였음.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연도별 비교 - 중복응답(단위 : %, %p)

구 분	2011년 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②	2021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국내 경제의 불안	48.5	45.3	44.3	36.3	50.5	46.7	37.9	45.4	48.1	49.3	31.2	-18.1	-17.3
국내 정치의 불안	51.1	47.4	52.8	50.1	46.7	48.9	53.3	49.4	44.3	46.7	49.3	2.6	-1.8
국민 안보의식 해이	46.5	35.4	39.5	43.3	34.4	31.7	41.2	29.1	29.6	21.2	31.5	10.3	-15
사회 불평등의 심화	32.8	32.8	26.1	24.9	31.3	35.3	23.1	31.3	29.8	19.2	28.3	9.1	-4.5
반미감정	12.1	16.2	14.3	15.3	11.3	11.8	17.8	16.3	17.4	16.6	12.8	-3.8	0.7
이념갈등	-	13.9	9.8	14.0	11.7	12.9	14.6	17.3	14.4	14.5	32.3	17.8	-
불충분한 국방비	7.8	7.9	9.3	11.4	5.8	6.5	7.9	5.7	12.3	10.1	7.5	-2.6	-0.3
치안불안	-	-	3.5	4.0	8.3	5.9	2.9	4.3	4.3	4.8	5.8	1.0	-
기타	-	-	0.3	0.6	0.2	0.1	0.8	0.6	-	-	-	-	-

5.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

문	대외적으로 남북한 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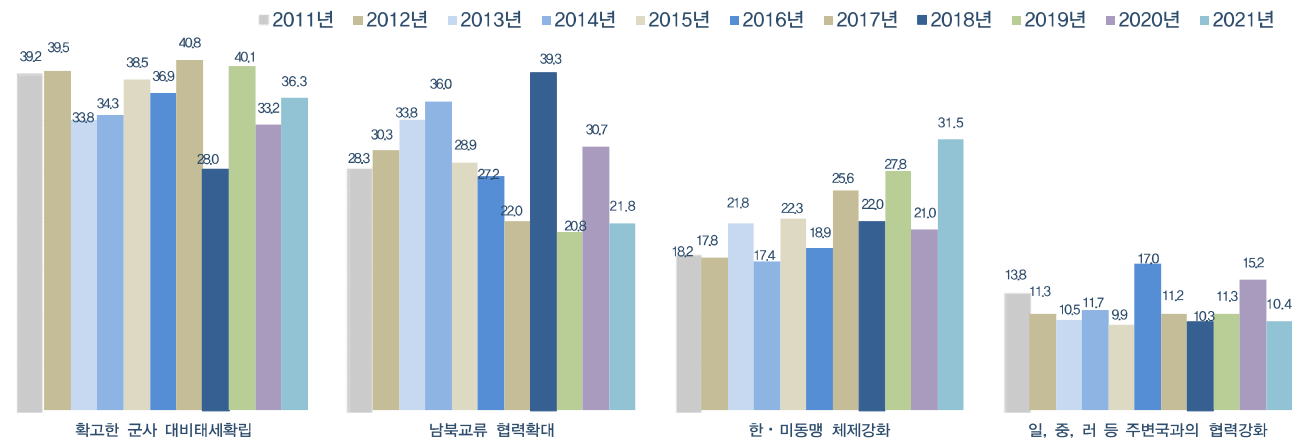
●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체제 강화'(31.5%), '남북 교류협력 확대'(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응답은 3.1%p 증가하였고,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응답은 8.9%p 감소하였음.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응답은 2.9%p, '남북 교류협력 확대' 응답은 6.5%p 감소하였음.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연도별 비교 – 중복응답(단위 : %, %p)

구 분	2011년 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②	2021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39.2	39.5	33.8	34.3	38.5	36.9	40.8	28	40.1	33.2	36.3	3.1	-2.9
남북 교류협력 확대	28.3	30.3	33.8	36	28.9	27.2	22	39.3	20.8	30.7	21.8	-8.9	-6.5
한미 동맹체제 강화	18.2	17.8	21.8	17.4	22.3	18.9	25.6	22	27.8	21.0	31.5	10.5	13.3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13.8	11.3	10.5	11.7	9.9	17	11.2	10.3	11.3	15.2	10.4	-4.8	-3.4
기타	0.6	1.1	0.1	0.6	0.4	-	0.5	0.4	-	-	-	-	-

6.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문	귀하는 안보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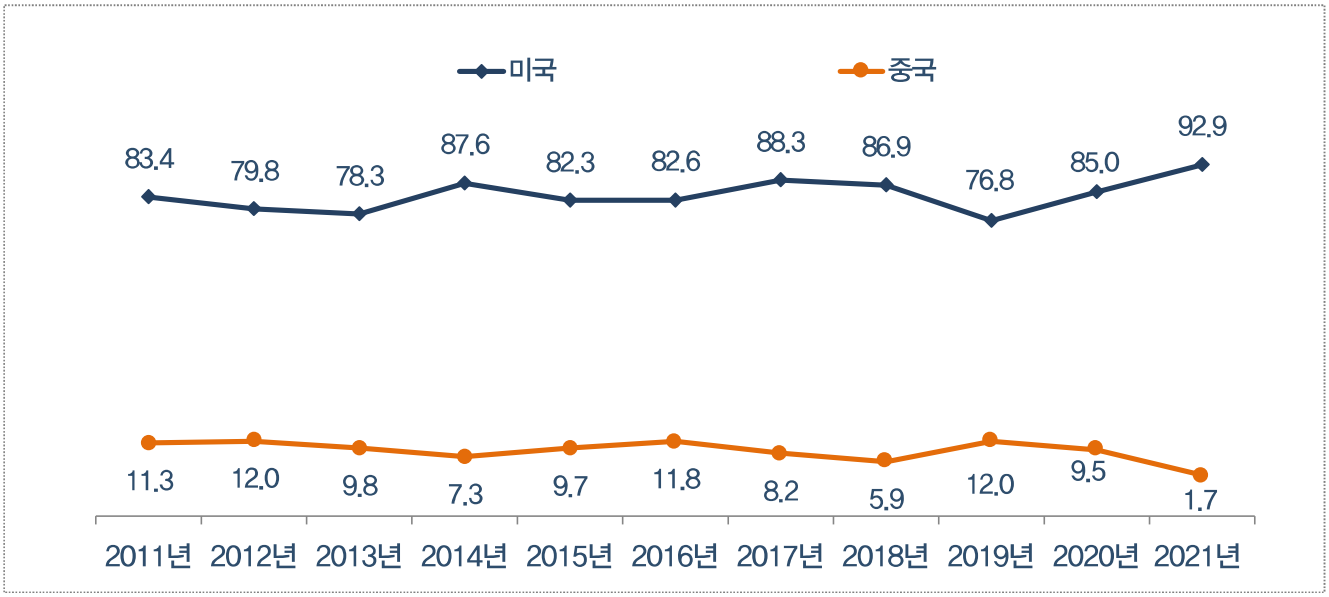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9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7%), '러시아'(1.3%), '일본'(1.1%) 순으로 나타남. (기타 3.1%)

● 2020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7.9%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7.8%p 감소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라는 응답은 9.5%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9.6%p 감소함.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귀하는 안보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 중복응답(단위 : %, %p)

구 분	2011년 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②	2021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미국	83.4	79.8	78.3	87.6	82.3	82.6	88.3	86.9	76.8	85.0	92.9	7.9	9.5
중국	11.3	12.0	9.8	7.3	9.7	11.8	8.2	5.9	12.0	9.5	1.7	-7.8	-9.6
일본	3.5	6.2	9.5	3.1	6.0	3.7	1.8	4.3	8.7	4.5	1.1	-3.4	-2.4
러시아	0.5	2.0	1.9	0.3	1.8	1.5	1.0	1.7	2.3	0.6	1.3	0.7	0.8
기타	1.3	-	0.5	1.8	0.2	0.5	0.8	1.3	0.3	0.4	3.1	2.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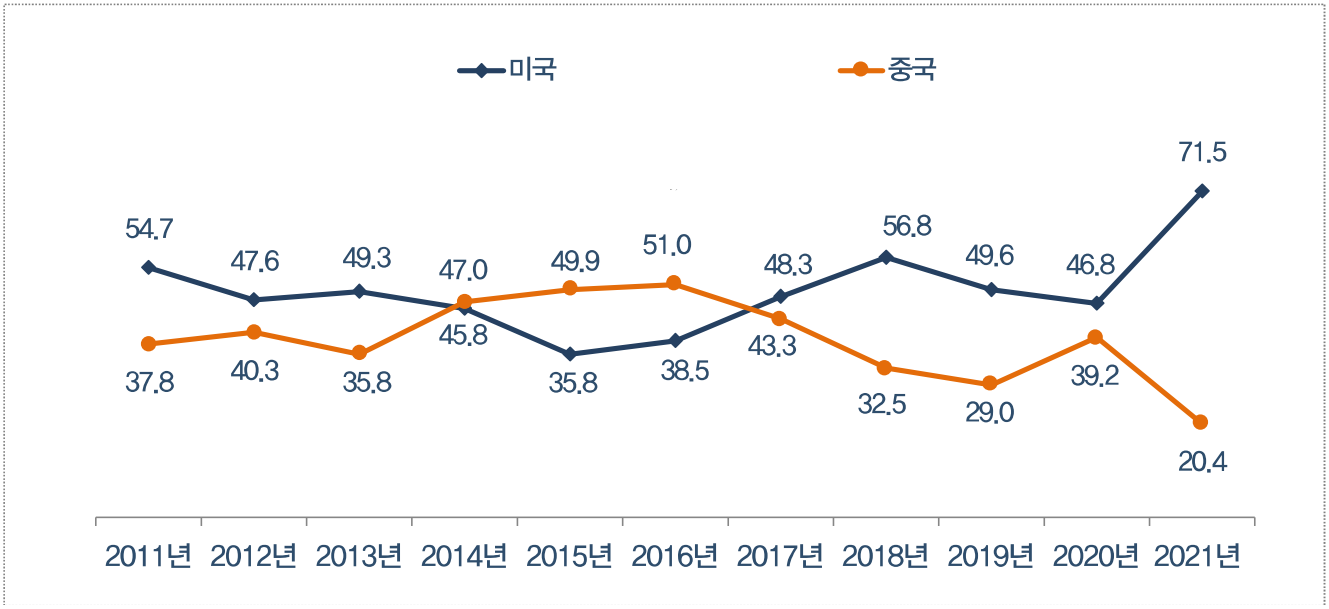
7.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문	귀하는 경제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7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0.4%), '일본'(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24.7%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18.8%p 감소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라는 응답은 16.8%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17.4%p 감소함.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귀하는 경제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 중복응답(단위 : %, %p)

구 분	2011년 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②	2021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미국	54.7	47.6	49.3	45.8	35.8	38.5	48.3	56.8	49.6	46.8	71.5	24.7	16.8
중국	37.8	40.3	35.8	47.0	49.9	51.0	43.3	32.5	29.0	39.2	20.4	-18.8	-17.4
일본	5.1	8.8	8.9	4.6	10.9	8.1	6.1	7.4	17.6	11.3	2.8	-8.5	-2.3
러시아	1.4	3.3	-4.3	1.8	2.6	1.8	1.6	1.9	3.2	1.8	1.3	-0.5	-0.1
기타	1.1	-	1.7	0.8	0.8	0.6	0.8	1.4	0.7	0.9	3.9	3.0	2.8

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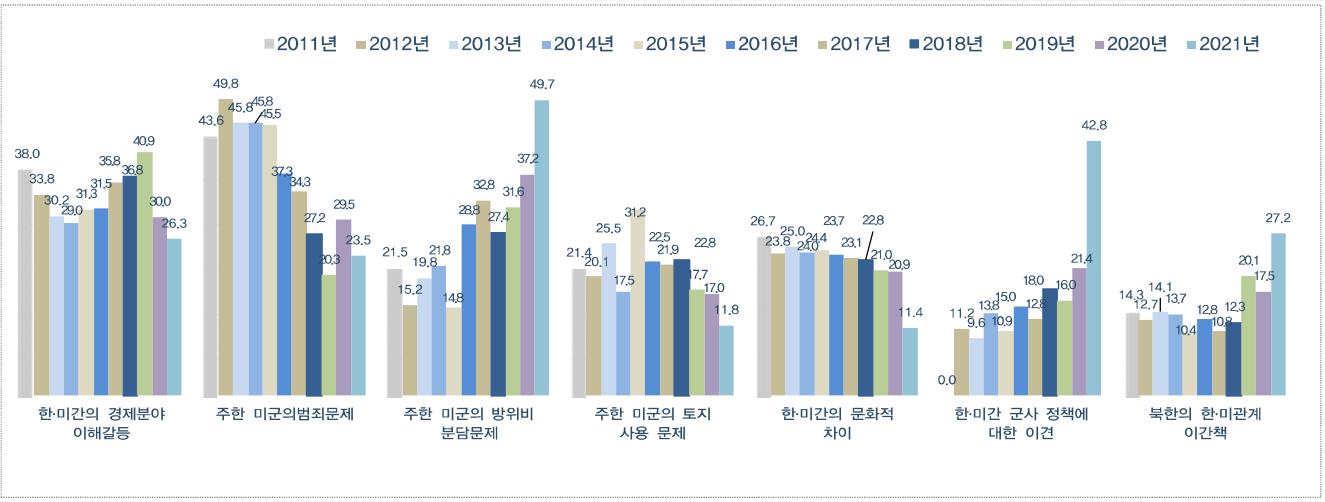
1.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문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4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42.8%),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2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는 12.5%p,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은 21.4%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는 28.2%p 증가함.

한 · 미 동맹관계 유지의 저해요인

한 · 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연도별 비교 – 중복응답(단위 : %, %p)

구 분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한국내 반미감정/ 미국내 반한감정	기타
2021년 ①	26.3	23.5	49.7	11.8	11.4	42.8	27.2	-	2.9
2020년 ②	30.0	29.5	37.2	17.0	20.9	21.4	17.5	26.5	-
GAP(①-②)	-3.7	-6.0	12.5	-5.2	-9.5	21.4	9.7	-	-
2019년	-12.2	8.5	7.0	-1.5	-1.3	6.7	-2.4	-4.7	-0.3
2018년	36.8	27.2	27.4	22.8	22.8	18.0	12.3	31.7	0.8
2017년	35.8	34.3	32.8	21.9	23.1	12.8	10.8	27.3	1.3
2016년	31.5	37.3	28.8	22.5	23.7	15.0	12.8	28.0	0.2
2015년	31.3	45.5	14.8	31.2	24.4	10.9	10.4	31.5	0.0
2014년	29.0	45.8	21.8	17.5	24.0	13.8	13.7	34.2	0.2
2013년	30.2	45.8	19.8	25.5	25.0	9.6	14.1	29.8	0.1
2012년	33.8	49.8	15.2	20.1	23.8	11.2	12.7	32.3	0.6
2011년 ③	38.0	43.6	21.5	21.4	26.7	-	14.3	32.9	-
GAP(①-③)	-11.7	-20.1	28.2	-9.6	-15.3	-	12.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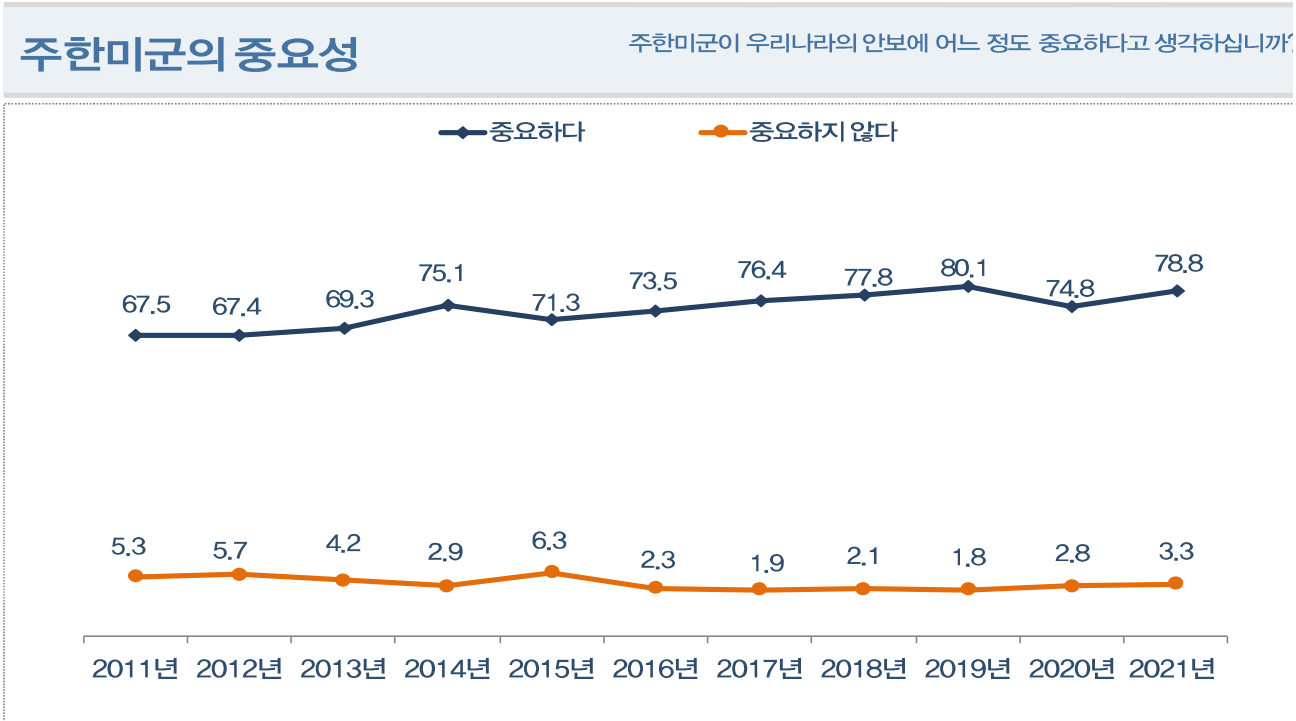
2.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문	귀하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8.8%로, '중요하지 않다'(3.3%)보다 75.5%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4.0%p,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5%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중요하다'는 응답은 11.3%p 증가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p 감소함.



〈표〉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매우 중요	중요한 편	보통	중요하지 않은 편	매우 중요하지않음	중요 ④	중요하지않음 ⑤	GAP (④-⑤)
2021년 ①	31.2	47.6	17.9	2.8	0.5	78.8	3.3	75.5
2020년 ②	12.8	62.1	22.4	2.8	-	74.8	2.8	72.0
GAP(①-②)	18.4	-14.5	-4.5	0.0	-	4.0	0.5	-
2019년	17.0	63.1	18.1	1.8	0.0	80.1	1.8	78.3
2018년	25.5	52.3	20.1	1.8	0.3	77.8	2.1	75.7
2017년	20.2	56.3	21.7	1.8	0.1	76.4	1.9	74.5
2016년	16.5	57.0	24.3	2.1	0.2	73.5	2.3	71.2
2015년	14.6	56.7	22.4	6.0	0.3	71.3	6.3	65.0
2014년	16.8	58.3	22.0	2.6	0.3	75.1	2.9	72.2
2013년	16.6	52.7	26.5	3.9	0.3	69.3	4.2	65.1
2012년	19.0	48.4	26.9	5.4	0.3	67.4	5.7	61.7
2011년 ③	18.8	48.7	27.2	4.8	0.5	67.5	5.3	62.2
GAP(①-③)	12.4	-1.1	-9.3	-2.0	0.0	11.3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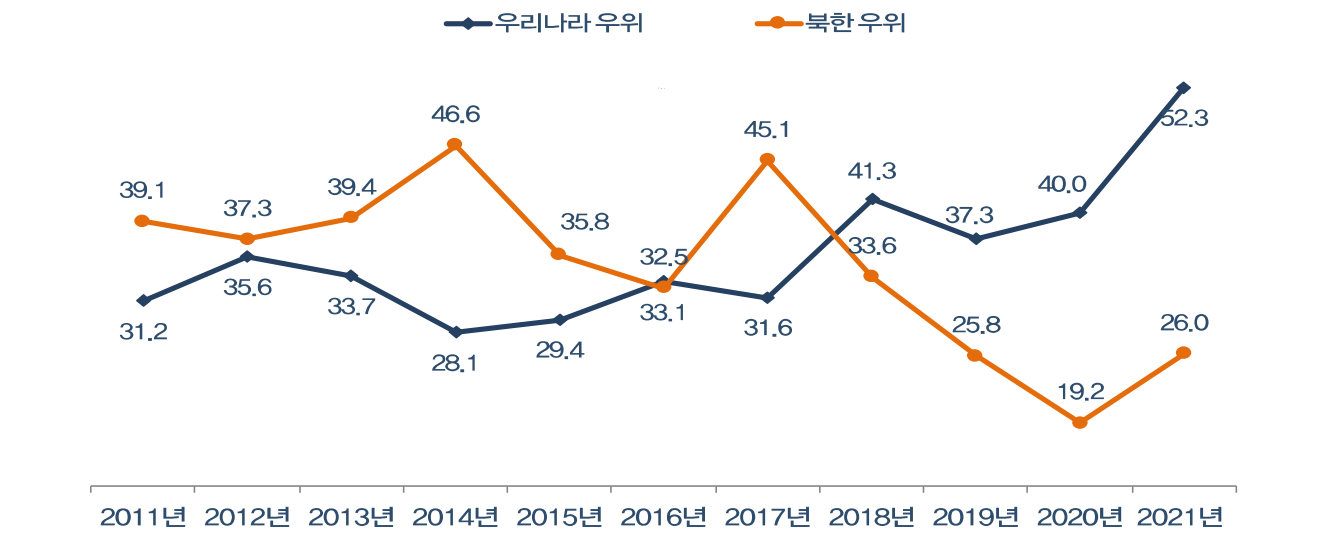
3.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문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북한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라는 응답이 52.3%로, '북한이 우위'(26.0%)라는 응답보다 26.3%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우리나라 우위'라는 응답은 12.3%p,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6.8%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우위'라는 응답은 21.1%p 증가하였고,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13.1%p 감소함.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우리나라 훨씬 우위	우리나라 다소 우위	비슷	북한 다소 우위	북한 훨씬 우위	우리나라 우위 ④	북한 우위 ⑤	GAP (④-⑤)
2021년 ①	18.1	34.3	21.7	19.8	6.3	52.3	26.0	26.3
2020년 ②	4.7	35.3	40.8	17.2	2.0	40.0	19.2	20.8
GAP(①-②)	13.4	-1.0	-19.1	2.6	4.3	12.3	6.8	-
2019년	3.8	33.5	37.0	20.3	5.4	37.3	25.8	11.5
2018년	14.7	26.7	25.1	27.1	6.5	41.3	33.6	7.7
2017년	7.3	24.3	23.3	34.7	10.4	31.6	45.1	-13.5
2016년	7.8	25.3	34.4	26.0	6.5	33.1	32.5	0.6
2015년	4.2	25.2	34.8	29.1	6.7	29.4	35.8	-6.4
2014년	4.9	23.2	25.3	38.8	7.8	28.1	46.6	-18.5
2013년	6.6	27.1	26.9	31.9	7.5	33.7	39.4	-5.7
2012년	7.9	27.7	27.1	32.7	4.6	35.6	37.3	-1.7
2011년 ③	6.8	24.4	29.7	32.8	6.3	31.2	39.1	-7.9
GAP(①-③)	11.3	9.9	-8.0	-13.0	0.0	21.1	-1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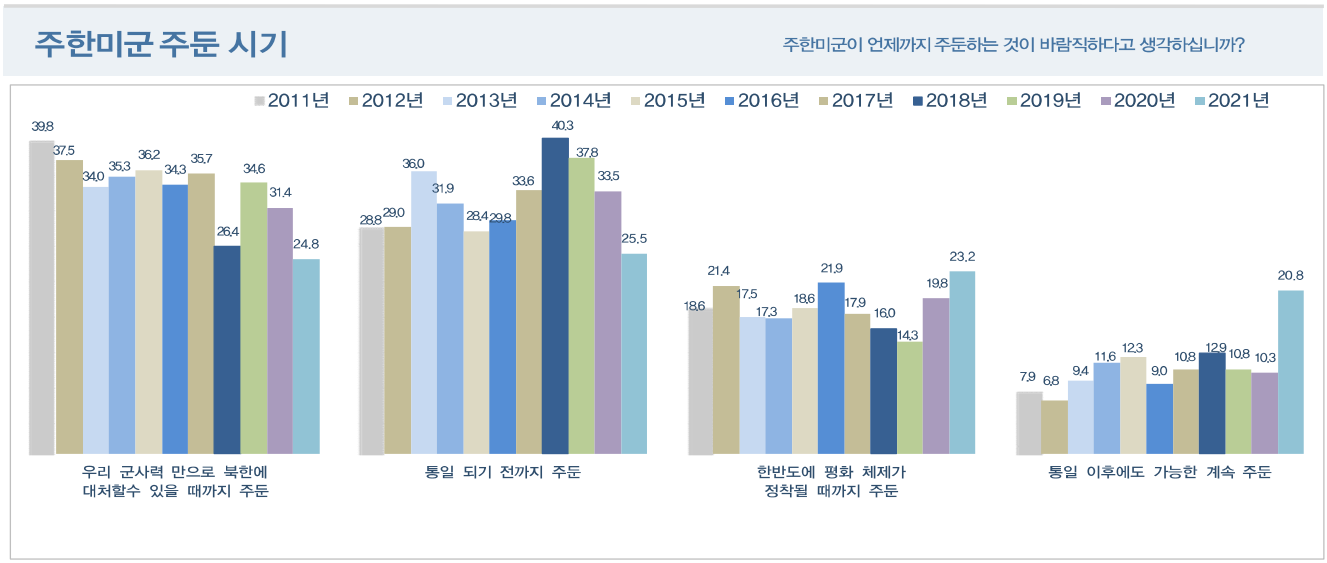
4. 주한미군 주둔 시기

문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8.0%p 감소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3.3%p 감소함.



〈표〉 주한미군 주둔 시기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2021년 ①	24.8	25.5	23.2	20.8	5.8
2020년 ②	31.4	33.5	19.8	10.3	5.0
GAP(①-②)	-6.6	-8.0	3.4	10.5	0.8
2019년	34.6	37.8	14.3	10.8	2.5
2018년	26.4	40.3	16.0	12.9	4.3
2017년	35.7	33.6	17.9	10.8	2.1
2016년	34.3	29.8	21.9	9.0	4.9
2015년	36.2	28.4	18.6	12.3	4.5
2014년	35.3	31.9	17.3	11.6	3.9
2013년	34.0	36.0	17.5	9.4	3.1
2012년	37.5	29.0	21.4	6.8	5.3
2011년 ③	39.8	28.8	18.6	7.9	4.8
GAP(①-③)	-15.0	-3.3	4.6	12.9	1.0

5. 한·미연합훈련 필요성

문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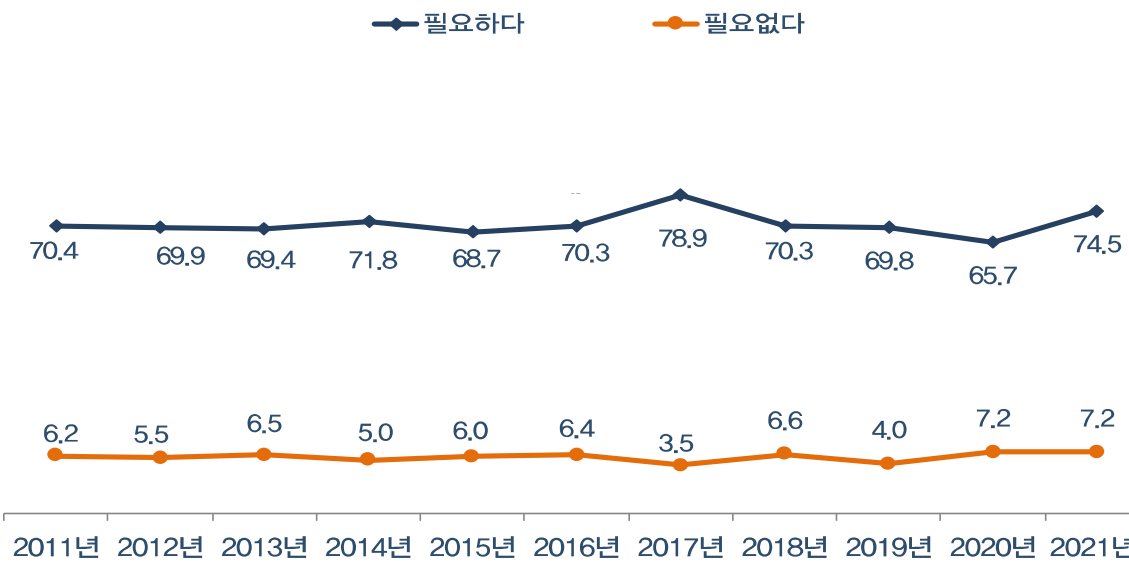
●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5%로, '필요없다'(7.2%)보다 67.3%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필요하다'는 응답은 8.8%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는 응답은 4.1%p 증가함.

한 · 미 연합 군사훈련 필요성

우리 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한 • 미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한·미연합훈련 필요성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없다	필요함 ④	필요 없음 ⑤	GAP (④-⑤)
2021년 ①	34.0	40.5	18.3	5.9	1.3	74.5	7.2	67.3
2020년 ②	8.2	57.5	27.2	7.0	0.2	65.7	7.2	58.5
GAP(①-②)	25.8	-17.0	-8.9	-1.1	1.1	8.8	0.0	-
2019년	10.8	58.9	26.3	3.4	0.6	69.8	4.0	65.8
2018년	16.3	54.0	23.2	5.8	0.8	70.3	6.6	63.7
2017년	20.4	58.5	17.6	3.2	0.3	78.9	3.5	75.4
2016년	15.0	55.3	23.3	5.9	0.5	70.3	6.4	63.9
2015년	14.1	54.6	25.3	5.5	0.5	68.7	6.0	62.7
2014년	19.6	52.2	23.2	4.7	0.3	71.8	5.0	66.8
2013년	14.0	55.4	24.1	5.8	0.7	69.4	6.5	62.9
2012년	19.0	50.9	24.6	5.0	0.5	69.9	5.5	64.4
2011년 ③	17.7	52.7	23.4	5.5	0.7	70.4	6.2	64.2
GAP(①-③)	16.3	-12.2	-5.1	0.4	0.6	4.1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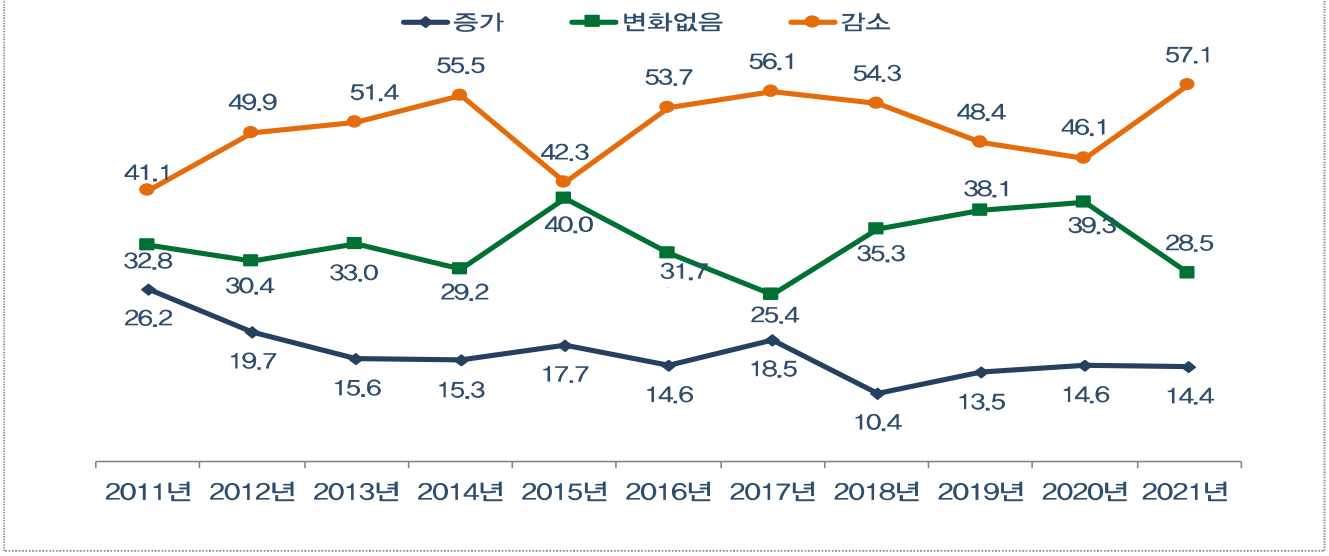
6.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문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57.1%로, '증가할 것이다'(14.4%)는 응답보다 42.7%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은 11.0%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은 30.9%p 증가함.

주한미군 감축 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표〉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크게 감소할 것	약간 감소할 것	변화가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크게 증가할 것	증가 ④	감소 ⑤	GAP (④-⑤)
2021년 ①	3.9	10.5	28.5	36.3	20.8	14.4	57.1	-42.7
2020년 ②	7.1	39.0	39.3	13.8	0.8	14.6	46.1	-31.5
GAP(①-②)	-3.2	-28.5	-10.8	22.5	20.0	-0.2	11.0	-
2019년	7.7	40.8	38.1	11.3	2.3	13.5	48.4	34.9
2018년	13.8	40.5	35.3	9.3	1.1	10.4	54.3	43.9
2017년	15.3	40.8	25.4	15.8	2.8	18.5	56.1	37.6
2016년	11.8	41.9	31.7	13.2	1.4	14.6	53.7	39.1
2015년	9.5	32.8	40.0	16.0	1.7	17.7	42.3	24.6
2014년	12.9	42.6	29.2	13.8	1.5	15.3	55.5	40.2
2013년	11.3	40.1	33.0	13.8	1.8	15.6	51.4	35.8
2012년	11.4	38.5	30.4	17.3	2.4	19.7	49.9	30.2
2011년 ③	10.2	30.9	32.8	21.9	4.3	26.2	41.1	14.9
GAP(①-③)	-6.3	-20.4	-4.3	14.4	16.5	-11.8	16.0	-

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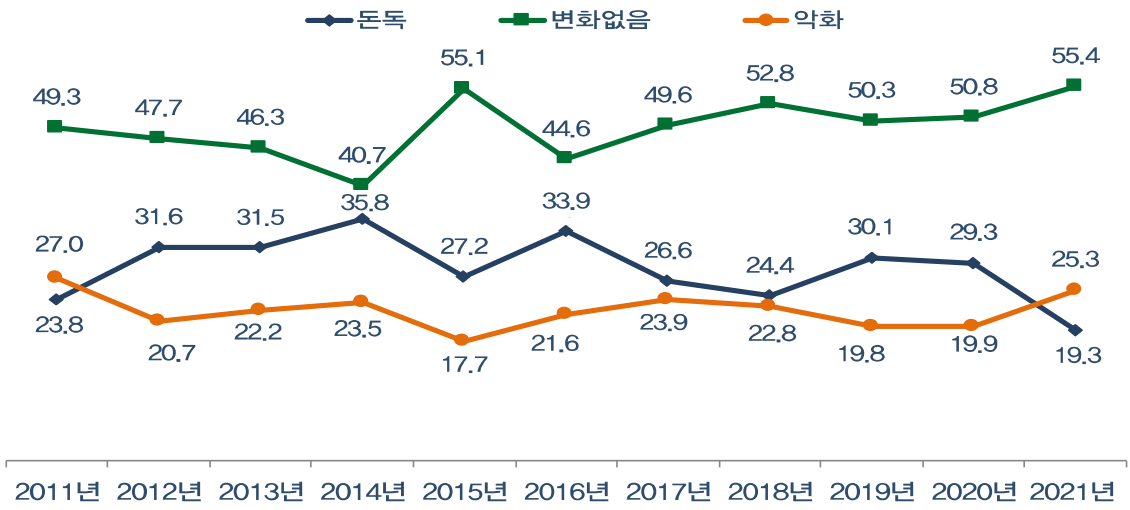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25.3%로, '돈독해질 것이다'(19.3%)보다 6.0%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은 5.4%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악화될 것이다'는 응답은 1.7%p 감소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 • 미동맹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 • 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더욱 돈독해질 것	돈독해질 것	현재와 같을 것	악화될 것	더욱 악화될 것	돈독 ④	악화 ⑤	GAP (④-⑤)
2021년 ①	3.5	15.8	55.4	21.7	3.6	19.3	25.3	-6.0
2020년 ②	0.8	28.5	50.8	19.7	0.3	29.3	19.9	9.3
GAP(①-②)	2.7	-12.7	4.6	2.0	3.3	-10.0	5.4	-
2019년	2.3	27.8	50.3	17.7	2.1	30.1	19.8	10.3
2018년	4.0	20.4	52.8	20.3	2.5	24.4	22.8	1.6
2017년	2.6	24.0	49.6	22.8	1.1	26.6	23.9	2.7
2016년	5.2	28.7	44.6	20.3	1.3	33.9	21.6	12.3
2015년	3.1	24.1	55.1	16.1	1.6	27.2	17.7	9.5
2014년	5.3	30.5	40.7	22.7	0.8	35.8	23.5	12.3
2013년	3.7	27.8	46.3	20.3	1.9	31.5	22.2	9.3
2012년	4.2	27.4	47.7	19.4	1.3	31.6	20.7	10.9
2011년 ③	3.1	20.8	49.3	26.5	0.6	23.8	27.0	-3.2
GAP(①-③)	0.4	-5.0	6.1	-4.8	3.0	-4.5	-1.7	-

Ⅲ. 북한 관련 사항

1.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문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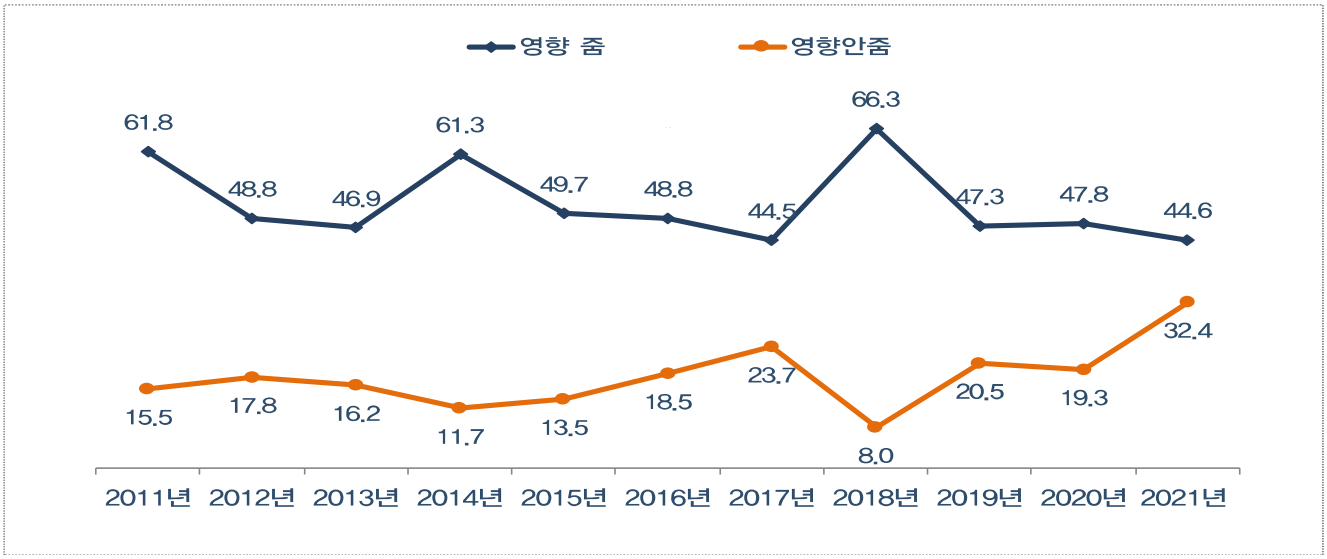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4.6%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32.4%)보다 12.2%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2%p 감소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17.2%p 감소함.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매우 많은 영향	어느 정도 영향	보통이다	거의 영향 안줌	전혀 영향 안줌	영향줌 ④	영향안줌 ⑤	GAP (④-⑤)
2021년 ①	5.7	38.9	23.0	20.6	11.8	44.6	32.4	12.2
2020년 ②	2.8	44.9	33.0	16.3	2.9	47.8	19.3	28.5
GAP(①-②)	2.9	-6.0	-10.0	4.3	8.9	-3.2	13.1	-
2019년	3.8	43.6	32.2	17.9	2.6	47.3	20.5	26.8
2018년	14.1	52.2	25.8	6.7	1.3	66.3	8.0	58.3
2017년	5.3	39.2	31.8	20.5	3.2	44.5	23.7	20.8
2016년	8.2	40.6	32.8	16.3	2.2	48.8	18.5	30.3
2015년	5.3	44.4	36.8	12.1	1.4	49.7	13.5	36.2
2014년	12.1	49.2	27.0	10.2	1.5	61.3	11.7	49.6
2013년	6.0	40.9	36.9	14.1	2.1	46.9	16.2	30.7
2012년	5.7	43.1	33.4	14.5	3.3	48.8	17.8	31.0
2011년 ③	10.0	51.8	22.8	12.7	2.8	61.8	15.5	46.3
GAP(①-③)	-4.3	-12.9	0.2	7.9	9.0	-17.2	1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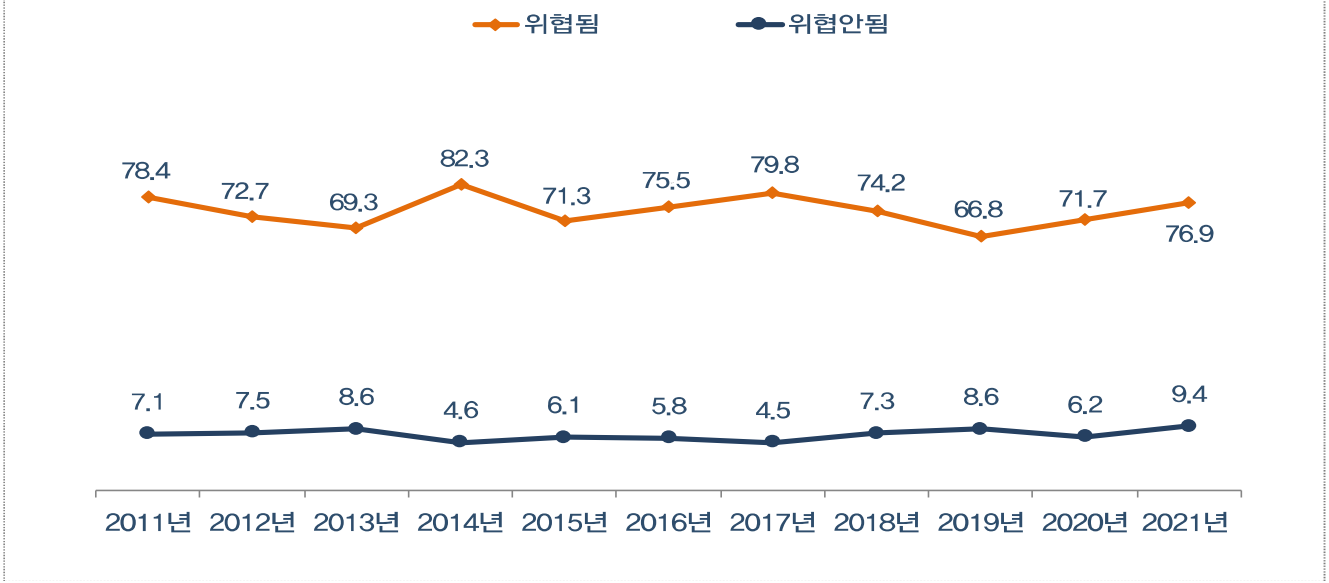
2.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6.9%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9.4%)보다 67.5%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5.2%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1.5%p 감소함.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나라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매우 큰 위협	어느 정도 위협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 안됨	전혀 위협 안됨	위협됨 ④	위협안됨 ⑤	GAP (④-⑤)
2021년 ①	42.9	34.0	13.7	8.4	1.0	76.9	9.4	67.5
2020년 ②	18.5	53.2	22.2	6.2	0.0	71.7	6.2	65.5
GAP(①-②)	24.4	-19.2	-8.5	2.2	1.0	5.2	3.2	-
2019년	21.3	45.4	24.7	8.2	0.4	66.8	8.6	58.2
2018년	29.9	44.3	18.6	6.5	0.8	74.2	7.3	66.9
2017년	38.9	40.9	15.7	4.3	0.3	79.8	4.5	75.3
2016년	30.4	45.1	18.7	5.3	0.5	75.5	5.8	69.7
2015년	25.8	45.5	22.6	5.8	0.3	71.3	6.1	65.2
2014년	39.6	42.7	13.1	4.2	0.4	82.3	4.6	77.7
2013년	25.5	43.8	22.1	7.7	0.9	69.3	8.6	60.7
2012년	30.5	42.2	19.8	6.8	0.7	72.7	7.5	65.2
2011년 ③	38.7	39.7	14.5	6.3	0.8	78.4	7.1	71.3
GAP(①-③)	4.2	-5.7	-0.8	2.1	0.2	-1.5	2.3	-

Ⅳ.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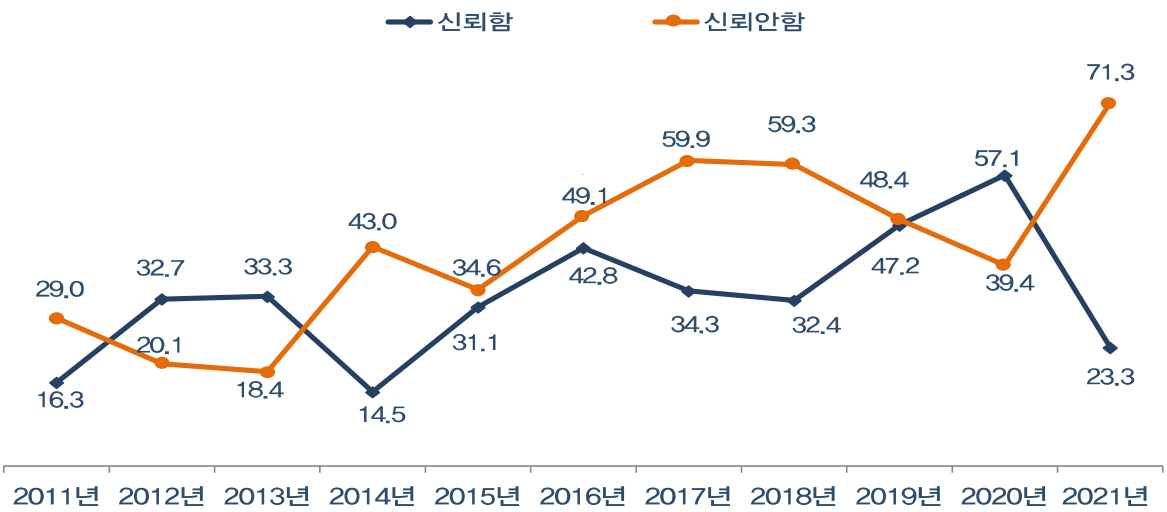
1. 군 발표 신뢰도

문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하십니까?

● 국방부의 각종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3%로, '신뢰한다'(23.3%)보다 48.0%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9%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3%p 증가함.

국방부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성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 하십니까?



〈표〉 군 발표 신뢰도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매우 신뢰	신뢰하는 편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안함	잘 모름	신뢰함 ④	신뢰하지 않음 ⑤	GAP (④-⑤)
2021년 ①	1.7	21.6	46.0	25.3	5.5	23.3	71.3	-48.0
2020년 ②	1.7	55.4	32.4	7.0	3.5	57.1	39.4	17.7
GAP(①-②)	0.0	-33.8	13.6	18.3	2.0	-33.8	31.9	-
2019년	1.1	46.1	40.1	8.3	4.4	47.2	48.4	-1.2
2018년	2.5	29.9	44.8	14.4	8.3	32.4	59.3	-26.9
2017년	2.6	31.7	50.6	9.3	5.8	34.3	59.9	-25.6
2016년	3.0	39.8	40.3	8.8	8.3	42.8	49.1	-6.3
2015년	2.3	28.8	31.5	3.1	34.3	31.1	34.6	-3.5
2014년	1.3	13.2	35.5	7.5	42.5	14.5	43.0	-28.5
2013년	3.8	29.5	17.1	1.3	48.3	33.3	18.4	14.9
2012년	1.7	31.0	18.5	1.6	47.2	32.7	20.1	12.6
2011년 ③	2.1	14.2	24.8	4.2	54.8	16.3	29.0	-12.7
GAP(①-③)	-0.4	7.4	21.2	21.1	-49.3	7.0	4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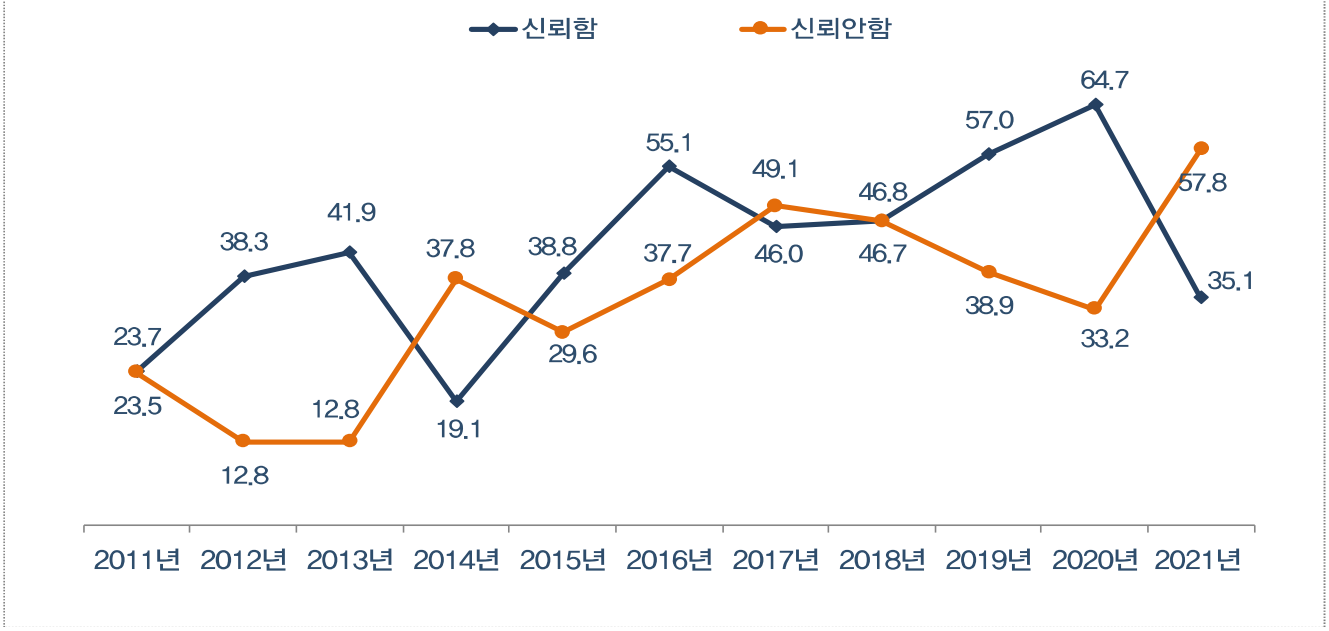
2. 군 신뢰도

문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 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57.8%)는 응답이 '신뢰한다'(35.1%)보다 22.7%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4.6%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4.3%p 증가함.

군에 대한 신뢰도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표〉 군 신뢰도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신뢰함 ④	신뢰하지 않음 ⑤	GAP (④-⑤)
2021년 ①	35.1	57.8	-22.7
2020년 ②	64.7	33.2	31.5
GAP(①-②)	-29.6	24.6	-
2019년	57.0	38.9	18.1
2018년	46.7	46.8	-0.1
2017년	46.0	49.1	-3.1
2016년	55.1	37.7	17.4
2015년	38.8	29.6	9.2
2014년	19.1	37.8	-18.7
2013년	41.9	12.8	29.1
2012년	38.3	12.8	25.5
2011년 ③	23.7	23.5	0.2
GAP(①-③)	11.4	34.3	-

3.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문	귀하는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기선정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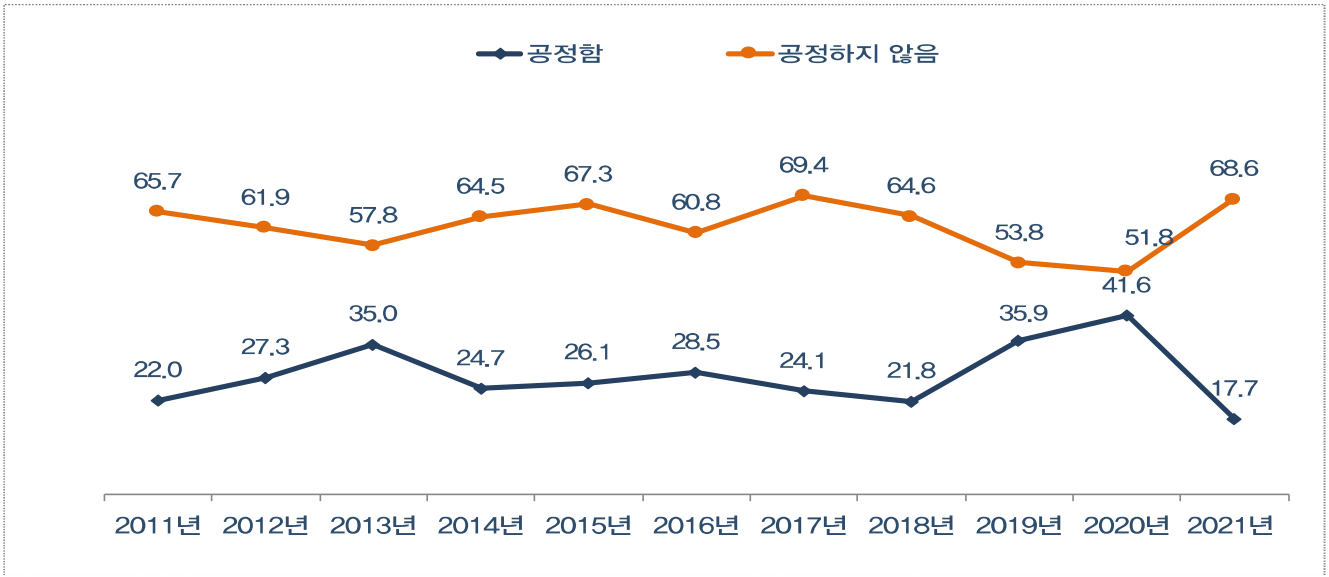
●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8.6%로, '공정하다'(17.7%)보다 50.9%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6.8%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9%p 증가함.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 추진시 무기선정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매우 공정하게 결정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	잘 모르겠다	공정함 ④	공정하지 않음 ⑤	GAP (④-⑤)
2021년 ①	1.8	15.9	42.6	26.0	13.8	17.7	68.6	-50.9
2020년 ②	1.3	40.3	42.3	9.5	6.7	41.6	51.8	-10.2
GAP(①-②)	0.5	-24.4	0.3	16.5	7.1	-23.9	16.8	-
2019년	1.2	34.8	44.0	9.8	10.3	35.9	53.8	-17.9
2018년	2.4	19.4	42.3	22.3	13.6	21.8	64.6	-42.8
2017년	2.8	21.3	44.6	24.8	6.5	24.1	69.4	-45.3
2016년	2.3	26.2	39.8	21.0	10.8	28.5	60.8	-32.3
2015년	2.4	23.7	42.4	24.9	6.6	26.1	67.3	-41.2
2014년	3.2	21.5	39.3	25.2	7.2	24.7	64.5	-39.8
2013년	4.1	30.9	44.8	13.0	7.2	35.0	57.8	-22.8
2012년	3.3	24.0	47.0	14.9	10.8	27.3	61.9	-34.6
2011년 ③	2.1	19.9	46.8	18.9	12.3	22.0	65.7	-43.7
GAP(①-③)	-0.3	-4	-4.2	7.1	1.5	-4.3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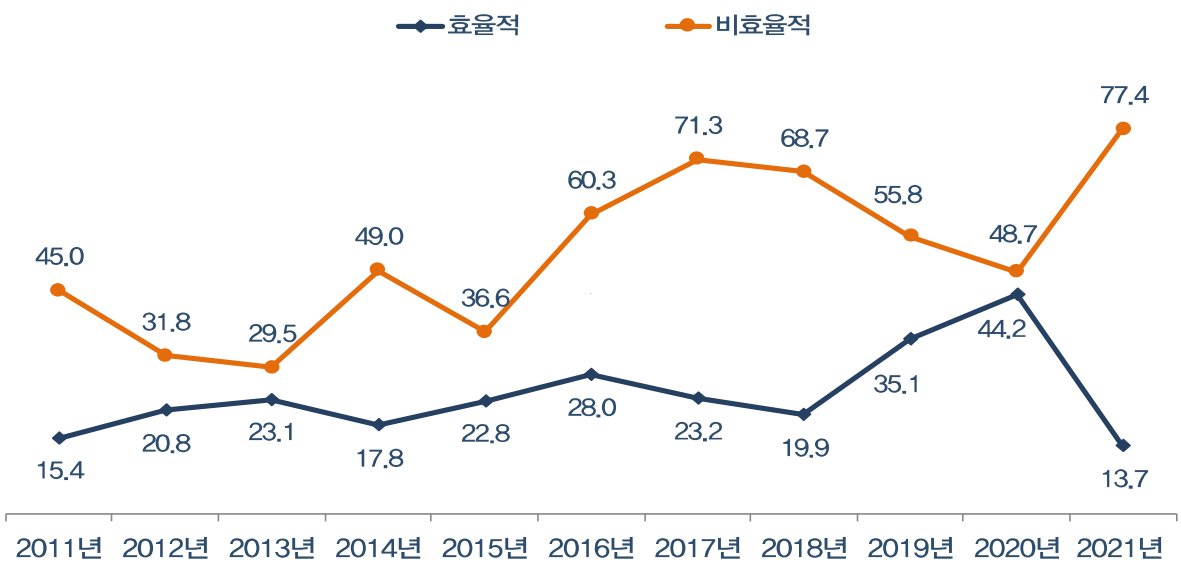
4.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문	귀하는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77.4%로, '효율적이다'(13.7%)보다 63.7%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28.7%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32.4%p 증가함.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국방부는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효율적 ④	비효율적 ⑤	GAP (④-⑤)
2021년 ①	13.7	77.4	-63.7
2020년 ②	44.2	48.7	-4.5
GAP(①-②)	-30.5	28.7	-
2019년	35.1	55.8	-20.7
2018년	19.9	68.7	-48.8
2017년	23.2	71.3	-48.1
2016년	28.0	60.3	-32.3
2015년	22.8	36.6	-13.8
2014년	17.8	49.0	-31.2
2013년	23.1	29.5	-6.4
2012년	20.8	31.8	-11.0
2011년 ③	15.4	45.0	-29.6
GAP(①-③)	-1.7	32.4	-

5. 국방비 수준

문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2017년 기준 GDP 대비 2.7%)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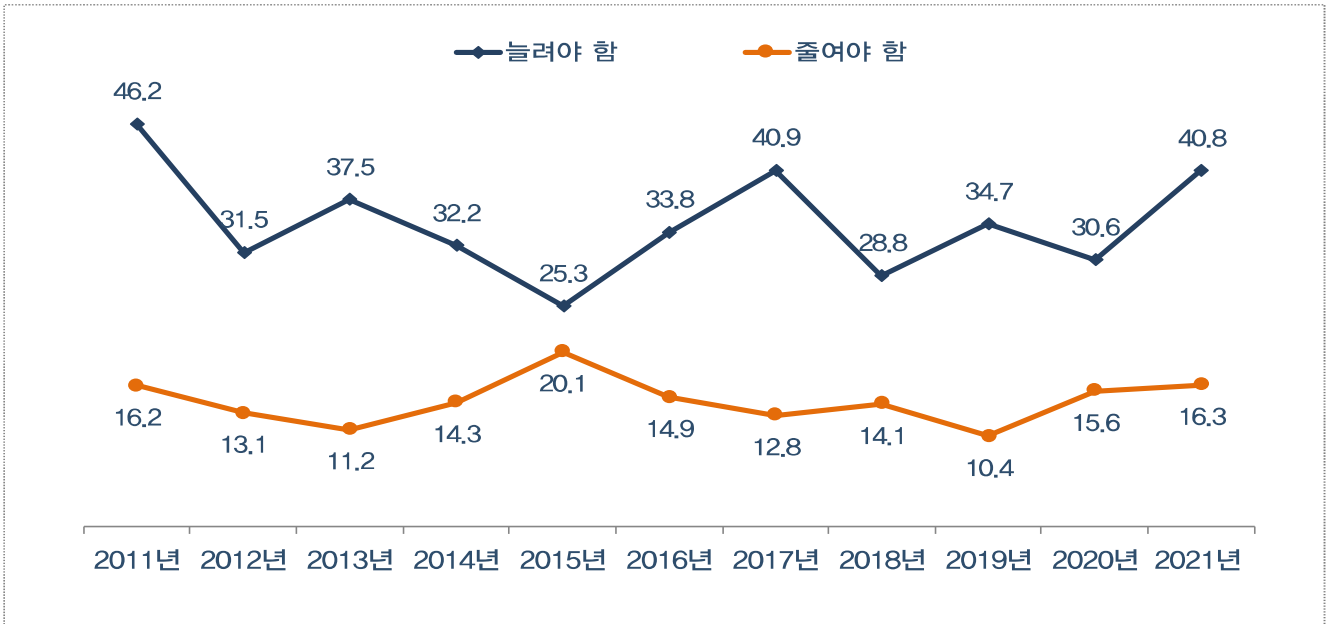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8%로, '줄여야 한다'(16.3%)보다 24.5%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2%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4%p 감소함.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국방비 수준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늘려야 함 ④	줄여야 함 ⑤	GAP (④-⑤)
2021년 ①	40.8	16.3	24.5
2020년 ②	30.6	15.6	15.0
GAP(①-②)	10.2	0.7	-
2019년	34.7	10.4	24.3
2018년	28.8	14.1	14.7
2017년	40.9	12.8	28.1
2016년	33.8	14.9	18.9
2015년	25.3	20.1	5.2
2014년	32.2	14.3	17.9
2013년	37.5	11.2	26.3
2012년	31.5	13.1	18.4
2011년 ③	46.2	16.2	30.0
GAP(①-③)	-5.4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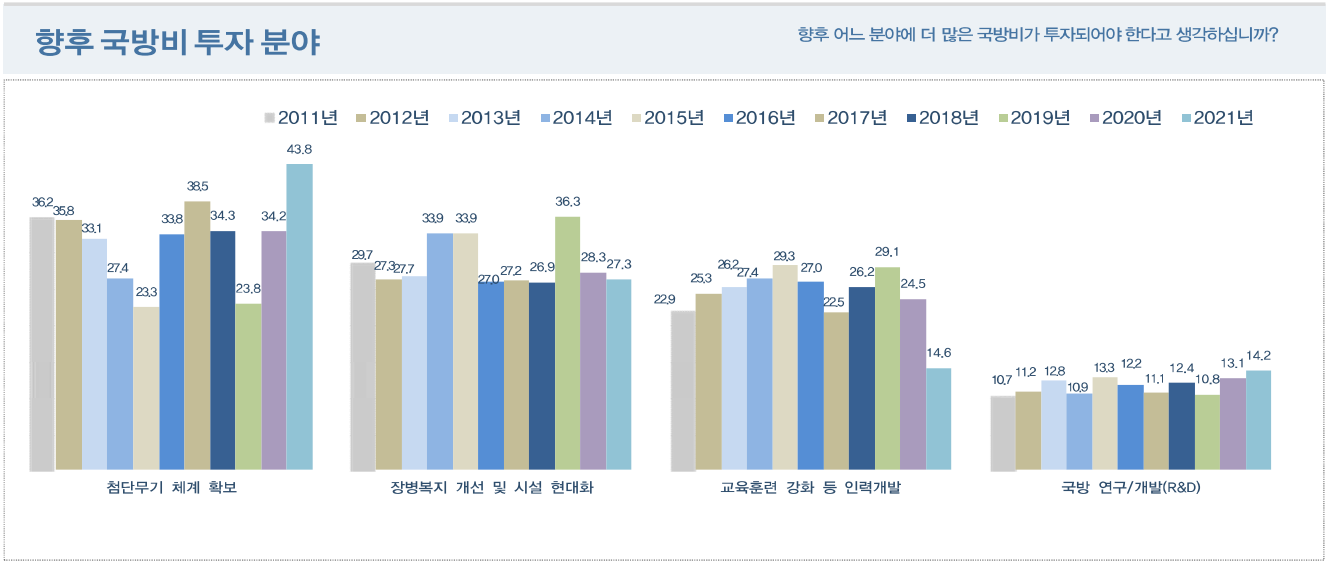
6.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문	귀하는 국방비가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7.3%),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9.6%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7.6%p 증가함.



〈표〉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첨단무기체계 확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국방 연구/개발(R&D)	기타
2021년 ①	43.8	27.3	14.6	14.2	0.1
2020년 ②	34.2	28.3	24.5	13.1	-
GAP(①-②)	9.6	-1.0	-9.9	1.1	-
2019년	23.8	36.3	29.1	10.8	0.1
2018년	34.3	26.9	26.2	12.4	0.3
2017년	38.5	27.2	22.5	11.1	0.8
2016년	33.8	27.0	27.0	12.2	0.2
2015년	23.3	33.9	29.3	13.3	0.2
2014년	27.4	33.9	27.4	10.9	0.4
2013년	33.1	27.7	26.2	12.8	0.2
2012년	35.8	27.3	25.3	11.2	0.4
2011년 ③	36.2	29.7	22.9	10.7	0.6
GAP(①-③)	7.6	-2.4	-8.3	3.5	-0.5

7.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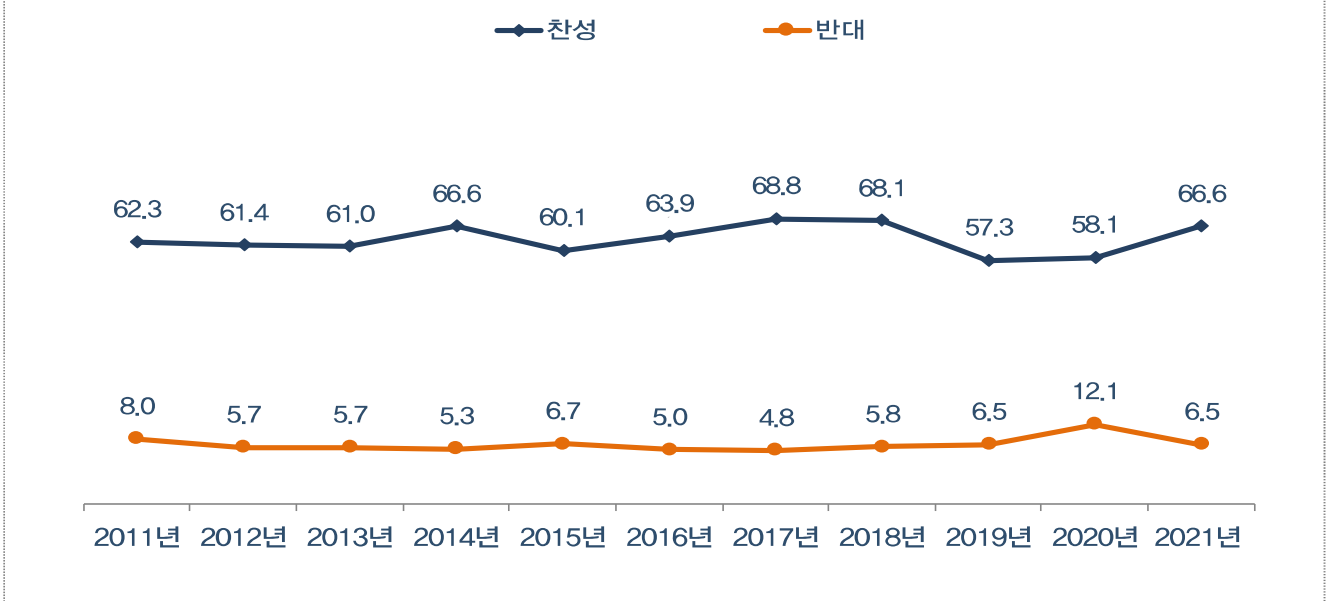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6.6%로, '반대한다'(6.5%)보다 60.1%p 높게 나타남.

● 2020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8.5%p 증가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찬성한다'는 응답은 4.3%p 증가함.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연도별 비교(단위 : %, %p)

구 분	찬성 ④	반대 ⑤	GAP (④-⑤)
2021년 ①	66.6	6.5	60.1
2020년 ②	58.1	12.1	46.0
GAP(①-②)	8.5	-5.6	-
2019년	57.3	6.5	50.8
2018년	68.1	5.8	62.3
2017년	68.8	4.8	64.0
2016년	63.9	5.0	58.9
2015년	60.1	6.7	53.4
2014년	66.6	5.3	61.3
2013년	61.0	5.7	55.3
2012년	61.4	5.7	55.7
2011년 ③	62.3	8.0	54.3
GAP(①-③)	4.3	-1.5	-

부록. 설문지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용)

ID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소는 안보관련 국내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1972년 설립된 국방부 산하 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지난 30년간 실시해 왔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33조에 의거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또한 분석결과는 오로지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안보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 김종철

연 구 기 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RINSA)

조사대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담당자 : 임덕성 팀장(☎ 02-3218-9642)]

- 응답자의 인적사항은 설문응답에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응답자에게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한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면접원	성 명		응답자 연락처	
	면접일시	2021년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 까지		

검증원	성 명		검증결과	

									응답란
▣ 지 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제주	
▣ 지역크기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 중.소도시			3. 군지역		

먼저, ○○님께서 면접할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SQ1. 성별은? 응답란

1) 남성 2) 여성

SQ2. 실례지만, ○○님의 연세(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 **만 18세 미만, 75세 이상은 면접 중단 (18세~74세까지가 조사 대상)**

다음은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안정적이다
2) 안정적인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안정한 편이다
5) 매우 불안정하다

문2.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문3. 귀하는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문4. 다음 항목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우선 순위대로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북한의 군사적 위협
2) 북한의 체제 불안
3)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4)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5)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6)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7)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8) 주변국 영토분쟁
9) 기타 (내용 기술:)

문5. 다음 항목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들 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국내 정치의 불안
2) 국내 경제의 불안
3) 사회 불평등의 심화
4) 국민 안보의식 해이
5) 반미감정
6) 불충분한 국방비
7) 이념갈등
8) 치안불안
9) 기타 (내용 기술:)

문6. 대외적으로 남북한 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1) 남북 교류협력 확대
2)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3) 한·미 동맹체제 강화
4)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5) 기타 (내용 기술:)

문7.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란

1)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2)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3)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4) 외국으로 가겠다
5) 잘 모르겠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응답란
1) 안보적 측면	1	2	3	4	5	
2) 경제적 측면	1	2	3	4	5	

문9. 만약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문10.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문11. 귀하는 **미래(5년 이후)의 우리나라와 다음 국가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문12. 귀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한·미 양자동맹 강화
2)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3)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4)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5) 한·중 양자협력 강화

문13. 귀하는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문14. 귀하는 **한·미·일 3국의 대북 관련 안보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모르겠다

다음은 한·미동맹 관계 및 주한미군, 자주국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5.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16.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2)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3)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4)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5)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6)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7)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전작권전환, 유엔사 역할 등)
8) 기타 (내용 기술:)

문17.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응답란
1)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군사 동맹을 보다 강화 하여야 한다	1	2	3	4	5	
2) 경제분야 갈등 해소, 과학 기술 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1	2	3	4	5	
3) 가치관 차이 해소 등 사회 문화 협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1	2	3	4	5	
4) 국제테러, 기후 변화 등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하도록 보다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문18. 귀하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19. 귀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2)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3)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4)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5) 기타 (내용 기술 :)

문20. 귀하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2)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3)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4)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5)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문21. 귀하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문22. 한국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방위비를 2021년 기준 1조 1,833억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많은 편이다
2) 많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은 편이다

문23.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우리나라가 훨씬 우위
2) 우리나라가 다소 우위
3) 비슷하다
4) 북한이 다소 우위
5) 북한이 훨씬 우위

문24. 귀하는 우리 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잘 모르겠다
4) 필요없는 편이다
5) 전혀 필요없다

문25. 귀하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우리 군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크게 감소할 것이다
2) 약간 감소할 것이다
3) 변화가 없을 것이다
4) 약간 증가할 것이다
5)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문26.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그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안정될 것이다
2) 다소 안정될 것이다
3) 변화가 없을 것이다
4) 다소 불안정해질 것이다
5)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문27. 귀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2) 돈독해질 것이다
3) 현재와 같을 것이다
4) 약화될 것이다
5) 더욱 약화될 것이다

다음은 북한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8. 귀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란

1)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2)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3)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문29. 귀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란

1)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2)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3)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문30. 귀하는 **향후 5년 내에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2) 안정적일 것이다
3) 보통이다
4) 불안정해질 것이다
5)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문31. 귀하는 **향후 2~3년 내에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1)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가능성이 높다
3) 보통이다
4) 가능성이 낮다
5)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문32. 귀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3) 보통이다
4)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5)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문33. 다음 사항 중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응답란

1)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2)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3)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5) 기타 (내용 기술:)

문34. 2018년 9월 19일, 우리나라와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귀하는 **이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잘 했다
2) 잘한 편이다
3) 잘못한 편이다
4) 매우 잘못했다
5) 잘 모르겠다

문35.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큰 위협이 된다
2)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문36. 귀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
2)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3)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4)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5)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하여
6) 기타 (내용 기술 :)

문37. 귀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6자 회담국 :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1)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2)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3)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4)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5)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6)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7)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문38. 귀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나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기타 (내용 기술 :)

문39. 귀하는 북한이 외교적 협상과정을 통해 **완전한 핵폐기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문40. 귀하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1) 1~2년 이내
2) 3~5년 이내
3) 5~10년 이내
4) 10년 이후
5)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문41. 귀하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2) 평시 전투임무 위주의 훈련 강화
3)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4) 대북 경협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정책의 확대
5)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6)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문42. 귀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1~2년 이내
2) 3~5년 이내
3) 5~10년 이내
4) 10년 이후
5)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문43.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후

문44.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2)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3)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4) 장기간 현상유지
5) 잘 모르겠다

문45. 귀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응답란

1) 적극적 의지가 있다
2) 의지가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의지가 없다
5) 전혀 의지가 없다

문45-1. 귀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2)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4) 통일은 불필요하다
5) 잘 모르겠다

다음은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46. 귀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인 **국민개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2)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3)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4)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5) 잘 모르겠다

문47. 귀하는 **현재 병무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병무부조리**: 병역과 관련한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예)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금품수수 등 병역 부조리를 저지른 경우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잘 모르겠다
4) 없는 편이다
5) 전혀 없다

문48. 귀하는 현재 군내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2) 잘 보장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문48-1(문48에서 4), 5)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는 **군내에서 인권 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2)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3)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4)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5)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
6) 기타 (내용 기술 :)

다음은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49. 귀하는 **우리 군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 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문49-1.(문49에서 '3)번과 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가 **우리 군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란

1)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
2) 국민과의 소통부재
3)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
4)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
5)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6) 잘 모르겠다

문50. 귀하는 **우리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응답란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문50-1. (문50에서 '3)번과 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골라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가혹행위, 사적제재 등)
2) 간부들의 도덕성
3) 간부들의 능력(전문성)
4)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
5)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미흡
6) 병 인사관리 불공정성(부대 배치 및 보직, 휴가 등)
7) 병무 부조리(병역 기피 등)
8) 예산 집행(무기 및 장비구입 등)
9) 군의 폐쇄성(정보 공개 제한 등)
10) 기타 (내용 기술:)

문51. 귀하는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52. 귀하는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기선정**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2)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3)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5) 잘 모르겠다

문53. 귀하는 우리 군이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효율적이다
2) 효율적인 편이다
3)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문54. 귀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2020년 기준 GDP 대비 2.6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2)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4)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5)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문55. 귀하는 국방비가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첨단무기체계 확보
2)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3)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4) 국방 연구/개발(R&D)
5) 기타 (내용 기술 :)

문56. 귀하는 한국의 향후 우리 군의 **병력 수(22년 기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아주 많다
2) 많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부족한 편이다
5) 아주 부족하다

문57.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긍정적이다
2) 대체로 긍정적이다
3) 별 영향 없다
4) 대체로 부정적이다
5) 매우 부정적이다

문58. 귀하는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 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계, 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59. 해외 파병은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그 특성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바, 이 같은 **위험이 있는 지역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1)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2)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
3)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
4) 잘 모르겠다

문60. 예비군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 승리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예비전력입니다. 귀하는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61. 귀하는 우리나라가 다음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응답란
1) 테러	1	2	3	4	5	
2) 해적, 마약, 조직범죄	1	2	3	4	5	
3) 자연재해	1	2	3	4	5	
4) 사이버 테러	1	2	3	4	5	
5) 감염병	1	2	3	4	5	

문62. 귀하는 우리 군이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의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63. 귀하는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64. 해외 재난, 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의 철수·구호를 위해 군 자산(수송기, 함정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국방부가 수행한 재외국민 보호활동의 예로는, '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수행, '18년 사이판 태풍 때 군수송기 지원, '19년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시 해난구조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1)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3) 군 자산은 전투상황에 대비하여 활용해야 하고 외국민 보호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4) 잘모르겠다

문65. 귀하는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고 계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야후, 네이버, 구글 등)
3) 일간신문
4) 국방일보
5) TV 방송 (KBS, MBC, SBS, 종편 등)
6) 국방TV (위성TV 채널 153)
7)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8)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9)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
10) 기타(관련 책자, 영상 등)

문66. 귀하는 다음과 같은 국방 홍보 매체를 알고 계시나요?

	예	아니오	응답란
1) 국방부 등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1	2	
2) 국방백서	1	2	
3) 국방일보	1	2	
4) 국방FM(라디오)	1	2	
5) 국방TV(텔레비젼)	1	2	
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1	2	

다음은 자료분류용 질문입니다. 통계적으로만 사용되오니, 해당되는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란

1) 중졸이하
2) 고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3) 전문대(재학, 중퇴 또는 졸업)
4) 4년제 대학교(재학, 중퇴 또는 졸업)
5) 대학원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응답란

1)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2) 자영업자(종업원 9명이하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주인, 개인택시운전사 등)
3)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4)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목공, 숙련공 등)
5) 일반 노무직(토목 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 중· 고 교사, 항해사 등)
7)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등)
9) 전업주부
10) 학생
11) 무직
12) 기타 (내용 기술:)

DQ3. 귀하는 군 복무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란

1) 예
2) 아니오

DQ3-1. **(DQ3에서 '1)' 응답자만)** 군 복무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복무를 하셨습니까?

응답란

1) 현역병
2) 부사관(하사관)
3) 장교
4)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5) 전환복무(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6) 대체복무요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7) 기타 (내용 기술:)

DQ4. 귀하의 가정은 생활 수준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상층
2) 중상층
3) 중간층
4) 중하층
5) 하층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면접원 기입사항---------

IQ1. 설문을 진행하는데 있어 응답자의 집중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응답란

1) 매우 집중함
2) 집중함
3) 보통
4) 집중 안함
5) 매우 집중 안함

IQ2. 설문 문항은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까?

응답란

1) 매우 쉬웠음
2) 쉬웠음
3) 보통
4) 어려움
5) 매우 어려움

IQ3. 설문 진행 시 응답 거부 또는 협조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응답란

1) 매우 협조적임
2) 협조적임
3) 보통
4) 거부함
5) 강하게 거부함